책을 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래 우리 나라 청년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축구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으면 우리 나라 축구를 얼마든지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릴수 있습니다.》

이 땅에 축구가 출현한 때로부터 성공과 실패, 환희와 눈물의 갈피속에서도 축구는 여전히 자기의 매력을 잃지 않고 축구애호가들과 수억만 세계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체육명수들을 배출하여왔다.

세계적인 축구명수들은 누구나 다 청소년시절에 불타는 열정과 피타는 노력으로 성공에로의 지름길을 든든히 다지였다.

금메달은 누구에게나 바란다고 차례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청춘을 불태우며 남모르는 탐구와 헌신의 구슬땀을 고이고고여 첨단에 올라선 강자들만이 안을수 있는 성공의 열매이다.

명성높은 축구강국을 향하여 축구열풍을 본때있게 일으키는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는 청소년들이 서야 한다.

출판사에서는 세계를 향하여 비약하는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푸르른 저 하늘가에 공화국기발로 떨쳐가려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달리고 또 달리는 우리의 축구선수들과 축구를 열렬히 사랑하는 나어린 축구애호가들의 열의를 적극 추동하는데 적으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계적인 축구명수들의 청소년시절을 서술한 이 책을 내보낸다.

책에서는 축구공과 함께 한생을 바쳐가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해진 이름난 축구선수들이 축구와 인연을 맺게 된 가지가지의 이야기들과 함께 축구에 대한 상식을 주고있다.

여러 나라의 자료들을 참고로 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철저히 주체적립장에서 보아주기 바란다.

차 례

상식 및 일화

《세계축구왕》- 뻴레

사람들은 묻군 한다.
지금까지 넣은 꼴들중에 어느것이 가장 멋있는것이였는가를.
나는 대답한다.
앞으로의 꼴!
다음번의 꼴!

—뻴레—

뻴레! 온 세상의 어른들도 아이들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다. 그 이름을 부르면 푸른 잔디우에서 마술사마냥 축구공을 몰고 꼴문으로 내닫는 열정적인 축구선수의 모습이 방불하게 떠오르고 경기장을 뒤흔드는 응원소리가 귀전에 금시 들려오는듯 하다.

《슛―꼴잉되였습니다. …》 하는 방송원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방금 울리는듯 마음은 축구공과 함께 달리게 됨을 어쩔수 없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20세기의 축구계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뻴레는 브라질에서뿐아니라 전세계가 다 아는 축구강자이다.

오늘날 브라질이라고 하면 뻴레부터 생각하고 축구라고 해도 뻴레를 맨처음 꼽는것은 례사로운것으로 되고있다.

남아메리카의 동부에 대서양을 면하고있는 브라질은 세상사람들속에 축구를 즐겨하는 나라로, 《축구왕국》으로 알려져있다.

축구는 브라질의 민족체육으로, 가장 대중화된 인기있는 상징체육종목으로 되여있다. 국기도 축구를 상징하여 만들었고 축구를 모르면 대통령으로도 출마할수 없다.

바로 뻴레도 이 나라에서 태여나 《세계축구왕》으로 이름떨치였으며 《축구대통령》으로 불리우는 국제축구련맹위원장도 24년동안이나 브라질사람이 맡아하였다.

년평균기온이 25℃로서 년중 더운 나라인 브라질에서는 1년 열두달 그 어떤 자연기후적영향도 받지 않고 축구를 할수 있다.

이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은 태여나서 걷기 시작하면 다 축구를 배우며 즐긴다. 뻴레의 어린시절도 축구를 사랑하는 수많은 브라질의 아이들과 함께 흘러갔다.

나에게 있어서 축구는 기쁨이다

뻴레는 1940년 10월 23일 브라질의 미나스 줄라스주 바우루시 프레스 꼰쏘니마을 흑인축구선수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가려보기 시작할 때부터 뻴레는 축구공에 흥미를 가지게 되였다. 유년시절 그의 눈앞에 펼쳐져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것처럼 느껴진것이 바로 축구의 세계였다.

그에게는 축구에 대한 남다른 취미와 소질이 있었다.

이렇게 되여 뻴레는 6살때부터 축구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축구는 기쁨이였다.

뻴레가 나서자란 꼰쏘니마을에는 여러개의 푸른 잔디밭이 있었다. 축구를 사랑하는 어린 소년들을 부르는 참으로 정다운 곳이였다. 뻴레에게 있어서 이 잔디밭은 축구와 인연을 맺은 생활의 첫 요람이였고 희망의 활무대였다.

뻴레는 언제나 이곳에서 하루해를 보냈고 날이 어두워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에야 집에 찾아들군 하였다.

바로 푸른 잔디밭에서의 축구놀이가 원인으로 되여 그의 이름도 뻴레라고 불리우게 된것이다. 뻴레라는 말은 뽀르뚜갈어로 《풀축구》라는 뜻을 담고있다.

그의 본명은 에디슨 아란떼스 나씨멘또이다.

아들이 남달리 축구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자 뻴레의 아버지 나씨멘또는 점차 그를 자기 뒤를 이어 축구선수로 키울 생각을 하게 되였다.

어느날 나씨멘또는 아들의 결심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그를 곁에 불렀다.

《아란떼스야, 너 진짜 아버지처럼 축구를 하겠니?》

《난 축구가 좋아요. 아버지처럼 축구선수가 될래요.》

뻴레는 아버지의 속생각을 알기나 한것처럼 사기가 나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내비쳤다.

《아란떼스야, 축구를 할바엔 잘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 쉽지 않단다.》

《아버지, 난 할수 있어요. 진짜공만 하나 꼭 사주세요.》

나씨멘또는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축구를 하자면 공부도 잘해야 한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수 없단다. 난 네가 공부를 잘하겠다고 약속하면 축구공을 사주겠다.》

《아버지도 공부를 잘해서 축구선수가 되였나요?》

《그렇지 않구. 아버지는 최우등생이였다. 하지만 공부를 더 할수 없었단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제대로 낼수 없었으니까.》

《왜 가난했나요. 일을 잘못해서 그랬나요?》

뻴레에게는 의문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아버지는 뻴레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브리질의 과거와 인종차별이 더해가는 오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던 뻴레는 말하였다.

《알겠어요, 아버지. 난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꼭 잘해서 훌

룽한 축구선수로 되겠어요. 약속해요.》

인종차별의 올가미를 걸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흑인아이들에게 있어서 축구는 가장 훌륭한 선택이였다. 축구만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였던것이다. 뻴레는 성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점차 깨닫게 되였으며 축구를 기쁨으로, 인생의 목표로 내세우고 축구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날 나씨멘또는 약속한대로 양가죽으로 만든 작은 축구공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섰다.

《아란떼스, 아버지가 축구공을 사왔다. 옛다, 마음껏 축구를 해보아라.》

《아버지, 정말 고마와요. 꼭 축구명수가 되겠어요.》

《그래야지. 아란떼스가 용쿠나.》

축구공을 받아안고 기뻐서 껑충껑충 뛰며 달려나가는 아들을 아버지는 흐뭇해서 바라보았다.

뻴레는 아버지의 유연하고도 건장한 체질을 그대로 닮았는지 지칠줄 모르고 뽈을 찼다.

잔디밭에서 공차기와 공몰기를 하던 같은또래 아이들이 맥이 빠져 주저앉을 때에도 뻴레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축구공을 굴리며 뛰여다녔다.

마을사람들은 풀밭에서 하루종일 뛰여다니며 축구를 하는 그를 보고 감탄하면서 뻴레(풀축구)라는 이름으로 정답게 불렀다.

뻴레의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아들을 푸른 잔디밭으로 이끌었다.

그는 아들을 축구선수로 키울 확고한 결심을 가진 다음부터는 훈련의 도수를 점차 높여나갔다. 직업팀선수로서뿐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뻴레에게 축구기술의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의 축구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뻴레의 축구기초기술습득에 필요한 훈련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들을 시범동작으로 차근차근 가르쳐주었다.

특히 축구선수가 갖추어야 할 례의도덕으로부터 심리, 축구기술용

어들과 진행방법, 규칙들에 이르기까지 축구지식을 넓혀주는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발로 공굴리기, 공방향바꾸기 등 축구기초기술과 함께 멈추기, 차기, 몰기, 빼앗기, 머리받기와 머리로 공멈추기, 속임동작 등 기본기술을 숙련완성시켜주기 위하여 요구성을 높였다.

《아란떼스, 그렇게 차는것이 아니다. 그때는 발안쪽으로 깎아차야 한다. 그래야 공이 회전한단다.

다시 해라. 될 때까지 다시…》

나씨멘또는 축구훈련을 지도하면서 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축구지식을 받아들이는것이 매우 흐뭇하였다. 그는 점차 신심이 생겼다. 그럴수록 아들의 축구교육에 더욱더 관심을 돌리였다.

○ 상 식 ○

축구는 가장 인기있는 상징종목

축구는 매우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히 보급되여 최대의 인기를 끌고있는 체육경기의 상징종목이다.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현대체육계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하고있는 인물순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본데 의하면 국제축구련맹 위원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앞서 제1위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이것 역시 축구의 인기와 관련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오늘날 뻴레나 마라도나와 같은 세계적인 축구명수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축구가 어디서 기원되여 유래되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 할수 없다. 고대그리스와 로마에서 성행하였던 공차기놀이에 기원을 두고있다고 하기도 하고 축구가 전쟁이 가져온 3대발명중의 하나라는 일화도 있다. 또 최근에는 에짚트가 축구의 모국이라고도 하고 뛰르끼예는 자기 나라가 축구창시국이라고도 하고있으며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축구운동이 기원됐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현대축구는 어디까지나 영국에서 시작되였다고 보는

축구라면 오금을 못쓰는 뻴레에게 있어서 축구는 최대의 기쁨이였고 생활의 전부였다.

그는 아버지의 높은 요구성에 자신의 열정을 보태며 시간가는줄 모르고 훈련하였다.

일요일이면 그들부자는 거의 하루를 풀밭에서 딩굴었다.

마을사람들은 그들의 열정에 탄복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였다.

《뻴레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는지 정말 신통하지. 풀밭을 떠날줄 모르누만. 풀축구라는 이름을 잘 지었어.》

《저 집 래력은 축구와 련관되여있는 모양이구만.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더니… 부자가 축구밖엔 모르는군. 공부할 생각

것이 공인된 견해이다. 왜냐하면 15세기말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축구(football)라는 말이 나왔기때문이다. 《축구》라는 말은 영어로는 《발공》이라는 뜻이며 우리 말로 풀어보면 《차기공》이라는 의미로서 결국 발로 공을 찬다는 말이다. 《발공》은 공을 다루는 인체의 부위를 가리키며 《차기공》은 공을 다루는 동작을 념두에 두고있는데 어느것이나 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오늘 세계적으로 2억 6 500만명의 직업선수 혹은 아마츄어선수들이 정상적인 축구활동을 하고있으며 그중 10%는 녀자축구선수들이다. 정기적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축구팀은 150만개에 달하며 축구구락부수는 30만개를 넘는다.

축구경기주심과 보조주심으로 활약하는 심판원들만 하여도 500만명을 헤아리고있으니 과연 축구야말로 체육종목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인 유엔성원국이 190여개이지만 국제축구련맹에 가입한 성원국은 208개이다. 결국 국제축구련맹은 유엔보다 더 많은 성원국을 거느리고 《축구정치》를 하고있는셈이다. 축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국제축구련맹은 매해 8월 20일을 《축구경기의 날》로 정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축구팀들간의 체육경기를 거의 동일한 시간에 성황리에 벌리고있다.

은 하지 않고… 흑인들은 글읽기를 천성적으로 싫어하는것 같아. …》
마을사람들의 뒤소리가 어떻든지 그들은 매일저녁 푸른 잔디밭에서 축구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착실히 진행하였다.
뻴레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축구교육과 자신의 열정에 넘치는 노력, 천성적인 특이한 유연성과 육체적기질로 하여 소년시기부터 뛰여난 꼬마축구선수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 학교에서는 물론 바우루시적으로도 제일 우수한 꼬마공격수로 소문나게 되였고 주에서 진행되는 축구경기들에 자주 참가하게 되였다. 하여 뻴레의 축구경기모습은 점차 축구전문가들의 눈을 끌게 되였다.
그가 15살 잡히던 1955년 7월 어느날이였다. 싼또스직업축구팀 감독 안또니오가 바우루시에 후비선수선발을 위하여 왔다.
안또니오감독은 날씬한 몸매에 머리가 짧은 흑인소년 뻴레의 축구훈련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그의 곁에 다가서며 물었다.
《뻴레, 축구를 좋아한다지?》
《예. 나에게 있어서 축구는 기쁨입니다. 나는 축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뻴레, 그러면 일생동안 축구를 해보겠니?》
안또니오감독은 뻴레를 기특하게 바라보며 웃으면서 물었다.
《하겠어요. 나이가 먹어두 할수 있다면 난 좋아요.》
《그러면 좋아. 나하구 싼또스팀으로 가자. 브라질에서 제일 세고 인기있는 팀으로 말이다.》
《그러면 아저씬 나를 데리러 왔나요?》
《그렇단다. 네가 축구를 잘한다고 소문났기에 너를 데리러 왔다.》
《야, 정말이지요. 아저씨, 난 당장 가겠어요.》
뻴레는 너무 좋아 콩당콩당 뛰였다. 그러면서 안또니오감독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천진스러운 뻴레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안또니오감독은 뻴레에게 약속하였다.
《이렇게 하자. 너를 데리러 후날 다시 오겠다. 훈련을 잘해라.》
풀축구—뻴레라고 불리우며 아버지로부터 배우기 시작한 뻴레의 축구는 높은 단계에 올라서는 길에 들어섰다.

하고싶어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는 법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약속대로 뻴레가 16살 잡히던 1956년에 싼 빠울로에서 싼또스축구구락부 감독 안또니오가 또다시 바우루시로 찾아왔던것이다.

그는 뻴레의 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나보았다.

《건강한가, 나씨멘또. 뻴레도 잘 있는가?》

《아니, 싼또스팀감독이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나씨멘또는 뜻밖에 찾아온 안또니오감독과 인사를 나누었다.

《자네 아들을 초청하는 싼또스팀의 초청장을 주려고 왔네.》

《그런가? 그런데 우리 뻴레가 아직 어리지 않을가?》

《념려말게. 뻴레는 우리 싼또스의 주인공으로 자랄거네.》

《안또니오, 감사하네.》

이튿날 뻴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안또니오감독과 함께 싼또스축구구락부로 떠났다.

싼또스축구구락부에서는 육체훈련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줄리엔 마젠감독이 뻴레를 맞이했다.

《뻴레, 우리 구락부에선 훈련강도가 대단히 높다.

축구선수는 육체적준비가 기본이다. 우리 구락부에 들어온다는건 하늘의 별따기야. 만일 육체훈련을 게을리하면 쫓겨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돼. 알겠니?》

마젠은 자기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협조로 말하였다.

《알겠습니다. 훈련을 열성껏 하겠습니다.》

뻴레는 기어이 축구명수가 될 결심을 품고 힘있게 대답하였다.

《좋아, 뻴레. 대답이 씨원하구만.》

16살의 흑인소년 뻴레의 직업적인 첫 축구생활은 이렇게 굳은 결심과 각오속에서 시작되였다.

아버지 나씨멘또는 아들의 축구를 위하여 싼또스축구구락부 가까이로 집을 옮겼다.

나씨멘또는 훈련장으로 나가는 아들에게 자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주었으며 아버지로서의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아란떼스야, 타고난 재능이란 없다.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려면 땀흘려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 바로 그 과정에 축구선수의 재능도 싹트고 기술도 완성된단다.》

《아버지, 명심하겠어요.》

뻴레는 진정 아버지가 고마왔다. 아버지의 높은 요구성에는 자기에 대한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었다.

《명심할건 훈련할 때 한동작한동작에 대하여 자기 머리로 사고하는것이다. 훈련속에서 기술동작을 완성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감독선생님의 전술과 지시대로… 알겠느냐?》

《예, 감독선생님이 하라는대로 할테예요.》

《좋아. 모든것이 네 결심과 실천에 달려있다.》

싼또스축구구락부에서 축구훈련의 하루하루는 자각의 땀과 땀으로 이어졌다. 뻴레는 언제나 훈련장에 남먼저 나와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갔다.

육체적훈련을 책임진 마젠감독은 자기의 요구성을 초월하여 훈련에 열중하는 뻴레의 수척해진 얼굴을 바라보며 은근히 근심을 하였다.

《뻴레, 오늘 개별훈련은 그만두라구. 늘 내가 준 훈련과제를 두배로 수행하누만. 훈련량을 좀 줄여야겠네. 그 나이에는 도리여 체력이 떨어질수 있어.》

《감독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전 일없습니다. 내가 하고싶어서 하는 훈련이니까요. 어려운 숨고비를 넘겨야 더 높은 새로운 목표로 올라설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네. 옳게 말했어. 뻴레가 어린줄 알았는데 생각이 깊단 말이야.》

마젠감독은 탄복하면서 뻴레의 생각을 긍정하였다.

언제나 말이 적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인 뻴레는 훈련부담과 강

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육체적준비를 완성해나갔고 자신의 의지와 자제력을 키웠다. 그는 훈련에서나 경기에서 란폭한 행동을 하는 선수들을 질색하였다. 그 어떤 경기정황에서도 뻴레는 상대편선수에게 란폭한 반칙동작으로 복수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뻴레는 끝없는 훈련의 나날 언제나 축구선수로서의 고상한 도덕품성을 키워나갔다.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 열렬한 희망과 포부를 안고 훈련에서 땀흘린 보람은 드디여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그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싼또스팀선수로 브라질국내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다.

브라질국내축구선수권대회는 싼 빠울로시의 20개 팀과 리오데 쟈네이로시의 12개 팀이 참가하는 련맹전경기였으므로 경기회수가 대단히 많았다.

국내축구선수권대회기간에는 1주일에 3경기씩 진행하였다.

당시 유럽나라들에서는 선수들이 1주일에 경기를 한번 하고도 피로회복이 잘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브라질축구련맹에서는 매해 6～7월부터 1주에 3경기씩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바로 세계축구선수권대회가 1주일에 3경기씩 진행되는것과 관련하여 그에 따르는 선수들의 육체적준비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뻴레의 하루일과는 매우 규칙적이였다.

뻴레는 국내련맹전경기기간에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가벼운 아침운동을 한 다음 간단한 아침식사를 하고 한고뿌정도의 커피를 마시였다.

그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축구선수로서의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결심과 노력에 의하여 일과생활을 계획하고 집행하였다.

국내선수권대회에서 뻴레는 꼬마축구선수라는 나이의 한계를 벗어나 빠른 속도, 능숙한 속임동작, 독특한 빼몰기, 정확하고 위력한 차넣기기술로 하여 브라질축구계와 애호가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항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효과적인 공격을 들이댈줄 아는 공격수, 꼴명수로서의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자 브라질축구련맹이 뻴레에 대하여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국회에서도 련맹위원장앞으로 추궁전화를 걸어왔다.

《축구련맹에서는 뭘하고있소? 뻴레라는 새 선수가 나타났는데. … 그런 유망한 선수도 골라잡지 못하는 감독들이 문제가 있소. 브라질에서는 확실히 축구감독문제가 걸렸단 말이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소. 좋은 선수들을 빨리 선발하시오.》

당시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축구는 감독이 걸렸다.》고 아우성치고있었다. 축구의 나라라고 하는 브라질이 그때까지 진행된 5차례의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 매번 참가는 하였지만 한번도 우승의 영예를 지니지 못한것도 감독문제때문이였다.

브라질의 축구전문가들과 축구애호가들은 《우리에게는 온전한 감독이 없다.》고 하면서 축구교육을 발전시키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항의까지 하게 되였다.

브라질에서 축구감독문제는 오랜 세월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켰고 국회에서까지 론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브라질의 력대 축구감독들은 거의 모두가 경험에 매달려있었지 지적능력에 의한 두뇌전을 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 상 식 ○

현대축구의 특징

축구경기에 대한 인기와 관심은 경쟁력의 전제조건이며 치렬한 경쟁력은 축구기술발전의 기본요구이다.

세계적, 국가적관심속에서 진행되고있는 축구는 오늘에 와서 직업화, 상업화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투자에 비한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고있다. 결국 축구발전에 대한 물질, 기술적토대가 확대강화되고 선수들에 대한 물질적자극이 높아져 축구기술의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축구를 《신축구》, 《현대축구》,

그러던중 1955년에 싼 빠울로팀이 국내선수권대회에서 새로운 경기대형과 전술적인 구상을 들고나와 국내선수권을 보유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브라질출판보도계의 강력한 여론과 브라질축구계의 주장에 의하여 싼 빠울로축구구락부 감독 비쎈트 페올라가 브라질축구종합팀 감독으로 추천되였다.

얼굴이 둥실하고 남보다 머리가 큰 페올라감독은 언제나 침착하고 두뇌가 좋으며 창조적주견이 강한 열정적이고 연구심이 많은 사람이였다. 그는 세계축구력사에서 처음으로 4—2—4 경기대형을 창조하여 국내축구선수권대회에서 성과를 올렸던것이다.

브라질국회의 조언과 브라질축구련맹의 결심에 의하여 비쎈트 페올라는 1958년 스웨리예에서 진행되는 제6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책임지고 준비할 브라질축구종합팀 감독으로 정식 임명되였다.

브라질당국과 축구련맹에서는 페올라감독에게 종합팀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조건과 재정적조건을 다 해결해주겠다고 담보하였고 종합팀의 구성과 모든 준비를 다그칠것을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페올라감독은 종합팀구성을 위한 선수료해사업에 착수

《리상축구》 등으로 각이하게 평가하고있다.

현대축구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축구경기의 본성적특성에 맞게 집단화에 바탕을 두고 치렬한 경쟁속에서 공격과 방어의 쉬임없는 교체, 높은 경기의식과 경기기술에 의한 기계와 같이 째인 조직력을 과시하는 속도경기라는것이다. 이것은 20세기 70년대에 창조된 《총체축구》의 계승이며 발전이다.

여기서 기본은 중간지대장악과 그로부터 수행되는 새로운 경기방식의 창조, 선과 선의 압축, 전술의 가변성과 능동성, 그로부터 초래되는 경기신축성과 률동적조치의 효과성이다. 이것으로 하여 현대축구는 모든 활동과정이 최대한 압박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것이다.

하였고 예비단계에서 40명정도의 선수를 선발할 결심을 내렸다.

바로 브라질축구계가 뛰여난 선수의 부족으로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 국내축구선수권대회 련맹전에서 나어린 축구선수 뻴레가 혜성처럼 나타났던것이다.

뻴레는 브라질축구종합팀 페올라신임감독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이길수 있다는 신심을 북돋아준 귀염둥이, 보배였다.

페올라감독은 싼또스팀의 동업자 안또니오를 찾아갔다.

《안또니오, 뻴레를 찾아낸 자네를 축하하네.》

《종합팀감독이 되더니 인사부터 달라졌는데.… 그래, 계속 사색속에서 살고있나?》

《그렇네. 4－2－4 대형은 브라질축구를 살리는 전술적방안이네. 이번에 스웨리예에서 꼭 성공시킬 결심이네. 잘 도와주게.》

《있는 힘껏 도와주어야지. 마음놓게.》

《안또니오, 국내축구선수권대회가 끝나면 뻴레를 종합팀에 보내주게나. 그 기간에 뻴레가 최종공격수로서 자기의 기술전술적 능력을 최대로 높일수 있게 특별한 주의를 돌려달라구.》

페올라는 안또니오의 사람됨을 알고있는지라 스스럼없이 부탁하였다.

《그래. 자넨 뻴레를 만나보지 않겠나?》

《꼬마축구명수를 만나보고싶지만 자네를 믿고 그냥 가겠네.》

《음, 그렇게 하세. 아직은 뻴레가 어리니까… 내가 요구성을 더 높이겠네.》

페올라와 안또니오는 서로의 믿음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며 헤여졌다.

다음날 안또니오감독은 하루훈련을 끝마치고 뻴레를 개별적으로 불렀다.

《뻴레, 래일부터 10번선수로 최종공격수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맡아할수 있게 훈련해야겠다. 중앙공격수로 최종공격도 조직해야겠구. 이건 내가 뻴레에게 주는 특별지시이니 무조건 해야 해. 알겠나?》

뻴레는 의아한 눈길로 감독을 바라보며 물었다.

《감독선생님, 왜 갑자기 팀의 승패를 판가리하는 중요한 위치에 나를… 난 아직 꼬마가 아닙니까?》

《하하… 우리 뻴레가 물러서려고 그러나?

만능축구선수가 되여야지. 꼬마이니 더 분발해야지. …》

안또니오감독은 호탕하게 웃으며 사실대로 말해주려다가 어린 나이에 들떠서 마음의 탕개를 늦출것 같아 그만두었다.

《알겠습니다, 감독선생님. 래일부터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뻴레는 대답하면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지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뻴레는 감독이 준 지시대로 최종공격수로서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하여 차넣기, 문전돌입, 단독빼몰기, 속임동작, 련락훈련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였고 2인결합조직과 유리한 위치선택, 자기팀에 가장 좋은 차넣기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협동훈련을 머리를 써가며 하였다.

안또니오감독의 전술적방안과 지시대로 뻴레는 맹렬히 훈련함으로써 국내선수권대회경기들에서 최종공격수로서의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다.

안또니오감독은 뻴레를 종합팀에 보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싼또스팀의 기둥선수로 키우기 위해서도 요구성을 부단히 높였고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뻴레, 왜 기민하게 련락하고는 속도를 늦추는가. 린접선수가 정확히 처리하건 못하건 속도를 늦춤이 없이 문전돌입하면서 항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지. 그래야 자기한테 공이 다시 오는 법이야. 알겠나?》

《감독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받기를 하기 전에 왜 주춤거리나? 성난 사자와 같이 맹렬히 달리며 조약해야 하네. …

그렇지, 속임동작이 좋아. 그다음에 빼몰기를… 린접선수에게 유리하면 안전한 차넣기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하네. 자네한테 2～3명이 끈질기게 붙어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상대편방어수가 2명 나타났다면 그땐 조급해하지 말고 린접선수

에게 련락해주게 공간이 생기거든. … 그 공은 영낙없이 꼴이네.》
뻴레는 안또니오감독의 기술적조언들을 깊이 새겨들었고 무조건 접수하였으며 경기정황에 따라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

뻴레거리

브라질축구련맹 전문가들속에서는 뻴레를 종합훈련에는 망라시킬수 있으나 제6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종합팀성원으로서는 너무 어리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브라질축구련맹 기술담당부위원장은 뻴레를 국가대표팀 성원으로 데려가겠다는 종합팀 페올라감독의 결심을 정면으로 반대해나섰다.
《페올라감독, 이제 16살나는 어린 선수를 어델 데리고간다고 그럽니까? 뻴레는 국제경기경험도 없고 아직 심리적준비도… 더구나 체격도 지금 한창 자라는 시기가 아닙니까.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의 우승목표를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고 경험이 풍부하고 나이든 로숙한 선수들을 한명이라도 더 데리고가시오. …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페올라감독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열변을 토하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이만 보고 뻴레를 어리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는 브라질종합팀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여는 꼴명수로 될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야 되겠지. 그러나 지금 형편에서는 그렇게 안되네. 경기장에 나가면 그래도 경험있는 선수가 자기 실력을 더 발휘하네. 뻴레는 나이가 어려서 경기담이 아직은…》
브라질축구련맹의 다른 기술일군들도 부위원장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뻴레를 종합팀성원으로 받아들이는것은 아직 이르다고 못을 박았다. 서로의 의견상의는 결속을 보지 못하고 심각한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페올라감독의 완강한 주장은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여 갔다.

결국 뻴레를 종합팀에 망라시키는가, 시키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브라질국회에까지 상정되였다. 축구종합팀구성과 종합훈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참가와 우승목표실현과 관련한 문제는 국사로 론의되였다.

브라질국회에서도 종합팀구성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달랐다.

특히 뻴레문제를 놓고 브라질축구련맹지도부의 의견과 페올라감독의 주장은 지지와 반대의 론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 명백한 계선이 그어지지 못하고있는 상태에서 1956년 국내축구선수권대회 최종결승경기가 싼 빠울로팀과 싼또스팀사이에 진행한다는 소식이 국회에까지 알려졌다.

국회의장은 휴식시간에 이 소식을 듣고 회의가 다시 시작되자 국회의원들앞에 자기 의견을 제기하였다.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싼 빠울로팀과 싼또스팀이 국내선수권대회 결승경기를 합니다. 여러 국회의원제씨들의 의견도 있고해서 휴회하고 나가보자는 의견입니다. 이 두 팀간의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종합팀의 기본선수들로 구성될것입니다. …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손을 들어주시오.》

국회의원의 70%가 손을 들었다. 그리하여 이 결승경기는 국회의원들과 축구련맹일군들, 축구전문가들과 론평원들, 축구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게 되였다.

싼또스팀에서는 전반전에 뻴레를 경기장에 내보내지 않고 후보선수석에 눌러앉혀두었다.

브라질축구련맹에서는 안또니오감독에게 후반전에는 뻴레를 경기장에 내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안또니오감독은 뻴레가 싼또스팀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선수이므로 후반전에 내보낼 결심을 하고있던차였다. 안또니오감독은 조용히 뻴레를 불렀다.

《뻴레, 교대준비를 해야겠다. 빠가오대신 나가라구. 대담하게 경기를 해야 하네. 전반전경기정황으로 보아 좌측돌입을 하게. 항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다음 속도를 멈추지 말고 차넣기를 직

접 해야 해. 믿네. …》
뻴레는 몸풀기를 하면서 감독의 지시를 명백히 받아들였다.
《절대로 주저하지 말게. 효과적인 공격을 들이대야 하네. 린접선수에게 가장 좋은 차넣기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속임동작과 빼몰기를 해야 하네. 유연하게.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알겠나?》
뻴레는 16살나이에 비하여 육체, 기술, 전술적으로 세련되고 숙성해보였다.
후반전에 뻴레가 경기장에 나타나자 마치 공연무대에 신인명배우가 출연한듯 관람석이 뒤숭숭하다가 그에게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뻴레는 싼 빠울로팀의 방어수들을 1m앞에 두고도 특이한 빼몰기기술과 능숙한 속임동작으로 돌파해나가며 자기 팀에게 차넣기기회를 마련해주군 하였다.
그는 2～3명의 상대편선수들을 마음대로 끌고다니며 속도있게 공을 몰고들어가 위력있는 차넣기로 상대편문전을 위협하였다.
경기장에서 최종공격수로서의 뻴레의 활동은 말그대로 매력적이였다. 경기마감시간을 앞둔 시각 뻴레는 싼 빠울로팀의 문전왼쪽으로 속도있게 돌입하면서 깎아차기를 하였다.
공은 마술사가 튕겨보내는 공처럼 싼 빠울로팀의 문지기앞에서 갑자기 회전하더니 방향을 바꾸며 문 왼쪽모서리로 들어가 보기좋게 그물에 걸렸다.
순간 싼또스팀 응원자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경기장이 떠나갈듯 환성을 올렸다.
《뻴레, 장하다!》
《뻴레가 제일이다!》
경기장주석단에 앉아있던 국회의원들과 축구련맹일군들도 뻴레의 경기모습에 경탄하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축구선수가 아니라 교예사야. 뻴레는 종합팀선수자격이 있네.》
《페올라감독이 뻴레를 옳게 보았네. 그의 주장이 옳았어.》

《뻴레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라고 자랑할수 있네. 누가 뻴레를 16살이라고 보겠나. …》

뻴레는 국내축구선수권대회경기들에서 56개의 꼴을 넣어 브라질 축구력사에 새 기록을 남기였다.

지난 시기의 기록은 싼 빠울로팀의 페이찌고선수의 46개의 꼴이였다. 그런데 뻴레는 그보다 10꼴이나 더 넣어 브라질축구계를 놀라게 한것이였다.

뻴레는 단연 브라질의 득점명수로 손꼽히게 되였다.

브라질국회의원들과 축구련맹일군들, 축구애호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페올라감독의 주장대로 뻴레는 브라질축구종합팀 선수로 선발되였다.

브라질TV방송과 출판보도물들은 17명의 국가대표팀 선수명단을 발표하였다.

뻴레의 아버지 나씨멘또는 선수명단에 들어있는 뻴레라는 이름이 자기 아들이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어떻게 브라질축구종합팀의 기본선수로 될수 있단 말인가. 나씨멘또는 의문을 품은채 뻴레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는 저녁늦게야 기쁨에 넘쳐 나타난 아들에게 다급히 물었다.

《아란떼스야, 종합팀명단에 발표된 뻴레가 네 이름이 아니겠지?》

《아버지, 바로 나예요. 이 뻴레란 말이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난 믿어지지 않는다. 그게 정말 너란 말이냐?》

《그렇잖구요. 안또니오감독이 보도를 듣고 직접 나에게 말해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종합팀으로 올라갈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뻴레의 어머니도 아들이 종합팀에 들어간것이 꿈만 같아 곱씹어 물으며 그를 그러안았다.

뻴레의 아버지는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 싱글벙글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고 해도 이제 겨우 16살인 너를 선발하다니… 나도 보도를 듣긴 들었지만 정말 믿기 어려웠다.

우리 집에 큰 경사가 났구나. 하하…》

아버지, 어머니, 누이동생들은 밤깊도록 뻴레를 축하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다음날 아침 뻴레는 종합팀으로 떠났다. 아버지는 떠나는 아들의 어깨우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타이르듯 말하였다.

《아란떼스야, 내가 늘 말하지만 축구에도 천재란 따로 없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 훈련이 축구천재를 낳는다.

훈련에 몸을 잠그고 남보다 땀을 더 많이 흘려야 성공한다.》

기차를 타고 리오데 쟈네이로에 가는 동안 뻴레는 아버지의 이 말을 다시한번 생각하며 가슴깊이 새겨넣었다.

역전에는 몸이 뚱뚱하고 인상좋은 페올라감독이 나와있었다.

《응, 왔구만. 우리 소년축구선수가…

뻴레는 우리 브라질종합팀의 기본주공을 담당하게 될걸세.

나는 꼬마명수를 제일 믿고있다네.

그러니 훈련도 잘하고 경기도 잘하자구.》

뻴레는 페올라감독의 믿음이 너무도 커서 어떤 대답을 할지 말마디를 찾지 못하였다.

페올라감독의 목소리만이 그의 심장을 쿵쿵 울리고있었다.

《나는 문전결속을 뻴레한테 걸고있어. 훈련을 잘해야 하네.》

다음날부터 뻴레는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종합팀의 훈련일과에 참가하였다.

그는 집체훈련이 끝나면 휴식없이 개별훈련에 달라붙었다.

공을 차도 사색하면서 기술전술훈련을 하군 하였다.

페올라감독은 자기가 창조한 4－2－4 경기대형을 브라질종합팀의 경기전술로 완성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다.

물론 축구력사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경기대형인것만큼 론쟁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패권을 잡으려는 페올라감독의 주장은 경기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전술적의도와 요구였으며 뻴레와 가린챠선수들의 결합에 의한 브라질종합팀의 경기결속을 이 전술로 하

는것이였다.

이 경기전술로 브라질종합팀은 1957년말까지 거의 1년동안 진행된 남아메리카 지역별예선경기들에서 대상팀들을 다 물리치고 단연 1등을 함으로써 1958년에 스웨리예에서 진행되는 제6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 본선경기 출전자격을 얻게 되였던것이다.

브라질대통령을 비롯한 정계인사들은 관례대로 스웨리예로 떠나는 종합팀선수들을 만나고 고무해주었다.

대통령은 커다란 기대를 담아 종합팀선수들앞에서 연설하였다.

《브라질사람들은 〈축구광신자〉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축구를 사랑합니다. 세계축구선수권대회때마다 브라질축구팀이 우승팀으로 되리라는 커다란 기대를 걸고 애를 태우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브라질축구는 매번 될듯말듯 하다가 감독이 걸려서 잘 안되였습니다. 페올라감독이 잘 지도하여 이번에는 꼭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사람들의 뜨거운 기대에 보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58년 6월 페올라감독이 이끄는 브라질축구팀은 스웨리예의 수도 스톡홀름에 도착하였다.

스웨리예를 비롯한 세계출판보도계는 이번 세계축구선수권대회가 유럽에서 진행되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서도이췰란드팀이 아니면 이딸리아나 프랑스팀들이 순위권을 다투게 될것이라고 광범히 예평하였다.

페올라감독은 유럽의 명수팀들에 대처할 잡도리를 단단히 하며 경기준비를 짜고들었다.

브라질팀은 제4조에 속하여 오스트리아, 잉글랜드, 이전 쏘련팀들과 조별예선경기를 하게 되였다. 드디여 경기가 시작되였다.

첫 경기에서 오스트리아팀을 3:0으로, 이전 쏘련팀을 2:0으로 타승한 브라질팀은 마지막예선경기에서 잉글랜드팀과 0:0으로 비기고 조에서 1등으로 준준결승경기에 올라갔다.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뻴레와 가린챠의 2인결합전술은 그 어느 나라팀의 방어수들도 막아낼수 없는 치차와 같이 맞

물리는, 마치 마술사와 같은 위력한것이였다.

꼬마축구선수로, 후보선수로 이 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17살난 뻴레는 훌륭한 육체적준비, 높은 속도와 손색없는 경기활동력, 독특한 빼몰기와 문전돌입, 강한 차넣기기술로 하여 기본주공격수로 주요경기들마다에 나섰으며 경기장의 관심을 모으는 인기선수로 세계축구계에 출현하였다.

준준결승경기에서 웨일즈팀을 1:0으로 이기고 준결승경기에 올라간 브라질팀은 프랑스팀과 대결하였다.

경기는 치렬하였다.

브라질팀은 4—2—4 대형의 공격서렬에 뻴레, 가린챠, 디디, 바바선수들을 배치하고 첫 꼴을 넣었다. 그러나 프랑스종합팀은 고바선수와 퐁뗀선수들의 2인결합으로 동점꼴을 만들었다.

이때 다행히도 기세좋게 나가던 프랑스팀의 방어진영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전반전 37분만에 유능한 방어수 죤게선수가 부상당하였던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뻴레선수가 3알 그리고 다른 선수가 1알을 더 획득함으로써 5:2로 브라질팀의 승리로 끝났다.

뻴레의 마술사와 같은 공몰기기술과 깎아차기를 비롯한 정확하고도 위력있는 차넣기기술은 유럽의 축구애호가들을 놀라게 하였다.

마침내 6월 29일 브라질팀과 스웨리예팀과의 최종결승경기가 진행되였다.

경기를 앞둔 스톡홀름의 로즌다경기장은 전날부터 비가 내려 경기하기에는 조건이 매우 불리하였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은 스웨리예응원자들의 열광적인 응원으로 하여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뻴레는 가린챠와 바바선수와의 2인결합을 서로 교차하여 진행하면서 주동적으로 공격에 참가하였다.

전반전 4분만에 스웨리예팀 주장 라이드 홀름선수가 2명의 방어수들을 뚫고 낮게 그리고 강한 차넣기로 브라질팀 꼴문 오른쪽구역에 득점을 성공시키였다.

순간 경기장은 《와와－》 함성소리로 드높았다.
과연 어느 팀에 월드컵이 차례질것인가.
그러나 브라질팀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였다.
드디여 브라질팀의 가린챠선수가 재치있는 빼몰기로 방어수를 유인하고 넘겨차기한 공이 바바선수의 차넣기로 이어지면서 동점꼴이 되였다. 형세는 바뀌여졌다.
꼴문의 분화구를 터친 브라질팀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활발한 움직임, 신기할 정도로 조화가 잡힌 브라질팀 선수들은 마술사와 같은 매력적인 축구기술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또다시 가린챠선수로부터 바바선수에게 넘어간 공이 드디여 뻴레선수에게 넘어갔다. 순간 스웨리예팀의 키 큰 방어수들속에 둘러싸이여 경기를 하던 뻴레선수의 환상적인 꼴장면이 펼쳐졌다.
…당시 168㎝의 키를 가진 17살의 뻴레에게 왼쪽측선에서 높은공이 날아왔다. 뻴레는 스웨리예꼴문앞에서 오른쪽무릎으로 그 공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가까이 다가서는 방어수를 빼돌리며 왼쪽으로 슬쩍 빠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앞으로 또 한 선수가 접근해왔다. 순간 뻴레는 마치 교예사와도 같이 그의 머리우로 공을 띄워넘긴 다음 재빨리 그를 돌아가 떨어지는 공을 놀라울 정도의 강슛으로 스웨리예꼴문에 차넣었다.…
참으로 환상적인 꼴장면이였다.
그는 꼴문앞의 방어밀집지대에서 한번도 땅에 떨굼이 없이 능숙하게 공을 다루어 득점을 마련하였던것이다.
다음에는 브라질종합팀의 싸갈로선수와 다른 선수가 각각 한꼴씩, 뻴레가 머리받기로 또다시 득점을 하여 득점수는 5:1로 되였다.
경기마감을 앞두고 스웨리예의 씨몬쏜선수가 한꼴을 회복하였지만 수만명의 관중들은 브라질팀 선수들의 기교적인 축구기술에 그만 취하고말았다.
결국 최종결승경기는 5:2로 브라질종합팀의 승리로 끝났다.
결승경기를 직접 경기장에 나와 관람한 스웨리예국왕은 자기 팀의 승리를 바랐건만 브라질팀에 《쥴리어스 리멧컵》을 수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계출판계는 뻴레선수에 대한 기사에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교예적인 공격수, 위력한 차넣기, 기민한 련락, 멈춤없는 속도, 공중전에서 코브라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머리받기명수이다.》

브라질팀의 세계축구선수권보유에 대한 소식은 출판보도계의 전파를 타고 대양건너 브라질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브라질축구력사에 처음으로 되는 이 승리는 브라질사람들이 28년동안 고대하고 고대하던 경사였다.

☆ 일 화 ☆

국왕의 성의를 거절한 《축구왕》

자기 나라가 세계축구선수권을 3번 보유하는데 기여한 축구명수는 세상에 아직까지 뻴레 한사람밖에 없다.

축구로 하여 뻴레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인물로 되였다.

그에게 초청장을 보내온 나라수는 지금까지 80여개나 된다. 무려 60여개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고위인사들이 그를 만나보았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절찬을 안겨주었고 분에 넘치는 환대를 해주었다.

그가 사우디 아라비아국왕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우디 아라비아국왕으로 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즐겨하는 장기놀이까지도 《왕을 잡기 위한 경기》라고 하면서 금지시킨 사람이였다. 그러나 《축구의 나라》라고 알려진 브라질을 비롯하여 축구강국들의 이름난 선수들과 감독들을 초청하여 축구기술을 배우는데서는 누구보다 극성이였다. 그러한 국왕에게 있어서 《축구왕》—뻴레는 국빈중의 국빈이였다.

국왕은 왕궁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뻴레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축구왕〉을 만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비록 왕으로 불리우지만 국왕은 한개 나라의 왕일뿐입니다.

브라질의 남녀로소모두가 거리와 거리들에 떨쳐나와 기쁨과 환희에 휩싸여 환성을 올리면서 들끓었다.

1950년 자기 나라에서 진행된 제4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 최종결승경기에서 우루과이팀에 패하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눈물을 흘리던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이 오늘은 도시와 마을의 거리와 거리마다에 떨쳐나와 춤추고 노래부르고있는것이다.

항구도시 리오데 쟈네이로비행장에서부터 시내중심까지에 이

그러나 〈축구왕〉은 세계적인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 뻴레선생, 사양하지 마시고 많이 드십시오.

제 오늘은 뻴레선생의 수하가 되여 접대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나라의 특산인 락타발통료리입니다.》

국왕은 제손으로 맛있는 료리접시들을 뻴레의 앞으로 옮겨놓으면서 음식자랑을 덧붙이는것을 잊지 않았다.

《이 료리는 사람의 원기를 왕성하게 해주고 힘살이 잘 발달하게 해주지요. 축구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영양료리로 될것입니다. 어서 많이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사람의 몸을 내는데도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잖구요. 아주 좋은 영양강장제이기도 합니다.》

국왕은 흡족하여 말하였으나 뻴레는 료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

쉽지 않는 료리를 거절하는 그를 두고 의아해하는 국왕에게 뻴레는 이야기하였다.

《극진한 환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몸질량을 달아보고 70㎏을 넘으면 그날 훈련을 100g당 무조건 30분씩 연장하여 본래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1㎏만 늘어도 5시간을 더 훈련해야겠으니 어떻게 제가 국왕님과 만나는 시간을 짜낼수 있겠습니까. 성의는 고맙습니다만 이 료리를 사양할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축구를 위해 이 훌륭한 료리를 사양하시는군요. 말하자면 인류를 위한 거절이군요.… 국왕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인류의 한 성원으로서 〈축구왕〉앞에 머리가 숙어집니다.》

르는 연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모여온 1 500만명의 축구애호가들이 브라질팀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브라질대통령은 비행장에까지 나와서 선수들을 맞이하였고 대통령궁전에서 선수들을 직접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을 민족의 아들로 평가하는바입니다.

뻴레와 가린챠, 페올라감독이 특히 잘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우승컵을 다음번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도 꼭 다시 쟁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뿔은 단김에 빼라구 련속 세계축구선수권보유를 세번 하여 이 순금으로 된 〈쥴리어스 리멧컵〉을 완전히 브라질의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젊은 뻴레선수가 이 영예로운 과업을 앞장에서 수행해주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3일간의 휴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함께 경축하게 하였다.

뻴레가 나서자란 바우루시의 축구애호가들과 사람들은 고향의 자랑인 그에게 호화주택과 승용차를 안겨주었다.

바우루시 행정부는 뻴레가 살던 거리이름을 《뻴레거리》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뻴레거리의 간판에는 《뻴레. 세계축구선수권보유자, 17살》이라는 글자를 박아넣었다.

17살에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팀 선수로 참가하여 선수권을 쟁취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고 금메달을 받은 축구선수는 세상에 오직 뻴레 한사람밖에 없다.

뻴레는 물론 사람들의 기대대로 그후에 진행된 3차례의 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쥴리어스 리멧컵》을 《축구왕국》 브라질의 영원한 소유로 만드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축구왕》으로 력사에 남게 되였다.

《세계축구의 별》-디에고 마라도나

키가 작다고 남보다 힘이 약하거나 속도가 떨어질 리유는 없다.

축구경기를 누가 더 잘하나 두고보자.

축구훈련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꼭 축구로 성공하리라.

—디에고 마라도나—

훌륭한 축구기술로 아르헨띠나축구와 세계축구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세계축구의 별》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디에고 마라도나!

마라도나에 대한 세계의 축구전문가들의 견해와 평가는 대단한것이다.

전 국제축구련맹 위원장 하벨랑케는 《축구와 축구기술의 각도에서 보면 마라도나와 같은 인재는 나타나지 못할것이다. 그는 영원히 후세들의 본보기로 될것이다.》라고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싸마란츠는 《축구선수가 되려면 마라도나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나는 그를 축구선수로서 존경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축구거장》인 벡켄바우어는 《비록 마라도나가 축구계에서 은퇴하였지만 그는 영원히 축구경기장에 있으며 그의 성과는 누구도 따를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전 아르헨띠나축구종합팀 책임감독 빌라르도는 《한명의 마라도나가 두명의 뻴레와 맞먹는다.》고 평하였으며 아르헨띠나보도계는 《마라도나, 그는 곧 축구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계축구왕》 뻴레는 《나는 마라도나와 비교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와 마라도나는 축구뿐아니라 생활에서 서로 다른 형의 인간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축구명수로 세계의 찬탄과 평가를 받고있는 마라도나의 축구인생을 빛나게 장식해준것은 축구와 더불어 흘러간 청소년시절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무서운 야심

디에고 마라도나는 1960년 10월 30일 아르헨띠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교외의 리누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여났다.

8형제의 맏아들로 태여난 마라도나의 가정은 매우 가난하였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10㎞가량 떨어져있는 양모공장의 로동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터밭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었다.

마라도나는 어려서부터 축구에 대한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늘 누데기옷을 걸치고 기운 공을 차군 하였다.

하지만 축구에서는 그를 따를 아이가 없었다.

가난한 가정의 그늘속에 묻혀있던 그의 축구재능을 발견한 사람은 프란씨스꼬 꼬르네흐라는 은행원이였다.

꼬르네흐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제브지다스소년축구팀을 만들고 그곳에서 한다하는 축구신동들을 선발하고 육성하여 아르헨띠나소년축구종합팀에 보내군 하였다.

꼬르네흐의 소개로 이 팀에 들어간 마라도나는 한모금의 코카콜라,

한쪼각의 과자를 얻기 위해 정신없이 축구경기들에 참가하군 하였다.

마라도나가 제브지다스소년축구팀에 들어온 후 이 팀은 1973년까지 140번의 경기를 하여 한번도 패한적이 없이 주대회들에서 모두 우승하였다.

마라도나는 벌써 9살때 공다루기와 공몰기가 특이하여 사람들로부터 《전도유망한 축구선수감》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12살에는 국가소년축구팀에 망라되였으며 15살에는 아르헨띠나에서도 손꼽히는 보까 쥬니어구락부에 들어갔다.

그는 키가 크지 않았지만 몸이 다부지고 힘이 세고 속도가 빨랐으며 이악하고 끈질긴 성미여서 어려서부터 남에게 뒤지기 싫어하였다. 마라도나는 남달리 강한 승벽심을 가지고있어 친지들에게서도 야심가로 불리웠다.

특히 축구훈련과 경기에서는 언제나 양보를 몰랐으며 앞자리를 차지해야만 만족해하였다.

1977년 루이스 메노찌감독은 다음해에 아르헨띠나에서 진행하게 되는 제11차 월드컵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전국적으로 80명의 선수들을 선발하여 종합훈련을 시켰다.

바로 이 종합훈련에 망라된 마라도나는 그중 제일 어린 축구선수였다. 그는 최종선발에 꼭 들어가리라 결심하고 힘과 지혜, 정열을 다 바쳐 낮에 밤을 이어 훈련에 열중하였다.

메노찌감독도 나어린 마라도나의 축구열정에 탄복하였고 그의 훈련모습을 볼 때마다 매우 감탄하군 하였다.

하여 80명을 25명으로 줄일 때에도 나어린 마라도나만은 종합팀훈련에 망라시켰다.

마라도나는 그해 유럽원정경기에서 마쟈르종합팀과 대전할 때 경기시간 20분만에 아우스만이 넘겨준 공을 단번차넣기로 득점시켜 메노찌감독을 기쁘게 하였다.

마라도나는 아르헨띠나축구종합팀의 최종선수명단이 발표되는 날까지 그 누구에게도 뒤질세라 이를 악물고 구슬땀을 흘렸으며 극한점들을 이겨내면서 훈련과 경기에 정열을 다 쏟아부었다.

드디여 1978년 4월초 제11차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할 종합팀 최

종선수명단이 발표되는 날이 왔다. 말하자면 25명중 17명의 선수를 뽑는 순간이였다. 누구나 다 심장을 조이는 순간이였다.

메노찌감독이 17명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마라도나를 비롯한 8명의 선수들은 명단에 없었다.

《종합팀에 망라된 17명의 선수들은 래일부터 훈련을 계속하고 나머지선수들은 자기 팀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순간 커다란 수치감과 모욕감이 마라도나를 휩쌌다. 그는 얼굴이 벌개서 까만눈을 내리깔고 앉아있었다.

종합팀에 정식 망라된 선수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회의실에서 나가고 종합팀에서 제외된 선수들만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머리를 숙인채 하나, 둘 회의실에서 나

○ 상 식 ○

청소년성장발육의 특징과 축구선수선발

사람의 일생에서 성장의 고조기는 두번 나타난다. 첫번째 고조기는 출생후 1살까지의 기간이며 두번째 고조기는 청소년시기이다.

결국 인체의 성장발육이 끝나는 시기는 개별적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8살 전후이다.

청소년시기에 사람의 키는 일반적으로 1년에 7～8㎝, 최고 12～14㎝까지 자라며 몸질량은 대체로 5～6㎏, 최고 8～10㎏까지 늘어난다.

인체의 생리, 생화학적기능의 완성정도에 따라 체질적요소들의 발달과정은 일련의 법칙성을 띤다.

힘은 청소년후반기에 빨리 세지며 35살정도에서 안정된다.

속도－힘은 남자는 12～15살, 녀자는 13살때 빨리 커지게 되며 남자는 17살, 녀자는 15살에 안정된다.

반응속도는 남, 녀 각각 9～14살사이에 빨리 커지여 16살에 안

갔다. 그러나 마라도나만은 두손바닥으로 턱을 고인채 걸상에서 일어설줄 몰랐다.

드디여 텅빈 회의실에 혼자 남은 마라도나는 얼굴을 떨구고 흐느껴울기 시작하였다. 생각할수록 울분이 치밀어올랐다.

마라도나는 이것이 다 루이스 메노찌감독의 처사라고만 생각하였다. 철이 들기 시작하여 가슴아픈 일을 당해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였다.

그는 《엉엉—》소리를 내면서 울고 또 울었다.

마라도나는 자기와 같이 보까 쥬니어팀에서 온 뜨로쎄로가 회의실에 다시 찾아들어왔을 때에야 울음을 그치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정되며 인내성은 남자는 12～16살, 녀자는 11～13살에 발달되기 시작하여 남, 녀 각각 18～19살에 안정된다.

속도는 청소년시기에 충분히 발달시킨 기초우에서 남자는 4～5%, 녀자는 7～8%정도 발달된다.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을 정상발육, 조기발육, 만기발육으로 나누어볼수 있는데 청소년체육선수의 86.7%가 정상발육, 8.2%가 조기발육, 5.1%가 만기발육된다고 보고있다.

체육전문가들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수한 선수로 되는 비률이 제일 높은것은 정상나이에 발육이 시작되여 고조기가 오래 지속되는 형으로서 그것이 66.7%를 차지한다.

다음 정상나이에 발육이 시작되여 고조기가 짧은 형과 고조기가 길어지는 형태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률은 각각 11.1%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축구선수선발에서는 고조기가 될수록 오래 지속되는 류형이 좋다.

《마라도나, 가자구. 우리야 나이가 어리다고 빼놓았겠지. …
내가 택시를 부르겠네. 당장 가자구.》
그러나 마라도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회의실에서 나왔다.
종합팀숙소 앞마당에서는 축구련맹서기장 쓰쩨빠노와 감독 메노찌가 앞으로의 종합팀의 훈련문제를 가지고 손짓을 써가며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메노찌감독은 기분이 상하여 울상이 된 마라도나가 회의실밖으로 나오는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겼는지 자기곁으로 불렀다.
《디에고 마라도나, 이리 좀 오게.》
마라도나는 그자리에 버티고서서 매서운 눈초리로 메노찌감독을 뚫어지게 바라볼뿐 움직일줄 몰랐다. 그러자 메노찌감독이 그에게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몹시 섭섭한 모양이구만. …아직은 일없어.
락심말고 훈련을 더 잘하라구.》
《감독선생님, 왜 제명했습니까? 나를…》
《국가종합팀엔 아직 너무 어리다.》
《어린것이 축구경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지. 왜 없겠나. 키도 좀 커야겠다.》
마라도나는 키소리가 나오자 자기의 큰 약점을 찔리운듯 이번엔 성을 내면서 말하였다.
《감독선생님, 키와 축구경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키가 작다고 못하는게 무엇입니까?…》
《마라도나, 그러지 말고 훈련이나 더 잘하라구. 그리고 국내련맹전경기에도 더 열성적으로 참가하구. …앞길이 구만리같은데. …조급해말라구.》
메노찌감독은 마라도나와 더 말했댔자 볼부은 소리밖에 들을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점잖게 이야기하고는 발길을 돌렸다.
그는 마라도나가 비록 기술도 좋고 육체적준비도 괜찮지만 아직은 나이가 적어 심리적준비가 약하고 경기경험도 부족하여 나이지긋한 로장선수들과 보조를 맞출수 없다고 인정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마라도나로서는 제딴에 메노찌감독이 자기의 축구기술은 보지 않고 키와 나이나 보는 그 처사가 야속하게만 여겨졌다.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있던 마라도나는 축구련맹서기장과 종합팀감독이 승용차를 타고 사라진 뒤에야 어깨를 떨구고 자기 방으로 향하였다.

자기 방에 들어간 마라도나는 트렁크를 열어놓고 자기의 옷과 소지품들, 세면도구들을 마구 쑤셔넣었다. 그리고는 방을 한바퀴 휘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기타를 벗겨쥐고 트렁크를 든 다음 체육복바람으로 밖으로 나왔다. 같은 처지가 된 뜨로쎄로가 가방을 둘러메고 마라도나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이 마당에서 아무말도 없이 서로 제 생각에 잠겨 서성거리고있는데 뜨로쎄로가 부른 택시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라도나와 뜨로쎄로는 자기들을 바래주러 나온 종합팀선수들과 말없이 눈인사를 나누고 택시에 올랐다.

승용차가 종합팀숙소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마라도나는 마음이 허전하고 무엇인가 잃어버린감을 다시 느꼈다.

제구실을 똑바로 못하여 축에 들지 못하고 쫓겨가는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니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고 분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억실억실한 까만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있었다.

마라도나는 이를 악물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축구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고야말리라는 마음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의 어린 가슴속에는 아르헨띠나의 모든 축구선수들을 다 압도하리라는 무서운 야심이 불타올랐다.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품고나니 그는 왜 그런지 부끄럽거나 주저하던 감정이 온데간데 없어진것만 같았다.

그는 얼굴을 들고 앞을 내다보았다.

차창밖으로 내다보이는 부에노스 아이레스교외의 드넓은 초원과 잇닿은 맑은 하늘이 가슴뿌듯이 안겨왔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배은망덕

악몽으로 느껴지던 종합팀선수발표의 날, 마라도나는 그날밤을 집에서 보냈다. 아버지, 어머니, 누이동생들과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진정에 넘친 이야기로 꽃을 피운 마라도나는 아침일찍 자기가 속해있는 보까 쥬니어축구구락부 훈련기지로 떠났다.

부에노스 아이레스교외를 벗어나 라쁠라따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훈련기지는 공기도 좋고 풍치도 아름다운 휴양지를 방불케 했다.

감독 까르닐라와 선수들이 마라도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종합팀선수명단을 다 알고있었던 까르닐라 감독은 마라도나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은채 훈련지시만 주었다.

《마라도나는 이제부터 최종공격수로 활약해야겠소. 우리 팀의 기본주공이요. 꼴을 넣어야 하오. 알겠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선생님!》

마라도나는 종합팀구성에서 자기를 단호하게 제명시키던 메노찌감독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눈물이 글썽해서 대답했다.

《훈련을 잘해야겠소. 공격수구실을 잘못하면 여기서도 마라도나를 내보내겠소. …》

까르닐라감독은 얼굴에 웃음을 환히 담고 롱담을 섞어가며 말하였다. 마라도나를 각성시킬 심산이였다.

마라도나는 자기 감독의 요구성을 충분히 리해했는지 히죽이 웃으며 아무말없이 머리만 끄덕이였다.

다음날부터 그는 누구보다 일찌기 훈련장에 나갔고 제일 늦게 들어왔다.

그의 가슴속에는 야심의 무서운 파도가 일었고 승벽심이 불탔다.

하루의 기본훈련이 끝나면 개별훈련을 계속하였다. 그는 20개의 축구공을 넣은 그물주머니를 메고 축구훈련장의 문대로 나가 장애물을 5개씩 지그자그로 세워놓고 어둠이 깃들 때까지 빼몰기와 차

넣기훈련을 하였다.
맹렬한 훈련을 들이대면서도 마라도나에게는 커다란 근심이 있었다. 그것은 키가 자라지 않는것이였다.
마라도나에게 있어서 안타까움이란 이것이 전부였다.
하기에 마라도나는 책에서 키크기에 좋은 운동방법이 나오면 그대로 키크기운동을 해보군 하였다.
그러나 17살때의 마라도나의 키는 165㎝였다.
(나는 왜 아버지만큼이라도 키가 크지 못할가. 키만 컸더라면 종합팀에 들어갈수 있었겠는데…
만일 나의 키가 크지 못한다면 축구선수로 전망이 없단 말인가. 아무리 봐도 나는 력기선수체격이거든. …)
마라도나는 키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렇다고 하여 축구를 버릴 생각은 꼬물만치도 없었다.
그는 몸질량을 늘구고 힘을 자래우면 작아도 키 큰 선수들과 얼마든지 맞다들어 이길수 있다는 생각으로 구간운동, 철봉, 평행봉운동에 열중하였다.
그러면서도 키크기에 대한 미련이 떠나지 않아 특목운동, 롱구, 배구도 부지런히 하군 하였다.
어떤 때에는 자기 몸통을 머리와 다리쪽으로 서로 당겨봤으면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하군 하였다.
그러나 키크기운동을 하면 할수록 마라도나의 체격은 력기선수처럼 가슴이 쩍 벌어져갔고 어깨가 넓어지면서 허벅다리와 종다리도 굵어졌다.
마라도나는 체격이 어떻든, 키가 어떻게 되든말든 축구기술과 육체적준비만 특수하게 좋으면 그 어떤 상대방도 다 압도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빼몰기와 차넣기훈련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부단히 위치를 변경시키면서 통나무를 문대앞에 세워놓고 깎아차기훈련을 하였으며 통나무를 자기앞에 가까이 세워놓고 왼발로 발등안쪽깎아차넣기훈련도 하였다.
사실 마라도나는 메노찌감독에게서 당한 《수치감》과 《모욕

감》이 잊혀지지 않았고 날이 감에 따라 더 커지는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것을 그는 축구훈련으로 《위로》하고있었던것이다.

한편 아르헨띠나에서는 1976년에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국내의 진보적세력들은 군사정권을 반대하여 일어났고 경제적으로는 인플레로 팽팽한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78년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11차 월드컵경기대회가 아르헨띠나에서 진행되였다.

이 경기대회에서 메노찌감독이 이끄는 아르헨띠나축구종합팀은 완벽한 축구기술과 《터세》의 덕분으로 이 경기대회에 참가한지 48년만에 처음으로 세계선수권을 쟁취하였다.

아르헨띠나전국은 2～3일간 명절분위기에 휩싸여 기쁨과 감격으로 들끓었고 밤이 지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잠시나마 군사정변의 소용돌이와 인플레에 의한 시달림도 잊은듯하였다.

마라도나는 네데를란드팀과의 최종결승경기를 직접 보면서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이 꽉 들어찼다.

☆ 일 화 ☆

《하느님의 손》에 대한 사죄

48살이 되여오는 2008년초에 마라도나는 4일간의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하였다. 영국땅에 들어서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22년전 제13차 메히꼬월드컵경기대회에서 잉글랜드팀과의 경기때 손으로 뽈을 쳐서 득점한 생각이 떳떳치 못한 추억으로 떠올랐다.

이번에 영국사람들이 분명 이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진실을 감추고 그저 《하느님이 넣은 꼴》이라고 하면서 정색하여 부정하군 하였다. 그러나 이 기회에 성근하게 사죄하

(나도 종합팀에 망라되였더라면 18살에 세계선수권보유자로 되였을걸. …메노찌감독이 종합팀에서 내보내지만 않았다면…)

그는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그길로 훈련장을 찾았다. 마음속으로 종합팀에 망라된 로장선수들을 릉가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리라 속다짐하면서…

제11차 월드컵경기대회가 끝난지 3달이 되던 10월 어느날, 아르헨띠나국내련맹전에 참가한 마라도나는 라씽크팀과의 경기에서 경기마감시간 5분을 앞두고 통쾌한 꼴을 넣어 보까 쥬니어팀의 승리를 안아왔다.

경기장을 꽉 메운 축구애호가들과 관람자들이 마라도나의 축구기술에 매력을 느끼고 소리치며 환호를 보냈다.

바로 이날 종합팀의 루이스 메노찌감독도 이 경기를 보고 몇달사이에 마라도나의 축구기술이 높아졌다고 매우 만족해하였다.

사실 그는 나어린 마라도나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그의 축구기술이 뒤걸음치지 않을가 걱정하였었다.

그런데 오히려 몰기기술과 차넣기기술이 더 세련된데다가 속

리라 마음먹었다.

영국의 《썬》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하느님의 손》에 대한 진실을 영국의 축구애호가들에게 성근하게 사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나는 그때의 나의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지만 유감스러운것은 력사를 거꾸로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이다.

그때의 공은 문안으로 들어가 아르헨띠나팀이 월드컵을 쟁취하였고 나는 월드컵최우수선수로, 력사의 한 부분으로 되였다.

력사를 바꿀수 없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러니 내가 사죄외에 무엇을 더 할수 있겠는가?!》

마라도나의 이 사죄로 22년전 영국사람들로부터 《축구협잡군》으로 락인되였던 비난이 어느정도 가벼워질수 있겠는지…

도있고 박력있는 마라도나의 경기모습은 메노찌감독을 감동시켰다.
메노찌감독은 마라도나를 축하도 해주고 고무도 해줄겸 보까 쥬니어팀선수들에게로 다가갔다.
이 팀의 감독과 선수들은 메노찌감독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존경어린 눈길로 맞아주었다. 메노찌감독은 이 팀 선수들의 손을 차례로 잡아주며 마라도나를 찾았다.
그는 마라도나가 다가오자 더 활달하게 웃으며 말했다.
《마라도나, 오늘의 승리를 축하한다. 그새 몰기기술과 차넣기기술이 늘었구만. …》
그러나 마라도나는 메노찌감독의 인사말을 듣는둥마는둥 하며 눈을 내리깔고 손도 내밀지 않았다. 나이많은 동료들이 마라도나를 나무람하였으나 그는 메노찌감독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랭랭한 태도로 옷벗는 칸으로 들어가버렸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얼굴이 길쭉한 메노찌감독은 마라도나의 그 불순한 행동에도 개의치 않고 너그러운 웃음을 띄우며 머리를 끄덕일뿐이였다.
그는 마라도나가 아직 어리고 성격상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승벽심이 강하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는 항상 마라도나를 아르헨띠나의 축구인재로 더 잘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앞세울뿐이였다.
마라도나는 그 다음날 감독 까르닐라로부터 호된 추궁을 받았다.
《마라도나, 사나이답지 않게 그게 뭔가. 이러나저러나 메노찌감독은 너를 종합팀에 선발해주고 국가대표팀선수로 키워주자고 하지 않았나. 네 나이에 과남한 처사였어. …
너를 종합팀 최종선수명단에서 제외한것은 응당한것이였어. 나라고 해도 너를 빼놓았을거야.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면 훌륭한 축구선수로 될수 없어. 길러준 개 발뒤축을 문다는게 너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보구 하는 소리야.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면 나보고도 그런 행동을 했겠지. 그러면 못써. …내가 얼굴이 뜨거워서… 후에라도 꼭 사죄해야 돼.

알겠나? 스승을 노엽히다니… 배은망덕하게…》
까르닐라감독은 마치 자신이 제자한테 모욕당하기라도 한듯이 마라도나의 도덕없는 행동에 대해 분해하였다.
《감독선생님, 사실…》
마라도나는 감독의 호된 추궁을 받고서야 자기 행동이 잘못되였다는것을 느끼였다.
《…종합팀에서 나온 후 오늘까지 메노찌감독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있다나니 버릇없이 행동했습니다.》
마라도나는 옹졸하게 행동한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됐어. 알았으면 고쳐야 해.》
《네.》
대답은 했지만 어린 마음에 걱정이 생겼다.
(메노찌감독이 국가종합팀을 이끄는 한 내가 다시는 선발될수 없겠구나. 나의 축구희망은 물거품으로 되고말것인가?…)
하지만 마라도나의 이 걱정은 공연한것이였다.

세계축구계의 상상봉에로

1979년 3월, 아르헨띠나축구련맹에서는 일본에서 진행되는 제2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 참가준비를 또다시 메노찌감독에게 위임하였다.
아르헨띠나축구종합팀을 세계축구선수권보유팀으로 이끈것으로 하여 메노찌감독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메노찌감독은 청년축구종합선수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우선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20살아래의 청년축구선수들 40명을 선발하였다.
그는 감독으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로숙한 품성그대로 마라도나를 또다시 선발하였다.
마라도나가 신경질적이며 괴벽하고 리해력이 부족한데다가 도덕

품성까지 나쁜것으로 하여 비록 인간됨은 미숙하였으나 그의 축구정신만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기에 메노찌감독은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종합팀에 그를 다시 데려오려고 결심했던것이다.

메노찌감독이 보낸 초청장을 받은 그날저녁 마라도나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라도나는 메노찌감독이 국가청년종합팀으로 자기를 초청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메노찌감독에게 자신이 도덕없이 불손하게 처신한 문제를 잊지 않고있었기때문이였다. 생각할수록 메노찌감독의 도량과 너그러운 마음이 그대로 안겨와 가슴이 후더워졌다. 그처럼 고맙고 괜찮은 메노찌감독을 불손하게 대한 자신이 얄미웠고 원망스럽기만 하였다. 옹졸하고 신경질적인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낄수록 메노찌감독앞에 나타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자기를 리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믿어주는 메노찌감독앞에 나서지 않는다면 스승에게 량심과 의리조차 없는 인간으로 되고말것이며 더우기 축구선수로서의 성공도 바랄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라도나는 메노찌감독에게 진실로 사죄하는 길은 그가 부를 때 종합팀숙소가 자리잡은 호쎄빠쎄로 가는것이며 축구훈련과 경기를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마라도나는 메노찌감독에 대한 존경심과 새로운 축구결심을 품고 택시에 올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시내를 향하여 떠났다.

택시는 아르헨띠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시내에 들어섰다.

세계 3대공원의 하나로 알려진 빨레르브공원과 세계 3대가극극장에 속하는 꼴롱극장을 차창밖으로 내다보며 마라도나는 자기도 세계에 자랑떨치는 이름난 축구선수가 되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그러기에 마라도나는 자기 집에 잠간 들려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하는 녀동생들에게도 소식을 알리고 떠나려던 생각을 지워버렸다.

호쎄빠쎄국가축구종합훈련기지는 아르헨띠나종합팀이 오랜기간 대를 이어가며 리용하는 아담하고 조용한 산중훈련기지였다.

마라도나는 1년전에 눈물속에 맹세를 다지며 떠나갔던 이 훈련소의 앞마당에 도착하였다. 숙소마당에서는 키가 늘씬한 메노찌감독이 류행식으로 뒤로 길게 기른 머리를 한손으로 쓰다듬으며 먼저 도착한 선수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마라도나를 본 메노찌감독은 돌아서서 미소를 지으며 반가와하였다. 머리숙여 인사하는 마라도나에게 그는 활달하게 말하였다.

《왔구만, 디에고 마라도나가. … 왔으면 됐소.》

《메노찌감독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을 용서해주십시오.》

마라도나는 용기를 내여 사죄의 말을 하고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마라도나, 됐어. 그새 키도 좀 컸구만. 이번엔 청년종합팀주장으로 활약해야겠어. 한번 마음껏 잘해보라구.》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훈련을 잘하겠습니다.》

《좋소. 도착하는 선수들을 장악하고 숙소에 배치하시오.

마라도나는 내 옆방 2호실에 들어야겠소.》

마라도나는 힘과 용기가 하늘을 찌를듯 솟구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겨우 19살에 들어서기 시작한 마라도나의 가슴속에서는 청춘의 기백이 약동하였다.

훈련과 경기때에는 불속에 날아드는 부나비같았다.

그는 전국에서 선발된 40명의 청년선수들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뒤질세라 완강한 투지와 확고한 신심에 넘쳐 훈련에 성실히 참가하였다.

40명의 청년종합팀선수들모두가 메노찌감독의 훈련지도를 받는것을 더없이 좋은 기회로, 자랑으로 여기며 훈련에 성실히 참가하였다. 그들은 종합훈련이 끝날 때에는 17명만이 정식 종합팀선수로 망라된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그 누구도 불안과 위구를 느

끼지 않았다.

그것은 메노찌감독을 가장 공명정대한 스승으로 인정하고있었기 때문이였다. 최종선수선발에 합격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자기들자신의 축구수준그대로 평가된다고 믿었다.

메노찌감독은 석달동안 종합훈련을 한 다음 40명가운데서 22명을 선발하여 청년축구종합팀을 구성하였다.

1979년 5월, 메노찌감독이 인솔하는 아르헨띠나청년축구종합팀은 프랑스, 서도이췰란드, 에스빠냐, 이딸리아로 축구원정의 길에 올랐다. 이 유럽축구원정에서 마라도나는 청년종합팀의 조직자로서 공격과 방어에서의 균형을 잘 보장하였고 직접차넣기에 여러번 성공하여 유럽축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메노찌감독은 이딸리아에서 유럽원정경기를 마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우리의 유럽원정경기목적이 성과적으로 실현된것이 기쁘다. 이번에 성공과 실패가 다 있었는데 실패에서 더 귀중한것을 찾았다. 나는 집단주의경기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식의 전술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아르헨띠나로 돌아온 메노찌감독은 다시 6주간 훈련강도와 부담을 높이면서 경기대형에 따르는 전술적구상을 현실로 옮기는데 모를 박고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준비를 다그쳤다.

마라도나는 아무리 힘든 훈련과제도 아무말없이 꿋꿋이 극복해나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또 흘렸다. 그는 키가 비록 작았으나 공중머리받기싸움을 곧잘 벌렸으며 몰면서 어깨밀어치우기로 공빼앗기에서 키 큰 선수들에게 조금도 짝지지 않았다.

메노찌감독은 전술훈련도중에 자주 마라도나를 불러 개별과업을 주군 하였다.

《공격조직에서 마라도나는 디아스와의 2인결합을 특별히 잘해야겠소. 2인결합으로 중앙돌파하여 차넣기기회를 조성하거나 직접 대담하게 차넣기를 시도해야겠소.》

《그러자면 디아스를 항상 앞선에 내세우고 나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소. 앞선에 디아스를 세우고 실지 결정적인 차넣기는 마라도나가 더 많이 해야겠소.》

메노찌감독은 마라도나를 축으로 하는 예리한 공격축구를 기본전술적무기로 완성시켜나갔다.

1979년말에 아르헨띠나청년종합팀은 경기가 진행되는 일본으로 떠났다.

제2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는 《코카콜라》경기라는 명칭으로 큰 무역회사의 후원밑에 일본땅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 경기대회에는 세계대륙별로 예선경기를 거쳐 선발된 14개팀과 전번경기대회 우승팀, 주최국팀 등 16개 팀들이 참가하였다.

아르헨띠나청년종합팀은 마라도나의 뛰여난 활동으로 조별련맹전에서 1등으로 올라가 준준결승경기에서 알제리팀을 4:0으로 물리치고 준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번호 10번을 단 마라도나는 메노찌감독의 전술적구상대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기 팀에 가장 좋은 차넣기기회를 마련해주었을뿐아니라 자신이 직접 차넣기기교를 훌륭히 보여주어 일본땅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준결승경기는 우승후보팀의 하나로 지목된 우루과이팀과 하게 되였다. 이 경기에서 마라도나는 문전 16m지점까지 단독으로 몰고들어가 자기의 특기인 왼발발등깎아차기로 보기 좋게 한꼴을 넣었다.

후반전에 마라도나는 자기에 대한 대인방어가 따르는 조건에서 디아스에게 좋은 차넣기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그가 멋있는 한꼴을 득점하도록 하였다. 과연 메노찌감독의 전술방안대로 하여 얻게 된 통쾌한 꼴이였다.

결국 아르헨띠나팀은 준결승경기에서 우루과이팀을 2:0으로 보기 좋게 누르고 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되였다.

이 경기대회에 온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축구전문가들, 애호가들, 관광객들과 TV시청자들은 마라도나의 매혹적인 축구경기모습을 보고 경탄과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키가 165㎝밖에 안되는 작은 선수가 높은 속도와 강한 힘을 가

지고 마치 원시림의 높이 자란 숲을 헤치듯이 완강하게 공몰기를 해나가며 차넣기를 성공시키는 특이한 기질에 모두가 놀라와하였다.

도꾜의 올림픽경기장에서 진행된 아르헨띠나청년종합팀과 이전 쏘련청년종합팀과의 결승경기는 세계축구계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백열전을 이루었다. 전반전경기에서는 서로 공격과 방어를 유지하는 엇비슷한 수준에서 실력상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후반전경기부터 아르헨띠나팀은 공격을 강화하며 완강한 투지와 묘한 기교를 부리면서 달리고 또 달려 3:1로 이전 쏘련팀을 이기고 선수권을 보유하였다.

일본의 출판보도계는 마라도나와 메노찌감독에 대한 소개에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 일 화 ☆

23년만에 드러난 조작경기의 진상

1978년 아르헨띠나에서 진행된 제11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는 사람들의 의혹을 자아내는 일이 일어났다.

아르헨띠나팀과 브라질팀, 뻬루팀들이 속해있는 1조에서는 어느 팀이 결승경기에 진출할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경기가 아르헨띠나팀과 뻬루팀사이에 벌어지게 되였다.

이 경기에서 뻬루팀을 4:0으로 이기면 아르헨띠나팀이 브라질팀을 제쳐놓고 결승경기에 진출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뻬루팀은 결코 실력이 낮은 팀이라고 볼수 없는 팀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경기결과는 6:0이라는 압도적인 득점차이로 아르헨띠나팀의 승리를 기록하였다.

경기는 사람들속에서 두 팀사이에 그 어떤 흥정이 이루어진 조작경기가 아니였겠는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도그럴것이 뻬루팀은 경기에서 축구를 할줄 모르는 사람들처럼 허둥지둥하면서 두번씩이나 자기 꼴문대에 공을 맞혔는가 하면 경기도중에 경

《키가 작고 똥똥한 마라도나는 아시아사람들에게 키가 작아도 얼마든지 축구를 잘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준 〈축구의 별〉이다. 그의 앞길은 전도유망하다. 마라도나는 앞으로 몇년안으로 세계축구계의 1인자가 될수 있는 축구의 모든것을 겸비한 현시대의 가장 우수한 청년축구선수이다.》

메노찌감독은 세계적으로 가장 능력있는 축구감독으로 평가되였고 10번 마라도나는 제2차 세계청년선수권대회 《최우수축구선수상》을 받았으며 새로 나타난 19살의 《축구의 별》로 이름을 떨치였다. 안데스산줄기에 시원을 두고 지류와 지류가 합쳐 망망대해로 변함없이 흐르는 라쁠라따강처럼 디에고 마라도나의 축구기술은 점차 풍만해지면서 세계축구계의 상상봉에로 끊임없이 치달아올라 마침내 그는 《세계축구의 별》로 이름을 떨치게 되였다.

기경험이 거의 없는 후보선수들을 출전시켰으며 1명의 방어수를 공격에 참가시키는 엉뚱한짓들도 펼쳐보였던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사람들의 조소와 의혹의 대상으로 되였다.

물론 아르헨띠나팀은 결승경기에 진출하여 네데를란드팀을 누르고 대회우승팀으로 되였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고 이 조작경기의 진상은 23년이 지난 2001년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였다. 당시 이 경기의 조작에 아르헨띠나군사독재정권이 관여하였던것이다.

즉 뻬루정부의 고관들을 매수하여 뻬루에 5 000만US$의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3만 5 000t의 량곡을 보내여 경제적곤난을 겪고있는 뻬루정부를 지원한다는 약조가 이루어졌었다.

뻬루에 제공된 막대한 자금가운데서 많은 몫은 정부고관들이 먹어치웠고 뻬루축구종합팀의 매 선수들에게는 적은 량의 상금이 차례졌다.

23년간 흑막속에 가리워졌던 이 사실은 정부가 직접 개입된 특대형추문사건의 하나로서 월드컵력사에 큰 오점을 남기였다.

《축구거장》-프란쯔 벡켄바우어

축구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하루생활에서 제일 기쁜 순간은 축구구락부에 가서 훈련하는 시간이며 이 세상에 축구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는것 같다.

—프란쯔 벡켄바우어—

뻴레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축구왕〉이라고 부르군 한다.

그러나 나는 진정한 〈축구왕〉은 벡켄바우어라고 말하고싶다.

대다수 축구명수들이 선수생활에서만 빛을 뿌렸다면 그는 선수생활과 감독사업에서 성공한 진짜〈축구거장〉이다.》

1984년 여름 어느날 이전 서도이췰란드 축구련맹에서는 기울어져가는 축구수준을 추켜세우기 위한 비상위원회를 소집하였다.

회의안건은 당시 축구명수로 두각을 나타내고있던 39살난 프란쯔 벡켄바우어를 종합팀 감독으로 추천하는 문제였다.

《500만명의 축구선수를 가진 축구의 나라가 유럽패권도 유지하

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종합팀 감독 유프 데르발이 사표를 낸 조건에서 새 감독을 임명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시켰으면 좋겠는지 제기를 해주시오.

우선 나는 프란쯔 벡켄바우어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회의사회자인 서도이췰란드 축구련맹서기장 하인쯔의 말이였다. 치렬한 론쟁이 벌어지고 투표가 진행된 결과 거의 모든 참가자들의 찬성으로 벡켄바우어를 종합팀의 새 감독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축구명수 벡켄바우어의 감독으로서의 축구생활이 시작되였다.

신문팔이소년의 꿈

벡켄바우어는 1945년 9월 11일 서도이췰란드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뮨헨에서 우편배달부의 아들로 태여났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온종일 우편물을 날랐지만 한달수입이란 보잘것 없었고 빵과 감자를 사서 겨우 끼니나 에우며 살아가는 형편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전패국의 페허에 묻혀 먹을것도 입을것도 변변치 못한 생활속에서 자라난 벡켄바우어는 집근처의 공지에서 낡은 축구공으로 소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매우 즐겨하였지만 집이 가난한 탓에 운동복도 축구화도 없이 헌 신발을 신고 공을 찼으며 때로는 땅바닥을 걷어차 엄지발톱이 빠지기도 하였다.

벡켄바우어는 8살때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축구구락부에 다니였는데 밥은 한끼 굶어도 훈련비만은 매달 어김없이 바쳤다.

축구구락부에서는 훈련비를 제때에 바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내쫓았다.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축구만은 꼭 하고싶었던 벡켄바우어는 하

루라도 축구를 하지 못하면 오금이 쑤시여 안달이 날 지경이였다.

그래서 부모들 몰래 생각해낸것이 학교에 갔다와서 저녁마다 우편가방을 메고 네거리에 나가서 신문파는 일이였다.

가정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었던 아버지는 아들이 축구를 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저녁늦게 일을 마치고 피곤한 기색으로 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벡켄바우어에게 부탁하듯 말하였다.

《프란쯔야, 축구구 뭐구 다 그만두어라. 우리같은 가난한 살림에 그런걸 성공 못한다. …빨리 기능공학교나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여 집안살림을 돕는게 좋겠다.

○ 상 식 ○

현대축구의 발전추세

— 기술의 다양성과 효과성

기술의 다양성과 효과성은 축구경기활동의 다양성, 복잡성과 관련되는 필연적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이것은 정확성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선수들이 축구경기에 능동적으로 적용할수 있게 전술화할것을 바라고있다.

앞으로 축구는 선수들이 기술의 구속에서 벗어나 경기의 전술적능력의 발현인 두뇌전으로 발전할것이다.

— 전술의 가변성과 효과성

세계 높은급팀들은 모두 경기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경기대형을 변화시키며 공격중심과 폭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상대편을 피동에 몰아넣고있다.

선수들은 목적의식적으로 집중과 분산의 방법으로 전술적공간을 조성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앞으로 축구는 선수들의 창조적능력이 고도로 높아진 기초우에서 부분적 및 집단적경기활동이 높은 수준에 이를것으로 보고있다.

네가 축구를 하는데 이 아버진 도울 힘이 없어서 그런다.

알겠느냐?》

벡켄바우어는 머리를 푹 수그리고 대답을 못하였다.

아버지의 진정어린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새겨듣느라니 어린 그로서도 막 안타까왔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 맺히였다. 아버지를 돕지 못하는것이 어린 마음에도 괴로왔던것이다.

벡켄바우어의 아버지는 아들이 후날 직업팀후비선수로 선발되여 갈 때까지 그가 얼마나 축구를 사랑했고 얼마나 미칠 정도로 축구에 열중했는지 또 축구를 어떻게 배웠는지 알지 못하였다.

신문을 팔아야 하는 고달픈 속에서도 벡켄바우어는 하루도 훈련

— 역습속공

역습속공은 현대축구의 주되는 공격방식으로, 득점방식으로 되고있다.

역습속공은 두가지 형태로 진행되고있는데 그 하나는 상대방구역에서 공을 획득하면 즉시 2, 3인 결합으로 가장 빠른 속도의 공격이행을 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구역에서부터의 중장거리에 의한 역습이다.

역습의 회수와 그 효과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상대편의 문전을 위협하고 득점의 가능성을 충분히 지어주고있다.

— 운동능력

운동능력이 한계점에 접근하고있다. 축구경기에서 기술의 량과 질이 높아지고 다양한 전술적변화속에서 속도화되고있으며 최대로 압박된 1:1상태에서 기술, 전술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현대축구는 선수들의 높은 운동력에 의해 담보된다.

앞으로의 축구는 보다 더 조직화, 속도화되면서 경쟁력이 최대로 치렬해질것으로 예견된다.

때문에 축구선수들의 운동능력을 더욱 개선강화해야 한다.

을 멈추지 않았다.

남달리 령리한데다가 운동신경이 좋은 벡켄바우어는 축구기술습득에서 정확하고 빨랐으며 속도와 재치성에서는 그 누구보다 앞섰다.

11살나던 1956년 벡켄바우어는 뮨헨축구구락부의 축구선수후비로 등록되였다.

일체 축구기자재와 훈련비는 자체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어디에 손을 내밀고 단돈 한푼 보내달라고 할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말하면 축구를 그만두라고 할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신문파는 일을 하루도 중단하지 않았다.

성격이 강직하고 이악하며 고집이 센 벡켄바우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떤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거리에 나가 석간신문을 팔았고 일요일아침에는 조간신문을 팔았다.

벡켄바우어는 언제 한번 천천히 걸어다닌적이 없이 뛰고 또 뛰면서 신문을 팔았고 축구에 필요한 체력단련을 하였다.

매일저녁에는 한잎두잎 모은 돈을 계산해보고 축구구락부에 바칠 훈련비가 모자랄 때에는 뮨헨역전에 나가 손달구지를 끌며 밤늦게까지 기차손님들의 짐을 날라주군 하였다.

그의 하루생활일과에서 제일 기쁜 때는 축구구락부에 가서 훈련하는 시간이였다. 그에게는 이 세상에 축구훈련보다 더 재미나는 일은 없는것 같았다.

사람이 하고싶은 일을 하면 성수가 나고 피곤한줄도 모른다는것이 벡켄바우어를 위해 생겨난 말같았다.

그러나 훈련을 너무 많이 하여 어지럼증이 나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서 땅바닥에 주저앉는 일도 있었다.

그때마다 벡켄바우어는 (사람이 힘들면 이렇게 되는가부다.)라고 제나름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험난한 고비들을 가까스로 넘기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늦게까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끎아떨어진 아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던 아버지가 안해에게 조용히 물

었다.

《여보, 프란쯔가 왜 저렇게 못쓰게 되오?

애가 무슨 병에라도 걸린게 아니요? 병원에 데리고가서 진찰을 좀 해보오. …》

항상 가슴속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맛있고 영양가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맺혀있던 벡켄바우어의 어머니는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아들의 축구훈련이며 신문파는 일, 기차역에 나가 짐군노릇을 하면서 푼푼히 돈을 모아 집안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수 없었다.

남편에게 말하면 아들이 그렇게도 하고싶어하는 축구를 그만두라고 하겠으니 말도 못할 형편이였다.

《여보, 프란쯔가 종합검진을 받아야 할것 같아요.

오늘은 맥이 없어 일어나지도 못하는군요. 돈을 있는대로 좀 주세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것이 안된 일인줄 뻔히 알면서도 아들을 위해 눈을 꾹 감고 일부러 아닌보살을 했다.

《자, 이 돈이면 되겠는지. 50DM(마르크)가 다요. 생활이 언제쯤이면 펴일 날이 오겠는지. …

프란쯔가 좀 벌면 나아지겠는지?! 에 참.》

어머니는 아무말도 없이 남편이 내주는 돈을 세보지도 않고 안주머니에 넣었다.

사실 그들부부는 결혼하여 이날이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거짓을 모르고 오손도손 살아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거짓말까지 해가며 그 돈을 벡켄바우어의 영양보충에 다 썼다.

매일 배불리 먹이지는 못해도 어려운 고비마다 어머니는 이구실저구실을 만들어 아들의 먹는문제에 관심을 돌리였다.

《어머니, 오늘은 어데서 고기가 생겼나요?》

축구훈련을 마치고 신문팔이까지 한 다음 배고픔을 참으며 늦게야 집으로 돌아온 벡켄바우어는 저녁상에 마주앉으며 사기가 나서

물었다.

《응, 오늘 낮에 아버지가 돈을 타서 사가지고 오셨다. 프란쯔에게 많이 주라고 당부하셨다.》

《야, 그래요? 어머니, 함께 식사하자요.》

《빨리 먹어라. 어머니는 너를 기다리다 못해 먼저 먹었다. 꼭꼭 씹어먹어라.》

벡켄바우어는 밥상우에 놓은 음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게눈 감추듯 먹어버리였다.

어머니를 쳐다보고 씩 웃으며 혁띠고리를 풀어놓는 그의 눈가에는 한없이 천진한 웃음이 어려있었다.

○ 상 식 ○

축구선수준비의 3대기초

축구경기활동의 복잡성과 치렬성, 인체에서 비교적 더 발달되였다고 볼수 있는 발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축구의 특수성은 축구기술의 다양성, 능동성을 요구하며 기술동작의 량과 질을 전제로 하고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에 걸치는 반복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축구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축구명수가 되려면 어렸을 때 3대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

축구에서의 3대기초란 몸중심, 민활한 발이동, 공에 대한 감수력을 갖추는것이다.

• 몸중심

몸중심이란 인체의 각 부위중심의 합리적인 작용점이다.

축구는 선수들이 달리기, 조약, 뻗기 등 동작들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불의에 진행해야 하므로 몸의 평형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정확히 동작을 수행하자면 몸중심과 보폭을 합리적으로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한 축구전문가는 《몸중심은 축구선수준비의 기본요인의 하나로서 모든 축구명수들의 기초적인 요소이다.》라고 강조하였다.

17살에 받은 초청장

애리애리하던 소년티를 벗고 청년다운 축구선수체격으로 성장하던 1962년, 벡켄바우어가 17살나던 어느날 뮨헨의 바바리야축구직업팀구락부에서 그의 집으로 초청장이 날아왔다.

벡켄바우어의 아버지는 자기가 일하는 기징그우편국에서 직접 접수등록도장을 찍은 초청장을 들고 집에 들어서며 의심스러운 기색

• 민활한 발이동

발이동이란 선수가 기술동작을 수행할 때 몸중심을 바로 잡으며 대항조건에서 공을 관할하고 처리하기 위한 발동작을 의미한다. 축구경기의 특성으로 하여 선수들의 발이동은 빠르고 변화가 심하며 이동방식이 다양한것이 특징이다.

결국 발이 손처럼 예민하고 날래야 한다는것이다.

• 공에 대한 감수력

공에 대한 감수력과 접촉할 때 공에 가해진 힘의 크기, 방향, 공의 운동성질 등에 대한 감각으로 나타난다.

정확한 공감각능력은 축구명수들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공감각능력에 따라 몸중심을 위한 발이동이 수행된다. 다시말하여 공감각능력에 의해 발이동이 진행되고 발이동에 의하여 몸중심이 이루어진다. 롱구선수들이 손으로 공을 다루듯이 축구선수는 발로 공을 관할하고 처리해야 한다.

축구명수들은 례외없이 이상과 같은 축구선수준비의 3대기초를 어렸을 때부터 착실히 다지였다. 축구전문가들은 9살부터 12살까지를 기초기술습득의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 기초를 잘 닦지 못하면 절대로 축구명수가 될수 없다고 강조하고있다.

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거 잘못된게 아니냐? 프란쯔에게 보내온 바바리야축구구락부의 초청장인데…》

《아버지, 어디 보자요. … 맞아요. 나를 부른거예요.

어머니! 이젠 됐어요. 바바리야축구구락부에 가면 이젠 돈을 안내도 축구훈련을 할수 있고 아버지의 부담도 덜어줄수 있게 돼요.》

《프란쯔야, 네가 어떻게 그런델 다 간단 말이냐?》

아버지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어안이 벙벙해했다.

사실 학교에 다닐 때부터 같은 또래의 학생들속에서 축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벡켄바우어는 뮨헨에서 진행되는 소년축구경기때마다 축구전문가들의 눈에 들게 되였다.

그러나 벡켄바우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축구를 어느만큼 잘하는지, 또 발전성이 있는지 잘 몰랐다.

모진 생활고속에서 하루하루 끼니를 에우며 살다나니 아들이 축구를 하는 장한 모습을 볼 겨를이 없었던것이다.

초청장을 받고야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아버지는 참으로 감개무량해 하였다.

그는 정말 바바리야축구구락부에서 자기 아들에게 보낸 초청장이 맞는지 우편배달부의 눈으로 다시 보고 또 보며 확인했다.

아무리 보아도 벡켄바우어에게 보내온 초청장이 틀림없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개천에서 룡이 난다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까지 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로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것이다.

이렇게 뮨헨 바바리야축구구락부에 들어간 벡켄바우어는 서도이췰란드청소년종합팀에 망라되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19살에는 싼또스축구구락부팀과의 친선경기에 참가하여 자기 팀의 7개의 득점가운데서 4개를 기록하여 이름을 떨쳤다.

1966년에 벡켄바우어는 영국에서 진행된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서도이췰란드축구종합팀선수로 참가하여 우아한 몸가짐으로 공을 멈추고 오른발로 길고 짧게 차기, 유연하고 급속한 동작 등 현대축구에서 요구되는 모든것을 정확히 하였다.

벡켄바우어는 또한 방어의 능수였다.

멋진 위치선택, 상대편의 동작에 림하는 순간의 정확성 등 그의 경쾌한 동작들은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그는 상대와 부딪쳤을 때에도 몸의 균형이 아주 좋았다.

그리고 몸의 어떤 부위로도 공을 자유롭게 다루었는데 어떤 때에는 무릎과 허리에 공이 닿아도 자기것으로 만들군 하였다.

벡켄바우어는 방어뿐아니라 공격도 능숙하게 하였다.

그는 182㎝의 큰 키에 비하여 90분동안의 경기를 잔다듬질률동으로 유지하였다.

그는 경기장에서 《자유인》으로서 측면선수들보다 더 많이 뛰였으며 중간방어수이지만 상대방의 11m벌차기구역까지 쏜살같이 달려나가 자기 팀의 공격에 결정적으로 가담하군 하였다.

이러한 벡켄바우어의 축구기술은 이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세계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인기를 끌었으며 서도이췰란드팀이 2등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후 1970년 제9차 메히꼬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는 서도이췰란드종합팀의 중앙방어수로 참가하여 3등을 하게 하는데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련속하여 1972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 주장으로 참가하여 선수권을 쟁취하였으며 1974년 서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제10차 월드컵경기대회에 역시 주장으로 참가하여 월드컵을 쟁취하였다. 그 과정에 1972년과 1976년에 두번에 걸쳐 유럽축구최우수선수상인 《금뽈상》을 수여받았고 세계최우수축구선수로 선정, 평가되였다.

이렇듯 신문팔던 소년의 꿈은 자신의 피타는 노력과 정열속에서 세계적인 축구명수라는 현실을 안아왔다.

그가 감독으로 임명되여 지도한 도이췰란드팀은 1990년 6월에 진행된 제14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16년만에 세번째 우승을 쟁취하고 월드컵을 수여받았다.

그때 관중들은 《과시 벡켄바우어는 〈축구거장〉이다.》라고 소리치며 손들어 축하해주었다.

《유럽축구왕》-미쉘 뽈라띠니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기쁨이란 있을수 없다.

사람들은 나에게 남다른 벌차기재간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땀으로 련마하고 다듬은 비상한 노력의 결실이다.

—미쉘 뽈라띠니—

세계출판언론계는 뽈라띠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있다.

《미쉘 뽈라띠니는 마라도나와 함께 현시대 최우수축구선수들의 한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그는 세계축구의 〈별〉들중의 한사람으로서 축구력사의 갈피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다.》

섬세한 공다루기기술에 의한 높은 개인기술을 위주로 하는 기술축구방식과 강한 육체적능력, 집단의 전체적인 결합을 위주로 하는 유럽식축구방식을 적절히 배합한 프랑스팀의 특이한 경기방식은 제12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과시되였으며 제7차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프랑스팀이 선수권을 쟁취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팀의 주장 미쉘 쁠라띠니는 프랑스의 독특한 경기방식을 축구경기장에서 현실적으로 펼쳐보인 주인공이였다.

1983년에 련속 3차례나 유럽최우수선수의 평가를 받은 쁠라띠니는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의 축구를 되살린 전설적인물로 떠받들리웠다.

쁠라띠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점은 팀의 공격조직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남다른 기질이 있는것이다.

그는 자기뿐아니라 팀 선수들전체가 한덩어리가 되여 빈틈없는 공격과 방어의 전반적인 균형을 보장하도록 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놀군 하였다.

《신비한 팀》을 맞이한 세계축구

미쉘 쁠라띠니는 1955년 6월 21일 자그마한 제조소와 공장들이 가는 연기를 뿜어올리는 프랑스의 동부에 자리잡은 작은 지방도시인 조프시 제12중학교 수학교원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가 축구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것은 8살때 아버지를 따라 수도 빠리의 빠르크 프렌쓰경기장에 축구경기관람을 갔다온 때부터였다.

경기장을 꽉 채운 관중들의 열기띤 응원속에서 서로 공을 차고받으며 자기 팀의 승리를 안아오기 위하여 달리고 또 달리는 축구선수들의 모습은 어린 쁠라띠니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아들의 축구열의를 민감하게 포착한 아버지 알리도는 그가 축구에 흥미를 가지고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쁠라띠니는 소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공차기를 자주 하게 되였고 아버지의 훈련지도를 받으면서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리라 굳게 마음다지였다.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고 한 아버지의 말대로 하루

1시간씩 축구기술을 높이는데 구슬땀을 바쳤다.
그러던 1966년 뿔라띠니가 11살나던 해 7월 어느날 여느때없이 좋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말했다.
《미셸, 다음 일요일에 어머니랑 함께 약속대로 빠리구경을 가자.》
《야—정말이예요? 아버지 약속했어요.》
뿔라띠니는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였다.
《그렇잖구,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하더냐? 다음 일요일에 빠리에서 우리 고장 난씨팀과 빠리 쎈트팀간의 축구경기가 있단다.
축구경기도 응원할겸 네가 꼭 올라가 보자던 에펠탑도 볼겸 가보자.》
《당신은 우리 고장팀이 축구를 한다니까 빠리구경을 가자누만요. 미셸이 언제부터 가자고 졸라댈 때는 꿈쩍도 안하더니…》
뿔라띠니의 어머니도 빠리로 가는것을 은근히 기뻐하며 가볍게 웃었다.
《어쩌겠소. 나야 당신도 잘 아다싶이 축구애호가가 아니요.》
뿔라띠니의 아버지는 축구애호가들만이 느낄수 있는 심정그대로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저녁식사를 간단히 끝내자 아버지는 아들 뿔라띠니에게 TV를 함께 보자고 하였다.
그가 오늘 다른때없이 일찌기 퇴근한것도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 축구경기를 아들과 함께 보려는데 있었다.
《미셸, 오늘은 우승후보팀인 이딸리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팀이 경기를 한다고 했다. 이딸리아팀은 〈쥴리어스 리멧〉컵을 두번이나 쟁취한 선수권보유팀이다. 잘 보아라. 흥미있을게다.》
아버지 알리도는 세계적으로 강팀으로 알려진 이딸리아팀의 경기를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아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런데 아버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어데 있나요?》

갑자기 물어보는 아들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하던 알리도는 책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미쉘, 세계지도첩을 가져오너라. 내가 알려주지.》

언제나 물음에 정확한 대답을 주어 학생들의 지식을 넓혀주는것을 본분으로 여겨오는 알리도는 세계지도첩을 펼쳐가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미쉘,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쏘련이다. 그리고 여기는 일본이다. 바로 이 반도가 조선이라는 나라인데 지금은 절반으로 갈라져있다. 이 북쪽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이다.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1950년에 미국이 이 나라에 침략했다가 자기들의 전쟁력사상 처음으로 졌단다.

면적도 작고 인구수도 많지 않으나 강한 나라다.》

《아버지,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전쟁을 했나요?》

쁠라떠니는 지도첩에서 조선과 미국의 거리를 가늠해보고나서 호기심을 안고 물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이 조선의 남쪽땅을 점령하였단다. 미쉘, 너도 이제 크면 다 알게 돼.》

알리도는 어린 아들에게 한마디로는 이야기할수 없는 력사를 다 풀어줄수 없어 후에 보자는 식으로 말끝을 맺었다.

《미쉘, 조선은 대륙별예선경기에서 오스트랄리아를 1차경기에서 6:1, 2차경기에서 3:1로 물리치고 세계축구선수권대회 력사상 처음으로 본선경기에 참가한 나라란다.》

《그럼 조선은 동양에서는 축구를 제일 잘하는 모양이지요?》

《글쎄, 수수께끼같은 신기한 나라이다.

조선과 오스트랄리아의 예선경기를 본 국제축구련맹위원장 스텐리 로우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축구전문가들은 〈자만은 금물이다. 조선팀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아우트싸이드가 아니다.〉라고 경고를 했단다.》

《그러니 조선은 대단한 나라군요. 전쟁에서 미국도 이기고 축구에서 아시아, 대양주, 아프리카도 이기고…》

쁠라떠니는 무엇이나 다 이기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호기

심을 가지며 TV로 미들즈브러시에 있는 경기장에서 대전하는 조선팀과 이딸리아팀간의 축구경기를 보기 시작하였다.

…두팀간의 경기가 시작되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선팀은 정확한 련락으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운영하였다.

이딸리아팀은 견고한 《비자루》방어진을 치고 1—4—3—2 대형으로 경기를 운영하고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선팀은 단번련락과 중거리련락으로 측면과 반측면공격을 들이대며 복식돌입하였고 눈부신 속도로 이딸리아팀의 《비자루》방어진을 허물어뜨리는 기동전을 벌렸다.

드디여 전반전 42분경에 조선팀의 공격수가 몸빼기동작을 하면서 두명의 이딸리아팀방어수를 속여넘기고 강한 차넣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꼴문모서리에 걸렸다.

《꼴！—》 관중들의 함성, 찬탄, 박수…

이딸리아팀선수들은 얼굴을 싸쥐더니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아버렸다. 우는것 같았다.

TV방송원은 《신비한 팀을 맞이한 세계축구》, 《유럽의 〈비자루〉방어진 무참히 괴멸》, 《로마제국이 패망했을 때보다 더 큰 슬픔》이라고 말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딸리아팀은 후반전에 들어와 잃은 점수를 회복하려고 전술대형에는 관계없이 총공격을 들이댔다. 그러나 조선팀의 완강하고 째인 방어와 집단적이며 속도있는 역습공격기동으로 이딸리아팀은 세계축구선수권을 세번째로 보유하려던 희망을 끝내 잃고 1:0으로 패하였다. …

조선팀과 이딸리아팀간의 축구경기가 끝났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일어설줄 몰랐다. 아시아와 대양주, 아프리카를 대표하여 본선경기에 참가한 조선팀의 대담하고 용감하며 투지적이면서도 집단주의적인 경기운영에 감탄과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특히 축구인생의 첫 발자국을 뗀 11살난 쁠라띠니에게 이 경기는 천리마조선의 축구팀에 대한 지울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전도유망한 축구선수로

TV를 통하여 조선팀과 이딸리아팀간의 축구경기를 본 후부터 뾸라띠니의 축구일과에서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다.

뾸라띠니는 하루공부가 끝나면 1시간씩 진행하던 축구훈련을 배로 늘였다.

아버지 알리도 역시 아들에 대한 축구선생의 역할을 정열적으로 수행하였다.

사실 알리도는 수학리론에서는 어느정도 자신심이 있었으나 축구리론은 잘 몰랐다.

하기에 처음 축구훈련을 주려고 운동장에 나왔을 때에는 주로 일반적인 요구성만 강조하면서 단조로운 몇가지 방법만을 반복하군 하였다.

그러나 점차 날이 감에 따라 알리도는 뾸라띠니또래의 어린 학생들의 심리에는 자기 훈련방법이 맞지 않는다는것을 인식하게 되였다.

(수학교원인 내가 언제 한번 교수안이 없이 교단에 선 일이 있었던가. …

그런데 학생들의 축구를 가르치면서는 왜 교수안이 없이 청년시절에 축구를 하던 단조로운 몇가지 경험에만 매달리고있는가.

축구에서는 공을 발로만 찬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축구공은 발로 차는것이 아니라 머리로 차야 한다.

그러니 응당 축구도 머리로 지도해야 한다. …

축구제자들에게 몇가지 낡은 훈련방법만 내려먹이지 말고 축구지식을 배워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내가 먼저 축구지식을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 바로 그런 축구교수안을 짜려면 축구에 필요한 교수훈련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배우자! 축구선생의 말없는 스승은 축구참고서이다.)

이렇게 알리도는 축구선생으로서의 자기 본질적결함을 찾고 배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알리도의 책상과 책꽂이에는 축구참고서의 종수가 늘어났고 그의 방에서는 새벽이 푸름푸름 밝아올 때까지 전등불이 꺼질줄 몰랐다.

그는 준비운동과 몸풀기, 축구공다루기, 공몰기, 왼발과 오른발로 공차기, 공빼앗기, 공멈추기, 머리받기, 공련락 등 기초기술훈련을 나어린 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연구하고 알맞는 방법들을 날자별로 맞물려 축구훈련교수안을 작성하였다.

그가 지도하는 축구훈련방법들이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되는대로 적당히 얼버무리군 하던 쁠라띠니의 축구훈련은 아버지의 높은 요구와 엄격한 지도를 받으면서부터 정확한 기술동작

○ 상 식 ○

《유럽축구왕》이 《유럽축구대통령》으로

2007년 1월 유럽축구련맹에 새 주인이 들어앉았다. 그가 바로 어제날 축구경기장들을 종횡무진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워 《유럽축구왕》으로 떠받들리우던 프랑스의 축구명수 쁠라띠니였다.

52살의 한창 나이에 쁠라띠니는 유럽축구련맹 위원장선거에서 기본적수인 요한쏜(76살)을 27:23표의 약간한 차이로 누르고 17년동안 유지하여온 《요한쏜왕조》를 뒤집어엎는데 성공하였다. 하여 경기장을 달리던 어제날의 축구명수가 《유럽축구대통령》으로 되는 전례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유럽축구련맹의 위원장선거경쟁은 유럽축구계는 물론 세계축구계의 큰 관심속에서 진행되였다.

유럽은 현대축구의 발생지이고 축구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하여 세계축구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들로 완성되여갔다.

여름의 무더위, 강한 비바람도 가리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며 자기의 축구훈련을 지도해주는 아버지의 정열적인 모습에서 뿔라띠니는 새힘을 얻었고 자식을 위해주는 진정을 느끼군 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뿔라띠니는 아버지가 더없이 존경스러웠고 훌륭해보였으며 그 기대에 꼭 보답해야 한다는 결심을 더 굳게 다지게 되였다.

뿔라띠니는 축구훈련을 마치고는 샤와실로 들어가는 구부정한 아버지의 등뒤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남모르게 흘리군 했다.

(돈만 아는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 아버지처럼 구슬땀을 흘릴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나에게 진심을 바쳐 축구를 배워주는

이런것으로 하여 유럽축구련맹은 국제축구련맹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것이다.

뿔라띠니의 기본적수는 스웨리예사람인 요한쏜으로서 17년동안 유럽축구련맹 위원장의 자리에 있었다. 그는 국제축구련맹 위원장자리까지 노리면서 현재의 위원장 블라테르와도 견주어온 사람이다.

요한쏜의 약점은 4년임기를 다시 채우면 80살이 된다는것이였다.

다른 한명의 적수는 《축구거장》으로 불리우는 도이췰란드의 벡켄바우어였다. 그 역시 국제축구련맹위원장자리를 노리고 있다가 블라테르가 3기를 련속하겠다는 바람에 그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물러선 사람이다. 벡켄바우어는 2006년 제18차 월드컵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자기의 위력을 과시한 상대였다.

어쨌든 뿔라띠니가 위원장자리를 겨눈 치렬한 《대전》에서 위력한 적수들을 물리치고 위원장의 자리에 오른것은 그에게 높은 수완과 자질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첫 축구선생님이시다.

아버지가 하라는대로만 하면 꼭 축구선수로 될수 있다.)

축구제자의 자각은 훈련의 나날에 그대로 나타났다.

명절날에도 휴식날에도 뽈라띠니는 축구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부득이 하루훈련을 번지면 다음날에는 전날의 훈련량까지 무조건 수행하였다. 하여 뽈라띠니의 축구기술은 날에날마다 늘어만갔다.

뽈라띠니가 점차 높은 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다른 학교 축구팀과의 경기도 진행되였는데 이때마다 아버지는 학교팀축구감독이 되여 전술적방안들을 세워주었으며 특히 매 선수들이 머리를 잘 써야 한다고 강조하군 하였다.

《축구경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머리를 잘 쓰는것이다.

뽈라띠니는 왜 자꾸 자기 앞만 보면서 경기를 하는가.

멀리 좌우, 앞뒤를 다 보며 빈자리로 뛰여나가는 자기편선수를 봐야지. 그리고 련락하는척 하면서 속임동작으로 직접 빼몰기하여 돌입해야지. 공격이나 방어에서 다 머리를 써야 한다.

그래야 경기에서 이길수 있다.》

뽈라띠니는 아버지의 말을 명심하였다. 이것이 앞으로 자기의 경기시야를 넓히는데서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뽈라띠니는 공몰기가 좋았고 경기조직자로서 자기편선수들에게 정확한 련락공을 넘겨주어 차넣기를 성공시켰을뿐아니라 경기정황에 따라 자기가 직접 빼몰기로 문전돌입하여 꼴을 넣군 하였다.

뽈라띠니가 다니던 학교는 조프시뿐아니라 점차 주적인 대항경기에서도 우승하여 소문나기 시작하였다.

뽈라띠니의 아버지는 축구제자들의 축구기술이 높아짐에 따라 축구선수들이 갖추어야 할 품성에 대하여서도 항상 강조하였다.

《진짜 축구선수가 되려면 모든 정신을 경기에 집중시켜야 한다. 심판이나 다른데 신경을 쓰면서 자주 신경질을 부리는 선수는 절대로 훌륭한 선수는커녕 자기 팀에 필요한 선수로도 될수 없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첫 축구선생과 제자의 정열적이고 꾸준한 노력은 점차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난씨체육구락부에서는 뽈라띠니를 특출한 체력과 기질을 가진 전도유망한 후비선수로 선발하였다. 난씨축구구락부 청소년선수들은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면 구락부에 모여와서 전문축구감독의 훈련지도를 받았는데 일체 기자재들을 자체로 사서 리용해야 하였다.

뽈라띠니의 아버지는 아들의 축구훈련에 대한 요구성을 절대로 늦추지 않았다. 아들의 학습정형과 축구훈련, 품성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세운 일과표대로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난씨축구구락부에서는 뽈라띠니의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였고 무시할수 없는 제2감독이라고 부르게까지 되였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는 길로 난씨구락부를 찾아갔으며 아들의 집체훈련이 끝난 후에는 그에게 매일 50번 차넣기 개별훈련을 의무적으로 시켰다.

어머니의 관심도 아버지 못지 않게 높아졌다.

매일 퇴근길에 먹을것과 물을 가지고와서 아들에게 주었고 체육복을 갈아입고 나서서 문대뒤로 나가는 공을 잡아다주군 하였다.

하루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아버지는 훈련에서 나타난 우결함에 대해 지적해주었고 아들이 피로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세계적으로 이름난 축구선수들의 훈련경험에 대하여서도 조리있게 이야기해주었다.

뽈라띠니가 17살이 되면서부터는 축구훈련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의식적인 훈련으로 되기 시작하였으며 훈련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뽈라띠니의 특기인 공몰기와 깎아차기, 련락기술은 국내청소년급경기때마다 위력을 나타냈으며 신문, 잡지들에도 전도유망한 축구선수로 널리 소개되였다.

1973년초 뽈라띠니가 18살 잡히던 해 난씨축구구락부 책임감독은 뽈라띠니를 다른 팀에게 《랍치》당할수 있다고 타산하고 1조 직업팀선수로 받아들이는 《안전대책》을 취했다.

뽈라띠니는 키가 177㎝, 몸질량이 73㎏인 름름한 체격을 가진 축구선수로 자라나 프랑스청년종합팀에 망라되였으며 빠른 속도, 넓은 전술경기시야, 위력한 차넣기, 정확한 련락기술을 발휘함으로써 축구애호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받게 되였다.

그는 1976년 제21차 몬트리올올림픽경기대회에 프랑스축구종합팀선수로 참가하여 이전 서도이췰란드팀과의 경기에서 혼자서 3개의 꼴을 넣어 팀의 승리를 안아왔으며 21살에 벌써 《꼴명수》

☆ 일 화 ☆

브라질팀에 뿌리박힌 《프랑스공포증》

브라질축구팀이 세계최강팀이라는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것이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월드컵을 5번 보유한 팀이며 뻴레, 로날도, 리발도, 로마리오와 같은 축구명수들이 무진장한 브라질팀이 행성의 축구를 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이처럼 축구강팀중에서도 최강이라고 하는 브라질팀에 있어서도 맞서기 두려워하는 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프랑스축구팀이다.

브라질팀이 2006년 제18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 6번째 우승을 하려던 꿈은 프랑스팀에 의해 하늘로 날아났다.

평균나이가 30살로서 축구경기무대에서 《양로원대상》으로 취급되는 프랑스팀앞에 최고급의 개인기술을 소유한 브라질의 젊은 장사들이 무릎을 꿇은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브라질팀과 프랑스팀이 대전한 20여년간의 경기력사를 보면 그 리유를 알수 있다.

1986년 제13차 월드컵경기대회 8강자전에서 이 두 팀은 1:1 동점으로 연장전을 벌린 끝에 득점을 내지 못하여 11m차기에 들어갔는데 이때 브라질의 축구명수들인 지꼬와 쏘크라테스의 차기가 실패하여 4:3으로 브라질팀이 프랑스팀앞에 굴복하였다.

브라질팀은 1998년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 결승경기에서도 지단을 주장으로 하는 프랑스팀에 0:3으로 대참패를 당하였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

뿔라띠니는 1975년과 1976년사이에 청년급선수로 31번의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22개의 꼴을 넣어 꼴명수로서 전망이 확고한 선수로 출판보도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프랑스축구련맹의 관심사로 되였다.

미쉘 뿔라띠니는 이러한 청소년시절을 거쳐 《유럽축구왕》으로 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유럽축구대통령》으로 불리우는 유럽축구련맹 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다.

브라질팀이 프랑스팀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는 2001년에 진행된 국제축구련맹컵경기대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프랑스팀이 2000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의 우승을 쟁취한 기술축구의 전형적인 팀이라는데서 심리적으로 한풀 꺾인 브라질팀은 경기 전과정에 피동적으로 끌려다녔다.

프랑스가 2000년 유럽선수권보유팀이기는 하지만 2001년부터는 하강선을 긋고있었기때문에 승리의 패쪽은 브라질팀의 수중에 있었으나 《프랑스공포증》이 브라질선수들에게 심한 동통을 일으켜 프랑스팀에 승리를 공손히 넘겨주었다.

1986년부터 2006년사이에 두 팀간에 진행된 7차례의 호상대전성적을 보면 프랑스팀은 3승 2무승부 2패이고 브라질팀은 2승 2무승부 3패를 기록하였다.

특히 1992년 빠리에서 진행된 친선경기때 프랑스팀을 이겨본것이 마지막인 브라질팀에 있어서 《프랑스공포증》을 털어버린다는것은 퍼그나 어려운것으로 보인다. 아마 브라질팀이 다른 나라와 20년이라는 기간에 7차례의 축구경기를 하였다면 프랑스팀과 진행한 경우와 같은 결과는 빚어지지 않았을것이다.

세계최강팀인 브라질팀과 대전하여 20년동안에 프랑스팀이 승리한 경기가 더 많다면 프랑스팀이 세계축구최강국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결코 그렇게는 단정할수 없다. 국제축구련맹이 매달 발표하는 최신순위에서 브라질팀은 여전히 1～3위를 차지하는데 프랑스팀은 거의 6～10위사이에서 오르내리고있다.

《검은 문어》-레브 야쉰

축구문지기는 나의 희망이고 포부이다.
축구인생의 전기간 나의 가슴속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은것은 《조국의 문을 지켜라!》라고 하던 아버지의 당부였다. 그 당부를 지켜 나는 상대팀의 꼴을 허용하지 않았다.

—레브 야쉰—

이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싸마란츠는 야쉰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였다.

《그는 전설적인 문지기였다. 다른 위인들과 마찬가지로 야쉰의 이름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을것이다.》

《검은 문어》—야쉰, 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축구계의 유일한 금뽈수상자 문지기이며 20세기의 걸출한 문지기로서 세기를 이어오면서 세계적인 찬탄을 받고있다.

1990년 1월 그가 사망하였을 때 당시 쏘련의 따쓰통신은 그에 대하여 《쏘련체육운동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하며 찬양하였다.

《위대한 조국전쟁공로메달》

레브 야쉰은 1929년 10월 22일 모스크바교외의 뚜시노마을 로동자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뚜시노기계공장의 오랜 고급기능공이며 작업반장이며 공산당원인 아버지의 원칙적인 교양에 의하여 강의한 의지와 정의에 대하여, 조국의 귀중함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그가 12살나던 1941년 6월 22일 전쟁광신자 히틀러파쑈도당이 쏘련을 불의에 침공함으로써 쏘도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의 불길은 브레스트요새를 넘어 쏘련령토로 날이 갈수록 점점 확대되여 모스크바가까이에 와닿았다.

《쿵, 쿵－》 멀리서 들려오는 포탄의 울부짖음소리는 모스크바방위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주었다.

1941년 9월 3일, 겨울이 오기 전에 《속전속결》전술로 쏘련을 점령할 야심을 품은 파쑈도이췰란드침략자들은 14개의 땅크사단과 9개의 모터찌클사단, 80개의 보병사단을 모스크바공격전투에 들이밀었다.

로동자, 농민의 국가 사회주의쏘련의 수도 모스크바방위자들은 《조국을 위하여!》, 《쓰딸린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전호파기와 포탄상자운반으로 낮과 밤을 이어나갔다.

아직 철도 들기 전인 12살의 야쉰은 아버지를 따라 방어공사에 참가하면서 손에 생긴 물집이 터질 때의 아픔을 알게 되였고 조국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였다.

공산당원인 아버지는 방어공사장에 나가면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섰고 선동연설로 사람들을 고무해주군 하였다.

《동무들! 파시스트들이 100㎞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모두 일

손을 다그쳐 전호파기와 반땅크시설물설치작업을 끝냅시다.
쓰딸린동지가 모스크바에 계시는 한 우리는 승리합니다.
히틀러가 아무리 날뛴다 해도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습니다. 쏘련의 심장인 모스크바를 목숨으로 지킵시다.
〈쏘베트조국을 위하여!〉, 〈쓰딸린을 위하여!〉》
야쉰은 아버지의 선동연설을 가슴에 새기였다.
그 나날 그는 어려운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모스크바사람들의 고귀한 품성과 집단주의정신의 위력을 알게 되였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을 썰며 교차되는 탐조등불빛, 고무풍선처럼 둥둥 떠있는 반항공기구들, 고사포들과 직사포들, 땅크와 비행기, 기관단총과 보총에 이르기까지 어린 야쉰에게는 신비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럽게 보였다.
모스크바방어전투는 석달동안 계속되였다.
도이췰란드침략군은 2차례에 걸쳐 대병력으로 전격적인 모스크바공격을 들이댔지만 쏘베트조국의 심장 모스크바를 피로써 지켜선 붉은군대와 모스크바시민들의 결사전에 부딪쳐 30만명의 무리죽음을 남기고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야쉰은 조국전쟁의 전기간 아버지와 함께 뚜시노기계공장의 견습공으로 일하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야쉰에게 있어서 아버지이기 전에 지휘관이였고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공산당원이였으며 혁명성이 높은 로동계급이였다.
아버지는 야쉰에게 탁아소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집단주의정신을 마음속에 심어주었고 준엄한 조국전쟁의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싸움의 나날에는 조국의 귀중함을 가르쳐주고 성실성과 희생성을 키워준 혁명선배였다.
《얘야, 너 오늘 계획을 했느냐?》
아버지는 교대시간이 되면 자기옆에서 일하는 야쉰에게 묻군하였다.
《아직 채 끝내지 못했어요. 소재가 없어서.》

《도이췰란드놈들이 쏘련을 먹겠다고 발악하는데 너처럼 일해서야 되겠느냐! 소재를 네가 직접 타다가 계획을 해야지. 전선에서 매일같이 포탄을 기다린다는것을 알면서 그렇게 일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길수 있겠느냐?》

《아버지, 알겠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계획을 꼭 수행하겠어요.》

《이녀석,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올수 없어. 나와 함께 계획을 하고 교대하자.》

헤아릴수 없는 어려움과 난관을 겪으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희생적으로 싸운 사회주의쏘련인민은 1945년 5월 9일 히틀러도이췰란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전승의 축포를 쏘아올렸다.

야쉰은 로동계급의 대오에서 준엄한 조국전쟁의 승리의 날을 맞이하였고 첫 국가표창인 《위대한 조국전쟁공로메달》을 수여받는 기쁨도 맛보았다.

미래의 이름난 세계적인 축구명수의 소년시절은 이처럼 조국에 위험이 닥친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흘러갔다.

세상에 수백수천명의 축구명수들이 있어도 소년시기를 야쉰과 같이 전쟁의 치렬한 불길속에서 흘려보낸 사람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작은 문이 아니라 큰 문을…

전쟁의 포화가 멎은 후 야쉰은 뚜시노기계공장에 새로 생긴 체육구락부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가 처음 시작한것은 빙상호케이문지기훈련이였다.

첫 체육훈련이였지만 야쉰은 문지기로서의 민첩성과 대담성, 결단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였다. 그는 대번에 축구문지기가 없어 애를 태우던 공장축구감독의 마음에 들게 되였다.

《야쉰, 자네 문지기로는 작은 문대가 어울리지 않아. 큰 문대로 옮겨야 제격이겠어. 축구문지기로 돌게나.》

그의 말은 야쉰에게 참말로 고마운것이였다. 언제나 축구에 관심이 높던 야쉰은 반갑게 응해나섰다.

《감독동지, 나도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나를 축구문지기로 받아주겠다면…》

《좋아. 내가 이미 구락부책임자와 토론했네. 당장 축구장으로 가자구.》

이렇게 되여 미래의 세계최우수문지기 야쉰의 축구생활이 시작되였다. 그때는 그가 16살 잡히던 해인 1945년 7월이였다.

자기가 그렇게도 열망하던 축구문지기로 된 야쉰은 비상한 열의를 가지고 첫 훈련에서부터 온몸을 땀방울로 적시였다.

공장에서는 야쉰을 두고 축구문지기로 전망이 보인다고 누구나 다 말하군 하였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야쉰에게 축구문지기가 되여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공격을 하군 하였다.

○ 상 식 ○

재능있는 축구선수의 지표

재능있는 축구선수라고 할 때 그것은 특출한 운동능력을 실지로 발휘할수 있는 가능성이 50%이상인 선수를 말한다.

재능있는 축구선수의 지표에는 두가지 측면 즉 기술, 전술, 육체적측면과 심리, 기능적측면이 있다.

— 기술, 전술, 육체적측면

- 체격: 키, 몸질량, 형태
- 공관할능력, 천성적인 기술능력
- 동작수행의 폭과 빈도, 률동
- 전술의식

어느날 하루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야쉰은 뜰안에서 서성거리고있는 아버지를 의아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 생산과제를 끝내고 문지기훈련도 했어요.》

《얘야, 거기 좀 앉거라. 물론 체육은 중요하다. 그러나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 공장을 복구확장하자면 기계기사가 필요하다.

이 좋은 세상에서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데…

기계대학에 가서 기사가 되려무나. 공을 차면 뭣이 생기냐?》

《아버지, 나는 축구문지기가 마음에 들어요.

마음껏 축구를 하다가 대학에 꼭 가겠어요.》

《이 녀석아, 그땐 늦어…》

《축구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 되지요. 축구를 마음놓고 하게 해줘요. 아버지가 반대하니 집에서도 다 좋아 안해요.

아버지친구들까지 문지기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얘야, 지금 같아서는 네가 문지기로 성공할수 없어.

이것도 해보고싶고 저것도 해보고싶은게 네 나이때다.

- 경기에 대한 신속하고 명백한 리해
- 훌륭한 위치선택의식
- 동작을 제때에 옳바로 선택하는 능력
- 육체적능력 즉 힘, 속도, 반응속도, 인내력 등

― 심리, 기능적측면

- 쉽게 고무되며 경기와 훈련을 즐거운 기분으로 한다.
- 배우고 발전하려는 의욕
-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려는 야심
-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사귐성
- 책임을 지려는 태도
- 강의한 의지의 성격
- 집중성과 결단성
- 창발성 등

어제는 호케이나무채를 들고다니던 녀석이 오늘은 축구공을 안고다니니… 쯧쯧.》

아버지는 아들을 바람부는대로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여겼는지 혀를 찼다.

《아버지, 축구문지기는 나의 희망이고 포부예요. 공장축구문을 믿음직하게 지키면 좋지 나쁠거야 없지 않나요.》

야쉰은 축구문지기를 하겠다는 자기의 굳은 속마음을 그대로 내비쳤다. 아버지는 이날이때까지 자기의 말이라면 고집을 부리다가도 순순히 듣군 하던 아들의 심정을 너무도 알아주지 않은것 같았던지 너그럽게 웃으며 찬성인지 반대인지 가늠할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킬바엔 공장문이 아니라 쏘련문을 지켜라.》

야쉰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생각을 다시 해보았다.

(축구에 대한 나의 목표가 고작 공장문을 지키는것이였단 말인가.

쏘련의 심장 모스크바를 지켜섰던 공산당원의 마음을 받아안고 쏘련의 큰문을 지키는 훌륭한 문지기가 되리라.)

아버지의 한마디의 말은 참으로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고마운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축구공을 껴안은채 자기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체육기술의 높은 봉우리는 생각대로 쉽게 점령되는것이 아니였다. 너무도 늦은 나이에 축구인생의 첫걸음을 뗀 야쉰에게 있어서 그 봉우리는 더더욱 높은것이였다.

천성적인 체질, 취미, 소질, 체육적재능이 있다고 해도 자기희생적인 노력이 없이는 그 봉우리에 치달아오를수 없다.

헌신적이며 꾸준한 노력, 지어 모험적인 야심까지 동반될 때 세계최강자로, 체육명수로 될수 있는것이다.

야쉰에게는 이러한 기질이 있었다. 야쉰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꺾이지 않는 완강한 투지와 자기희생성이였다.

야쉰은 자기가 확신하고 달라붙은 일에 대하여서는 끝장을 보고야마는 성미였다.

소년시기부터 굳센 의지를 키워온데다가 천성적으로 좋은 육

체적준비를 갖추고있던 야쉰은 문지기훈련에서 자기 만족을 모르고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축구훈련을 중단하지 않았고 감독의 요구대로 말없이 축구문지기로서의 자기 역할과 활동력을 넓혀나갔다.

전문선수단도 아닌 구락부인것만큼 남들과 같이 하루생산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축구훈련장에 나와 육체, 기술, 전술훈련에 참가해야 하였다.

야쉰의 문지기훈련모습은 언제나 뚜시노기계공장 로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였으며 또 그들의 자랑으로 되였다.

야쉰은 문지기훈련에서 감독이 주는 과업에 대하여 한마디의 군소리도 없이 끝까지 수행하였으며 항상 자기 감독을 믿고 존경하였다. 16살부터 축구를 시작하였지만 깨끗하고 소박하면서도 완강한 로동계급의 량심과 의리를 마음속에 안고 성장한 야쉰은 육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더욱 완성되여갔다.

드디여 18살의 야쉰은 184㎝의 키를 가진 청춘미를 자랑하며 뚜시노체육구락부의 기본문지기로 름름한 자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검고 짙은 눈섭아래 우묵하게 쑥 들어간 크지 않은 두눈, 굳센 의지를 보여주는 두툼한 턱, 항상 힘있게 다물어져있는 큰 입, 경기정황판단을 위한 사색속에서 생겨난듯한 둥근 이마우의 잔주름살들, 언제나 검은색경기복을 입고 축구꼴문대를 지켜선 야쉰의 모습은 보기에도 억척같은 사나이모습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였다.

뚜시노마을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야쉰은 점차 모스크바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였다.

하여 야쉰은 19살때인 1948년에 모스크바 지나모팀의 문지기로 소환되였다.

야쉰은 지나모팀의 후보문지기로 활동하면서 뚜시노사람들의 기대를 잊지 않았으며 경기때마다 늘 꼴문대를 책임적으로, 매력적으로 감당하군 하였다. 좋은 재치성과 유연성, 높은 조약력으로 그 어떤 정황의 공도 재치있게 잘 잡아내는 야쉰의 문지기기술

은 점차 축구전문가들에게 믿음을 안겨주기 시작하였다.

야쉰은 중요경기들에서 심한 외상과 어려운 고비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자기 팀의 꼴문을 언제나 완강한 투지와 희생성으로 지켜냈다.

야쉰의 뛰여난 문지기기술로 하여 모스크바 지나모팀은 국내선수권대회들에서 련전련승하여 국내선수권보유팀으로 되였으며 쏘련축구는 세계축구무대에서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야쉰이 문지기로 활동하고있던 시기 쏘련팀은 1956년 제6차 멜보른올림픽경기대회 축구경기에서 1등을 하였다. 기자들은 이에 대하여 일치하게 신문과 통신, 방송들에서 굉장하게 소개하였다.

《쏘련축구팀의 승리는 전적으로 야쉰과 같은 완벽한 문지기

☆ 일 화 ☆

《검은 문어》가 아니라 《붉은 천사》

어느날 한 중년부인이 경기를 끝내고 경기장에서 나오는 야쉰을 찾아 수첩을 펼쳐들고 기념수표를 요구했다.

축구를 몹시 즐겨하는 자기 아들애가 세계적인 명수인 야쉰의 경기장면을 보고싶어했지만 훈련중에 다리를 상해 걸을수 없어 어머니에게 그의 수표만이라도 받아달라고 조르기에 왔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녀인의 말을 듣고보니 어쩐지 동정심이 북받쳐올라 야쉰은 제꺽 수표를 해주면서 조용히 집주소를 물어보았다. 그리고는 시간을 내여 그 소년의 집을 찾아갔다.

소년은 야쉰을 보자 너무 기뻐서 몸을 들썩거렸다.

소년과 인차 친숙해진 야쉰은 그에게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앞으로 훌륭한 체육선수로 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고 자기의 수표가 새겨진 새 축구공을 기념으로 주었다.

소년과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한 다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야쉰은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품

기술을 소유한 뛰여난 문지기가 있었기때문이다. 야쉰이 없었다면 쏘련팀은 준준결승에도 올라갈수 없었을것이다.》

경기에서 결정적인 꼴이라고 생각한 슛을 막아내고 자기 팀의 승리를 안아오게 한 야쉰의 대담하고도 민첩한 경기모습은 축구전문가들을 감동시켰고 수십만 관중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이러한 야쉰의 모습은 자기 팀 선수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다.

그후 1958년에 스웨리예에서 진행된 제6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는 야쉰을 세계최고의 공격수인 브라질의 뻴레와 함께 세계최고의 문지기로 인정하였다.

그는 1960년 7월에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쏘련팀이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세계축구문지기왕》으로 되였다.

게 되였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로 곧장 병원에 찾아가 의사를 만나 경기도중에 자기가 부상당했을 때의 경험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는 소년의 치료를 부탁하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야쉰의 도움으로 소년의 부상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야쉰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짬시간을 내여 그에게 매일이다싶이 축구기술을 배워주군 하였다.

그들이 얼마나 친숙하게 지냈는지 사람들은 소년을 지나모팀의 후비선수로 생각하기도 하였고 야쉰을 귀한 아들에게 축구를 배워주는 아버지 또는 선생으로 착각하기도 하였다.

당시 쏘련의 한 출판물에는 《이처럼 인정이 넘치는 그를 〈검은 문어〉라고 부르기에는 적합치 않다고 본다. 그는 〈검은 문어〉가 아니라 〈붉은 천사〉이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사나이라면 특히 진정한 체육인이라면 건장한 체력, 강의한 의지, 특출한 체육기술과 함께 아름다운 성품, 인정미를 지녀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올림픽운동의 구호인 《더 높이, 더 빨리, 더 힘차게!》에 《더 아름답게!》라는 문구를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새롭게 제기되고있다.

《네손달린 귀신》-디노 조프

문지기라면 응당 심중하고 실용적이여야 한다. 가령 배가 몹시 아픈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다고 하자. 의사는 자기의 《뛰여난 솜씨》를 자랑하고싶어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였는데 오히려 환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마찬가지로 문지기는 절대로 어리석은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쓸데없는 동작, 군더더기동작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그 후과는 실로 책임질수 없다. 꼴 하나 먹기는 순간이여도 꼴 하나 넣기는 90분도 모자란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디노 조프—

곡절많은 소년시절

지금도 사람들은 1982년 에스빠냐에서 진행된 월드컵경기에서 불같은 반공격으로 련이어 득점을 하여 마침내 1등의 시상대에 올랐던 이딸리아팀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더우기 이 팀의 문지기이며 주장인 디노 조프가 높이 쳐든 월드컵에 입을 맞추며 뜨

거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디노 조프는 축구경기장에서 20여년을 보내면서 축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다.

40살에 드디여 성공의 절정에 오른 이딸리아의 축구명수 조프! 그의 소년시절은 참으로 곡절많았다.

디노 조프는 1942년 2월 28일 이딸리아 베니스북부의 마리아노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농사군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고향도시가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고장이였으므로 그는 벌써 4살때부터 축구에 흥미를 가졌다.

동네아이들과 어울려 뽈차기로 하루를 보내다가도 라지오로 축구경기실황중계방송을 한다는 소식만 들으면 모든것을 집어치우고 그것을 듣는데 여념이 없었다. 비록 음질이 한심한 낡은 라지오였지만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바싹 귀에 대고 듣는 아들을 보며 농사군인 아버지는 생각이 많았다.

농사로 생계를 하루하루 유지해나가는 집안인지라 살림살이도 말이 아니였고 자식들도 허약하였다.

후날 디노 조프는 79㎏의 몸질량에 182㎝의 키를 가진 청년으로 성장하였지만 그때는 키가 작고 몹시도 여윈 체소한 소년이였다. 축구선수로는 더 말할것도 없고 문지기감으로는 어림도 없는 체격이였다.

집안에 아들이라고는 오직 조프 하나였던것으로 해서 부모들은 물론 특히 할머니가 손자를 몹시도 동정하고 귀여워하였다.

동네아이들이 조프를 《꼬맹이》,《난쟁이》라고 놀려대기만 하면 할머니는 그애들을 한사코 쫓아가 혼쌀내주고서야 돌아서군 하였다. 그리고 조프에게만은 늘 삶은 닭알을 남몰래 먹이군 하였다. 바로 할머니의 그 닭알이 은을 냈는지 2년도 못되는 사이에 조프는 키가 20㎝나 자랐다.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여가시간을 언제나 운동장에서 보내군 하였다. 동무들과 어울려 뽈을 찰 때면 그는 이상하게도 문지기가 되기를 좋아했다. 여느 애들은 공을 몰고 들어가 꼴을 넣기 좋아했다면 조프는 오히려 꼴을 막기 더 좋아했던것이였다.

또 여기저기 뛰여다니는 《병졸》보다 문대를 떡 버티고 지켜서서 지휘를 하는 《대장》이 되고싶어했다.

조프가 거울로 삼은 문지기는 당시 쏘련의 레브 야쉰이였다.

야쉰의 사진과 그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고 또 실지 훈련에서도 야쉰의 문지기기술동작을 익히기 위해 애쓰군 하였다. 때로는 혼자서 담벽을 마주하고 온몸에 멍이 지도록 훈련하군 하였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채로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와 누나들이 한바탕 꾸중을 해대군 했으나 그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의 침실벽과 벽장, 침대의 앞뒤에는 화보들에서 오려낸 꼴을 막는 문지기들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있었다.

아들의 행동을 주의깊게 살피던 웅심깊은 아버지가 어느날 어린 조프를 불러다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축구를 그렇게도 사랑하는 이상 또한 문지기라는 직업에 미련을 가진 이상 훈련을 더 열심히 하거라. 도중에 그만둘바에는 아예 싹 걷어치워라.

할바엔 온 나라에 소문을 내는 문지기가 되여라.》

아버지의 이 말은 나어린 디노 조프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으며 꼭 야쉰과 같은 훌륭한 문지기가 되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지게 한 계기로 되였다.

그리하여 14살나던 1956년에 그는 고향도시 마리아노축구팀 소년조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마리아노소년축구경기에 참가하였을 때 그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없는탓에 자주 실수하여 꼴을 먹었다. 그리하여 팀은 몇번 이겨보지 못하고 떨어지군 하였다. 이렇게 되자 선수들모두가 문지기를 원망했으며 그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밸이 불끈 오른 조프는 울분을 참지 못해 장갑을 벗어던지고 팀에서 나와버리고말았다.

나온 길로 그는 어느 기계공장 소년로동자로 들어가 일하였다.

그러나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또다시 문지기버릇이 되살아나 시간이 생기면 늘 문지기훈련을 하군 했다.

또한 울뚝거리는 성미도 자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어느 한 축구전문가가 조프의 훈련모습을 보게 되였다. 그는 조프의 열성에 감동되여 당시 비교적 이름있던 어느 축구구락부에 그를 소개해주었다. 중도반단할번 했던 조프의 축구생활은 고마운 은인을 만나 이렇게 다시 이어지게 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누구도 이 소년이 후날 이딸리아를 대표하는 국가팀문지기로 성장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축구구락부에서 전문훈련을 받는 과정에 그의 문지기기술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그는 특히 각종 기초기술동작들을 착실히 배우는데 모를 박았다. 비록 경기때마다 후보선수석에 앉아있군 했으나 그는 조금도 락심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노력하며 기본문지기로 되기 위한 길을 차츰차츰 열어나갔다.

드디여 그의 노력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19살 되던 해에 그는 이딸리아 A급련맹전에 참가하였는데 처음으로 정식 문지기로 경기장에 나서게 되였다.

조프는 이 련맹전에서 뛰여난 막기동작들을 보여주어 축구전문가들의 인기를 끌었다.

전국적으로 강팀이라고 하는 소문난 플로렌스팀과의 경기는 조프가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한 계기로 되였다.

플로렌스축구팀에는 축구명수들이 많았고 실력으로 볼 때도 훨씬 앞선 팀이였다.

비록 명성높은 이 팀과의 대결에서 2:5로 패하기는 했으나 조프는 오히려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고 인기도 높아졌다.

이제는 영낙없이 꼴이라고 확신했던 차넣기들이 빈번히 실패하거나 좌절당할 때마다 관중들은 조프의 뛰여난 막기감각에 진심으로 경탄을 보내였다.

조프에게는 특수한 막기기술이 있었는데 그것은 손으로뿐아니라 발로도 날아오는 공을 쳐내는 동작이였다.

공을 막는 그의 이러한 동작들을 보며 관중들은 그에게 《네손달린 귀신》이라는 애칭을 붙였다. 그의 팀이 8등권안에 들어간데는 조프의 뛰여난 재능과 함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경기가 끝났으나 관중들은 헤쳐가지 않고 조프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중체조무용수와 같은 그의 동작들을 되새겨보았다.

1963년 조프는 4년을 계약하고 유명한 안투야팀에 들어가 보다 높은 기술과 경험을 쌓기 위하여 피타게 노력하였으며 1968년에는 마침내 국가종합팀선수로 선발되여 올림픽경기대회 지역별예선경기에 참가하여 자기의 실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사랑의 힘

축구경기장에서는 맹호와 같이 날래고 용감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는 말이 적고 수집음을 잘 타는 순박한 청년이였던 조프에게는 청춘시절 한가지 습관이 있었다. 그것은 경기나 훈련후에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명상에 잠기는것이였다.

어느날 창문옆 단골자리에 앉아 진한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내다보고있던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문밖을 지나가는 한 처녀가 그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던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은 그 처녀는 역시 순간에 사라지고말았다. 며칠이 지나서 그 처녀는 또다시 나타났다. 처녀는 커피점앞을 지나가다가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총각을 보자 발걸음을 멈추었다. 두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총각의 눈은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난 줄곧 동무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처녀도 총각의 마음속을 알아차린듯 생긋 웃어보였다.

이때부터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이 정해진 시간에 커피점에 나타났다. 한겹창문을 사이에 두고 처녀는 밖에서, 총각은 안에서 말없이 눈길만 마주칠뿐이였다.

조프는 훈련과 학습 그리고 경기의 여가시간이면 늘쌍 이 어여쁜 처녀를 생각하군 하였다.

(그가 나같은 축구선수를 사랑할가?)

여러번이나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리라고 결심했으나 정작 그 처녀의 눈길과 마주치면 또다시 망설이게 되였다. 가슴속에 가득 차넘치는 사랑의 말을 다시 삼켜버리고 숙소에 돌아와서는 못내 후회하기를 그 몇번, 다음날에는 꼭 말하리라고 생각하고는 또 후회하는 나날속에 조프의 가슴은 사랑으로 활활 타번져 더는 견딜수 없게 되였다. 훈련을 할 때면 날아오는것이 공이 아니라 처녀의 미소였고 눈길이였으며 아름다운 자태였다.

처녀 역시 매번 조프와 만날 때마다 무언가 말할듯말듯 바재이고있었으나 끝내 말을 못하고 지나쳐 가군 하였다.

어느날 조프는 커피점에 들어가 자기의 단골자리에 앉아 처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바로 그 시간에 처녀는 나타났다.

처녀의 걸음걸이가 이전과 달리 별로 더 느려보였다. 처녀가 막 지나치려는 순간 조프는 몸을 솟구쳐 뛰여나가 그의 앞을 막아나섰다. 두 젊은이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서게 되였다.

경기장에서는 표범같이 날래고 사자같이 용맹한 문지기였건만 사랑의 짤문에는 감히 들어서기 어려워하는듯싶었다.

《미안합니다. 난 더는 참을수 없습니다. 꼭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전…》

처녀는 발가우리한 얼굴에 정답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

조프와 안나는 드디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안나는 축구를 잘 몰랐으나 남편의 일을 적극 도와나섰다. 훈련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안나는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기다리군 하였다.

아무리 머나먼 곳에 경기하러 갔다 해도 경기가 끝나면 기어이 집에 들어와 안해를 안아주는 조프였다.

그들에게 아들이 태여났다. 행복한 가정에 기쁨을 가져다준 어린 아들을 그들은 마이커라고 이름지었다.

《우리의 마이커는 꼭 훌륭한 문지기가 될거요.》

정열적인 사랑,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아들 마이커, 이 모든것은 디노 조프의 축구인생에 배가의 활력을 안겨준 귀중한 힘이였고 추동력이였다.

그것은 그후 디노 조프의 경기활동에서 현실로 펼쳐졌다.

1970년 조프가 처음으로 참가한 제9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이딸리아팀은 2등을 쟁취하였다.

그가 속한 유벤뚜스팀은 7번에 걸쳐 전국A급축구련맹전에서 우승하였으며 제12차 월드컵은 이딸리아팀의 승리로 끝났다.

제12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 그의 기막힌 문지기기술을 직접 목격한 네데를란드의 세계적인 축구명장 그루이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딸리아팀과 경기를 할 때 내가 강하게 자극을 받은것은 상대팀의 꼴문이 철벽이라는것이였다.

조프는 내가 본 문지기들중에서 가장 존경할만한 문지기였다.》

이딸리아팀의 견고한 방어로부터 불같은 역습전술이 응당한 효과를 볼수 있은것은 믿음직한 문지기 조프가 꼴문을 책임적으로 지키고있었기때문이였다.

조프는 40살에 성공했다.

한생의 소원이, 곡절많은 청소년시절부터 그렇게도 높이 세웠던 목표가 달성된셈이다.

온 이딸리아가 조국에 영광을 가져다준 40살의 문지기 디노 조프에게 뜨겁고도 열렬한 축하의 인사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조프는 결국 이딸리아를 세계앞에 받들어올린 축구영웅으로 되였다.

조프는 1983년 6월 2일 41살에 선수생활로부터의 은퇴를 선포하였다.

그 리유를 묻는 기자들앞에서 조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41살의 내가 어찌 젊은이들과 함께 질주할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명은 이젠 끝났습니다. 국가팀의 장애물로 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점점 갈마듭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과거시대를 대표하는 선수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축구와 완전히 리별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성공의 절정에 오른 디노 조프의 축구인생이야말로 축구로 생을 꽃피우려는 청소년들에게 참된 교양적의의를 주는 경험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사나운 범》-빠울 로씨

나는 단순한 공격수도 아니고 일반적인 차넣기선수도 아니며 더우기 한자리에 서서 공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앙공격수도 아니다.

나는 멈추어서지 않고 계속 뛰여다닌다.

어떤 때에는 공이 없어도 방어수들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 위치를 이동하군 한다.

―빠울 로씨―

빠울 로씨는 1956년 9월 23일, 이딸리아의 유명한 중부도시 플로렌스에서 멀지 않은 싼루찌아운마을의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 둘째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온 가정은 축구애호가였다.

후날 그는 《우리 집에서 축구는 매일 먹는 빵처럼 중요하였다.》라고 자주 말하였다.

그러나 단 한명 어머니만은 그들의 축구의 세계를 리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로씨는 축구의 세계에 다른 축구명수들에 비하여 뒤늦게 뛰여들었다고 말할수 있다.

천리마축구가 안아온 방향전환

로씨가 10살나던 1966년에 영국에서는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가 진행되였다.

축구선수였던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TV를 시청하던 로씨는 신비한 동방의 어느 한 나라 축구선수들과의 경기에서 강팀이라고 장담하던 자기 나라팀이 참패를 당하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아버지의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로씨는 자기 나라팀을 타승한 그 신비한 팀이 바로 천리마의 나라 영웅조선의 축구팀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조선팀때문에 이딸리아팀은 다음단계 경기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귀국하여 비행장에서 썩은 닭알세례를 받았으며 온 나라에 로마제국의 몰락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던것이다.

TV를 통하여 알게 된 이러한 사실은 회계원이나 은행직원 또는 교회당의 신부가 되려고 결심하였던 그의 생각에 완전한 방향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가정에서 그 누가 반대하건말건 그는 축구세계에 뛰여들었다.

축구에 대한 남다른 열성은 그로 하여금 학교축구팀 주장으로, 득점수로 되게 하였으며 그렇게도 완강하게 반대하던 어머니도 결국 열성적인 응원자로 되게 하였다.

로씨가 13살때 플로렌스에서는 봄철 중학교학생들의 경기대회가 있었다. 경기를 앞둔 어느날 로씨의 형 빠울라가 훈련장으로 찾아왔다.

《로씨, 힘들지 않니?》

《형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난 축구를 하면 힘든줄 모르겠어.》

로씨는 처음으로 훈련장에 나타난 형을 보고 반가와하며 대답했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로씨의 형 빠울라는 이딸리아의 유명한 유벤뚜스축구구락부에서 후보선수로 활약하였다. 그러다가 외상으로 하여 축구를 할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와 회계학교에서 공부한 다음 견방직공장의 회계원으로 일하고있었다.

《로씨, 이제까지 난 회계학교에 다니느라고, 또 플로렌스견방직공장에서 회계원일에 쫓기느라고 형구실을 바로 못했구나.

네 축구화를 사가지고 왔다.

운동화문수에 맞추었는데 어서 신어보렴.》

형은 로씨와 마주앉아 운동화를 벗기고 축구화를 신겨주었다.

《형, 내 발에 꼭 맞아.》

《나도 이제부터 형구실을 하자는거다. 그전에 나도 축구화가 제일 부러웠댔어.》

《형, 정말 고마워.》

《고맙긴, …응당한거지.》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고 로씨는 자기가 축구훈련을 하는 학교운동장 한복판으로 달려나갔다.

드디여 봄철 중학교축구경기날이 왔다.

로씨네 집식구들은 마치 들놀이에 나설 때처럼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아침 일찍 플로렌스경기장으로 갔다.

경기장은 학생들과 학부형들로 가득찼다.

푸른 잔디가 가쯘히 자란 축구경기장으로 싼루찌아운중학교축구팀과 플로렌스신학교축구팀이 주심의 뒤를 따라 중앙원을 향해 입장하였다.

싼루찌아운중학교축구팀의 공격수로, 주장으로 참가한 로씨는 관람석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관람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이 가지런히 앉아 손을 흔들어주는것이 보였다.

로씨의 마음은 즐겁기만 하였다.

드디여 경기가 시작되였다.

로씨는 공이 자기에게 차례지건 차례지지 않건 순간도 멈춤이 없이 계속 뛰였다. 공격수로서 공을 달고 돌파하면서 상대팀 방어수들을 한명한명 뚫고들어가다가는 차넣기기회까지 놓치군 했으나 민

첩한 동작과 빠른 반응으로 상대팀의 문전에 나타나서 위협을 주군 하였다. 소년들의 축구경기이지만 량팀선수들의 축구기술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였다.

아직 협동과 전술운영에서는 빈틈이 있었으나 어른들도 놀랄 정도였다. 전반전은 득점없이 비긴 상태로 끝났다. 후반전 마감시간을 얼마 앞두고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던 때 로씨가 쏜살같이 달려 위치를 이동하면서 방어구역안에서 공을 받아 차넣기를 했는데 그 공이 그대로 그물에 걸렸다. 실로 눈깜박할사이였다.

싼루찌아운중학교 응원대모두가 일제히 일어나 《꼴!ㅡ》 합성을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가운데서도 로씨가족일행의 기쁨을 그 어데 비길수 있었으랴.

어머니도 자리를 차고 일어났으나 숨이 막혀 겨우 입만 벌리였다. 결국 이날의 경기는 1:0으로 끝났다.

로씨를 이끌고 푸른 잔디우에 둘러앉은 온 가족은 기쁨을 금치 못했다. 어머니는 로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그의 가까이에 놓아주었다.

《로씨, 넌 개인기술로만 꼴을 넣으려고 하는데 시야를 넓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득점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걸 잊지 말아야 해. 〈독불장군〉이라는 말뜻을 명심해야 해. 서로 협동을 잘했더라면 이미 전반전에 꼴을 넣을수 있었어.》

로씨의 아버지는 마치 책임감독처럼 경기과정에 나타난 약점가운데서도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들을 꼭 집어냈다.

《아버지, 명심하겠어요.》

로씨는 축구선생으로 존경하는 아버지의 매 말마디들을 가슴에 새겨두었다.

《이제부터는 경기의식도 더 키우고 경기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뛰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머리를 잘 써야 한다.

특히 축구경기에서는 단합된 집단행동이 승리를 가져다준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때문에 성공은 못했어도 네 아버진 쁘라또지방팀의 득점명수로 소문이 났댔단다.》

로씨의 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끼여들며 자기가 그의 뒤바라지를 잘했더라면 아마도 이딸리아축구계에 이름을 남길수 있었을것이라고 추억하였다.

《지나간 일은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소. 우리 자식들의 앞날에 그늘이 지지 않게 하면 되는거요.》

《아버지, 난 지금도 1966년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동방의 조선팀한테 우리 이딸리아팀이 패하고 우리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르군 해요.

그때부터 나는 유능한 공격수가 되여 멋진 꼴을 넣을 꿈을 가지게 되였어요. 오늘은 그 꿈의 첫 꼴을 넣었구요.》

로씨는 3년전의 일에 대하여 말하고있었다. 아버지는 결심을 지켜갈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견함을 금치 못했다.

《로씨, 오늘 네가 첫 꼴을 넣은것은 기쁜 일이다.

축구의 매력은 물론 득점이다. 그러나 너 혼자만의 노력으로 꼴을 넣을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돼.

한개의 꼴을 위하여 11명이 마음을 합칠 때 승리가 얻어진다는것이 중요한 축구원리란다.》

아버지는 첫 꼴을 넣고 사기를 올리는 로씨에게 집단행동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기쁨의 시간이 흘렀다.

기쁨과 슬픔

1970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메히꼬에서 진행된 제9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14살난 로씨의 축구열정에 더욱 불질을 해준 계기로 되였다.

6월 17일 메히꼬의 아스데까경기장에서는 유럽의 축구강팀들인 이딸리아팀과 이전 서도이췰란드팀사이에 준결승경기가 진행되였다.

경기는 처음부터 치렬한 공방전속에서 아슬아슬한 장면들을 련

속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아스데까경기장의 관중들뿐아니라 TV를 시청하고있는 세계축구애호가들의 숨을 죽이게 했다. 21분사이에 6꼴이나 난 이 경기는 축구력사상 가장 치렬한 경기였다.

로씨의 집식구들도 숨을 죽이며 긴장한 마음으로 TV를 보고 있었다.

이딸리아팀에서는 보닌쎄냐와 리베리가 맹활약을 하고 서도이췰란드에서는 벡켄바우어와 뮬러가 핵심적역할을 하였다.

벡켄바우어는 부상당한 어깨에 붕대를 감고 경기에 참가하였다.

3:3 동점이 난 상태에서 연장전에 들어갔다.

아슬아슬한 공방전은 계속되였다.

관람석에서는 심리대결인 11m승부차기를 할것이라는 소리가 떠돌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예감은 연장전 전반에 이딸리아팀의 리베리선수가 단독돌파하면서 날래게 상대방 방어구역으로 들어가 강한 차넣기

○ 상 식 ○

축구선수선발의 몇가지 지표

— 선수가 다음의 동작들을 잘할수 있는가?

- 공몰고 또는 공없이 달리기
- 공련락
- 공장악
- 공빼몰고 속임동작
- 두발을 다 리용하여 공차기
- 대인방어수로부터의 리탈
- 방어진을 뚫고 돌입능력
- 옳바른 위치선택

—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거나 패했을 때 존엄있게 행동할줄 아는가? 그리고 경기과정에 팀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가?

를 한것이 그대로 득점함으로써 완전히 사라졌으며 이 득점은 이딸리아팀의 결승경기참가를 결정짓게 하였다.

조마조마한 마음을 다잡으며 TV를 시청하던 로씨의 아버지는 뒤로 벌렁 누우며 《우리 꼴이다!》라고 웨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로씨는 벌떡 일어나 두팔을 높이 들고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결국 이딸리아팀이 서도이췰란드팀을 4:3으로 타승하고 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되였다.

온 이딸리아땅이 명절분위기로 들끓었다. 《이딸리아가 이겼다.》라는 말은 며칠동안 이딸리아사람들의 인사말로 되였다.

이러한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로씨는 흥분되는 마음을 걷잡을수 없었다.

6월 21일, 세계패권을 노리는 이딸리아팀과 브라질팀간의 결승경기가 진행되였다.

이 두 나라 축구팀들의 결승경기는 그야말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

— 선수가 다음의 조항들을 만족시키는가?
- 경기에 림할수 있는 적합한 육체적능력
- 1대1정황에서 이길수 있는 충분한 능력
- 경기에 대한 충분한 리해
- 훌륭한 머리받기기교
- 적극적인 태도

— 선수가 다음의 정황들을 처리할수 있는가?
- 1대1정황을 처리할수 있는가?
- 득점능력이 있는가?
- 다른 선수를 위한 득점기회를 만들수 있는가?
- 공관할을 잘하고 첫 련락을 잘할수 있는가?
- 공을 몰고 속도변화를 할줄 아는가?
- 공정지상태에서 차넣기능력이 있는가?

중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이 두 강팀들의 경기에서 이기는 나라가 《쥴리어스 리멧컵》의 영원한 소유자로 되는것이다.

그때까지 이딸리아팀은 1934년과 1938년, 브라질팀은 1958년과 1962년에 각각 두번에 걸쳐 우승하였기때문에 이제 한번만 더 우승하면 《쥴리어스 리멧컵》을 영원히 자기 나라의 소유로 만들게 되여있었다. 그러니 이 경기는 결승경기에 참가하는 두 나라는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경기전날 이딸리아팀 선수들에게는 우승하면 거액의 상금을 준다는 소식과 함께 비행기편으로 보내온 4 000송이의 장미꽃이 안겨졌다.

브라질대통령은 자기 팀 선수들이 들어있는 마리야 이싸벨호텔에 직접 고무격려의 특별전화까지 걸어 최후대결전에 나서는 자기 나라 선수들을 고무해주었다.

이딸리아팀 책임감독은 아메리카대륙에서 진행된 세차례의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유럽나라팀이 한번도 우승하지 못한 전적을 되새기며 긴장감과 초조감에 싸여있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결승경기가 시작되였다.

브라질팀은 자기식의 집단적인 공격기동속도를 높이는것과 함께 뻴레에게 기대를 걸고 2인, 3인결합을 엇바꾸어가며 드센 공격을 들이댔다

이딸리아팀은 전통적인 전면방어로 나오면서 불의적인 역습속공을 시도하며 자기의 방어능력을 더욱 높여나갔다.

전반전 경기시간 18분경, 브라질팀의 공격수 뻴레가 익측으로부터 날아오는 공을 코브라률동으로 머리받기를 하여 귀중한 첫 꼴을 넣었다. 경기장은 브라질응원관중의 환호성으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방어에 력량을 집중하던 이딸리아팀은 잃은 한점을 회복하고 불리한 경기정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공격에 힘을 넣기 시작하였다.

전반전 경기시간 37분경 브라질팀 방어수들이 실수한 공을 이딸리아팀 공격수 보닌쎄냐가 잡아 차넣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물에 걸려 전반전은 1:1 동점으로 끝났다.

휴식시간에 아스데까경기장의 분위기는 더더욱 긴장감과 초조감에 휩싸여있었다.

관중들도 아무말없이 정적속에 가슴을 조였다.

후반전에 들어와 브라질팀은 속도를 늦춤이 없이 꼴을 넣기 위한 공격전을 벌렸고 이딸리아팀은 전면방어로 이행하여 꼴을 먹지 않고 비기려 하였다.

브라질팀은 뻴레를 중심으로 2인, 3인결합으로 이딸리아팀의 《비자루방어》장벽을 허물기 시작하였다. 브라질팀은 협동작전을 벌려 제르쏜선수와 자이르지뇨선수가 역습속공을 성사시켜 두번째, 세번째 꼴을 넣었으며 경기마감시간에는 뻴레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알베르또선수가 강하게 차넣은 공이 그물에 걸렸다. 결국 결승경기는 4:1로 브라질팀의 승리로 끝났다.

메히꼬의 아스데까경기장은 기쁨과 슬픔으로 차고넘쳤다.

하여 40년동안 세계축구선수권대회때마다 경기장의 중심에서 빛을 뿌리던 《쥴리어스 리멧컵》은 영원히 브라질의것으로 되였다. 정열적인 축구애호가인 로씨의 아버지 눈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내가 꼭 이딸리아에 우승컵을 안아오겠어요.》

《음, 아버진 너의 결심을 믿겠다.》

아들 로씨를 와락 품에 껴안은 아버지는 그의 절절한 호소를 들으면서 그의 축구를 뒤받침할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이딸리아팀의 련이은 실패는 로씨에게 축구에 대한 열의를 더더욱 불러일으켰다.

《축구시장》의 소용돌이속에서

월드컵을 본 후 로씨가정의 축구열의는 더더욱 높아졌다.

푸름푸름 밝아오는 새벽공기를 헤가르며 매일 아버지와 로씨는 쁘라또지방축구팀 훈련장에서 축구훈련으로 새날을 맞

이했으며 로씨는 밤늦게까지 훈련의 땀방울로 온몸을 적시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로씨네 집으로 쁘라또지방축구팀 감독이 찾아왔다.

《겔리씨오, 몸이 좀 어떤가?》

《자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병문안 왔지. 며칠째 로씨가 혼자 조기훈련하러 나오길래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앓는다고 하지 않겠나. 자네와 토론할것도 있구 해서 찾아왔네.》

감독은 총각시절에 로씨의 아버지와 함께 축구경기에 출전하던 옛 정을 스스럼없이 내비치며 말했다.

《자네가 애쓰는 로씨의 축구미래를 틔워주려고 왔네.》

《뭘? 축구미래?!》

○ 상 식 ○

최고경기능력의 발현나이

축구는 종목자체의 특성으로부터 기술이 복잡하고 전술이 다양하므로 일찌기 시작하여 다년간의 풍부한 창조적경험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면 축구선수들 특히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긴 축구명수들의 경기능력이 최고로 발현된 나이가 몇살이 되는 때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40년간 9차례의 월드컵경기대회과정을 보면 브라질의 로날도, 잉글랜드의 오웬 등과 같이 10대에 국가팀에서 국내1부류련맹전이나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기록적인 일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세계축구계에서 아직 빛을 내지 못하고 대기석에서 구경이나 하는 처지에 있었다.

1982년에 22살난 까레까 역시 완성된 축구명수로서의 재능을 발

로씨의 아버지 겔리씨오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눈을 크게 떴다.

《혼자서 애쓰지 말고 로씨를 나에게 맡기면 어떻겠나?

이름없는 지방팀의 축구감독이지만 로씨의 축구토대야 닦아줄수 있지 않겠나.》

《자네의 인정과 의리에 탄복할뿐이네.》

《겔리씨오, 내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것은 자네의 덕이네.

며칠동안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로씨의 조기훈련을 지도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팀 선수들도 입을 딱 벌렸단 말이야.

령활성과 민첩성, 불의적인 단독돌입과 위치선택 그리고 차넣기는 어른들도 찜쪄먹을 정도야. …

어제 우리 팀 선수들과 함께 련습경기에 로씨를 참가시켰는데 글

휘하지 못하였다. 마라도나는 심리적으로 미숙하였고 밧죠는 순간적으로 매혹적인 기술을 나타냈으며 까레까는 사람들에게 어딘가모르게 부족한감을 주었다.

40년간의 월드컵경기과정은 나이가 28살정도이고 월드컵경기에 2번정도 참가해본 경험이 있는 축구명수만이 《축구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출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1974년 제10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 가장 인기를 끈 네데를란드의 크루이프와 서도이췰란드의 벡켄바우어 역시 28살정도였다.

1986년의 마라도나, 1990년의 마테우스, 쉴라치, 1994년의 로마리오, 밧죠, 2006년의 클로제 역시 그 나이였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지단, 쉡첸꼬, 로날도, 벡캄, 피고, 로날디뇨, 까까 등 많은 선수들이 28살정도의 나이에 가장 높은 경기능력을 발휘하였다.

쎄 꼴을 2개나 넣었단 말이네.》
  쁘라또지방축구팀 감독은 련습경기를 실황중계하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선수들을 두조로 나누고 로씨를 후보선수조의 공격수위치에 세웠다. 전반전이 시작되자 로씨는 최종공격선에서 공을 따라 달리면서 공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득점에 유리한 위치로 쏜살같이 돌파하여 들어가 위협을 주군 했다.
  방어수들을 속임동작으로 빼돌리고 공을 달고 들어가던 로씨는 돌입차넣기를 멋지게 하군 하였는데 그 공이 그대로 꼴문으로 들어갔다. 이제 겨우 14살인 로씨가 그렇게 공다루기를 잘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졌다.
  로씨가 넣은 꼴로 전반전은 1:1동점이 되였다.
  뛰고 또 뛰는 로씨를 생각해서 감독이 후반전에는 휴식하라고 하자 국제축구련맹규칙에는 경기시간이 90분으로 규정되여있다고 하면서 45분간 더 뛰겠다고 하였다.
  후반전에 로씨는 또 한꼴을 넣었다. 결국 련습경기는 2:1로 로씨가 속한 후보조의 승리로 끝났다. …
  감독은 로씨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젤리씨오, 난 자네와 함께 로씨의 축구미래를 가꿔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내 자식을 위해주는 자네의 그 마음이 고마울뿐이네.》
  《감사하네.》
  《감사까지야. 사실 이번에 이딸리아축구협회에서는 나라의 축구가 미래가 없는 저조기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론의가 많았다네.》
  《아, 그래서 자네가 인재선발에 나섰구만.》
  《그렇네. 내 가까이에 축구인재인 로씨가 있다는걸 보지 못했거든. 확실히 난 눈먼 감독이였어. 허허허….》
  《고맙네. 범도 제 새끼를 고와해주면 침을 흘린다는데 나도 범과 같다고 할수 있지. 하하하….》
  이렇게 되여 로씨는 쁘라또지방축구팀에 선발되였고 후에는 플로렌스교회축구팀에 뽑혀가 로마에서 진행된 전국축구경기대회

에 참가하게 되였다.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로씨는 플로렌스교회축구팀이 전국적으로 2등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경기에서 이딸리아축구계에 첫선을 보였다. 이때부터 로씨는 이딸리아에서 이름난 축구구락부들이 눈독을 들이는 전도유망한 후비선수로 알려지게 되였다.

그러던 1972년 8월 로씨가 16살 되여오던 어느날 또리노에 있는 유벤뚜스축구구락부의 선수선발감독이 플로렌스 싼루찌아운마을에 있는 로씨의 집을 찾았다.

유벤뚜스축구구락부에서 활약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형 빠울라와 함께 축구에 한몸 바치려는 로씨는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감독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빠울라구나, 다리외상때문에 고생했다면서…》

《이젠 다 나았습니다. 회계원일을 하고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다 들었다.》

《그렇습니까. 감독선생님! 내 동생 로씨입니다. 나처럼 생각하고 잘 돌봐주십시오.》

형 빠울라가 선발감독에게 로씨를 인사시켰다.

《로씨, 난 로마에서 네가 경기하는걸 다 보았다.

경기를 잘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그리하여 로씨는 유벤뚜스축구구락부 청년팀선수로 되였다.

당시 이딸리아의 축구를 대표하고있었던 유벤뚜스축구구락부는 이미 《축구시장》으로 변해버렸다.

유벤뚜스축구구락부는 이딸리아의 북서쪽끝에 자리잡고있는 공업도시 또리노에 본거지를 두고있으면서 실제상 유명한 피아트자동차회사의 후원밑에 있었다.

이 회사의 주인들인 아녜니형제들이 한때 이 축구구락부의 회장으로 있었다.

유벤뚜스축구구락부는 날이 갈수록 비대해졌으며 국내와 외국에서 이름있는 선수들을 채용하여 자기의 힘을 과시하였다.

결국 이딸리아의 축구계는 재능과 열정의 결정체로 남아있지 못하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축구시장》으로 되였다.

축구선수들도 《축구시장》에서 팔고사는 《상품》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로씨 역시 이러한 풍랑에 실려 유벤뚜스축구구락부로 팔려가 경기장을 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로씨는 명수급팀에서 공을 차게 된것을 기뻐하며 또리노에서 청년팀들의 경기에 참가하여 민첩한 공격수의 기교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경기들에서 세번이나 외상을 당하여 여러번 무릎관절의 반달형뼈를 잘라냈다.

병원침대신세를 지게 된 로씨의 심정은 착잡했다.

(나도 형처럼 쌍지팽이를 짚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회계원이나 교회당의 신부로 되는것이 낫지 않았을가. 우리 집안래력은 축구와 담을 쌓는 운명만 차례지는게 아닐가. …)

로씨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치료결과가 좋았다.

로씨는 축구선수로서의 생활을 계속할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의견을 듣고 너무 기뻐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로씨의 그 깨끗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약삭바른 유벤뚜스축구구락부 회장은 부상당한 로씨를 놓고 돈벌이를 할수 없겠는가를 생각하다가 청년팀 책임감독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꿍꿍이를 하였다.

로씨는 부자들의 돈벌이희생물로 되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로씨를 본 책임감독은 래일부터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그에게 일정한 기간 안정하고는 꼬모르팀으로 가서 경기에 참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청년팀 책임감독은 로씨에게 꺼내기 힘든 말을 해놓고는 사실을 까밝힐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누잦히려는듯 멍하니 창문밖만 쳐다보았다.

《감독선생님, 그럼 나를 꼬모르팀에 팔아버렸습니까?》

《아니, 거기서 공격수 한명을 요구해서…

한동안 안정도 할겸 보내기로 토론했다.》

《회장님이 말입니까?》

《그렇다.》

《알겠습니다. 꼬모르팀에 가서 안정하지요.》

직업축구구락부에서 회장의 권한이 상당하다는것을 알고있는 로씨는 더 말할 힘조차 없었다.

감독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로씨의 눈가에는 이슬이 번뜩이였다.

이렇게 되여 로씨는 청소년시절을 유벤뚜스축구구락부에서 꼬모르축구구락부로, 거기에서 또 위첸챠축구구락부로 이전하면서 곡절많은 축구인생을 흘려보냈다.

그러나 그가 축구의 길에서 체험한 이러한 곡절들은 락심과 비관을 준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발의 계기로 되였다.

(내 기어이 축구의 길에서 성공탑을 쌓으리라!)

힘들 때면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던 아버지의 사심없는 축구훈련지도를 생각했고 재봉기를 돌리며 훈련복을 만들어주던 어머니의 정깊은 모습을 그려보았으며 축구화를 사가지고 와서 발에 신겨주던 고마운 형의 인정을 가슴깊이 새겨안으면서 훈련에 모든 정열을 쏟아부었다. 그의 경기성적은 마침내 온 이딸리아땅에 《득점왕》으로 소문나게 하였다. 경기할 때의 그의 모습은 사나운 범을 련상케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78년 제11차 아르헨띠나월드컵경기대회에 국가종합팀 후보선수로 참가하여 3개의 꼴을 넣었으며 1982년 제12차 에스빠냐월드컵경기대회에서는 브라질팀과의 준준결승경기에서 3꼴, 뽈스까와 서도이췰란드와의 준결승, 결승경기에서 3꼴 모두 6개의 꼴을 넣어 이 대회의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상을 받고 이딸리아가 세번째로 우승컵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것은 로씨의 나이가 26살이던 때였다.

로씨의 축구생활은 그후 유벤뚜스축구구락부에서 다시 시작되였으나 그는 1987년 31살에 선수생활에서 은퇴하는것으로 축구인생을 마치였다.

《만능축구선수》-루드 굴리트

성공하리라. 내 기어이 성공하리라.

이것만이 사는 길이다.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백인들을 이기는 길이다.

—루드 굴리트—

1980년대 중반기 네데를란드축구팀에는 삼두마차로 불리우는 3명의 선수들이 강력한 공격진을 이루고있어 무적의 강팀으로 이름을 떨쳤다. 굴리트, 반 바스텐, 라이칼드로 구성된 이 삼두마차의 기수가 바로 장발의 축구명수 루드 굴리트였다.

190㎝의 키에 80㎏의 몸질량을 가진 장대한 체구의 굴리트였지만 길게 풀어내린 장발의 검은 고수머리를 흩날리며 무용수와도 같은 유연한 동작으로 경기장을 뛰여다닐 때에는 마치 끝없이 펼쳐진 초원으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한필의 준마를 방불케 했다.

그는 1987년에 유럽축구선수상인 금뽈상을 수여받았으며 1988년에는 네데를란드팀이 유럽축구선수권을 쟁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아버지의 유언

루드 굴리트는 1962년 9월 1일 네데를란드 암스테르담교외의 빈민촌에서 태여났다. 그가 태여날 당시 그의 아버지는 암스테르담시내의 지하철도공사장에서 일하는 로동자였다.

남아메리카의 수리남에서 태여난 그의 아버지는 흑인노예로 남아프리카의 네데를란드인 자본가가 경영하는 금광에 팔려갔다가 다시 암스테르담지하철도공사장으로 팔려왔다.

그의 어머니 역시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 팔려온 황인인부였다. 수리남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한바 있는 아버지는 굴리트에게 어려서부터 축구선수로 될 꿈을 키워주었다.

하지만 자기가 받는 보잘것없는 로임으로는 아들에게 축구공 한개 사줄 형편이 못되였다. 그는 아들을 축구선수로 키우기 위하여 야간작업까지 해가며 갖은 애를 다 썼다.

어릴 때부터 축구에 남다른 취미를 가진 굴리트는 자기또래 아이들속에서 공다루기재간이 제일 뛰여났었다.

굴리트가 8살잡히던 해에 그는 아버지친구의 도움으로 메리보이스소년축구학교에 입학하였다. 이 학교의 한달분 교육비는 매우 비쌌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한달로임에 해당되는것이였다.

물론 축구화와 운동복을 비롯한 축구기자재값은 전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 어려운 길을 택하였던것이다. 굴리트만은 배를 곯지 않게 하려고 굴리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작은 빵쪼각과 몇알의 감자로 끼니를 에우군 하였다.

굴리트는 학교적으로 달리기도 공차기도 제일 으뜸이였다.

남달리 머리가 총명한 그는 매 학기마다 최우등을 하여 수재로 소문나기 시작하였다.

굴리트또래의 학생들가운데서는 축구학교적으로 그를 따를 대상

이 없었다. 축구도 잘하고 수학과 외국어, 음악까지 뛰여난 굴리트는 날이 감에 따라 부자집 백인아이들의 질투대상으로 되였다.

백인아이들은 굴리트가 흑인이라고 놀려대며 생트집을 걸어 싸움을 하군 하였다.

《깜둥이새끼가 축구는 해서 뭘해?

그 주제에 음악은 해서 뭘하구. 널 누가 인정이나 한대?…》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냉큼 사라져라. 내가 축구를 하고싶어서 한다. 그 누가 인정하구안하구 난 상관하지 않는다.》

굴리트는 몇아이는 쫓아버리군 하였지만 어느날인가는 여럿이 달려드는 바람에 코피가 터지고 얼굴이 째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였다.

☆ 일 화 ☆

남자축구팀의 녀자감독

최근에 와서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나 수상의 자리에 녀성들이 들어앉아 한 나라를 이끌고있는 일은 그리 희귀한 사실로 되지 않고있다. 그런데 남자축구팀을 녀자감독이 지휘한다고 하면 머리를 기웃거릴수 있다.

그러나 축구의 나라라고 자처하는 이딸리아축구계에 이런 일이 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녀자축구계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딸리아득점명수 까로니나 모라쎄이다. 그는 이딸리아녀자축구종합팀의 공격수였다. 어려서부터 축구에 정을 둔 그는 15살에 밀라노팀에 들어가 축구기술을 익혔는데 늘 남자선수들과 훈련하면서 공몰기기술과 차넣기의 묘리를 터득하였다. 그가 얼마나 이악하고 용감했던지 남자축구선수들은 그를 《베니스의 범》이라고 불렀다.

베네찌야(베니스)는 모라쎄의 고향이였다. 베네찌야는 영국의 대문호 쉑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모라쎄를 배출한것으로 하여 더 유명해졌다.

집에 들어온 그를 본 아버지가 격분하여 이렇게 물었다.

《굴리트야, 웬일이냐? 누구와 싸웠니? 왜 맞았니?》

아버지의 물음에 그는 너무도 억울하여 《엉엉—》소리내여 울면서 대답하였다.

《아버지! 난 잘못이 없어요. 축구를 좋아한것이… 흑인은 축구를 좋아하면 안되나요? 아버지—》

아버지는 인종차별이 가져다주는 가슴아픈 대답을 들으며 아들을 부둥켜안았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잠자는 아들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다음날 아버지는 지도교원을 찾아갔다.

《선생님, 어린아이에게까지 인종차별의 가슴아픔을 안겨주어야

모라쎄는 1979년부터 1993년사이에만도 344회의 경기에 참가하여 총 341개의 꼴을 넣어 득점명수로서의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의 특징은 남자축구선수들 못지 않은 담력과 대담성, 팀을 이끌줄 아는 조직자적능력이다. 특히 그의 중장거리차넣기는 웬만한 남자선수들도 혀를 찰 정도였다.

모라쎄의 능력과 명성은 이딸리아의 국내축구련맹전에서 수세에 몰리고있던 비떼르베쎄팀(남자)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팀의 경영자 안토니오는 새로운 감독들을 물색하던중 비록 녀자이지만 경기조직자적수완과 기술전술적능력을 소유한 모라쎄에게 기대를 가지게 되였다.

모라쎄는 어려서부터 남자축구선수들과의 훈련에서 유기적인 련계를 가지고있던지라 안토니오의 제의를 군말없이 받아들이고 남자축구팀 감독으로 되였다.

비떼르베쎄팀 선수들은 놀랍게도 왕벌의 수하에 뭉쳐돌아가는 벌떼와도 같이 모라쎄의 지휘에 충실히 복종하여 일련의 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3부류팀으로부터 2부류팀으로 도약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합니까? 우리 굴리트가 나쁜짓을 했습니까?》
《아니요. 굴리트는 말이 없고 착한 학생입니다. 례절이 바르고 품행이 단정하여 모두가 다 칭찬합니다. 내 미처 몰랐습니다.
때린 아이들을 단단히 혼쌀내우겠습니다.》
축구지도교원 바우뗘는 굴리트와 그의 아버지를 동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선생님, 축구구 뭐구 다 그만두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굴리트는 축구를 꼭 해야 합니다.
축구에 특별한 소질이 있는 아이입니다. 두고보십시오. 꼭 이름있는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책임지겠으니 참으시오. 굴리트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바우뗘는 량심적인 사람이였다.
그는 오랜 기간 나어린 축구선수들을 키워왔지만 굴리트처럼 천성적으로 운동능력이 좋고 속도가 빠른데다가 령리한 머리를 가진 학생은 처음 보았다. 게다가 굴리트는 축구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훈련에 대한 자각적인 열성이 대단히 높았다.
바우뗘선생은 굴리트를 잘 키워 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로 직업팀에 보내주리라 마음먹고있었다. 그래서 찾아온 굴리트의 아버지 쥴리오의 마음을 너그럽게 풀어주었던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굴리트의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앉히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굴리트야, 축구를 더 억세게, 완강하게 해라. 꼭 성공하거라. 바늘로도 우물을 판다고 했는데 노력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알겠어요. 내 기어이 성공하여 그들이 내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어요.》
이것은 같은 인간이면서도 흑인이라면 무조건 굽신거려야 하고 재능도 짓밟혀야 하는 모순에 찬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반항의 첫 싹이였다.
이때로부터 흑인소년 굴리트의 결심은 축구훈련으로 더욱 굳어져갔다.

바우떠선생도 더 각별히 굴리트를 대하였고 개별지도까지 해가며 기초기술과 육체적준비를 정확히 갖출수 있도록 관심을 돌렸다.

특히 그는 굴리트의 남다른 유연성에 기초하여 위력한 깎아차기 기술습득과 속도적인 공몰기기술에 중심을 두고 그의 훈련지도를 심화시켰다.

굴리트의 기초기술동작이 잘 안되면 자신이 시범동작까지 해보이면서 인내성있게 축구기술을 높여주기 위하여 애썼다.

스승의 열정에 감복하여 굴리트도 하루같이 땀으로 온몸을 적시군 하였다.

스승과 제자, 축구를 열렬히 사랑하는 두사람의 지향은 한곬으로 합쳐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흑인소년의 꿈은 희망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제 얼마간 더 훈련하면 굴리트도 축구계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는 명수로 자랄수 있었다.

한해두해 훈련의 나날이 흘러 굴리트도 어느덧 15살이 되였다.

어느날 굴리트가 개별훈련에 열중하고있는데 바우떠선생이 정신없이 뛰여와서 소리질렀다.

《굴리트, 급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위험하단다.

지하철도공사장이 허물어졌다. 빨리 가보아라.》

굴리트가 너무도 놀라운 소식을 듣고 운동복차림그대로 공사장에 도착하니 숱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켜서있었다.

굴리트는 불안한 마음을 안은채 앞을 가리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며 담가를 부축하여 나오는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구급차에 옮겨실었다.

아버지의 친구 두사람과 어머니 그리고 굴리트는 구급차를 타고 공사장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

구급소생실에서 아버지 쥴리오에게 강심제주사를 놓고 산소호흡까지 시켰으나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굴리트는 아버지의 머리맡에서 어쩔바를 몰라 안절부절하면서 물기어린 눈길로 의사들과 간호원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굴리트의 어머니 파리마가 남편의 친구들이 모아준 돈으로 주사약을 20대 구해가지고 왔으나 의사는 그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은채 그런 주사를 90대 맞아야 살수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남편을 살려보려고 집도 팔고 자기의 피까지 팔아 약값을 마련하느라고 하였지만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굴리트도 기타를 메고 다방을 찾아다니며 노래도 부르고 일도 하면서 아버지를 구해보려고 별의별짓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지성에도 불구하고 굴리트의 아버지는 병원에 온지 며칠만에 마지막숨을 몰아쉬기 시작하였다.

《파리마, 울지 마오. 우리 아들 굴리트가 있지 않소.

굴리트를 부탁하오. 그의 소원이자 나의 소원인 축구를…

굴리트를 훌륭한 축구선수로 키워주오. …

굴리트야, 명심해듣거라.

네가 직업팀선수가 되면 남아프리카의 흑인지도자 넬슨 만델라석방운동에 내 대신 참가해다오.

이건 내가 하던 일이였고 또 계속 해야 할 일이였는데…다 못하고 간다. 내 대신 꼭 해다오. … 내 아들 굴리…》

말을 간신히 이어가던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굴리트와 어머니가 애타게 불렀으나 그는 대답이 없었다.

그토록 아들을 사랑하며 아들에게 힘도 주고 의지도 키워주던 아버지, 그는 다시는 굴리트의 뽈차는 모습도 웃음넘친 얼굴도 볼수 없었다.

《어느 놈이 아버지를 죽였어? 어느 놈이?…아버지!》

치솟는 울분을 진정할수 없어 굴리트는 두주먹으로 땅을 치며 목놓아울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저 하늘 멀리로 메아리쳐갔다.

기어이 축구로 성공하여 아버지의 소원을 풀고 아버지를 죽인 놈들이 보란듯이 일어서리라는 결심이 더더욱 굳어지게 하는 메아리였다.

아약스축구구락부에서

인간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네데를란드땅에서 자기 가정이 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감수하며 굴리트는 일찌기 철이 들기 시작하였다.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는것과 함께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을 품은 굴리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땀방울을 훈련장에 뿌리였다. 사람들이 굴리트가 축구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는 축구밖에 몰랐다.

굴리트는 축구학교에서 자기 조의 집체훈련이 끝나면 운동장을 다른 조에 내주고는 공을 안고 벌판으로 나가 공다루기개별훈련을 계속하였다.

바우떠선생은 언제나 말없이 축구훈련에 열중하고있는 굴리트의 모습을 동정심을 안고 눈여겨보다가는 기술동작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군 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교육자의 량심을 지켜온 바우떠선생은 굴리트의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부터는 그에게서 교육비를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갚아주면서 사심없이 축구기술을 배워주었다.

바우떠선생은 날로 발전하는 굴리트의 축구기술과 육체적준비에 대하여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훈련지도에서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그는 굴리트의 축구기술발전을 위해 데베쓰청소년축구구락부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데베쓰청소년축구구락부 감독 요한 크루이프는 국내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좌익중간방어수를 선발하려던 참에 굴리트에 대한 바우떠선생의 의견을 받고 그를 보내달라고 전화로 알려왔다.

《굴리트, 내가 말해놨으니 데베쓰청소년축구구락부에 가거라. 크루이프감독이 기다릴거야.

거기로 가면 내 인사도 전하고 내가 보내서 왔다구 하거라.》

《선생님, 제가 가서 합격될가요?》

굴리트가 자신없어 주춤거리며 물었다.

《합격되구말구, 굴리트만한 선수가 없어. 신심을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거라. 경기를 시키면 대담하게 속도몰기와 강한 깎아차기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알겠니?》

《알았습니다.》

데베쓰청소년축구구락부 감독 요한 크루이프는 굴리트의 축구훈련과 경기를 보고 대단히 만족해하며 바우떠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우떠, 고맙네. 자넨 내가 애타게 찾던 선수를 보내주었네.

○ 상 식 ○

월드컵경기대회 시작경위

월드컵경기대회(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가장 우수한 축구선수들로 꾸려진 국가대표선수(국가축구종합팀선수)들이 선수권을 겨루는 경기마당이다.

월드컵경기대회는 1930년부터 4년에 한번씩 올림픽경기대회사이 중간해에 진행되여오고있다.

물론 세계축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도 세계적인 축구경기는 진행되였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직업축구(프로축구)가 발전함에 따라 직업선수(프로축구선수)의 참가를 제한한 올림픽경기대회 축구경기로써는 매개 나라의 축구수준을 정확히 평가할수 없었다.

그래서 세계축구활동가들속에서는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따로 조직해야 하겠다는 견해들이 나오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프랑스축구협회 초대위원장이며 법률가인 쥴리어스 리멧은 모든 축구선수들이 다 제한없이 참가할수 있는 세계적인 축구선수권대회를 구상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

특기가 있고 육체적준비가 아주 좋은 선수더구만. 이번 전국대회에서 우리 팀이 우승하면 자네에게 한턱 단단히 내겠네.》

《음, 그렇게 하게나. 굴리트는 아버지가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 불쌍히 여기고 잘 돌봐주게.

흑인아이라고 다른 아이들이 몰아주지 않게 말이네. 그러면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네. 성과를 바라네.》

굴리트는 데베쓰청소년축구구락부팀에 망라되여 전국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는 이 경기대회에서 축구전문가들의 놀라운 주목을 끌었다. 그들은 주력이 좋고 유연하며 속도가 빠른 굴리트의 육체적준비에 탄복하였다.

하였다. 특히 그는 1920년 벨지끄의 안뜨웨르뻰에서 진행된 국제축구련맹(FIFA)총회에서 국제축구련맹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조직할데 대한 안을 내놓았다.

그후 1928년 5월 26일 네데를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된 국제축구련맹협회에서 프랑스축구협회의 발기로 아마추어선수들과 직업선수들이 다같이 제한없이 참가할수 있는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4년에 한번씩 올림픽경기대회중간에 진행할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이어 1929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에스빠냐의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국제축구련맹총회에서는 1930년에 제1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라틴아메리카의 우루과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930년에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현재 2010년 제19차 남아프리카월드컵경기대회까지 진행되였으며 제20차 월드컵경기대회는 2014년 축구의 나라로 불리우는 브라질에서, 제21차 월드컵경기대회는 2018년 로씨야에서, 제22차 월드컵경기대회는 2022년 아시아의 까따르에서 개최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역시 자기의 100년력사를 거의 기록하게 될것이다.

굴리트는 공다루기가 좋고 차넣기도 위력하였다.

데베쓰청소년축구구락부팀은 굴리트의 뛰여난 맹활약으로 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컵을 쟁취하였다.

다음해 크루이프감독은 국가청소년축구종합팀 감독으로 임명되면서 제일먼저 굴리트를 선발하였다.

1970년대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만능축구선수》로 이름떨치던 요한 크루이프는 네데를란드국가청소년축구종합팀을 이끌고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굴리트는 요한 크루이프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훌륭한 기술을 소유한 축구선수로 성장하였다. 굴리트는 유럽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네데를란드팀이 3등권안에 들게 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그는 이 경기에서 꼴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로 평가되였다.

그리하여 굴리트는 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로 축구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네데를란드에서 제일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직업팀인 아약스축구구락부감독인 벤하께르는 굴리트가 자기 팀의 훌륭한 중앙공격수로 될수 있다고 결심하고 바우뗘선생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바우뗘선생은 아약스축구구락부에서 보내온 초청장을 받고 굴리트를 불렀다.

《굴리트, 아약스축구구락부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는데 자네의향은 어떤가?》

《써주겠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바우뗘선생은 다음날 굴리트를 데리고 아약스팀감독 벤하께르를 찾아 떠났다. 벤하께르감독은 국내에서는 일정하게 관록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였다.

바우뗘선생과 굴리트를 맞이한 벤하께르감독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거만하게 말하였다.

《바우뗘, 수고했네. 굴리트를 키우느라…그런데 굴리트의 키가 얼마나 되나?》

《1m 90㎝입니다.》

바우떠선생보다 더 조급해하며 굴리트가 먼저 대답하였다.
《키가 지내 크구만. 굴리트, 그 키에 축구를 할수 있겠나?
공을 민첩하게 따라다닐수 있겠는가 말이네.》
《감독선생님이 요구하는대로 무엇이든 해낼수 있습니다.》
《대답이 씨원하구만.》
《벤하께르, 내가 담보하네. 속도나 민첩성, 유연성, 주력에 있어서 굴리트를 따를 선수는 네데를란드에 없을걸세.
육체, 기술, 전술적으로 굴리트만큼 준비된 선수를 후비로 뽑긴 힘들걸세.》
바우떠선생은 자기가 키워낸 굴리트를 솔직한 심정으로 보증해나섰다.
《좋아. 자네를 믿겠네. 굴리트, 나와 함께 잘해보자구.
난 네데를란드축구를 본때있게 추켜세워보자는거네.》
사실 네데를란드축구는 요한 크루이프가 현역에서 물러난 후부터 거의 10년간이나 국제축구계에서 뒤꼬리를 차지하고있었다.
벤하께르감독은 이 침체상태를 타개할 결심을 품고 팀의 후비선수선발을 아주 심중하면서도 엄격히 하였다.
굴리트가 축구직업팀선수로 뽑히게 된데 대하여 제일 기뻐한 사람은 굴리트의 어머니 파리마였다. 남편이 죽은 후 홀몸으로 로동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해온 파리마는 굴리트가 직업팀선수로 선발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파리마는 아들 굴리트를 데리고 바우떠선생을 찾아갔다.
《바우떠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와 같은 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
굴리트를 키워주고 직업팀에까지 보내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파리마는 고마운 마음에 젖어 뜨거움을 삼켰다.
《됐습니다. 굴리트가 훈련을 잘했기때문이지요. 나야 뭘 한게 있습니까?》
《선생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저를 극진히 사랑해주고 도와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직업팀선수로 키워준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 앞으로 훈련을 더 잘해야 해. 경기에서 자기 활동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게 준비해야겠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굴리트.》

바우떠선생은 부모의 사랑담아, 스승의 진정담아 진심으로 부탁하였다.

아약스축구구락부는 암스테르담교외의 북쪽, 꽃이 제일 많은 공원속에 자리잡고있었다.

숙소는 2층으로 된 아담한 보통건물인데 그앞에 잔디를 심은 3개의 훈련장이 있었다.

벤하께르감독은 훈련장에 선수들을 모여놓고 하루훈련과제를 주면서 특별히 목청을 돋구어 강조하였다.

《네데를란드축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강한 육체적

○ 상 식 ○

세계축구선수권대회의 명칭

세계축구선수권대회의 이름은 력사적으로 각이하게 불렀다.

선수권대회가 시작될 때 이 대회를 월드컵경기대회로 부르자는 론의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집행되지 않고 제1차로부터 제3차 선수권대회까지는 주최한 나라들이 대회이름을 제가끔 달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국제축구련맹은 쥴리어스 리멧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축구선수권 쥴리어스 리멧컵(wold championship Jules Rimet cup)》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1970년 메히꼬에서 열린 제9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브라질이 3번째로 우승하여 컵을 완전히 가지게 되자 국제축구련맹은 컵을 새로 만들고 그 이름을 《월드컵(world cup)》으로 부르고 1974년 제10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때부터 대회이름도 《FIFA월드컵》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것입니다.
요한 크루이프처럼 〈만능축구선수〉가 되여야 합니다.
새로 온 루드 굴리트도 이걸 명심하고 훈련에 적극 참가해야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집체적으로 운동장둘레를 두바퀴 달리고는 여러가지 몸풀기동작들을 률동적으로 진행하였다.

감독은 호각으로 신호를 하며 공을 가지고 짧은거리속도몰기와 방어수앞에서의 깎아차넣기훈련을 엄하게 시켰다.

그리고 3대2인공격결합훈련을 조직하였다.

선수들은 공격조와 방어조로 나뉘여 순환식련속결합훈련을 진행하였는데 훈련강도가 대단히 높았다.

벤하께르감독은 굴리트를 불러 개별훈련지도를 주면서 동작수행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바로잡아주었다.

세계녀자축구선수권대회는《FIFA녀자월드컵》이라고 부른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년도, 주최국, 월드컵》으로 부르는 나라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6년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때부터 사람들의 귀에 익고 입에 많이 오른대로 세계축구선수권대회라고 부른다.

월드컵이라는 이름은 다른 체육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쓰이지만 주로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의미한다.

정확히 쓰면 《FIFA월드컵, 주최국, 년도》 또는 략하여 《년도, 주최국, 월드컵》이라고 하는것이 옳다.

례를 들면 《FIFA월드컵 남아프리카 2010》또는 《FIFA녀자월드컵 도이췰란드 2011》등이다.

그밖에도 《2010년 제19차 남아프리카월드컵경기대회》, 《제6차 도이췰란드녀자월드컵경기대회》라고 쓸수 있다.

《공격구역에 들어서면 공을 볼것이 아니라 먼저 방어수를 보며 빈자리로 최대속도를 내여 뛰여가야 해. 그래야 공을 받을수 있다. 알겠나?》

굴리트는 감독의 말을 명심해들으며 공격결합훈련에서 나타나는 자기 결함을 하나하나 고쳐나갔다.

천성적으로 육체적능력이 좋은 굴리트는 훈련강도와 부담을 감독의 요구보다 더 높이 감당해내군 하였다.

끔찍한 인종차별정책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피눈물속에서 성장해온 흑인소년 굴리트는 드디여 19살에 아약스팀의 기본공격수로 국내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할수 있게 되였다.

아버지 쥴리오가 얼마나 바라던 소원이였던가.

굴리트가 소년시절부터 얼마나 애타게 그리던 꿈이였던가.

꿈에도 바라는 소원을 안고 시련의 언덕을 넘어 굴리트는 드디여 직업팀의 선수로 성장하게 되였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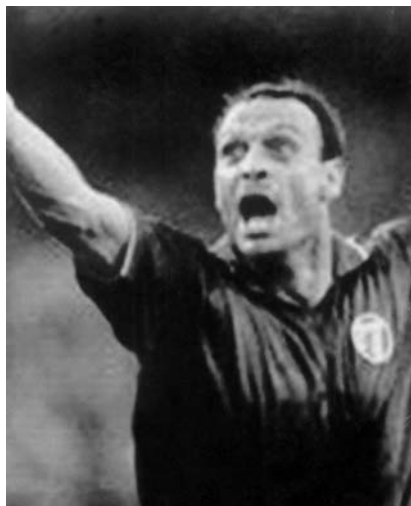
굴리트는 경기들에서 뛰여난 공몰기와 차기기술, 령리한 경기정황판단과 경기의식, 빠른 속도와 활동력으로 자기 팀의 공격과 방어를 다 훌륭히 감당해내는 《만능축구선수》로서의 특기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특히 그의 천성적인 육체적준비와 유연성 그리고 강한 정신력으로 하여 상대방선수들은 공을 관할하고있는 굴리트에게 바싹 접근하지 못하였고 기동방향을 판단하지 못하여 활동공간과 득점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듯 굴리트가 위력한 공격수, 끈질긴 방어수, 꼴명수로 활동하면서부터 아약스팀은 련속 국내선수권을 보유할수 있게 되였다.

비록 흑인으로서 갖은 천대와 모욕을 다 받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명심하고 청소년시절에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타게 훈련하고 남모르는 땀방울을 흘려온 굴리트, 하기에 그는 네데를란드의 유명한 축구선수로, 인기있는 음악가로 알려지게 되였고 세계의 축구전문가들과 축구애호가들의 사랑과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였던것이다.

이런 열정가들에게는 언제나 성공의 문이 열려져있는것이다.

《꼴명수》-쌀바도레 쉴라치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 그 누구든 나를 발견하고 데려갈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것이였다. 그날을 위하여 나는 훈련하고 또 훈련하였다.

어머니없는 설음을 안고 자라는 나를 말없이 고무하며 훈련을 잘하여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여야 한다고 힘을 주던 아버지가 있어 나는 세계적인 꼴명수가 될수 있었다.

—쌀바도레 쉴라치—

빠울 로씨는 쉴라치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였다.

《쉴라치는 한마디로 대단한 축구명수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꼴을 넣는 세계적인 〈꼴명수〉이다. 2년동안에 2부류팀에서 1부류팀으로, 국가축구종합팀선수로 된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뛰여난 선수인가를 잘 알수 있다.》

1990년 6월 8일 이딸리아의 밀라노시의 쥬제뻬 메아짜경기장에서는 제14차 월드컵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이딸리아팀은 조별예선 제1조에 속하여 오스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미국팀들과 경기를 하였다. 이딸리아팀은 오스트리아팀을 1:0으로, 체스꼬슬로벤스꼬팀과는 2:0으로, 미국팀과는 1:0으로 이기고 2단계경기에서 우루과이팀을 2:0으로 물리

친 다음 준준결승경기에서는 아일랜드팀을 1:0으로 이기고 준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마라도나가 속해있는 아르헨띠나팀과의 경기에서 1:1로 비긴 상태에서 11m벌차기로 아쉽게 패한 이딸리아팀은 3등결정을 위한 경기에서 잉글랜드팀을 2:1로 물리치고 3등을 하였다.

그러나 이 경기대회에서 이딸리아의 축구명수 쌀바도레 쉴라치는 세계적인 축구명수들인 마라도나, 마테우스 등을 누르고 대회최우수선수로 되였으며 득점왕으로 높이 평가되였다.

남다른 축구열정과 피타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꼴명수》로 솟아오른 쌀바도레 쉴라치가 이룩한 성과는 자기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보려는 희망과 열정을 안고 고심분투한 결과였다.

TV를 유일한 축구교과서로

쌀바도레 쉴라치는 1964년 12월 1일 아뻬인반도의 남쪽끝 지중해가운데 자리잡은 씨칠리아섬의 궁벽한 시골인 쎄쁘마을에서 출생하였다. 쉴라치의 집안은 증조할아버지때부터 쎄쁘마을에서 살아오면서 자동차, 모터찌클, 자전거다이야수리공으로 대를 이어가며 일하였다.

쉴라치의 아버지 씨니오레는 아들 쉴라치만은 이런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정생활이 너무도 어려웠던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11살의 쉴라치를 자기가 일하는 수리소에서 수리기술을 배우게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쉴라치의 어머니는 그가 8살나던 해에 친정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친정마을사람들은 외국관광단의 한 부자놈이 어머니를 유혹하여 데려갔다고 하였다.

쉴라치는 홀아버지품에서 어머니사랑도 모르고 불쌍하게 자라면서도 축구에 대한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쎄쁘마을에는 축구구락부는 고사하고 과외축구학교 하나 없었다.

11살때부터 쉴라치는 TV화면을 유일한 축구교과서로 삼고 이딸리아축구련맹전경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면서 축구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닦아나갔다.

궁벽한 섬마을 아이들이 자기 고장의 식대로 축구경기를 할 때면 쉴라치는 언제나 앞장섰고 이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겼다.

땀방울을 훔치며 축구경기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100리밖에 있는 빨레르모시의 축구학교에 쉴라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다.

쉴라치는 매일 TV화면에서 본대로 공다루기를 하면서 축구기초기술을 한가지 한가지씩 숙련하고서야 아버지가 일하는 작업장으로 오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슬금슬금 곁눈질해보다가 머뭇거리며 말하였다.

《아버지, 축구화가 하나 있었으면…》

《사자! 이건 네가 번 돈이다.》

《내가 번 돈…》

《그래, 네가 내곁에서 일한지가 반년이 가까와오지 않니.

이거면 축구화를 살수 있겠지?》

씨니오레는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그대로 아들에게 주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쉴라치는 일요일에 빨레르모시에 가서 축구화와 배구공을 사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너무도 기뻐 아버지앞에서 축구화를 신고 배구공으로 공재주를 부리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그달음으로 잔디밭에 나가 TV에서 본 로씨나 까레까선수들의 공다루기동작들을 모방해보며 축구훈련에 열중하였다. 새 축구화를 신고 공몰기와 차기를 하니 마치 꿈을 꾸는것 같았다.

(축구를 잘하면 누구든 나를 데리러 오겠지. 이 궁벽한 외진 섬마을에서 축구선수로 성공하자면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 TV축구학습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자. TV는 나의 감독선생이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더더욱 불타오르면서 쉴라치는 TV현지실황중계때마다 이름있는 선수들의 기술동작들과 재빠른 기동모습, 달

리기동작들을 머리에 새겨두었고 학습장에 부호들을 붙여가며 적어놓군 하였다.

어느날 저녁 자동차다이야수리소 주인인 빠래치가 작업장에 나왔다가 쉴라치가 잔디밭에서 정신없이 축구훈련을 하는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욕설하였다.

《야! 쉴라치야,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고 네가 이 벽촌에서 어떻게 축구로 성공해보겠다고 그래. 안돼…

축구학교와 축구구락부에서 일곱, 여덟살때부터 돈을 뿌리며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애들도 성공못하는데. 네 나이 지금 14살인데 어림

☆ 일 화 ☆

쉴라치가 해득한 《비밀부호》

세상에 이름난 축구명수들의 거의 모두는 가난한 집 출신이다.

그중에서도 이딸리아의 《꼴명수》 쌀바도레 쉴라치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비참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아버지는 어머니없는 설음을 안은 어린 쉴라치를 달래보려고 가끔 그에게 자동차쥬브로 공을 만들어가지고 놀게 하였다. 이것이 쉴라치가 축구와 인연을 맺게 된 동기였다고 할수 있다.

처음 그에게는 기술을 배워줄 스승도 교범도 없었다.

단지 TV로 방영되는 축구경기를 통하여 하나하나 익히는것외에 다른 방법이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경기장면을 통하여 선수들의 기술동작들과 전술을 제나름의 부호를 달아 학습장에 적어넣군 하였는데 날과 달이 흐르면서 학습장은 점점 두터워졌다.

쉴라치의 학습장에는 알수 없는 부호들이 가득 그려져있었다.

어느날 학습장을 펼쳐놓고 새로운 기술동작들을 머리속으로 그려보는데 자동차소리가 들리더니 배뚱뚱이신사가 나타나서 터진 바퀴를 제꺽 수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큰 공장만 해도 세개씩이나 가지고있는 포도주제조업자였다.

매혹적인 축구기술동작에 심취되여있던 쉴라치는 달갑지 않

도 없어. 아버지의 다이야기술이나 똑똑히 배워라. 요즘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축구만 해? 축구에서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수리소주인의 말을 듣던 아버지 씨니오레가 아들을 두던하며 조심스럽게 한마디 여쭈었다.

《쉴라치야 11살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열성이 높고 재간이 있으면 되지 않을가요?》

《자넨 뭘 안다구 그래. 아들 하나 있는걸 들뜨게 하지 말구 자네 기술이나 잘 배워주게. 자네같은 빈털털이신세에 무슨 축구를 시킨다구 그래. 둘이서 일이나 똑똑히 하라구.》

았으나 거절할수 없었다. 그래서 쉴라치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대답하고는 새로운 동작을 익히느라고 계속 학습장을 들여다보았다.

쉴라치의 어깨너머로 학습장을 들여다보던 신사는 이런 궁벽한 산골에 웬 신동이냐싶어 눈섭을 치켜올리며 불쑥 그에게 물었다.

《이건 또 무슨 신기한 글자냐? 너 무슨 공부를 하냐?》

《그건 알아 뭘해요. 비밀인데…》

《허, 재미있군. 세계의 이름난 화산구경보다 더 볼만 한걸.

얘야, 나에게 그 비밀을 좀 해득해주지 않으련? 보수지불은 섭섭치 않게 하지. … 고대아틀라스글자라면 좋겠는데. …》

신사의 속심은 뻔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물이면 황금소나기가 쏟아질것이였다.

《그럴수도 있어요. 귀담아들으시라요. 이 비밀부호해득은 좀 복잡하지만 내가 읽을테니 들어보세요.》

쉴라치는 능청스럽게 싱긋 웃으며 제 생각대로 엮어나갔다.

《〈세상은 불공평해도 운명은 공평하거니 오늘날 풍청거리는 부자는 래일날 알거지로 될것이며 오늘날 가난한 사람은 래일날 온갖 명예와 재부를 누릴것이다. 그 늦고빠름은 견인불발의 의지와 재능에 달려있어 백만장자는 래일을 두려워하며 가난한자는 오늘을 부끄러워하지 말지어다.〉이렇게 씌여있어요.》

속히웠다는것을 알아챈 뚱뚱보는 《망할녀석같으니…》하면서 사라져버렸다.

빠래치는 씨니오레를 욱박지르며 호통을 쳤다.

씨니오레는 당장 아들을 뚝 떼서 빠래치가 보라는듯이 축구학교에 보내고싶었다. 그러나 하루하루 품팔이로 살아가는 홀아비신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령리한 쉘라치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축구훈련을 그만두고 수걱수걱 일만 하기 시작하였다.

그날저녁 쉘라치의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앉히고 조용히 타이르듯 말하였다.

《쉘라치야, 내 걱정은 말고 계속 축구를 하거라. 난 네가 축구를 하지 않으면 가슴이 아프다. 내 혼자 일해도 살아갈수 있다.

주인놈의 속심이야 너를 기능공으로 키워 이 수리소에서 계속 부려먹자는것외에 다른것이 없다. 제발 너까지 맥을 놓으면 안된다.

사람이 한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실천에 옮길줄 알아야 한다.

누가 널 도와주길 바라지 말고… 이 돈으로 운동복도 사거라.》

《아버지! 고마와요. 그러나 운동복은 사지 않겠어요. 빤쯔와 런닝그만 입고 운동하면 돼요. 아버지가 축구를 계속할것을 바라는 마음이면 나는 돼요.

난 꼭 축구를 잘해서 누가 날 뽑아가게 할테야요.》

《그래야지. 쉘라치야, 난 네가 축구를 하는걸 봐야 일이 힘들지 않단다.》

《아버지, 꼭 성공하겠어요.》

쉘라치는 하루일이 끝나면 더 힘을 내여 훈련에 달라붙었다.

쉘라치의 공다루기솜씨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달라져갔다.

그는 발안쪽, 발등, 발끝, 허벅다리, 두어깨, 머리로 공을 땅에 떨구지 않고 다루면서 마치 교예사처럼 재주를 부렸고 이 훈련을 하루 꼭꼭 50번씩 련속 수행하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쉘라치의 공다루는 솜씨가 하도 신기해 걸음을 멈추었고 수리소에 와서 다이야를 때거나 교체하는 사람들도 시간가는줄 모르고 구경하며 축구교예사라고 감탄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자가용승용차의 다이야를 바꾸려고 수리소에 들렸던 50대의 점잖은 손님이 잔디밭의 축구교예사를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다가 손짓하며 가까이 불렀다.
《지금 몇살이냐?》
《15살입니다.》
《이름이 뭐지?》
《쉴라치라고 부릅니다.》
《음, 공다루기솜씨가 대단하구만. …난 빨레르모 제10중학교 교장이다. 쉴라치야, 이번에 전국중등학교축구선수권대회가 있단다. 네가 우리 학교선수로 한번 나갈 생각이 없느냐? 우리 학교로 가자. 잘하면 로마에 데리고가겠다. 어떻냐?》
쉴라치는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며 한번 축구시험을 쳐볼 호기심이 부쩍 동하여 인차 대답했다.
《아버지가 승인하면 가겠습니다.》
쉴라치가 먼저 아버지에게 뛰여가 전후사연을 설명하였지만 아버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대답도 못하고 얼떠름해 서있었다.
《우리애가 이제 교장선생을 따라가면 잠자고 먹는 돈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려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교에 가서 축구경기를 해보고 애가 잘하면 로마에도 데리고가겠습니다. 만일 씨원치 못하면 내 차로 여기까지 데려다주겠습니다.》
《네?! 이런 고마울데라구야. 쉴라치야, 네가 할탓이구나. 가서 힘껏 잘해보려무나.》
안주머니에서 돈을 몇장 꺼내여 씨니오레에게 수리값으로 내미는 교장선생에게 아버지는 황송해하며 말하였다.
《됐습니다. 아들을 데리고가는것만 해도… 교장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아들녀석을 잘 도와주십시오.》
씨니오레는 불쑥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무엇이든 쥐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어쩔줄 몰라하다가 주머니에서 용돈 몇잎을 털어주었다.
쉴라치는 집에서 메고나온 가방을 가지고 승용차의 앞자리에 교장선생님과 나란히 앉았다. 그들을 태운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도로를 따라 빨레르모시내를 향해 달렸다.

3급팀에서 1급팀으로

쉴라치가 16살나던 1980년 빨레르모시에서는 그해 8월에 열리는 전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팀선발을 위한 경기가 제10중학교와 제15중학교팀사이에 진행되였다.

쉴라치는 이 경기에 제10중학교팀의 최종공격수로 참가하여 공몰기와 차넣기가 뛰여나고 기초체력이 천성적으로 좋은것으로 하여 단연 두각을 나타내였다. 그는 공멈추기와 련락이 좋은데다 꼴까지 하나 넣어 제10중학교팀이 이기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빨레르모 제10중학교에서는 쉴라치를 4학년 학생으로 정식 등록하고 학교의 자랑으로 내세워주었다.

그해 8월 쉴라치는 빨레르모시소년팀의 공격수로 이딸리아전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로마로 갔다.

이 경기대회에서 쉴라치는 속도가 빠르고 공다루기기술이 뛰여난데다가 령리한 판단력을 가진 전도유망한 꼬마축구선수로 평가되여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빨레르모소년축구팀은 전국대회에서 3등을 하였는데 이것은 빨레르모시가 생겨 처음으로 되는 경사였다.

이 선수권대회에서는 6등까지 시상을 하였는데 제10중학교 교장이 시상대에 올라가 상장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전국소년축구선수권대회가 한창 진행될 때면 의례히 선수후비선발과 장악을 위하여 《채종전문가》들이 활동하군 하였다.

사삐에로 보니뻬르찌도 축구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선수권대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는 3급팀인 메씨나축구구락부 감독이였으며 전도유망한 선수들을 선발하여 키우는데서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채종전문가》였다. 바로 이 《채종전문가》의 눈에 꼴촉감이 좋은 쉴라치가 안겨오지 않을수 없었다.

《8번인 네가 쌀바도레 쉘라치냐? 시골에서 용케도 축구를 배웠구나. 더 열성적으로 배워라. 앞으로 내가 한번 너의 축구기술이 얼마나 늘었나 꼭 보겠다. 알겠어?》

쉘라치는 누군지는 몰랐으나 자기에게 관심을 돌려주는것이 고마와 씨원스럽게 대답하였다.

빨레르모 제10중학교 교장은 자기 학교 선수들이 예상을 뒤집어엎고 순위권에 들어간것이 너무 기쁘고 대견하여 2일간 로마시에 묵으면서 그들에게 시내구경을 시켰다. 교장선생은 쉘라치에 대하여 가엾게 여기면서 특별히 대해주었다.

《쉘라치, 이번에 경기를 대단히 잘했다. 축구재간둥이가 쎄쁘마을에서 썩을번 했단 말이야. 너를 데려오기 정말 잘했지. …

너는 공부를 했으면 최우등생이 되였겠는데.

어쨌든 축구를 잘해서 성공해야겠다. 이젠 쎄쁘마을에 가지 말고 우리 학교 4학년에서 공부를 해라. 그래야 래년에 또 중앙대회에 가지. 그때에는 1등을 하잔 말이다.》

교장선생은 대학을 나온 지식인이였을뿐아니라 공산당출신의 지방유지였고 상당한 축구애호가였다. 그는 학교일을 보면서 기업활동도 하였다. 그래서 자기 학교 팀을 잘 꾸리고 전국대회에 참가할 때에는 돈을 아끼지 않군 하였다.

쉘라치가 돈이 없어 로마시내구경을 나가지 못한다는것을 알고있는 교장선생은 동정심을 안고 돈을 쥐여주면서 타이르듯 말했다.

《이건 네가 쓰라는 돈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가거라. 시내구경을 하면서 백화점에 들려라.》

쉘라치는 자기 마을의 수리소주인과는 너무도 다른 교장선생님을 존경이 어린 눈으로 다시한번 쳐다보았다.

쉘라치가 교장선생이 주는 돈으로 백화점에서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인 비옷과 장화를 사가지고 고향마을에 돌아온 다음날 아침이였다.

여름휴양을 갔다 돌아온 수리소주인 빠래치가 언제 왔는지 수리소로 들어서며 쉘라치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새 쉴라치가 축구경기하러 갔댔다면서. 그래 내 승인도 없이 어딜 마음대로 싸다녀. 네 아들은 오늘부터 해고야.》

《그러지 마십시오. 주인님이 없으니까 그냥 갔다왔지요.

그 기간 벌지 못한 날자만큼 내가 번 돈을 바치겠습니다.》

《축구구 뭐구 다 걷어치워. 축구를 하겠으면 썩 사라져라.

이 촌구석에서 무슨 축구를 한다구 그래.

축구를 하겠으면 이 수리소에서 나간다는것을 각오해라.》

빠래치는 위협조로 으름장을 놓으며 눈알을 흘기더니 뒤짐을 지고 사라졌다.

아버지는 모욕을 참을길 없어 씩씩거리는 쉴라치에게 말했다.

《쉴라치야, 참아야 한다. 해고당하지 말고…

이 세상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다. 다른데 가도 빠래치같은 놈들이 또 있단다. 난 오늘부터 밤작업을 하겠다.》

《나도 할래요. 아버진 내가 못한 일을 봉창하려고 그러지요?》

《쉴라치야, 너는 축구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저 잔디밭에서 네가 축구를 하는걸 보면 아버지는 힘들지 않다.》

《아버지, 내가 못한 일을 보충하고 축구를 하겠어요.》

그들은 이날부터 낮에 밤을 이어 10일간 일손을 다그쳐 빠래치에게 빚진 돈을 다 갚아주었다.

쉴라치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이면 달빛을 벗삼아 축구훈련을 꾸준히 하였다. 이 축구훈련의 나날 쉴라치는 당시 에스빠냐에서 진행되고있던 제12차 월드컵경기대회 TV실황중계를 빠짐없이 보고 또 보았다. 그리고는 작은 수첩에 자기만 알수 있는 《비밀부호》들을 써가며 깨알처럼 적군 하였다.

매 팀들의 경기를 보면서 그가 제일 마음에 들어한 선수는 이딸리아팀의 빠울 로씨였다. 그는 로씨선수의 공격구역에서의 기동과 차넣기동작들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머리속에 새겨두었다.

그리고는 로씨선수의 몸가짐으로부터 차기, 몰기, 이동동작들에 대한 모방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남의 집 창문너머로 보는 TV는 쉴라치의 유일한 축구감독이였고 교과서로 되였다.

로씨선수에 대한 모방동작을 하다가 안되면 열번이고 스무번

이건 마음에 들 때까지 반복하였다. 그의 고심어린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심리적으로뿐아니라 기초체력과 기술이 점차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1983년 가을, 쎄쁘마을로 체격이 좋은 사람이 찾아왔다.

메씨나축구구락부 감독 보니뻬르찌였다. 그는 자동차다이야수리소 주인을 먼저 만났다.

《여기 수리소에 쌀바도레 쉴라치라는 소년이 있지요? 쉴라치를 축구선수로 쓰자고 데리러 왔소.》

《아니, 쉴라치가 어떻게 축구선수로 된다고 그럽니까?

그 존애가 …당신은 무엇인가 혼돈하지 않았소? 하하…》

빠래치는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웃기까지 하였다.

《쉴라치는 안됩니다. 그의 아버지와 쉴라치는 내 수리소 로동자로 등록되여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문제요. 당신은 쉴라치의 축구를 막을 권리가 없소. 당신이 찾아 안주면 내가 직접 만나겠소.》

보니뻬르찌는 빠래치에게 단호하게 말하며 수리소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쉴라치는 자기에게 어떤 행운이 차례졌는지도 모르고 다이야수리에 열중하고있었다.

보니뻬르찌감독은 소년로동자 쉴라치의 얼굴과 옷주제를 번갈아보며 너무도 불쌍하고 가엾어서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쉴라치냐, 너를 데리러 왔다. 그래 앓지 않았니? 훈련도 계속하구?…》

쉴라치는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였다.

《난 로마경기장에서 아저씨가 하던 말씀대로 축구훈련도 열성껏 하고 경기도 많이 했어요. 난 아저씨가 꼭 찾아온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진짜 데리고 가지요?》

쉴라치는 정말 고마왔다. 그는 무어라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울음을 터뜨렸다.

홀아버지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돈이 없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고달픈 소년로동을 하면서 축구를 기쁨으로, 희망으로 삼고 애

써온 쉴라치였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날을 맞았으니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워 쉴라치의 눈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솟구쳤다.

《쉴라치야,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네가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니. 그만, 됐다.》

보니뻬르찌감독은 쉴라치의 등을 다독여주면서 어린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주었다. 이렇게 메씨나축구구락부에 들어가 자기가 그렇게도 하고싶은 축구를 마음놓고 하게 된 쉴라치는 보니뻬르찌감독의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하는 과정에 중앙공격수로 자라났다. 쉴라치의 축구열정이 고조될수록 감독의 요구성은 더더욱

○ 상 식 ○

국제축구련맹이 주관하는 축구경기대회들

—월드컵경기대회

4년에 한번씩 조직진행한다. 1930년 제1차로부터 2010년 제19차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진행되였다. 1966년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때부터 매 대륙별예선경기대회에서 선발된 16개팀을, 1982년 제12차 월드컵경기대회때부터는 22개 팀과 주최국팀, 전 경기대회 우승팀을 합하여 24개 팀을, 1998년 제15차 월드컵경기대회부터는 규모를 확대하여 32개 팀을 본선경기에 참가시키고있다.

2006년 제18차 월드컵경기대회부터는 주최국팀을 예선경기에서 제외시키고 전번대회 우승팀은 예선경기에 참가하게 하였다.

현재 월드컵경기대회 본선경기참가단체수 지역별할당을 보면 아시아주 4.5개, 유럽주 13개, 아프리카주 5개, 남아메리카주 4.5개, 북아메리카주, 중앙아메리카 및 까리브해지역 3.5개, 오세안주 0.5개 그리고 주최국팀이다.

—올림픽축구경기

1992년부터 23살미만의 모든 선수들과 23살이상의 직업선수도 3명까지는 참가할수 있다. 본선경기참가단체수 16개에 대한 지역별할당은 아시아주 3개, 유럽주 4개, 남아메리카주 2개, 북아메

높아졌다.

보니뻬르찌감독은 청춘시절에 이딸리아축구종합팀의 유명한 방어수로 맹활약하였으며 지금은 유벤뚜스축구협회 상무위원으로, 이딸리아축구련맹 상무위원으로 사업하고있었다. 그가 선발한 선수치고 직업팀 명수급선수로 되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그는 축구전문가, 애호가였고 감독이였다.

보니뻬르찌는 쉴라치의 축구기술이 상상외로 빨리 발전하는것을 보며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였다.

쉴라치는 운동신경이 매우 발달되고 공몰기와 공촉감이 좋았

리카주, 중앙아메리카 및 까리브해지역 2개, 아프리카주 3개, 오세안주 1개, 주최국팀이다.

— 20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

1977년 뜌니지에서 처음으로 세계청년축구경기대회가 진행되고 그 후 2년에 한번씩 진행되고있다. 1981년 제3차때부터 청년축구선수권대회로, 2007년 제16차때부터는 《20살미만 월드컵》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주최국팀과 지역별예선에서 선발된 23개 팀을 합하여 24개 팀이 본선경기에 참가한다. 《코카콜라컵》경기대회라고도 한다.

— 17살미만 청소년월드컵경기대회

1985년 중국에서 개막되여 2년에 한번씩 진행한다. 본선경기에는 24개 팀이 참가한다. 《코다크컵》경기대회라고도 한다.

— 5인조실내축구선수권대회

6개 팀이 초청되여 4년에 한번씩 진행한다.

— 녀자월드컵경기대회

1991년 중국의 광주에서 진행된 이래 2011년까지 6번 진행되였다. 본선경기에는 16개 팀이 참가한다.

— 올림픽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

지역별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된 12개 팀이 참가한다.

— 청년녀자월드컵경기대회

16개 팀이 본선경기에 참가한다.

으며 차넣기에서 특기가 있었다. 앞으로 2～3년만 있으면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낼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었다.

쉴라치는 메씨나팀의 중앙공격수로 활동하면서 3급팀련맹전에서 26회경기중 13개의 꼴을 넣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해부터 2년동안에는 39개의 꼴을 넣어 《꼴명수》로 소문이 자자하였다. 그의 뛰여난 역할로 하여 메씨나팀은 련전련승하여 2급팀으로 올라갔다. 보니뻬르찌감독은 쉴라치를 기자들과 절대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였고 신문에 내거나 평가하는것도 봉쇄하였다. 그러나 기자들은 취재순간을 절대로 놓치려 하지 않았다.

2급팀 련맹전에서 정확한 차넣기로 꼴을 넣고 메씨나팀의 승리를 안아온 쉴라치를 한 《체육신문》기자가 포착하였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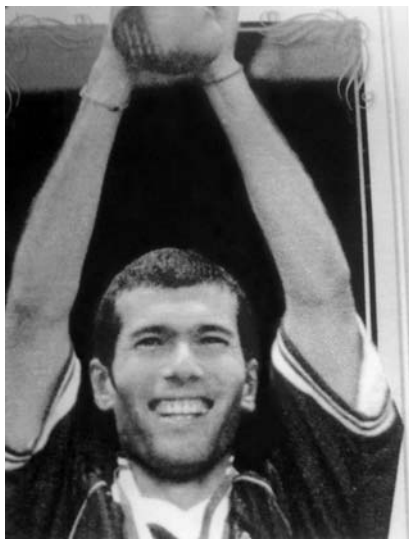
그리하여 《체육신문》에는 《실천적으로 할수 없는것을 실천한 쉴라치》라는 표제의 기사가 실렸다.

…이딸리아의 남쪽 씨칠리아섬의 외진 시골 쎄쁘마을에서 감독의 도움도 없이 TV화면을 축구교과서로 삼고 갓 축구훈련을 시작한 쉴라치가 도저히 보통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직업팀축구선수로까지 되였다. 《희망은 오직 하나 그 누구든 나를 발견하고 데려갈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것》이라고 굳게 마음먹고 축구훈련을 자체로 꾸준히 하면서 축구기술을 련마해왔다. …

축구애호가들은 이 《체육신문》기사를 흥미있게 읽었으며 쉴라치를 발견하고 선발한 보니뻬르찌감독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된 쉴라치의 아버지는 《나는 인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쉴라치가 축구선수로 되자 수리소주인놈은 그를 내쫓았다. 일자리를 떼운 쉴라치의 아버지에게 보니뻬르찌감독이 나서서 직업을 알선해주었다.

보니뻬르찌감독은 쉴라치를 1류급축구구락부인 유벤뚜스축구구락부의 기본선수로 선발해주었다. 남다른 축구열정과 자기 운명을 축구로써 개척해보려는 희망을 안고 노력하여 세계적인 꼴명수가 된 쉴라치는 유벤뚜스팀의 《새 로씨》로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축구명장》-지네딘 지단

내가 또다시 최우수축구선수상을 받을줄은 몰랐다.
나를 로날도와 띠에리 앙리와 나란히 놓아도 나에게는 과분하다.
나는 오늘 받은 이 칭호에 자만하지 않을것이며 진짜 세계축구명수로 인정받도록 더 분발할것이다.

—지네딘 지단—

국제축구련맹은 1991년부터 세계최우수선수상을 제정하고 매해 1명의 최우수선수를 선발하여 그에 해당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있다. 1991년에 도이췰란드 축구명수 마테우스가 세계최우수축구선수로 등록된 이래 20번에 걸쳐 선정된 세계최우수선수들중에는 프랑스축구명수 지네딘 지단과 같이 무려 4번이나 선발된 축구선수도 있었다. 로날도가 3번, 로날디뇨가 2번으로 선정되였다. 물론 《세계축구왕》 뻴레, 《세계축구의 별》 마라도나를 비롯한 이름있는 축구명수들은 이 상이 제정되기 전에 활동하였으므로 그들의 이름은 없다.

많고많은 축구명수들중에서 1998년, 2000년, 2003년 3차례에 걸쳐 세계최우수축구선수의 영예를 지닌 지단은 축구명수중의

명수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2006년 월드컵경기대회 결승경기에서 빨간딱지처벌의 주인공 지단이 그 대회의 최우수축구선수상을 또 받았으니 놀랍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다.

4중세계최우수축구선수인 지단의 청소년시절은 참으로 류다른것이였다.

성 새

지네딘 지단은 1972년 6월 23일 프랑스의 남부도시 마르세이유의 교외 마그레브에서 알제리이주민의 둘째아들로 태여났다.

마그레브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곳에서 모여사는 집단주택지구로서 외부로부터 차단된 지역이였다.

지단의 아버지 스마일 지단과 어머니는 모두 알제리의 베르베르족이였다. 베르베르족은 아랍족에 속하지 않는 소수민족으로서 용감하고 강의한 기질을 소유하고있으며 지난날 유럽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민족이였다.

4명의 아들과 한명의 딸을 둔 지단의 아버지는 고정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였다. 그는 고용어부로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였다. 그중에서도 지단을 몹시 사랑하였으며 남달리 총명한 그를 축구선수로 키우려고 생각하였다.

6살이 되는 생일날 아버지가 사준 축구공을 안고 독사진을 찍은 때로부터 지단은 축구에 대한 애착을 안고 골목축구로부터 시작하여 11살나던 1983년에는 마르세이유에서 진행된 전국봄철소년축구경기대회에 출전하였다.

중간방어수로서 공격과 방어를 다 맡아나선 지단은 경기전날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축구경기장으로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난 공격과 방어를 다 맡아나선 기둥선수예요.》

《우리 지단이 팀에서 참 중요한 임무를 맡았구나.

마치 아틀라스산처럼 말이다.》

《예? 아틀라스산?…》

지단이 의문을 가지자 아버지는 동안을 두었다가 아틀라스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서 아틀라스산은 방어하기에도 좋고 적을 공격하기에도 좋은 알제리의 성새와 같다고 말하였다. 언제나 이주민으로서 인종차별을 받으며 멸시속에서 살아온 지단의 아버지는 고향과 민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조국 알제리를 잊지 않도록 이야기해주었다.

(나도 아틀라스산처럼 래일 경기에서 성새의 역할을 하리라.)

비록 프랑스의 마르세이유에서 태여나 자랐지만 모국의 향취를 가슴에 새겨안은 지단은 다음날의 축구경기에서 꼭 1등을 하리라 굳게 결심했다.

소년팀들의 축구경기라고 하지만 결승경기에 올라온 두 팀의 수준은 높았으며 게다가 경기장에서는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붐비며 응원열을 높였다.

경기에서 11살난 지단은 나이보다 성숙된 축구기교를 보여주었다. 공격과 방어계선에서 공의 련락길을 차단하고 이어주는 지단의 기묘한 동작들은 경기장에 모여온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상대팀의 문전에까지 들어가 등뒤에서 막아선 상대팀 방어수들을 180° 돌면서 빼돌리고 득점한 지단의 특기동작은 전문가들까지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지단의 이 특기동작은 후에 《마르세이유 률레트》동작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지단이 속한 마르세이유소년팀은 이 경기에서 1등을 하였다.

이것은 지단의 축구인생에서의 첫 꼴이였고 첫 우승이였다.

그때로부터 꼭 2년이 되는 1985년의 어느날 13살난 지단은 전국적으로 꾸려진 축구선수육성쎈터의 하나인 깐느축구학원에서 전문축구교육을 받게 되였다는 소환장을 안주머니에 정히 넣어가지고 저녁늦게야 집에 들어섰다. 땀을 철철 흘리며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던 지단은 아버지앞에 소환장을 내밀었다.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델 간단 말이냐. 그것도 이주민의 자식이…》

아버지가 말도 하기 전에 지단의 어머니는 돈부터 걱정하며 올

라못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손을 내저었다.
어찌 아들이 대견스럽지 않으랴만 자식들이 발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자본주의생존방식은 항상 어머니의 가슴속에 그늘을 던져주군 하였다.
《여보, 소환장에는 깐느축구학원에서 숙식을 시킨다고 씌여있지 않소.》
지단의 아버지는 소환장을 가리키며 자기 마음을 내비쳤다.
《그래, 그 값을 누가 물어준대요?》
《글쎄말이요. 굉장한 돈이 들겠는데…》
안해의 물음에 말문이 막힌 지단의 아버지는 어정쩡하게 얼버무리고말았다.
《소환장이구 뭐구 지금처럼 중학교에 다니면서 축구를 해도 된다. 지금도 학비가 없어서 쩔쩔 매는 형편인데…》
어머니는 타이르듯 아들에게 축구학원에 가지 말라고 했다.
《어머니, 우리 학교에서 나 혼자 뽑혔다구 모두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아요?》
어머니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지단은 볼부은 소리를 했다.
기쁜 소식을 안고 헐레벌떡 뛰여왔건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으니 지단의 어린 가슴속에서는 눈물이 고여올랐다.
《난 깐느학원에 가지 않겠어요. 그냥 중학교에 다니겠어요.》
지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이주민들에게 차례지는 불행한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팔소매로 눈물을 문대고 말없이 방안에 들어선 지단은 침대에 닁큼 올라앉아 6살때 왼팔에 공을 끼고 찍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기쁨에 넘쳐 웃고있는 자기가 마주보고있었다.
(돈! 돈이 있어야 축구를 할수 있는가. 뻴레도 가난한 흑인이였지만 《축구왕》이 되였다고 체육선생님이 이야기해주었는데…)
지단은 이 생각 저 생각속에 이주민의 처지를 새삼스레 느끼면서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지단의 집으로 학교체육선생님과 중년사

나이가 찾아왔다. 깐느축구학원 지도교원 딘 바루두선생이 지단을 데리러 온것이였다.

《선생님! 우리 지단이야 다른 애들과는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주민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겨우 보내는데 그 학교에야 어떻게…》

소박한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는 지단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깐느축구학원 지도교원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했다.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깐느축구학원에서는 축구인재들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공부도 시키고 축구도 시키면서 훌륭한 선수들을 빨리 키우자는것입니다.

우리 학원에는 여러 나라 이주민의 자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흑인아이들도 여러명 있습니다.》

《그애들이 다 돈을 내지 않구 축구를 한단 말이지요?》

지단의 아버지는 깐느축구학원 지도교원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되물었다. 그러자 깐느축구학원 지도교원은 프랑스가 유럽에서 큰 나라이지만 한번도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바로 후비육성사업을 홀시하였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40여개의 축구선수육성쎈터들을 꾸리고 13～18살나이의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합숙생활을 시키면서 학교과정안과 함께 축구훈련을 진행한다고 말하였다.

이틀후 지단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의 배웅을 받으며 깐느축구학원으로 떠났다.

깐느축구학원

깐느축구학원에서는 선수육성단계를 두 단계로 정하고 지도교원의 손탁에서 엄격하게 축구교육을 시켰다.

1단계에서는 13～15살난 청소년들을 망라시키고 개인기술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교수훈련을 조직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

을 떨친 뻴레나 마라도나처럼 축구기교를 련마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2단계에서는 실전을 위한 기본기술과 그 응용을 중시하면서 팀의 행동전술을 완성하도록 교수훈련을 짜고들었다. 이 체계적인 양성체계속에서 지단은 개인기술과 함께 체격도 좋아졌다.

지단은 나이가 제일 어렸지만 공다루기능력과 경기의식이 가장 뛰여났다. 공을 일단 관할하기 시작하면 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묘하게 공몰기를 하면서 멋있는 득점련락으로 차넣기기회를 마련해주군 하였다. 특히 지단이 어릴 때부터 익혀온 《마르세이유 률레트》동작은 지도교원들까지 감탄시켰다.

그러나 머리받기만은 제일 자신없어했다.

《머리받기를 할 때 주춤거리지 말고 속도를 높여라. 다시!》

지도교원은 머리받기훈련을 반복시키며 요구성을 높였다.

지단은 지도교원이 차주는 뜬 공의 높이를 가늠하며 머리받기를 하였다.

《머리받기하는 순간에 왜 눈을 감는가.

눈을 뜨고 공을 똑바로 묘준해야지. 다시!》

지도교원은 공을 받을 때 앞이마로 받아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지만 습관적으로 굳어졌는지 지단은 몸을 약간 돌리며 옆이마로 받군 했다.

《참, 답답하구만. 공다루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머리받기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됐어. 그만!》

《선생님, 한번만 더 해봅시다.》

《어쨌든 투지는 좋아. 그러나 옆이마에 혹이 생기지 않겠어?》

다시 반복하여 머리받기를 시켰으나 눈을 감고 받는 동작은 그대로였다.

《오늘 훈련은 그만하자. 어쨌든 답답해.》

《선생님, 난 머리받기만은 자신이 없습니다.》

지단이 변명하듯 자기 속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꼴은 발로 차서만 넣는것이 아니라 머리받기로도 넣는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돼. 축구경기에서는 손만 내놓고는 다리나 머리

심지어 몸으로도 꼴을 넣으면 득점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머리받기가 자신없다니 될말이냐?》

1단계훈련을 마친 깐느축구학원의 양성생들은 방학이 되여 뿔뿔이 자기 집으로 헤여져갔다.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온 지단을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자 한식솔이 모여앉았다. 어머니가 지단이 좋아하는 먹음직스러운 《쿠스쿠스》를 식탁우에 올려놓았다.

《야, 〈쿠스쿠스〉! 정말 먹고싶어요.》

어머니는 지단의 가까이에 《쿠스쿠스》그릇을 바싹 밀어놓으며 다심하게 말하였다.

《학원에선 먹어보기 힘들게다. 알제리사람들의 특식이니까.》

《우리 축구학원엔 알제리사람은 나 하나뿐이예요. 흑인애들도 있구 여러 이주민들도 많아요. 마음도 좋구. 서로 통해요.》

《그래 지단아, 넌 공격수냐 방어수냐?》

《아직 그런건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개인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육체적능력과 공다루기기술을 높이고있어요.

이번 방학이 끝나면 전술훈련을 한대요. 선생님들은 11명이 함께 축구를 하기때문에 혼자서는 구실을 못한다고 하면서 항상 팀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물음에 동문서답하면서 지단은 지도교원이 강조하던 선수육성과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곱씹었다.

《얘야, 힘들지 않느냐?》

《재미있어요. 그런데 다른건 자신있는데 머리받기가 잘 안돼요. 선생님이 개별훈련을 주는데 머리받기만은 자신이 없어요.》

《얘야, 머리받기도 축구에서 홀시해서는 안돼. 머리받기로 꼴을 넣어 이기는 팀이 한둘이 아니거든. 또 높이 떠오른 공은 머리로 받아 련락두 하구.》

지단의 아버지는 마치 축구감독이나 된것처럼 머리받기의 우점을 말해주며 빙그레 웃었다.

《아버진 고기잡이밖에 모르는줄 알았는데 축구도 알고있군요.》

《난 발로는 뽈을 잘 못차도 머리로 축구를 배우고있다. 그래야

우리 지단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알게 아니냐. 축구를 잘하는 선수라면 공격도 잘하고 방어도 잘해야 한다. 그래야 축구의 성새라고 할수 있단다. 우리 알제리의 아틀라스산처럼 말이다.》

《아버지, 알겠어요. 나도 팀의 성새가 되겠어요.》

지단은 아버지의 기대에 보답할 일념으로 자기 결심을 내비쳤다.

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은 밤늦게까지 지단의 집 창문에서는 불빛이 흘러나왔다. …

깐느축구학원에서는 개학날을 맞으며 2단계훈련에 들어갔다.

이것은 축구선수후비양성체계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전략이기도 했다. 2단계축구교육에서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매개 선수들의 개인기술을 팀의 협동전술에 응용하여 육체, 기술, 전술 그리고 심리적준비를 완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교수훈련에서 요구성을 높

○ 상 식 ○

훈련의 조기화는 축구선수후비육성의 기본

세계축구를 이끄는 국제축구련맹은 현시기 세계적인 축구발전에서 청소년들의 축구를 중시하는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이것은 세계축구발전의 확고한 토대와 무궁무진한 잠재력으로 된다. 따라서 후비육성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하나의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이름있는 축구의 《별》들은 례외없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였으며 조기 《전성기》를 거쳐 축구의 3대기초를 충분히 갖추고 세상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축구명수들로 자라났다.

이것은 현대 100년축구력사가 잘 말해주고있다.

현축구련맹위원장 블라테르는 국제축구련맹의 중심을 미래에 둔다고 표명하면서 축구선수들의 훈련을 6살때부터 할것을 권고하고있다. 국제축구련맹의 지지밑에 1976년 세계축구발전계획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이 나어린 청소

여나갔다.

팀의 협동전술에서의 기본과 그 응용에 대한 리론과 실천을 익히는 과정에 지단은 나머지 10명의 축구동료들에 대한 믿음이 점차 마음속에 싹트고 자리잡게 되였다.

지도교원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 다시말하여 집단이 없이는 축구경기라는 말자체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지단은 깨닫게 되였다.

이때부터 지단은 자기의 가장 정확한 위치가 공격과 방어에 다 가담해야 하는 중간방어수라는것을 인식하였다. 묘한 공다루기를 하다가 멋있는 련락에 의한 차넣기기회 조성, 정황에 따라 차넣기로 득점하는 기쁨은 반드시 팀의 행동전술에 의거할 때에만 더욱 잘 발휘될수 있다는것이 지단의 경기의식으로 자리잡히기 시작하였다.

지단은 아버지가 늘 말하던 아틀라스산에 대한 의미를 축구실천

년발전계획이다.

이에 근거하여 국제축구련맹은 1977년부터 2년에 한번씩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를, 1985년부터는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를 조직운영하고있다.

마라도나, 굴리트, 쁠라띠니도 이 과정을 거치였다.

도이췰란드, 잉글랜드, 네데를란드 등 유럽의 이름난 축구구락부들은 수십개의 아동팀과 소년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있는데 이들의 훈련시작나이는 8살부터이다. 이름있는 축구명수들은 7～8살에 축구를 시작하여 10여년의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 17～19살의 나이에 세계급수준에 이르러 4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월드컵경기대회에 3번, 지어는 5번씩 참가하고있다.

1970년대에 세계적으로 축구를 비롯한 많은 체육종목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비결은 훈련의 조기화에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시기의 훈련의 조기화는 체육기록갱신과 축구인재양성 및 체육기술발전의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에서 알게 되였으며 그의 경기시야는 하루가 다르게 넓어졌다.

과연 축구경기에서의 성새는 단순한 아틀라스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팀의 전술을 완성하는데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지탱점이였다. 지단은 그 지탱점이 바로 중간방어수의 위치라고 생각하였다. 체격이 좋고 육체적준비를 일정하게 갖추었으나 아직 조약력과 속도가 뛰여나지 못한 지단에게 있어서 높은 공다루기능력과 뛰여난 경기의식, 예술적인 판단으로 활약해야 할 위치는 바로 중간지대였다.

지단은 중간방어수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또 흘렸다.

(확실히 지단은 이제 더 자라면 프랑스축구종합팀의 경기조직자로 될수 있겠는데!)

지단의 팀협동전술훈련모습을 바라보는 바루두지도교원의 마음은 흡족했다. 뙤약볕속에서 땀을 흘리며 한명두명 후비선수들을 키워가는 지도교원의 기쁨이란 바로 이런것이리라. …

《축구날개》를 달아준 곳에서

《축구명장》, 《축구영웅》, 《국보적인 인물》, 《축구구세주》라는 별호들과 함께 《검》이라는 애칭도 가지고있는 지네딘 지단의 축구인생을 더듬어보느라면 우연이라고 볼수 있는 하나의 흥미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단이 6살이 되는 생일날에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살림에서도 축구공과 운동복을 생일선물로 안겨주고 아들이 공을 안고 찍은 기념사진을 남겼다.

그때로부터 10년이 되는 1988년에 16살난 지단은 직업축구의 바다에 뛰여들었다. 그런데 또 그때로부터 꼭 10년이 되는 1998년에 지단은 프랑스에서 60년만에 개막된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 두알의 머리받기득점을 하여 3:0으로 프랑스팀이 브라질팀을 타승하

게 함으로써 프랑스의 축구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월드컵을 안아왔으며 그해에 첫번째 세계최우수축구선수상을 받았다.

20세기의 마지막축구대전에서 지단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전까지만 하여도 세계적으로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지단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직업축구의 바다에 조용히 뛰여든것은 16살나던 해였다. 어느날 깐느축구구락부의 감독 페르난데스가 지단이 깐느축구학원을 졸업하고 림시거처지로 삼고 합숙생활을 하고있던 구락부감독인 에리노의 집으로 찾아왔다.

페르난데스감독과 에리노가 방에 들어서자 지단은 보던 책을 든채 벌떡 일어섰다.

소박한 하숙방에는 마르세이유축구구락부팀에서 활약하던 우루과이축구종합팀출신인 엔쪼 프랑체스꼴리의 사진이 붙어있었다.

그는 엔쪼의 축구기술을 동경하고있었던것이다.

사실 그무렵 지단은 많은 생각을 하고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마르세이유로 갈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는 깐느를 떠날수 없었다. 깐느는 그에게 축구날개를 달아준 곳이였다. 팀의 바루두지도교원은 그의 정신적아버지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는 깐느축구구락부와 계약을 맺으려고 결심하고있었다.

지단의 결심을 들은 페르난데스감독은 그를 지지해주었다.

《지단은 정말 도리가 있고 의리가 있는 축구선수구만. 결심을 참 잘했소.》

지단의 직업축구항행은 이렇게 16살부터 닻을 올리고 깐느축구구락부에서부터 시작되였다.

1년이 지나 지단은 프랑스1급축구련맹전에 참가하였다.

첫 경기에서 지단은 보조중간방어수의 위치에 섰다.

지단은 아버지가 늘 말하던 아틀라스산과 같은 성새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항상 잊지 않았다.

(아버지가 직업축구선수로 첫 출전하는 나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가.)

프랑스1급축구련맹전에서 맹활약을 한것으로 하여 지단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지단이 직업선수가 되여 넣은 첫 꼴은 1991년 1월 깐느축구구락부팀과 난트축구구락부팀과의 경기때였다. 전반전에 1:1 동점이 된 상태에서 후반전 경기시간 56분경 지단은 공격선으로 공을 몰고나가면서 상대편 문지기가 앞으로 나온 순간을 포착하고 차넣기를 했는데 그 공이 문지기의 키를 넘어 그대로 그물에 걸렸다.

이듬해 지단은 깐느축구구락부팀에서 28번의 경기에 참가하여 1개의 득점밖에 하지 못했지만 자기 팀이 4등으로 올라서는데 큰 기여를 한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후 지단은 2급련맹전에서 1등을 하여 1급팀으로 올라선 보르도축구구락부팀의 눈에 들어 거기서 새 출발을 하게 되였다.

보르도축구구락부는 프랑스에서도 손꼽히는 이름난 구락부의 하나였다. 흔히 이름난 큰 팀으로 옮겨가면 불안스러운 법이지만 지단은 좋은 환경조건의 혜택을 입었다.

보르도축구구락부의 감독 로란 크루비스는 지단의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했으며 이 젊은 재간둥이에게 최대의 관심을 돌려주었다. 경기대회에서 지단의 위치도 약간 뒤로 물러서서 자리잡게 하고 적수의 대인방어가 약해지는 도중에 교대출전을 시키면서 경기경험을 쌓아가도록 지도하였다.

결과 보르도축구구락부팀은 1급팀으로 올라선지 1년만에 1급련맹전에서 4등의 성적을 쟁취하였으며 특히 자기 마당에서는 한번도 패하지 않는 기록을 남기였다. 지단은 35번의 경기에 참가하여 10개나 득점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지단의 발전과 함께 보르도축구구락부팀은 더 높이 발전하였다. 왼쪽에서 활동하는 리자라즈선수와 지단을 가리켜 사람들은 《지즈》라는 애칭으로 합쳐 부르게 되였으며 지단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팀 동료인 듀가리와 함께 보르도축구구락부의 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한편 1994년 제15차 월드컵경기대회 지역별예선경기에서 프랑스축구종합팀이 미끄러진 후 프랑스축구련맹에서는 에메 쟈께를

신임책임감독으로 새로 임명하고 그에게 선수선발과 전술안작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통솔권을 맡겼다. 에메 쟈께책임감독은 책임이 무거움을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더우기 1938년 제3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주최한 후 60년만인 1998년에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를 프랑스가 주최한다는 사실앞에서 에메 쟈께책임감독은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책임감독을 맡은 해에 프랑스국가종합팀은 국제축구련맹이 발표하는 순위에서 18등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프랑스의 축구를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자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것인가?

사색속에서 긴장한 나날을 보내던 책임감독은 우선 국가종합팀에 망라시킬 선수들에 대한 《신진대사》를 진행할 확고한 결심을 내렸다.

(조직력을 중시하는 팀을 꾸려 프랑스축구를 세계앞에 보여주리라!)

이렇게 결심한 그는 프랑스축구종합팀의 핵심들을 국가적인 선수육성쎈터인 축구학원들에서 키워낸 선수들로 《신진대사》하기로 대담한 용단을 내렸다. 그리하여 1994년 8월 보르도축구구락부에서 활약하고있는 지단과 비에이라, 앙리를 비롯한 신진선수들을 대담하게 프랑스국가대표팀에 망라시키고 체스꼬축구종합팀과의 친선경기에 출전시켰다. 이 경기에서 지단은 쟈께책임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후반전경기마감 5분경에 멋있는 득점으로 프랑스축구종합팀이 2:0으로 이기는데 큰 기여를 했다.

보르도축구구락부에서의 4년간은 지단의 축구인생에서 큰 전환기였다. 이 도시에서 지단은 에스빠냐이주민의 딸인 베로니크와 일생을 같이할 언약을 했고 두 가정의 부모들과 축구동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했으며 첫 아들도 보았다.

그리고 어린시절부터 자기 방에 사진을 걸어놓고 존경하던 마르세이유축구구락부에서 활약한 우루과이국적축구선수 엔쪼 프랑체스꼴리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엔쪼라고 지었다.

프랑스축구종합팀 쟈께감독은 보르도축구구락부팀이 1995－1996년 경기계절에 유럽축구구락부컵대회의 결승경기에

진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지단을 중심으로 종합팀의 전술을 완성할 전략을 세웠다. 하여 1996년 지단이 이딸리아의 유벤뚜스축구구락부와 계약을 맺고 뽑혀가게 되자 쟈께책임감독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간주하고 적극 지지하였다.

또한 쟈께감독은 유럽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서 유벤뚜스팀의 조직자로 활약하고있던 지단의 경기모습을 직접 현지에서 보면서 지단을 중심으로 하여 팀의 조직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확고한 결단을 내렸다.

그는 프랑스의 종합축구팀훈련기지인 끌레르 퐁떈에 돌아오자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다음과 같은 6가지 전략을 자기 수첩에 깨알같이 박아넣었다.

1. 철벽의 방어를 구축한다. ―《4―5―1경기대형》

☆ 일 화 ☆

명수가 받은 빨간딱지처벌의 내막

제18차 도이췰란드월드컵경기대회 최종결승경기에서 이딸리아팀선수를 머리로 받아 넘어뜨리고 빨간딱지퇴장처벌을 받은 프랑스팀 주장 지단의 행동은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지금껏 랭정한 모습으로 신중하게 모든 경기를 치르어온 지단이 왜 그처럼 격노하였으며 피해자인 이딸리아선수 마떼랏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였는가. 사건후 줄곧 침묵을 지키고있던 지단이 12일만에야 그 내막을 공개하였다.

경기시작 10분경 프랑스팀이 공격을 들이대여 11m벌차기구역에 진입하였을 때 주심은 프랑스팀에 반칙을 선언하였다.

이때 지단은 자기를 대인방어하던 이딸리아팀 방어수 마르꼬 마떼랏찌와 11m벌차기구역밖으로 함께 나오고있었는데 마떼랏찌가 그에게 《너는 테로분자,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던졌다. 그 순간 지단은 마떼랏찌의 가슴팍을 들이받아 그를 자빠뜨렸으며 그 대가로 주심의 퇴장처벌을 받게 되였다.

2. 뛰여난 공격조직자가 공격을 지휘한다. ―《지네딘 지단》

3. 선수들 호상간에 서로 역할을 보충해준다. ―《방어수는 공격훈련, 공격수는 방어훈련》

4. 선수육성쎈터를 거친 신진선수들을 기본으로 선발한다. ―《지단, 비에이라, 앙리》

5. 대상팀과 경기정황에 따라 림기응변의 전술을 적용한다. ―《4―3―1―2경기대형》

6. 불의적인 작전을 전개한다.

쟈께책임감독이 세운 승리를 위한 6대전략은 1998년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 이전까지는 절대비밀에 속하고있다가 프랑스축구종합팀이 월드컵을 쟁취한 이후에야 세상에 공개되였다.

드디여 프랑스땅에서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의 개막식이 성대히

프랑스 TV앞에 나선 지단은 인종주의적색채가 짙은 언사는 자기가 한 행동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하면서 축구경기에서 인종차별을 막을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회후 이딸리아국회 부의장인 우익정당지도자 로베르또 까데를리가 《이딸리아팀이 흑인들과 이슬람교,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팀을 타승하였다.》라고 말한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한편 5명으로 구성된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는 스위스의 쮸리히에서 지단과 마떼랏찌의 사건을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심의과정에 지단으로부터 사건전말을 들은 다음 지단에게 3차례의 국제경기출전금지처분과 7 500SFr(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하고 지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마떼랏찌에게 2차례의 경기출전금지처벌과 5 000SFr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 채택된 후 두 선수들은 자신들이 범한 과오에 대하여 호상 사죄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특대형사건이 있은 이해에도 역시 지단은 2006년 국제축구련맹 최우수선수상을 4번째로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진행되였다.

영국이 현대축구의 모국이라고 자랑하지만 프랑스 역시 축구와 인연이 매우 깊은 나라이다.

세계의 축구를 주도하는 국제축구련맹은 1904년 5월 21일 프랑스를 비롯한 7개 나라 축구협회 대표들의 참가밑에 프랑스의 빠리에서 창립되였고 그 초대위원장으로는 프랑스사람인 로버트 그에링이였으며 제3기 위원장이였던 쥴리어스 리멧 역시 프랑스사람으로서 34년간 《축구대통령》을 하면서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발기하고 《쥴리어스 리멧컵》을 제정하였다.

지금 《세계축구대통령》을 하는 죠세프 블라테르는 스위스사람이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로 활약하였으며 《유럽축구대통령》인 미쉘 쁠라띠니 역시 프랑스사람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1938년에 제3차 축구선수권대회를 한번 주최한 후 자기 나라 사람이 만들어내놓은 컵을 한번도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1994년 제15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브라질팀이 세번째로 우승하여 《쥴리어스 리멧컵》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였다.

유능한 책임감독의 주패장

20세기의 마지막월드컵대회인 1998년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 30개의 본선경기출전권을 놓고 1997년 11월까지 172개 나라와 지역이 참가하여 도합 693차례의 경기들을 진행하였다.

1994년 제15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브라질팀과 주최국인 프랑스팀은 본선경기에 직접 참가하게 됨으로써 월드컵력사상 처음으로 32개 팀이 본선경기에 참가하게 되였다. 이에 따라 국제축구련맹은 경기기간을 24개 팀이 참가하던 종전보다 2일간 늘여 33일간으로 한다는것을 승인하였다.

하여 월드컵을 놓고 32개 팀이 쟁탈전을 벌리게 될 제16차 월

드컵경기대회는 1998년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하게 되였다. 이 월드컵경기대회 개막을 앞두고 세계 여러 나라의 통신, 방송들은 경기전망에 대한 보도의 도수를 높이였다. 《과연 어느 팀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경기대회에서 2등을 하겠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 AP통신이 특집기사에서 1등팀이 아니라 2등팀을 부각시킨것은 1등팀은 의심할바 없이 브라질팀이 하게 될것이라는 타산에서 출발한것이였다.

이 특집기사를 내보내기에 앞서 AP통신은 이미 세계각지의 독자들에게 《어느 팀이 1998년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팀으로 될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였는데 브라질팀이 56%로서 우승후보팀으로 확고하게 지목되고 그다음으로 이딸리아팀이 9%, 도이췰란드팀이 6.5%, 잉글랜드팀이 3.9%, 네데를란드팀과 에스빠냐팀이 각각 2.6%, 로므니아팀과 나이제리아팀이 각각 1.3%였다.

보는바와 같이 주최국인 프랑스팀을 우승후보팀으로 꼽은 사람들은 1%이상계선에서는 없었다.

《세계축구왕》—뻴레는 이 월드컵경기대회부터 TV방송국 축구론평원으로 사업하기 위하여 브라질체육상직에서 물러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드디여 1998년 6월 10일, 프랑스의 수도 빠리교외의 쌍드니경기장에서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고요한 정적속에 프랑스팀은 3조에 속해있는 남아프리카, 사우디 아라비아, 단마르크팀과 1단계 경기를 치르었다.

남아프리카와의 첫 경기를 3:0으로 성과적으로 치르고 종합팀훈련기지로 돌아오는 뻐스안에서 책임감독 에메 쟈께가 먼저 말하였다.

《오늘의 승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4년동안 준비해온 월드컵우승은 아직 멀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년시절부터 련마해온 축구기술과 집단이 한덩어리가 될 때 꼭 마지막승리의 봉우리에 올라설수 있다는것을 증명한 첫날입니다.》

뒤이어 무뚝뚝한 얼굴에 눈웃음을 약간 담은 지단이 일어서서 축구동료들을 한명한명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다.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구실을 하자면 나머지 10명의 친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축구선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것은 항상 팀, 말하자면 우리 집단을 생각하는것입니다.

팀은 일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내 역할도 그러합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딸리지 않는 한 팀을 위해 무엇인가 공헌할것입니다.》

낮으나 저력있는 지단의 말이 끝나자 선수들모두가 일제히 일어서더니 지단을 중심으로 서로 어깨를 겯고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는 《우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3번 웨쳤다.

인종과 언어, 피부색은 달라도 하나의 축구가정에 융합된 선수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쟈께책임감독의 눈가에 기쁨이 함뿍 어려있었다.

프랑스팀은 두번째 조별련맹전에서 사우디 아라비아팀과 맞다들게 되였다. 지단은 유리한 공간에 공련락을 해주며 공격할 때에는 발동기로, 방어할 때는 성새로 자기 역할을 훌륭히 맡아나섰다.

첫 득점은 지단의 묘한 종짬련락으로 이루어졌다. 왼쪽 문지기구역앞에서 지단이 공을 잡자 상대방 3명의 방어수들이 에워쌌다. 그 순간 지단이 왼쪽구석으로 돌입하는 자기 팀 방어수에게 종짬련락하였는데 그가 몰고들어가다가 상대방 방어수의 다리사이로 준 공을 속도가 빠르고 득점능력이 좋은 앙리선수에게로 이어져 그가 왼발안측으로 가볍게 득점하였던것이다.

후반전 경기시간 25분경 지단이 공을 몰며 공격선으로 진출할 때 사우디 아라비아팀이 미끄러져빼앗기를 시도하자 지단이 한발자국 넘겨내디디며 뒤발로 방어수의 엉치를 밟은것을 주심은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정하고 빨간딱지를 들었다.

지단은 고의적으로 밟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나 주심의 선언은 최종적이였다. 지단은 고개를 떨구고 경기장밖으로 퇴장하였다.

이 처분은 프랑스팀에 있어서 커다란 손실이였다.

지단이 다음번 두 경기의 참가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였던것

이다. 지단이 없는 경기를 치른다는것은 곧 프랑스팀의 전술안을 바꾸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책임감독 에메 쟈께는 만약 조별련맹전의 세번째 경기에서 단마르크팀과 대전하여 비기거나 진다고 해도 2단계 경기에 올라갈수 있게 된다는 타산밑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 대담한 전술안을 세우고 조별련맹전 마지막경기인 단마르크팀과의 경기에 5명의 후보선수들을 출전시켜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프랑스팀은 단마르크팀과의 경기에서 2:1로 이기고 2단계 경기에 올라가 빠라파이팀과의 승자전에 참가하였으나 승부가 나지 않아 진행된 연장전에서 《금꼴》로 준준결승 즉 8강에 힘겹게 진출하였다.

지단은 준준결승경기부터 참가할수 있었다. 프랑스팀의 준준결승경기대상은 우승후보팀의 하나인 이딸리아축구종합팀이였다.

프랑스팀과 이딸리아팀과의 경기는 마치 전쟁마당처럼 공격과 방어가 서로 엇바뀌면서 치렬한 공방전으로 넘어갔다. 서로 빈틈이 없이 방어에 힘을 넣는것으로 하여 두 팀은 전후반전과 연장전에서까지 득점이 나지 않아 11m벌차기로 승부를 가르게 되였다.

11m벌차기는 프랑스팀의 먼저차기로 시작되였다. 두 강팀의 담력의 대결이였다. 지단이 먼저 나왔다. 름름한 체격의 소유자인 지단이 자신만만하게 차넣어 득점을 얻었다.

이딸리아팀에서는 득점명수 밧죠가 나와 가볍게 득점하였다.

다음에 나온 3명의 선수들모두가 성공하여 4:4 동점인 상태에서 다섯번째 선수들의 차례가 되였다. 프랑스팀의 마지막선수가 성공하자 이딸리아팀의 마지막선수차례가 되였다.

그는 공을 놓고 5m뒤에까지 뒤로 들어갔다가 공을 견주고 조급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며 강하게 차넣기를 했는데 그 공이 문가름대에 맞고 튀여나왔다. 순간 수만명의 프랑스응원자들이 함성을 지르며 프랑스기발을 흔들었다.

마지막 11m벌차기를 한 이딸리아선수는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뒤로 벌렁 자빠졌으며 프랑스팀 문지기는 마치 아이들처럼 껑충껑충 뛰여나와 지단을 힘껏 포옹했다.

쟈께책임감독을 향해 프랑스팀선수들이 기발을 안고 달려오더니

서로 껴안고 돌아갔다. 프랑스팀은 준결승경기 즉 4강에 올라갔다.
준결승경기는 공격력이 세기로 이름난 흐르바쯔까축구종합팀과 하게 되였다. 흐르바쯔까팀은 2단계 경기에서 로므니아팀을 1:0으로 이기였으며 준준결승경기에서 우승후보팀으로 지목되였던 도이췰란드팀을 3:0으로 타승하고 준결승경기에 진출한 그야말로 만만치 않은 팀이였다. 68년간이나 국민들의 불만과 언론의 비난만 받아오던 프랑스의 축구를 4강으로 끌어올린 에메 쟈께책임감독의 인기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달아올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커지는 책임감으로 하여 무거워졌다.
이제 남은 경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수 있었다.
그는 흐르바쯔까팀과의 경기에서 림기응변의 전술대형인 4−3−1−2체계로 방어공간에 7명의 방어수를 배치하고 그 앞선에 지단을 세운 다음 최종공격에 앙리와 또 한명의 공격수를 배치하였다. 지단이 경기정황에 따라 량익측방어수들중 누구를 공격에 진출시키겠는가를 결심하고 지휘하도록 작전안을 세운 쟈께책임감독은 매 선수들의 활동을 지단의 지휘에 복종시키도록 했다.
드디여 림기응변의 전술대형으로 프랑스팀은 흐르바쯔까팀과

○ 상 식 ○

축구경기에서 참고할 득점관련자료

• 득점의 70%는 표준정황(구석차기, 벌차기, 던져넣기, 11m벌차기)에서 넘겨차기로 공격구역에서 이루어졌다.
• 득점의 33%는 넘겨차기한 공이였다.
• 공격수들이 문지기를 유인하면 넘겨차기의 75%가 성공하였다.
• 넘겨차기는 방어선뒤로 해야 한다. 1994년 제15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 넘겨차기로 성공한 42개의 꼴은 모두 방어선뒤로 찬것이였다.
• 득점의 60%는 문선으로부터 11m까지의 공간에서 있었다.

의 준결승경기에 나섰다. 전반전경기에서 1:1로 비긴 상태에서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쟈께책임감독은 전술대형을 변화시켜 선수들호상간에 서로 역할을 보충하게 하였다. 지단은 량익측방어수들을 공격에 가담시키기 위하여 경기시야를 넓혔다. 지단은 처음 왼쪽방어수를 공격에 가담시켜 성공하지 못하자 다음에는 공격선에 진출하는 오른쪽방어수에게 길게 공을 련락하였다. 공을 받은 오른쪽방어수는 최종공격수와 공을 주고받으며 유리한 지점에서 왼발로 강하게 차넣기를 했다. 그 공은 어쩔 사이없이 낮게 문대의 오른쪽구석으로 들어가 그물을 흔들어놓고야말았다.

《와!ㅡ》 관중들의 함성은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서로서로 껴안으며 너무 기뻐 환성을 질렀다.

공격력이 강한 흐르바쯔까팀을 2:1로 타승한 프랑스팀은 력사상 처음으로 월드컵경기대회 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되였다.

월드컵을 놓고 33일간이나 쟁탈전을 벌려온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의 마지막싸움은 확고한 우승후보팀으로 지목되여온 브라질축구종합팀과 겨루게 되였다.

월드컵대전에서 4차례나 우승한 브라질축구종합팀!

- 평균적으로 보면 차넣기와 득점의 비률은 9:1이다.
- 65%의 득점은 공격구역에서 공을 차지하여 이루어졌다.
- 방어선에서 중간지대를 넘겨 장거리련락을 한 공의 80%는 효과가 없는것이였다.
- 실점의 50%는 자기 구역에서 공을 빼앗겼을 때 생겼다.
- 85%의 득점은 4번이하의 공련락으로 이루어졌다.

련락을 이보다 더 많이 하면 득점기회가 적어진다. 그러므로 심중하면서도 예리하고 직접적인 공격을 들이대야 한다.

- 기술기교별득점성공률을 보면 단번차넣기 75%, 먼 곳에서 문대구역에 차기 21%, 뻗으며 머리받기 21%, 문지기와의 1:1 대항 5%이다.

프랑스사람들이 그렇게도 안고싶어하는 《쥴리어스 리멧컵》을 자기의것으로 만든 《축구왕국》 브라질! 프랑스축구종합팀 책임감독 에메 쟈께의 침착성에도 한계가 있는듯싶었다. 몹시 흥분한 그는 드디여 마감전투의 승리를 위한 주패장을 꺼내놓았다.

(공격력이 강한 브라질팀과는 조직적인 방어를 강화하면서 불의적인 공격전을 벌리자! 그리고 지단이 머리받기에 자신없어 하는것을 상대방이 잘 알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역리용하자!)

드디여 월드컵경기대회 결승경기가 시작되였다.

7만 5천명의 관중이 꽉 들어찬 빠리의 쌍드니경기장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새로 선거된 국제축구련맹 블라테르위원장, 이름있는 체육계인사들로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브라질팀은 처음부터 자기의 공격력을 시위하며 프랑스팀의 문전으로 육박했다. 프랑스팀은 조직적인 방어로 완강하게 맞섰다.

전반전 경기시간 27분경 프랑스팀은 브라질팀의 왼쪽구석에서 구석차기를 얻게 되였다. 모서리에 공을 놓고 프랑스팀이 구석차기를 한 순간 지단이 달려들어가며 왼쪽옆이마로 강한 머리받기를 했는데 그 공이 그대로 득점으로 될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예견한대로 브라질팀의 방어수들은 지단의 머리받기에 완전한 무방비상태였다. 지단은 바로 그 틈을 노려 자유롭게 머리받기를 할수 있었다. 기쁨과 슬픔이 엇바뀌는 속에 사람들은 그 득점을 놓고 행운이 가져다준 우연적인 득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적인 득점이 련이어 이루어질줄이야…

전반전이 끝날무렵 프랑스팀이 이번에는 먼저번과 반대인 오른쪽에서 또다시 구석차기를 얻었다. 설마 그런 행운이 지단에게 다시 차례지랴 하는 의문속에서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런데 지단이 또다시 비호같이 돌입하면서 오른쪽옆이마로 머리받기를 했다. 《꼴!-》 관중들모두가 합창으로 대답했다.

쌍드니경기장이 생겨 아니, 세계의 그 어느 축구경기장에서도 이러한 희한한 광경은 볼수 없었다.

전반전에 2:0으로 앞선 상태에서 후반전에 브라질팀은 공격수로 로날도를 앞선에 내세우고 전술을 변화시키며 총공격전으로 나

왔다. 그러나 프랑스팀의 완강하고 조직적인 방어에 부딪쳐 득점할수 없었다. 경기마감시간이 가까와오자 브라질팀의 공격은 자기의 기질을 잃고 박력도 없었다.

이때 역습속공으로 프랑스팀은 또 한꼴을 넣었다.

드디여 프랑스축구종합팀은 3:0으로 《축구왕국》팀을 타승하고 첫 우승을 쟁취하였다. 월드컵을 안고 뜨겁게 입맞추는 프랑스선수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설레였다. 프랑스축구종합팀은 이 월드컵경기대회의 모든 경기에서 각이한 위치의 9명의 선수들이 다 득점하였다. 이것은 후비선수육성쎈터에서 높은 개인기술을 소유한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단합될 때만 월드컵을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20세기의 축구가 21세기에 넘겨준 교훈이기도 하였다.

책임감독 에메 쟈께는 어떻게 두번씩이나 지단의 머리받기가 성공될수 있었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확신성있게 대답했다.

《구석차기로부터의 지단의 머리받기는 예상밖의 일이였기때문에 지단에게 공을 주는 작전을 택하였다. 그랬더니 정말 상상했던대로 면바로 성공하였다. 그것은 훈련을 거듭하는 과정에 완성한 작전이였는데 훈련에서는 두번중 한번 성공하군 했다.

그러나 이번엔 정말 완전한 성공이였다.》

프랑스의 수도 빠리에 있는 샹젤리제거리에는 100만명의 시민들이 떨쳐나와 월드컵경기대회력사상 첫 월드컵을 쟁취한 기쁨을 터쳤다. 지단은 중간지대에서의 능숙한 지휘자로서의 비범한 조직력과 프랑스축구종합팀이 력사상 첫 우승을 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것으로 하여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지니게 되였다. 1998년에는 세계최우수축구선수상과 유럽최우수축구선수상인 《금뽈상》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축구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어린시절부터 시작된 지네딘 지단의 축구인생은 20년이 지나 세계축구의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그러니 지단이 20년간 축구의 길에서 겪은 우여곡절은 그 얼마였으랴. 하지만 축구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지단은 힘든 고비들을 넘어섰던것이다.

《괴물-큰 도끼》-루이스 피고

나는 청소년시기부터 계속 경기에 출전할수 있도록 매일 필사적으로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었다.

우수한 선수들이 모인 팀에서 매일매일의 훈련과 경기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기때문이였다.

—루이스 피고—

2001년에 국제축구련맹으로부터 세계최우수축구선수상을 수여받은 뽀르뚜갈의 축구명수 루이스 피고는 2000년 이전까지는 널리 알려져있지 않았다.

그의 본명은 루이스 필리뻬 마데이라 까에이로 피고이다.

이름이 류달리 길어 제대로 번지기 힘들지만 루이스 피고 혹은 그저 피고라고만 불러도 온 세계가 다 아는 축구명수로 된것은 2000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이후부터이다.

피고는 2000년에 진행된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것으로 하여 그가 속한 뽀르뚜갈팀은 결승경기에는 진출하지 못하였지만 이 팀이 으뜸가는 팀이며 7번을 단 피고선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중간방어수라는것을 인정받게 되였다.

천성적인 축구기질

장마철이 시작되던 1972년 11월 4일 대서양을 끼고있는 뽀르뚜갈의 수도이며 항구도시인 리스봉에서 루이스 피고가 고고성을 울리며 태여났다.

당시 피고의 아버지는 코르크참나무가공공장의 로동자로 일하고있었다. 뽀르뚜갈은 코르크생산량이 세계총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여 대외수출에서는 첫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의 아버지는 실업을 당하지 않고 근근히 살아왔다.

피고는 첫돌때 아버지가 만들어준 장난감자동차에 짐들을 싣고 아장아장 끌고다니기를 좋아했다. 그 짐들이란 바로 코르크로 만든 삼각, 사각, 원통 또는 공모양 등으로 된것들이였다.

방안과 마당에서 장난감자동차에 짐들을 싣고 부리고 끌며 놀이를 하는 피고의 재롱스러운 모습을 보는것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쁨이고 행복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는 집에 들어서더니 정성스레 만든 코르크공을 피고에게 안겨주었다. 그리고는 피고와 마주앉아 코르크공을 주고받으며 놀았다. 코르크공을 처음에는 손으로 굴리던 피고는 싫증이 났던지 발로 차서 굴리다가 넘어지며 캐득거렸다.

《피고야, 아버지처럼 손으로 굴려보내거라.》

어린 피고는 아버지가 시범동작까지 해보였으나 제멋대로 발로 차려고만 했다.

《허, 너도 사내라고…》

피고의 아버지는 대견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천성적인 기질을 타고났다고 할지, 이때부터 피고는 코르크공을 차는데 습관되였다.

점차 아버지가 정성껏 만들어준 첫돌생일선물인 자동차는 멀리 밀려나고 방안에서나 집마당에서나 코르크공만 차는데 온 정신

을 쏟아부었다. 얼마후부터는 어머니몰래 뒤골목에 나가 마을의 소꿉친구들과 함께 코르크공을 차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로부터 장난감공과 함께 시작된 축구는 피고와 이렇게 인연이 맺어졌다.

피고가 소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왔다. 학부형이 된다는 류다른 마음을 안고 입학식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피고의 아버지는 자식의 앞일이 잘되기를 바랐다.

《피고야, 넌 오늘부터 학생이 되였으니 공부를 잘해야 한다. 장난질만 해서는 안된다.》

아버지는 뽀르뚜갈의 지나온 력사를 알기 쉽게 차근차근 피고에게 설명해주었다.

《피고야, 네가 더 크면 시내에 있는 민속박물관에 함께 가보자. 아버지도 너의 할아버지와 함께 이베리아연구의 보물고라고 할수 있는 민속박물관에 가서 뽀르뚜갈의 력사를 알게 되였단다. 이 땅에 태여난 사람이라면 자기 나라 력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피고는 너무 사기가 나서 제자리에서 닁큼 뛰였다.

피고의 천성적인 축구재능은 이렇게 조국에 대한 사랑과 함께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세월은 빨리도 흘러갔다. 철들기 전부터 코르크공을 차면서 축구에 각별한 흥미를 가지고있던 피고에게 축구대문이 열리는 날이 왔다. 뽀르뚜갈뿐아니라 유럽에서도 널리 알려진 벤피카축구구락부 후비선발감독이 피고를 앞세우고 집마당에 들어섰던것이다.

그는 어리둥절해있는 피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오늘 피고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후비선발을 위한 측검을 하다가 훌륭한 인재를 발견했습니다.

이 〈채종전문가〉의 눈은 병아리를 찾는 독수리눈과 같답니다.

멀리에서 보고도 틀림없이 종자를 골라내니까요. 이제 피고를 벤피카축구구락부의 푸른 잔디밭에 심어놓기만 하면 꼭 열매가 주렁지게 될겁니다.》

당시 뽀르뚜갈에서는 전망이 내다보이는 나어린 후비선수들을 축구구락부들의 부담으로 육성하고있었다. 1974년에 선 새 정부가 새로운 정치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었던것이다.

《…이제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에 들어선 뽀르뚜갈의 앞날은 좋아질것입니다. 피고의 축구전망도 열리고…》

후비선발감독은 락관적인 소감을 소탈하게 내비쳤다.

후비선발감독이 좋은 인상을 남기고 돌아가자 피고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던 아버지가 물었다.

《피고야, 그래 넌 직업축구선수가 되고싶으냐?》

《아버지, 난 축구가 재미있어요. 사실 이제까지는 직업축구선수로 될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부러워했어요.》

《피고야, 축구에서 성공하자면 얼마나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지 너는 아직 잘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성적인 기질을 타고난다고 했어.》

《아버지, 그럼 난 축구선수가 될수 없다는건가요?》

《글쎄, 네가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두 훌륭한 체육선수가 될수 있다는 말은 처음 들으니 잘 리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다.》

《아버지, 다른 애들은 벤피카구락부에 뽑힌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난 돈은 없어도 뽈차는건 자신있어요.》

피고는 아버지의 불안을 눈치채자 자기 결심을 비쳤다.

《그래, 학교에서 몇명이나 뽑혔느냐?》

《나 혼자예요.》

《음, 그랬댔구나.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이렇게 되여 피고는 벤피카축구구락부의 양성조 후비선수로 선발되였다.

양성조감독이 구락부 부회장을 앞세우고 주석단에 올랐다. 호기

심을 가지고 소년들이 주시했다.
구락부 부회장은 위엄을 돋구며 소년들을 둘러봤다.
《감독, 후비선수감이 왜 이렇게 적소?》
《예, 측검과정에 9명이 불합격되였습니다. 선수선발지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부회장은 알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더니 움쭉 일어나 말을 뗐다.
《명성높은 벤피카축구구락부의 후비선수로 선발된것을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우린 한식구가 되였습니다. 첫 양성생으로서 훈련을 열심히 하여 훌륭한 축구명수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구락부에서는 후비선수모두에게 축구화와 축구공, 운동복을 비롯한 필수품들을 돈을 받지 않고 공급해줍니다.》
부회장의 말에 양성조소년들은 참지 못하고 모두가 벌떡 일어나 환성을 터치며 박수를 쳤다. 피고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얼마나 부럽던 축구공이며 축구화였던가.
부자집아이들의 축구공을 빌려차느라 따라다니며 수모를 당한적이 한두번 아니였고 공주인의 비위를 조금만 거슬려놓아도 그날에는 공을 차지 못하던 피고였다. 가난한 로동자의 가정에서 축구화와 운동복은 그림속의 떡과 같은것이였다.
그처럼 부럽던 축구화와 운동복, 축구공이 단번에 무상으로 차례진다니 피고는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부회장선생님, 축구화도 운동복도 그리고 축구공도 정말 다 줍니까?》
환성을 올리던 양성조축구소년들은 모두가 자리에 앉았지만 피고는 선자리에서 재차 물었다.
《물론이지. 그뿐인줄 아나. 오전에는 공부도 해야 한다.
아는것이 없으면 축구도 잘할수 없다는걸 명심해야 돼.
이제부터 소년팀은 벤피카구락부가 말아키우게 된단다. 너희들은 앞날을 내다보며 축구미래를 앞당겨와야 한다. 세계적인 축구명장이 되여야 한다. 알겠느냐?》
《예!》
기대가 담긴 부회장의 말을 흥미있게 듣고있던 소년팀선수들

이 일제히 대답했다. 피고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축구인생의 첫 발자국을 이렇게 뗐다.

한해두해 훈련의 나날이 흐르는 과정에 피고의 축구재능은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축구에 대한 그의 애착도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피고의 공다루기기술이 나날이 높아감에 따라 감독의 요구성도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특히 감독은 속도변화와 기묘한 방향바꾸기로 상대편방어수를 빼돌리기하는 피고의 특기를 살려 복잡한 경기정황에서 득점기회를 조성해주거나 득점으로 이어지도록 반복훈련을 시켰다.

양성조감독은 피고에게는 오른쪽에서의 활동이 기본이라고 판단하고 그 기술을 공고화시키면서도 왼쪽에서도 손색없이 활동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일상생활에서 웃거나 말하는 법이 없는 피고에게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그의 심리를 종잡을수 없게 하는 성격이 있었다. 양성조감독은 바로 이것을 피고의 장점으로 여기고 그것을 리용한 속임동작을 완성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갔다. 피고의 표정을 보고서는 과연 어디로 공을 몰고가겠는지 전혀 알수 없게 하자는것이였다.

푸른 잔디우에 땀방울을 뿌리며 공을 몰고나가는 피고를 감독이 멈춰세웠다.

《왜 공을 몰고 곧추 앞으로만 달리는가. 상대편 방어수가 막아나선다는것을 생각해야지. 그걸 명심해야 해. 다시!》

양성조감독이 구령을 내리자 피고는 속임동작을 하며 반복훈련을 하였다. 피고의 얼굴로는 땀이 비물처럼 흘러내렸다.

《속임동작은 다종다양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편 방어수가 어쩔바를 몰라하거든. 공을 길게, 짧게 …그렇지! 훈련 그만!》

감독이 강조하며 구령을 주자 피고는 푸른 잔디우에 풀썩 주저앉으며 길게 숨을 내쉬였다. 정말이지 아버지가 말한것처럼 축구명수로 된다는것은 헐치 않은 일이였다.

그러나 피고는 개별훈련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집체훈련부담도 큰데 거기에 개별훈련까지 하는 그를 보며 감탄하는 감독에게 피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감독선생님, 제가 바라던 축구여서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때문에 고생을 시켜서…》

《내가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양성조감독자격이 없지. 나에게 이제 제일 기쁜 순간은 피고가 국가종합팀으로 선발되는것이야. …이 세상에 품을 들이지 않고 거두어들이는 알찬 열매는 없는 법이다.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애써 노력해야 훌륭한 열매가 주렁지거든.》

감독의 진정어린 말이 피고의 가슴을 울렸다.

피고는 머리를 수그린채 파릇파릇 돋아난 잔디잎만 바라보았다.

축구와 조국

피고의 축구인생에서 기쁜 날은 소리없이 찾아왔다.

뽀르뚜갈축구련맹에서는 양성조훈련생들을 축구련맹회의실로 불러들였다. 여기에는 벤피카축구구락부뿐아니라 전국의 축구구락부에서 온 양성생전원이 모였다.

○ 상 식 ○

축구경기에서 공격전략의 기초

— 1단계:공격구역에로의 진입으로부터 상대팀을 압도하는것이다.
- 방어선뒤로 먼거리련락을 한다.
- 공없는 선수의 앞으로 달린다.
- 다른 선수의 지원을 받는 선수의 발앞에 공을 련락한다.
- 공을 받고 돌아선다.
- 공을 몰고 앞으로 달린다.

— 2단계:공격구역에 들어서자마자 공격속도를 높이거나 유

뽀르뚜갈축구련맹 위원장과 서기장이 들어와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사실 양성조훈련생들이 국가축구련맹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다.

그래서인지 회의실안은 부글부글 끓었다.

회의실 분위기를 누잦히려는듯 축구련맹위원장은 머리를 가볍게 쓸어넘기며 웅글은 목소리로 말을 뗐다.

《뽀르뚜갈축구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청소년후비선수들과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7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1977년부터 2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는 월드컵경기대회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경기대회입니다. 여기에는 19살아래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일명 〈코카콜라컵〉경기대회라고도 부릅니다. 뽀르뚜갈청년축구팀은 이 대회가 시작되여 12년만에 처음으로 지역별예선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비육성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로 차례진 첫 성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팀이 지역별예선경기에서 이겨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제7차 〈코카콜라컵〉경기대회 본선경기참가자격을 얻게 됩

지하는것이다.

- 기회만 있으면 차넣기를 한다.
- 가능하면 언제든지 공몰기로 상대방을 공격한다.
- 방어선뒤로 넘겨차기를 한다.
- 밀집대형을 유지한다.

— 3단계: 경기의 4대요소로 상대방을 압도하는것이다.

- 차넣기를 한다.
- 표준정황(구석차기, 벌차기, 던져넣기, 11m벌차기)에서 상대팀을 압도한다.
- 넘겨차기를 한다.
- 공격구역에서 정확한 공차기를 한다.

니다. 그럼 이제부터 련맹서기장이 이번에 선발된 청년팀선수들의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축구련맹서기장이 연탁으로 천천히 걸어나가 회의장안을 한바퀴 돌아보더니 먼저 지방에 있는 축구구락부들에서 선발된 선수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에 벤피카축구구락부에서 선발된 8명의 선수들과 함께 루이스 피고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연탁에서 벤피카축구구락부 감독을 일별한 련맹서기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벤피카축구구락부 감독, 피고는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벤피카축구구락부 감독은 눈길을 돌려 피고를 찾아보았다. 그때 피고는 창문밖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련맹서기장이 큰소리로 다시 불러서야 피고는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다.
《피고, 어디다 정신을 팔고있어? 제 이름도 가늠못하는 녀석이 어떻게 선발되였나?…》
축구련맹위원장이 피고에게 눈길을 보내며 핀잔을 주었다.
《…제가 이번에 선발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이제야 16살 잡혔습니다. 19살아래 선수들이 참가하는 뽀르뚜갈청년축구종합팀에 16살밖에 안되는 내 이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못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의혹감을 그대로 내비치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피고, 축구왕 뻴레나 마라도나도 네 나이때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했어. 자신심을 가져야 해. 축구기술이 기본이지 나이가 기본이 아니란 말이다. 알겠나?》
위원장의 고무까지 받았지만 피고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푹 수그리고 걸상에 앉았다. 그러나 온몸에는 기쁨이 넘쳐났다. 팽팽했던 분위기가 차츰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국가청년팀은 리스봉의 에스티디오 다 루즈벤피카축구경기장에서 집중훈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선발된 청년팀선수들은 다음주부터 집중훈련에 참가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축구련맹서기장은 선수들의 행동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련맹위원장이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19살아래 국가청년대표팀을 벤피카축구구락부 양성조 감독이 맡게 되였음을 알리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모두 일어서서 환성을 올리며 박수를 쳤다.

피고는 언제나 개별훈련지도를 주며 축구기술의 묘리를 가르쳐주던 양성조감독이 국가청년축구종합팀 책임감독으로 임명된것이 어찌나 기뻤던지 손바닥이 아픈줄도 모르고 박수를 쳤다.

종합팀에 망라된 피고는 책임감독의 다심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재능의 싹을 키웠고 그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지도에 의하여 자기의 특기기술을 무르익혀나갔다.

책임감독은 훌륭한 축구명수가 되려면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에 따라 희망도 포부도 높이 가져야 뜻이 깊어지고 실천을 따라세울수 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고에게 강조하군 했다.

그리고 피고의 심리, 육체, 기술, 전술적준비를 나무랄데없이 갖추어주기 위한데 모를 박고 공격형중간방어수의 위치에서 활동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천성적으로 체격이 좋고 령리한 피고를 그 어떤 경기정황에서도 팀의 전술적의도를 구현할수 있도록 품을 들여가며 한가지한가지 세세히 이끌어주었다.

1989년 뽀르뚜갈청년축구팀은 지역별예선경기를 성과적으로 치르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제7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 참가자격을 얻었다. 17살의 피고는 태여나 처음으로 비행기에 올라 아시아주의 남서부 아라비아반도의 북부와 중부를 차지하고있는 사우디 아라비아로 떠났다. 뽀르뚜갈청년축구팀은 대륙과 대양을 넘어 이 나라의 수도인 리야드에 도착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인상깊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뽀르뚜갈청년축구팀은 조별예선, 준준결승, 준결승을 거쳐 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되였다.

대회의 결승경기는 아프리카의 독수리로 불리우는 나이제리아팀과 하게 되였다. 피고는 나이가 어렸지만 공격형중간방어수의 위치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면서 득점기회를 조성하군 하여 나이제리아팀의 문전에 위협을 주었다.

전반전 경기시간 38분경 오른쪽에서 피고가 빠른 속도로 방향을 바꾸어 나이제리아팀의 방어수를 빼돌리면서 자기 팀 선수에게 득점기회를 마련해주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다.

후반전에 뽀르뚜갈팀은 또 득점함으로써 나이제리아팀을 2:0으로 이기고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가슴에 금메달을 번쩍이며 시상대에 올라선 피고의 마음은 기뻤다. 이것은 피고가 세계축구무대에 나서서 받은 첫 금메달이였다.

뽀르뚜갈국가가 울리는 가운데 창공높이 오르는 국기를 바라보는 피고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 상 식 ○

축구경기참가선수의 수와 선수교대규칙

현대축구가 발생된 해로 보는 1863년에 제정된 첫 축구경기규칙에는 경기참가선수의 수가 밝혀져있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의 축구경기에서는 량팀이 적당히 합의하여 경기참가선수의 수를 합의하고 경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축구경기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1872년에 경기참가선수의 수를 오늘과 같이 문지기를 포함하여 각각 11명으로 규정하였다.

한개 팀의 경기참가선수를 11명으로 하게 된 리유에 대해서는 몇가지 주장들이 있다. 국제축구련맹 위원장 죠세프 블라테르는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학교들에서 한학급의 학생수가 10명으로 되여있었고 경기에서 담임선생이 문지기를 섰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한 축구력사가는 당시 영국의 사립학교 기숙사호실 성원

(아, 나의 축구는 조국과 잇닿아있구나!)

피고는 가슴속에 국가와 국기를 새기며 축구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맹세를 더 굳게 하였다.

그때로부터 2년후 1991년 피고는 제8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에 또다시 출전하였다. 2년전에는 비록 나이가 어려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주력선수로서의 역할을 다하리라 마음다졌다.

제8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는 뽀르뚜갈의 수도 리스봉에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이목이 더더욱 집중되였다.

피고는 자기 나라에서 진행되는 좋은 기회를 리용하여 2련승을 목표로 세웠다.

뽀르뚜갈팀은 조별예선으로부터 준준결승, 준결승을 무난히 치르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결승경기에서는 《축구의 왕국》이라고 불리우는 브라질청년

이 10명이고 호실관리를 맡아보는 호실장이 있었던 관계로 경기참가선수가 11명으로 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공식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한 단체의 선수수는 23명으로 하며 경기당일 선수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18명을 초과할수 없게 되여있다. 그러므로 시상식을 할 때 메달을 18명까지 받을수 있다.

축구경기과정에 선수를 교체할수 있다. 첫 축구경기규칙에서는 원칙상 선수교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1923년부터 두 팀이 사전에 합의하면 부상당한 선수대신 후보선수를 바꾸어넣을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후 1953년과 1959년에 선수교대에 대한 규정이 다시 제정되여 선수교대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11명으로 구성된 두 팀은 한 경기에서 문지기를 포함하여 3명까지 선수교대를 할수 있다. 그러나 미리 두 단체가 합의하면 5명까지 바꿀수 있다.

지금에 와서 선수교대는 주로 감독의 전술적의도를 실현하거나 변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고있다.

축구팀과 맞다들게 되였다.

결승경기는 처음부터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브라질팀은 공격에 힘을 넣으면서 뽀르뚜갈팀의 문전을 위협했다. 피고는 중간지대를 철저히 장악하기 위해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면서 때로는 공격조직을 하고 때로는 방어활동을 하면서 불의적인 1:1 몰기와 돌파, 차넣기를 하여 브라질팀에 커다란 위협을 주군 했다.

축구강팀과 맞다들었으나 피고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랭철하게 경기정황에 따라 림기응변하며 속도변화와 묘한 방향바꾸기로 상대편 방어수들을 빼돌기하여 응원자들을 매혹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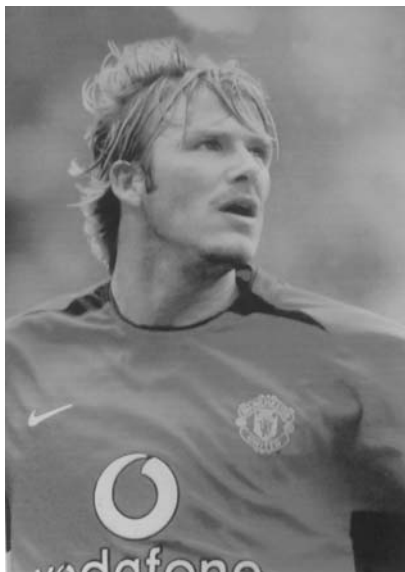
서로 공방전을 벌리며 치렬하게 벌어진 90분간의 결승경기는 비기고말았다. 연장전에서도 득점이 나지 않아 결국 두 팀 선수들은 11m벌차기로 승부를 가르게 되였다.

손에 땀을 쥔 아슬아슬한 속에서 뽀르뚜갈팀은 11m벌차기를 진행하여 브라질팀을 4：2로 이김으로써 제8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까지 2련승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순간 쥐죽은듯 고요하던 에스티디오 다 루즈벤피카경기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13만명의 응원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서로 부둥켜안고 함성을 지르며 손을 마구 흔들어댔다. 뒤이어 시상식이 진행되였다. 뽀르뚜갈국가가 주악되는 속에 국기가 창공높이 올랐다.

축구경기장에 선 아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TV로 보게 된 피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축구공에 푸른 꿈을 얹고 어린시절부터 피타게 노력한 아들이였기에 그들의 기쁨은 더더욱 큰것이였다.

다음해 1992년 20살의 피고는 뽀르뚜갈종합팀에 선발되여 경기마다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때부터 그는 피고라는 이름과 함께 《큰 도끼》라는 류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축구영웅》-데이비드 벡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벡캄은 물리학을 묘하게 응용하여 벌차기를 한다. 공의 비행자리길을 정확히 계산한다. 콤퓨터로 계산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것이다. 벡캄은 콤퓨터보다 더 빠른셈이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나를 물리학자로 잘못 생각하는지… 그러고보면 나의 벌차기는 아인슈타인한테서 배운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나의 오른발이 무섭다고 하는것은 머리로 벌차기를 하기때문이다.

멋진 꼴은 바로 사색속에서의 훈련이 가져다준 결과이다.

—데이비드 벡캄—

벡캄은 세계최고급의 벌차기명수이다.

2001년 잉글랜드팀과 그리스팀간의 경기에서 경기마감 1분을 남기고 그가 찬 벌차기공은 한순간에 그를 《전설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

월드컵경기대회 지역별예선경기들중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할수 있는 경기에서 그는 이 한꼴로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였던것이다.

벡캄은 3차례의 월드컵경기대회와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유럽구락부선수권보유자련맹전 등에 참가하여 세계적인 축구명수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축구공이 아니라 축구화를

세계적으로 이름난 축구명수들의 어린시절을 돌이켜보느라면 몇가지 공통적인 점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표하게 드러나는 공통점으로는 가난한 집 출신들이라는것,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것이며 한가지 더 보탠다면 축구공에 관심이 컸다는것, 축구공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매력이 남달리 높았다는것이다.

그런데 축구공보다 축구화에 대한 갈망이 더 강렬한 소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후세에 《축구영웅》으로 불리운 잉글랜드축구명수 데이비드 벡캄이다.

데이비드 벡캄은 1975년 5월 2일 영국의 수도 런던의 빈민들이 살고있는 이스트엔드의 평범한 화학공장 로동자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어려서부터 축구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축구경기구경을 다니거나 학교에서 돌아오자바람으로 동네아이들과 저녁늦게까지 공을 차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벡캄의 아버지는 어느날 아들의 축구꿈을 키워줄 결심을 하고 벡캄에게 말하였다.

《얘야, 축구를 즐겨하는 너에게 이 아버지는 이제까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번 로임을 타서 축구공을 사주려고 한다. 어머니와도 의논이 있었다.》

《좋아요. 그런데 더욱 간절한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 나는 축구화가 제일 부러워요. 매일 공원에서 뽈을 차니 신발이 자꾸 궤지군 해요. 신발은 학교에 갔다왔다할 때에만 신고 뽈을 찰 때에는 축구화를 신고싶어요.》

이렇게 되여 벡캄의 아버지는 아들의 열돐생일이 되는 날에 생일선물로 축구화를 사다주었다. 이 축구화는 벡캄의 축구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점으로 되였다.

이때부터 학교에 갔다오면 인차 축구화를 바꿔신고 가까운 공원에서 공을 차는 벡캄의 일과가 빠짐없이 계속되였다.

한편 벡캄은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팀 주장 브라이언 로브손처럼 축구명수가 되고싶은 충동으로 신문에 난 그의 사진을 오려내여 벽에 붙여놓았다.

그날그날을 살아가기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의 축구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하여 아들이 10살되는 해부터는 매번 여름방학때마다 로자를 주어 런던으로부터 퍼그나 떨어져있는 만체스터시의 보비 챨톤축구학교에 가서 배우고 오게 하였다. 이것은 어린 소년인 벡캄에게 있어서 최대의 혜택이였다.

벡캄은 이 축구학교에서 실로 많은 체험을 하였다.

한주일이 가까와오자 벡캄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여름방학 6주간을 다 이 학교에서 훈련받을것을 부탁하였으나 어려운 생활형편에서 그것은 한갖 꿈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벡캄은 여름방학때마다 이 축구학교에 한주일간씩 빠짐없이 다녔다. 이 시기의 훈련은 벡캄에게서 가장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매해 여름이 되면 벡캄은 자기 축구기술의 발전정도를 보비 챨톤축구학교의 지도교원들에게서 평가받았고 점차 전도가 촉망되는 축구소년으로 점찍히게 되였다.

벡캄이 15살 잡히던 1990년 봄, 런던에서는 지역별예선경기들에서 우승한 전국중학교학생들의 축구경기대회가 열리게 되였다.

벡캄이 다니는 이스트엔드중학교팀이 런던의 동부지역에서 1등을 하여 이 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벡캄은 앞가슴에는 모교의 이름을, 잔등에는 7번을 달고 중간방어수로 출전하게 되였다.

첫 경기는 동부의 항구도시 미들즈브러중학교팀과 진행하게 되였다. 경기가 진행되는 아세날축구구락부경기장은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 학부형들과 응원하러온 학생들로 붐비였다.

청소년들의 이 축구경기는 바로 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들을 선발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것으로 하여 영국축구계의 관심을 끌었다.

첫 경기에서 벡캄은 령리한 경기조직자로서 자기의 축구기술

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득점련락을 묘하게 하여 관중들의 인기를 끌었다. 하여 이스트엔드중학교축구팀은 미들즈브러중학교축구팀을 3:1로 물리쳤다.

하나하나 상대팀들을 타승하며 이스트엔드중학교축구팀은 결승경기마당에까지 올라왔으며 만체스터중학교축구팀과 최종순위를 겨루게 되였다. 이것은 벡캄의 자랑이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쁨이였으며 이스트엔드중학교의 영예였다.

런던의 웸블리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두 중학교팀간의 결승경기는 영국축구계의 관심을 끌었다.

○ 상 식 ○

세계축구계에서 이룩된 3대전술혁명

축구의 전술활동은 공격만을 추구하던 원시적인 축구로부터 점차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보장하며 선수의 활동을 위치전문화에로 발전시켰다. 잉글랜드의 제프엔이 처음으로 WM식경기전술을 창조하고 이 경기체계와 전법의 우월성으로 수십년간 패권적지위를 차지하고있었으며 이것이 하나의 세계적추세로 되여있었다.

• 제1차전술혁명

마쟈르사람들이 이룩한 전술혁명으로서 뿌스까슈, 끄치슈와 같은 재능있는 선수들로 4인공격진을 형성하여 3인방어체계 즉 M식방어체계를 붕괴시킨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창조한 4인공격체계의 전술로 8 대 3, 3 대 1이라는 차이로 《축구조상》인 잉글랜드팀을 압도적으로 타승하고 축구계의 제1차혁명을 주도하였다.

• 제2차전술혁명

브라질사람들이 일으킨 전술혁명으로서 페올라감독이 4—2—4경기체계와 4—3—3경기체계를 가지고 월드컵경기대회 2련승을 이룩한것이다. 이 체계에 의한 경기방식은 팀전체가 움직이는 소모전을 줄이고 명수들의 과중한 부담을 조종하면서 선수들이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었으며 중간지

영국의 여러 축구구락부들에서는 《채종가》들이라고 불리우는 선수선발감독들이 거의나 다 모여왔다.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에서는 퍼가손책임감독과 함께 보비 챨톤축구학교 지도교원까지 웸블리경기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어느 중학교축구팀이 우승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 이미 점찍어온 후비선수들의 경기의식과 활동정형, 특기를 노리며 작은 수첩에 깨알처럼 글을 박아넣었다.

《퍼가손책임감독님, 이스트엔드중학교축구팀의 7번이 우리 보비 챨톤축구학교에서 여름방학때마다 축구지도를 받군 하던

대장악과 다양한 전술변화, 공격의 불의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최근에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공련락자리길을 연구하면서 이 경기방식은 4—4—2체계로 발전하였다.

- 제3차전술혁명

네데를란드사람들이 일으킨 전술혁명으로서 1970년대 네데를란드의 리누스 미헬스감독에 의한 4—3—3전인공격, 전인방어체계의 총체축구의 창시로부터 시작되였다고 할수 있다.

요한 크루이프와 같이 공격과 방어가 다같이 준비된 만능축구선수들로 팀을 꾸리고 모든 선수들이 공격과 방어를 다같이 하는 전면축구는 팀의 력량을 공격과 방어에 효과적으로 조직동원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발전된 경기방식으로서 오늘 널리 보급일반화되고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경기방식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2010년 제19차 월드컵경기대회 본선경기 최종결승경기에 올라간 네데를란드축구종합팀의 활동에서 여실히 증명되였다.

총괄적으로 3대전술혁명에서의 본질적요구는 첫째로, 공격시 선수들의 자리바꿈에 의한 결합활동이며 둘째로, 방어시 방어마당의 공간압축이며 셋째로, 공격과 방어에서 선수들의 집체이동과 활동이며 넷째로, 중간지대 강화, 공격과 방어의 균형 및 공격의 불의성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벡캄소년입니다. 중간지대 오른쪽에서의 오른발넘겨차기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번에도 첫 경기에서부터 오른발벌차기와 중장거리 차넣기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그렇단 말이지. 집이 런던인데 왜 멀리 만체스터에까지 와서 축구지도를 받게 되였소?》

《그건 딱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살때부터 매해 나한테 와서 한주일간씩 축구지도를 받군 했습니다.》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의 책임감독 퍼가손의 물음에 만족한 대답을 할수 없었던 축구학교지도교원은 가책을 받으면서 적당히 얼버무렸다.

《래일 벡캄의 집으로 찾아갑시다. 다른 축구구락부들에서 눈독을 들일수도 있으니까.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만체스터로 다닌 원인이 꼭 있을거요.》

비록 중학교학생들의 축구경기대회였지만 벡캄은 퍼가손책임감독이 눈독을 들일만큼 중간지대에서의 활약이 뛰여났다.

이스트엔드중학교축구팀과 만체스터중학교축구팀간의 결승경기는 전후반 2:2 동점을 기록한채 끝났다. 연장전에서도 득점이 나지 않아 11m벌차기로 승부를 가르게 되였다.

량팀에서 먼저 4명의 선수들이 11m벌차기를 하였는데 각각 1명씩 성공하지 못하여 3:3 동점인 상태에서 마지막선수들이 나왔다.

먼저 만체스터중학교축구팀의 주장이 마감차넣기를 하였는데 그만 실패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벡캄이 마지막으로 11m벌차기를 하였다.

웸블리경기장은 침묵속에 잠겼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벡캄과 문지기만을 주시했다. 벡캄은 11m벌차기점에 놓인 공을 바라보며 한발자국두발자국 뒤로 5m정도 물러섰다. 벡캄은 문대와 문지기를 한시야에 넣고 공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면서 오른쪽옆으로 찼다.

《꼴!—》경기장을 들었다놓으며 함성이 터져올랐다.

이스트엔드중학교축구선수들은 서로서로 어깨를 부여잡으며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이것은 벡캄이 중학교시절에 전국적인 축구경기대회에서 맞이한

첫 우승이였다.

다음날 한대의 승용차가 템스강 왼쪽기슭을 거쳐 웨스트엔드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 동부지대인 이스트엔드에로 꺾어들었다.

승용차의 뒤좌석에는 퍼가손책임감독과 보비 챨톤축구학교 지도교원이 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거리의 집들을 살펴보았다.

승용차는 점점 속도를 늦추더니 평범한 로동자들이 사는 마을어구에 멈춰섰다.

《얘야, 이 마을에 사는 데이비드 벡캄학생의 집이 어데냐?》

열서너살 나보이는 학생에게 축구학교지도교원이 물었다.

《축구를 잘하는 벡캄의 집을 찾나요?

여기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길이 갈라지는데…》

그들은 친절히 대답하는 그 학생을 운전사 옆좌석에 앉히고 천천히 골목길로 들어서서 자그마한 집앞에 멎어섰다.

《벡캄네 식솔은 몇이나 되오?》

《아버지와 어머니, 셋이라고 했습니다.》

퍼가손책임감독의 물음에 지도교원이 대답했다.

마침 나타난 벡캄의 어머니에게 그들은 자기 소개를 했다.

《아니, 지도교원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집엘 다 찾아오셨습니까? 5년세월 우리 벡캄에게 축구를 배워주느라 수고하신 선생님을 몰라봐서 정말 미안합니다. 애를 맡기고 한번도 찾아보지 못하여 죄송스럽습니다.》

벡캄의 어머니는 축구학교지도교원이라는것을 알자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벡캄은 어데 갔습니까?》

《오늘 아침 일찌기 아세날축구구락부의 감독선생님이 데리고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것 같습니다.》

지도교원과 퍼가손책임감독에게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였다.

《이제 인차 올겁니다. 벡캄은 날이 저물면 이 어머니가 찾아떠난다는걸 알고있답니다. 그애가 없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벡캄의 어머니는 아들의 저녁일과를 말하며 찾아온 손님들을 방

안으로 안내하였다.
아무말없이 방안에 들어선 퍼가손책임감독은 살림살이형편을 가늠하려는듯 두루 살피다가 책상앞 벽면에 붙어있는 사진에 눈길을 멈췄다.
《이 사진은 우리 주장 브라이언 로브손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 사진이 어떻게 벡캄의 책상앞에 붙어있습니까?》
지도교원은 로브손의 사진을 가리키며 벡캄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우리 벡캄은 어려서부터 이 축구명수처럼 되겠다는 소원을 안고 컸답니다.》
《그렇단 말이지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팀의 주장이랍니다. 허허…》
퍼가손책임감독은 자기가 이끄는 축구팀의 주장 브라이언 로브손을 가리키며 허구프게 웃었다.
《글쎄, 우리 벡캄은 이 선수에게 반했는지 여름방학에는 꼭꼭 한주일씩 만체스터에 가서 축구를 배워야 한다고 했답니다.
아마 이 축구명수의 사진보다 실지모습을 보는것이 더 좋았던것 같아요.》
어머니의 솔직한 말을 통해 벡캄의 소박한 꿈을 알게 된 퍼가손책임감독은 소탈하게 웃으며 만족을 표시했다. 이때 마침 인기척이 나더니 벡캄의 아버지가 하루일을 마치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지도교원은 자기들이 오게 된 목적을 에두르지 않고 직판 말했다.
《퍼가손책임감독과 함께 온것은 벡캄의 장래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젠 벡캄을 우리한테 데려다 훌륭한 축구명수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벡캄의 어머니가 반대의향을 내비치며 완강히 막아나서는것이였다.
《아니, 우리 애야 이제 겨우 15살인데 어떻게 외지에 홀로 보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어머니로서 그애를 품에서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 고향에서 축구를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겠는

데 만체스터에까지 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화기가 넘치던 방안의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바로 이때 벡캄이 문을 조용히 열고 방안에 들어섰다.
《야, 선생님!》
《이제야 미래의 축구명수가 왔구만. 벡캄을 보고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1등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구나. 축하한다.》
《만체스터에서 난 선생님네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군 했는데…》
벡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쳐다보며 고마운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벡캄, 인사를 해라.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의 책임감독 퍼가손선생이시다.》
《책임감독선생님! 이렇게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도교원이 시키는대로 책임감독에게 인사를 한 벡캄은 어렵게 사는 자기 집 처지를 생각하며 얼굴을 붉혔다.
《허, 벡캄의 인사를 받을만한 자격이 이 퍼가손한테는 없는데… 앉거라. 그래 어데 갔댔느냐?》
《아세날축구구락부에 갔댔습니다. 소년조훈련감독선생님이 아침에 데리러 왔댔습니다. 이제부터 아세날축구구락부의 소년조에서 축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퍼가손책임감독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벡캄의 어머니가 반대의향을 표시한데다가 아세날축구구락부가 선손을 썼기때문이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벡캄은 아무말없이 앉아있는 책임감독과 지도교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차례차례 눈길을 주며 말을 이었다.
《난 아세날축구구락부에는 다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10살때부터 보비 챨톤축구학교에서 축구를 배웠기때문이라고말입니다.》
벡캄의 말마디들을 새겨들으며 어른들모두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

1급팀에서 3급팀으로

1991년 5월, 16살나는 벡캄은 태여난 런던을 떠나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의 청소년후비육성조에 들어가게 되였다.

며칠이 지나 퍼가손책임감독이 청소년후비육성조의 꼬마들을 데리고 새로 꾸린 구락부의 박물관으로 갔다.

퍼가손책임감독은 박물관에 진렬되여있는 우승기발, 컵, 메달, 상장들을 가리키며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가 걸어온 력사를 말해주었다.

《우리 축구구락부는 1878년에 철도로동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세계적으로 제일 오랜 축구구락부의 하나이며 영국에서도 우수축

☆ 일 화 ☆

유다가 된 루이스 피고

유인과 기만동작을 잘하는것으로 하여 대인방어하는 상대방 선수들을 교묘하게 따돌리고 항상 정확한 넘겨차기로 득점기회를 잘 마련해주는 피고의 개인기술이 높다는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을것이다.

이러한 그가 바르쎌로나의 유다로 락인된 기막힌 사연이 있다.

뽀르뚜갈팀이 19살미만 청년월드컵경기대회에서 선수권을 쟁취하는데서 특출한 기여를 하고 국가종합팀선수로 된 후 60여차례의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나무랄데없는 기술을 보여주던 피고는 2000년 유럽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로날도와 어깨를 견줄만큼 세계적인 명수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였다.

여기저기서 그를 탐내는 손들이 뻗쳐왔다. 그는 에스빠냐의 바

구구락부로 손꼽히고있다. 구락부의 올드 트라포드경기장은 수용능력이 6만 8 936석인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 보수확장하고 새 박물관도 건설하여 풍치를 돋구어주고있단다.》

책임감독은 국가가 청소년후비조의 미래를 락관하며 직업팀에 첫발자국을 들여놓은 벡캄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벡캄의 첫 하숙생활이 시작되였다.

하숙생활을 처음 해보는 벡캄은 한동안 집생각으로 끼니까지 넘기군 하였다. 그러나 축구애호가들인 하숙집 주인내외는 어린 벡캄에 대해 극진하였다. 하숙집 안주인은 벡캄의 침대곁을 떠나지 않고 마치 입원환자를 간호하듯 거들어주었다.

자주 훈련장까지 따라나오군 하는 안주인에 못지 않게 그의 남편도 벡캄을 한식솔처럼 따뜻이 대해주었다.

인정많은 주위사람들의 마음에 떠받들려 벡캄은 인차 새 생활에

르쎌로나축구구락부를 자기의 성장발전의 활무대로 택하였다.

하여 바르쎌로나팀에 있어서 피고는 팀의 기둥으로, 상징으로 떠받들리웠다. 또 금싸락같이 귀중한 존재로 되였다.

그러나 피고는 배은망덕하게도 로날도와 한짝이 되여 많은 돈을 향해 레알 마드리드의 품으로 날아넘어갔다.

누워서 뱉는 침은 제 얼굴에 떨어지기마련이다.

바르쎌로나의 응원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레알 마드리드를 위하여 뛰는 피고를 제일 수치스러운 배신자 유다로 치부하며 공격하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루이스 피고는 그러한 비난에 자그마한 위구심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고의 앞에는 배신자 로날도라고 비난받는 선배체육명수가 있었기때문이였다.

참으로 다년간 명수들을 피타는 노력과 엄청나게 많은 자금으로 키워낸 축구구락부와 감독들이 가긍한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익숙하게 되였고 훈련에 더욱 열중하게 되였다.

19살때 벡캄은 1급팀선수로 올라섰다. 1급팀에서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벡캄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듯 했다. 비록 몇번밖에 차례지지 않은 기회였으나 그때마다 그는 투지있게 경기들을 치르었다.

그러던 벡캄에게 1년쯤 지나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 회장이 찾는다는것이였다.

방에 들어서니 퍼가손책임감독과 함께 쏘파에 앉아 말을 주고받고있던 구락부회장이 밑도끝도없이 명령조로 말했다.

《래일부터 데이비드 벡캄은 프레스톤 노스엔드팀에 가서 1994－1995년 경기계절의 3급팀련맹전에 참가해야겠네.》

벡캄이 어리둥절해하며 대답이 없자 퍼가손책임감독이 덧붙였다.

《벡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군.》

《노스엔드팀이야 3급팀인데 나야 1급팀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최상급련맹전만 바라보지 말구 3급팀련맹전을 잘 치르라구.》

벡캄은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 역시 대답을 피하였다.

그러자 퍼가손책임감독이 저력있는 음성으로 조용히 말을 이었다.

《프레스톤 노스엔드팀에 빌려주는 격인데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구.》

《다른 팀에 빌려준다는것은 만체스터 유나이티드구락부에 내가 필요하지 않기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라는데…노스엔드팀 감독의 전술적방안들을 경기에서 실현시켜야 하겠네. 여기서 경기에 출전할 기회를 얻지 못해 속을 썩이지 말고…》

퍼가손책임감독은 벡캄의 마음을 투시해보듯 여유있게 타일러주었다. 그는 롱말까지 섞어가며 벡캄을 고무해주었다.

《벡캄, 1급팀에서 3급팀으로 내려간다고 기분잡쳐서 그러지 말

고 어데 가서나 특기기술을 련마하면 되는거야. 20살의 런던총각 벡캄! 알겠나?》

그러나 벡캄이 자기의 경기의식을 높여주고 내세워주고 다듬어주려는 퍼가손책임감독의 웅심깊은 마음을 다 알리 없었다.

프레스톤 노스엔드팀에서는 구석차기와 벌차기들을 모두 다 벡캄에게 맡겼다.

얼마 지나서야 벡캄은 퍼가손책임감독의 진심을 알게 되였다.

사실 1급팀에 올라오는 젊은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팀적으로 선수구성에서 여유가 생겨 경기에 매번 출전한다는것은 쉽지 않았다.

대기선수로 따라다니는것보다 3급팀에 가서라도 경기에 출전하는것이 경기경험을 쌓고 경기담을 키우는데서 장려해야 할 문제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1995—1996년 경기계절에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벡캄은 프레스톤 노스엔드팀에서 올라와 만체스터 유나이티드팀의 기본선수로 되였다.

벡캄을 기쁘게 한것은 어린시절부터 그렇게도 소원하던 주장 브라이언 로브손과 함께 선수생활을 하게 된것이였다. 사실 처음 로브손을 만났을 때 벡캄의 마음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것처럼 둥둥 떴다. 그와 함께 경기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몹시 흥분되였다.

브라이언 로브손과 함께 경기를 한 기간은 짧았지만 자기가 그렇게도 존경해왔고 목표로 삼은 선수였기에 행복하였던것이다.

이 경기계절에 벡캄은 만체스터 유나이티드팀의 이름있는 선수들이 계주봉처럼 이어받아오던 7번선수번호를 잔등에 달게 되는 영광을 지니였다.

경기를 며칠 앞두고 퍼가손책임감독이 벡캄을 자기 방으로 불렀다.

《벡캄, 잉글랜드최상급련맹전에 처음으로 출전하게 된것을 축하하네.》

《책임감독선생님, 내가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드려야겠는데 이

렇게 선생님의 축하를 받고보니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책임감독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축하부터 받게 되니 벡캄은 몸둘바를 몰라하며 진심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기뻐할거야. 엊그제 집을 떠난것 같은데 벌써 4년세월이 흘렀구나. 나이를 먹을수록 축구선수로서는 더욱 성숙되여간다고 말할수 있어. 벡캄은 4년간 고생을 했지만 이제 시작이야. 자네의 축구절정은 아직 앞에 있으니 승리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말아야 해.》

퍼가손책임감독의 한마디한마디는 벡캄의 마음속에 교훈적이면서도 고무적인 여운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선수번호 7번도 죠지 삐스트, 깐또나를 거쳐 벡캄의 숭배자인 팀의 주장 브라이언 로브손한테서 넘겨받았으니 그들처럼 팀의 우승에 기여해야 한다는걸 명심하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감독선생님!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구락부의 〈축구서사시〉를 이어가겠습니다.》

퍼가손책임감독은 벡캄의 잔등을 두드려주며 만족하게 웃었다.

《벡캄, 이번 경기를 잘 치르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자구.》

벡캄은 몇년전 런던의 자기 집으로 찾아왔던 퍼가손책임감독의 모습을 되새기며 자기의 부모들을 잊지 않고있는 그가 정말 고마왔다.

매해 8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진행되는 잉글랜드최상급련맹전은 이름있는 축구구락부들인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세날, 리버풀, 뉴카슬 유나이티드, 첼씨, 리즈 유나이티드 등 20개의 1급팀들이 서로 우승을 겨루면서 치렬하게 벌어지군 했다.

벡캄은 잉글랜드최상급련맹전에서 축구명수로서의 기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벡캄이 속해있는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팀은 1995 －1996년 , 1996－1997년, 1998－1999년 경기계절에 3번이나 우승을 하였다. 이 시기 국제축구련맹은 축구력사상 10대최우수꼴을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첫번째로, 아르헨띠나팀과 잉글랜드팀사이에 진행된 1986년 월드컵경기대회 준준결승경기에서 디에고 마라도나가 넣은 두번째 꼴이 축구력사상 가장 멋있는 꼴로 평가되였다.

두번째로, 네데를란드팀과 이전 쏘련팀사이에 진행된 1988년 유럽선수권대회에서 네데를란드팀의 반 바스텐이 넣은 꼴이 평가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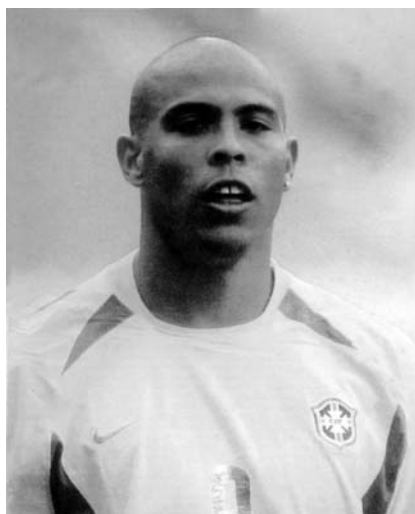
세번째로, 1996－1997년 경기계절 잉글랜드최상급련맹전 결승경기에서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팀의 데이비드 벡캄이 넣은 꼴이 평가되였다.

1997년에 벡캄은 잉글랜드축구종합팀에 선발되여 1998년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2001년 11월 잉글랜드축구종합팀 주장으로 임명된 그는 2002년 월드컵경기대회 유럽지역예선경기에서 특출한 실력을 발휘하여 잉글랜드팀이 본선경기에 진출할수 있게 하였으며 조별련맹전에서 11m벌차기로 숙적인 아르헨띠나팀을 밀어내고 2단계 경기에서도 단마르크팀을 3:0으로 물리침으로써 8강에 진출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은 아르헨띠나팀과의 경기가 있은 다음날 런던랍상관에 있던 그의 랍상이 축구애호가들에 의하여 도시중심의 트라팔가르광장으로 옮겨진 사실을 가지고서도 잘 알수 있다. 그 일이 승인을 받지 않고 벌어진것으로 하여 랍상은 몇시간후에 제자리로 갔다가 그 다음날에 당국의 승인하에 다시 광장에 나타났다.

그후 벡캄은 2006년 6월 잉글랜드팀의 주장으로 제18차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조별련맹전에서의 3차례의 경기에서는 물론 에꽈도르팀과의 경기에서도 묘한 벌차기로 꼴을 성공시켜 세계적인 《벌차기축구명수》, 《축구영웅》으로 축구력사의 갈피에 영원히 기록되였다.

《축구왕》-로날도

나는 결단성있게 행동하는 형이다. 사물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간다.

지금까지의 선수생활에서 여러가지의 파동을 겪었다.

그러나 단 한번도 결심을 바꾼적이 없다.

－로날도－

로날도는 1976년 9월 22일 브라질의 옛수도였던 리오데 쟈네이로의 서쪽교외에 있는 빈민촌의 가난한 인디안가정에서 태여났다. 그의 본명은 로날도 루이스 나자리오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크나큰 기대와 각별한 관심속에 빈민굴의 골목축구팀에서 언제나 주장으로 공을 차던 로날도의 축구인생은 11살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불행으로 하여 처음부터 곡절을 겪었다.

고마운 스승

실내축구는 야외축구와 같이 뽈을 발로 차거나 다루면서 경기를

할수 있도록 경기장의 규격과 경기인원수, 공의 규격과 튐성 등을 따로 규정하여 진행하고있다. 경기장규격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나라에서는 수영장의 물을 뽑고 리용하면서 경기인원수를 5～6명으로 제한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고있는것은 5명을 한조로 하는 쌀롱축구이다.

1990년 1월 로날도는 리오데 쟈네이로실내축구구락부 훈련감독 리베로에 의해 선발되여 14살부터 실내축구에 발을 들여놓았다.

14살에 집을 떠나 실내축구의 까다로운 새 규정과 기술을 배우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긴 로날도는 자신을 행운아로 간주하였다.

그것은 돈을 바치지 않고 갈망하던 축구를 배우게 되였다는 안도감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이기도 하였다.

리베로훈련감독은 규격이 작은 경기장에서 공멈추기, 공련락, 빼몰기, 문전차기 등 기술동작들을 원만히 민첩하게 수행할수 있는 실내축구의 우점을 살려 로날도를 브라질의 새로운 축구명수로 키울 야심을 품고있었다.

어느날 리베로감독은 큰 가방을 들고 로날도의 호실을 찾아왔다.

《로날도, 저녁을 먹었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선생님, 배고프지 않습니다. 저는 14살까지 골목축구를 했는데 그땐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는 로날도의 눈자위는 어느덧 붉어지더니 눈물이 핑 돌았다. 말마디들도 도간도간 끊어졌다.

《됐다. 여기가 네 마음에 든다니 나도 기쁘구나.》

리베로감독은 로날도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걸상에 앉히고는 가방에서 운동복과 훈련복, 축구화와 운동화를 꺼냈다. 그리고는 풀색에 꽃무늬가 박힌 외출복까지 내놓았다.

《로날도야, 이건 구락부에서 주는것인데 네가 쓸것이다.

외출복이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다.》

감독이 침대우에 내놓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던 로날도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였다. 로날도가 울자 한호실에서 함께 지내던 동년의 축구친구들이 한명한명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정말 너는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는구나. 차라리 앞으

로 축구를 하지 말고 배우가 되는게 더 나을것 같구나. 허허.》
리베로감독이 어찌 아버지없이 자란 로날도의 지난날을 모르랴만 그의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롱담을 섞어가며 말하였다.
《…빈민굴에서 거지처럼 살던 나를 손잡아 이끌어준 선생님을 나는 인생의 영원한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로날도는 한마디한마디에 진심을 담아 자기의 속을 터놓았다.
《나는 너의 깨끗한 마음을 고맙게 여긴다. 로날도야－》
재능의 싹을 발견한 리베로감독은 로날도를 훌륭한 경기도덕을 갖춘 브라질의 인기있는 축구선수로 키우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브라질에서는 국가종합팀의 선수를 선발할 때 선수의 축구기술뿐아니라 규률을 잘 지킬수 있는가, 집단주의정신과 좋은 품격을 갖추고있는가를 중요한 조항으로 여기였다. 즉 아무리 개인축구기술이 높다고 하여도 집단경기인 축구의 특성을 살릴수 없다고 인정하면 국가종합팀의 선수로 될수 없다고 보고 선발하지 않았다.
로날도의 실내축구기술은 나날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실내축구의 혜택으로 그의 축구동작들은 매우 섬세해지고 재치성도 눈에 뜨이게 좋아졌다. 좁은 경기장에서의 빠른 사고와 행동이 곧 기묘한 공다루기기술에로 이어지면서 공멈추기, 빼몰기, 공련락, 문전기술동작을 재빠르게 수행하군 하였다.
드디여 로날도는 리오데 쟈네이로실내축구팀에 망라되여 브라질실내축구련맹전이 진행되는 싼 빠울로로 떠나게 되였다.
로날도는 기뻤다. 높은 급선수들과 함께 실내축구경기장에 나서게 된것도 그랬거니와 세상에 태여나 처음으로 뻐스를 타보게 된 흥분이 로날도의 기쁨을 더해주었던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소원하던 뻐스려행이였던가.
싼 빠울로는 브라질공업총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업중심지일뿐아니라 축구의 직업화문제, 경기와 기업간의 관계문제를 토의하는 중심지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싼 빠울로실내축구경기장은 브라질의 여러 도시에서 모여온 선수들로 붐비였다.
리오데 쟈네이로실내축구팀은 15살난 로날도의 맹활약으로 결승

경기에 진출하여 브라질리아실내축구팀과 우승을 다투게 되였다.
이 결승경기에서 리오데 쟈네이로실내축구팀은 패하여 2등을 하였다. 그러나 이 실내축구련맹전에서의 로날도의 활동은 많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물망에 오르게 되였다.
이 경기를 본 싼 빠울로축구구락부의 감독 자이르지뇨가 리베로감독을 찾아왔다. 자이르지뇨는 1970년대 브라질축구종합팀선수로서 세계적으로 명망높은 유능한 축구감독이였다.
《9번 로날도가 내 마음에 드누만. 선수선발에서 자네를 따를만한 사람이 브라질에는 없을것 같네. …로날도를 나한테 달라구.》
《로날도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1년후에 보세나.》
《다른 구락부가 아니라 우리 싼 빠울로축구구락부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주게.》
로날도에게서 미래의 세계적인 축구명수의 모습을 발견한 자이르지뇨감독은 리베로감독에게 절절하게 부탁하였다.
《…로날도에게 야외축구훈련도 시켜주게나. 기교만이 아니라 육체적준비와 경기시야를 넓히도록 훈련지도를 잘해주길 바라네.》
그의 부탁대로 리베로감독은 리오데 쟈네이로에 돌아온 후부터 로날도를 야외축구장으로 데리고가서 직접 훈련을 주군 하였다.
실내축구경기장보다 면적이 훨씬 넓은 야외축구경기장에서의 훈련은 로날도에게 더 큰 기쁨을 주었으며 그의 축구꿈을 현실로 펼쳐보일수 있게 하였다. 리베로감독은 야외축구경기장훈련에서 육체훈련부담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실내축구경기장에서 유연성과 재치성, 몸의 조화발전을 위주로 하던 기술위주의 훈련방법이 야외축구경기장에서는 속도와 힘, 인내력을 발달시키는 육체훈련으로 변화되였다.
《로날도, 육체훈련이 힘들지?》
《예, 기술훈련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습니다.》
《두발을 다 능숙하게, 다양하게 쓸수 있다고 해서 축구명수로 되는게 아니다. 교예사처럼 공을 기교있게 다룬다고 해도 육체적준비를 갖추지 못하면 90분동안 빠른 속도와 힘을 유지하지 못한다는것을 알아야 해. 로날도의 나이에 힘훈련과 인내성훈련을 많

이 해야 한다. 그러니 육체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훌륭한 축구선수로 될수 없단다. 재미가 있건없건 축구선수는 자기의 체질적요소를 발달시켜야 한다. 순수 속도만 빠르거나 힘과 인내성만 좋다고 하여 축구를 잘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속도와 인내성, 재치성, 힘, 유연성이 다 발달되여 서로 련관속에서 자신을 축구체질로 만들어야 성공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거라.》

리베로감독은 강의를 하듯이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 훈련강도를 높여나갔다. 반복훈련과 간격훈련 그리고 지속훈련과정을 거치며 로날도의 축구기술은 점차 눈에 뜨이게 높아졌으며 육체적준비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갔다.

로날도는 먼동이 터올 때 야외축구경기장으로 나가 조기훈련을 마치면 리베로감독과 함께 훈련을 하였으며 저녁이면 저녁대로 또다시 달빛속에서 개별훈련으로 땀방울을 흘렸다.

한해가 지나 로날도는 16살이 잡히면서 공멈추기, 공련락, 빼몰기, 문전차넣기 등 기술동작을 원만히 할수 있게 되였다.

하여 일단 그에게 공이 차례지기만 하면 마치 공이 발에 붙기라도 한듯 그 누구도 그 공을 빼앗지 못하였다.

특히 문전차기기술이 매우 높아지고 위치선택이 신속정확하게 되였다. 이 과정에 로날도는 점차 실내축구보다 야외축구에 더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로날도는 큰 마음을 먹고 리베로감독의 방문을 두드렸다.

《저 플라맹고축구구락부에 가서 직업축구선수가 될가 해서…

난 선생님이 야외축구장에서 훈련을 줄 때마다 점점 야외축구에 마음이 끌려서 그럽니다.》

리베로감독은 죄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숙이고 우물쭈물하면서도 속생각을 털어놓는 로날도가 대견스럽게 생각되였다.

《플라맹고축구구락부는 로날도가 어린시절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구락부였지?》

《예, 언제나 플라맹고팀에서 뽈을 차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리베로감독은 새들이 다 자라면 날개를 펼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가듯이 로날도에게 그런 날이 왔다고 인정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갈마들었다.

《로날도! 유명한 싼 빠울로축구구락부는 마음에 없느냐?》

리베로감독은 1년전 자이르지뇨감독과 한 약속이 되새겨져 불쑥 로날도에게 물었다.

《감독선생님, 어머니를 홀로 두고 멀리 떠나고싶지 않아 그럽니다. 여기는 내가 태여난 곳이 아닙니까.》

리베로감독은 로날도의 말을 들으며 이젠 다 자랐다고 속으로 대견스럽게 생각했다.

휴식날이 왔다. 로날도는 어머니가 계시는 집쪽으로가 아니라 반대방향 교외에 자리잡고있는 플라맹고축구구락부로 떠났다.

어린시절 골목축구팀 송아지친구들과 함께 부러움을 안고 오가던 낯익은 길을 따라 로날도는 플라맹고축구구락부의 정문앞에 이르렀다.

(누구를 만날것인가. 감독선생님을 만나 축구시험을 치르자고 할가.)

로날도는 속궁냥을 하면서 쇠그물을 둘러친 축구훈련장으로 갔다. 축구감독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으나 좀처럼 만날수 없었다.

점심을 번지면서 겨우 오후에야 후비육성조감독을 만난 로날도는 그만 락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너 몇살이냐?》

《16살입니다. 이름은 로날도입니다.》

《집은 어데냐?》

《저기 반대쪽 교외에 있는…》

《오—인디안빈민촌이로구나.》

후비육성조감독은 시답지 않은 기색으로 로날도에게 공을 던져주며 몇가지 기술동작들을 시켜보았다.

로날도는 마치 놀란 송아지처럼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그래도 자기의 축구기교를 보여주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러나 웬일인지 온몸이 굳어지면서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

았다. 처음 당해보는 심리적압박감이라는것을 어찌 로날도가 알수 있었으랴.

《로날도, 지금 후비육성조에는 자리가 없어. 정 여기서 훈련을 하려거든 구락부까지 오가는 려비와 식사비를 자부담해야 한다.》

로날도는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다.

방망이로 뒤통수를 얻어맞는것 같았다. 그 비용은 가난한 가정에서는 바라볼수도 없는 엄청난 액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로날도는 꿈속에서도 그려오던 플라맹고축구구락부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채 돌아오고말았다.

(아, 돈이 없어 나의 축구꿈은 깨여지는구나.)

☆ 일 화 ☆

빨간딱지와 노란딱지의 출현

축구경기에서 퇴장과 경고를 선언하는 빨간딱지와 노란딱지가 생긴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1966년 영국에서 진행된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때였다.

이 경기대회의 준준결승이 잉글랜드팀과 아르헨띠나팀사이에 진행되였는데 경기과정에 란폭한 반칙들이 련발되여 《축구전쟁》이 일어났다. 이 경기심판을 담당한 도이췰란드사람은 자기 나라 말밖에 몰랐기때문에 선수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몹시 힘들어하였다. 당시 퇴장과 경고선언은 소리와 손짓으로 하였는데 두 나라 선수들은 주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의 의도를 도저히 리해하기 힘들었다. 다음날 아침 이 경기에 참가하였던 잉글랜드팀의 두 형제선수들인 재크 챨톤과 보비 챨톤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비, 오늘 신문을 보니 내가 어제 경기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경고를 받았니?》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신문에는 너도 경고를 받았다고 씌여있더구나.》

로날도는 눈물이 앞을 가리자 휙 돌아섰다.

실내축구구락부의 호실로 돌아온 그는 침대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다. 이때 리베로감독이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사연을 듣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로날도, 너무 락심말거라. 인생에 무슨 일인들 없겠니. 돛을 달고 축구바다를 헤쳐나가야 할 로날도가 이게 무슨 꼴이냐. …

내가 편지를 써주겠으니 다음주에 싼 빠울로축구구락부의 자이르지뇨축구감독선생님을 찾아가거라. 1년전 나한테 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를 기다리고있을거야.》

인정에 넘치는 리베로감독의 이 말에 로날도는 울음을 그쳤다.

《나두요? 그럴수 없어요. 형님이 잘못 보았겠지요.》

그들은 이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 조직위원회의 대답인즉 두 선수가 다 경고를 받은것이 사실이라는것이였다.

당시 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와있던 잉글랜드축구심판원 캔 애스틀이 이 사실을 목격하였다.

그는 전번 1962년 제7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때 그야말로 소름끼치는 폭력경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칠레팀과 이딸리아팀간의 경기주심을 맡았던 심판원이였다.

그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심판원에게 무기와 같은 그 무슨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차가 네거리를 통과하는 순간 그는 빨간등과 노란등, 푸른등신호로 자동차들을 통제하는것을 보게 되였다.

순간 그는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면서 무릎을 쳤다.

그리하여 그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사이에도 쉽게 리해할수 있는 빨간딱지와 노란딱지를 착상해내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1970년 제9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때부터 빨간딱지와 노란딱지가 축구경기심판에 정식 리용되게 되였다.

힘겹게 넘은 문턱

한주일 지나 로날도는 리베로감독이 보태준 려비를 받아가지고 싼 빠울로까지 오게 되였다.

오직 축구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안고 싼 빠울로축구구락부에 도착한 로날도는 곧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리베로감독의 소개신을 받아야 할 자이르지뇨감독이 석달전에 후비양성조감독으로부터 기본팀의 감독으로 임명되여 브라질축구련맹에서 조직하는 강습에 참가하기 위하여 수도 브라질리아로 떠나고 없었던것이다. 로날도는 그냥은 돌아설수 없어서 마중나온 감독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말을 뗐다.

《선생님, 사실 난 편지를 가지고 자이르지뇨감독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편지를 나에게 맡기고 가거라. 열흘후에 그가 오면 전해주지.》

로날도가 어떻게 편지를 가지고왔는지 모르는 감독은 그 편지를 받아 겉봉을 훑어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선생님, 사실 난 축구시험을 치려고 왔습니다.》

《축구시험? 그래 어데서 왔느냐?》

《리오데 쟈네이로에서 왔습니다.… 선생님, 내 축구를 한번 봐주십시오.》

로날도는 자기의 난감한 처지를 감독에게 하소연하였다.

그러나 마중나온 감독은 자기가 축구시험감독관이 아니며 결정권이 없다는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알겠어요. 그 편지를 주세요.》

편지를 받아쥔 로날도의 마음은 서글펐다. 이렇게 되여 싼 빠울로축구구락부도 역시 로날도를 놓쳐버리고말았다.

로날도는 이름난 축구구락부들의 문턱을 넘기가 얼마나 힘든

가를 또다시 체험하게 되였다. 그럴수록 자기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해주던 리베로감독이 그리워났다.
로날도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편 브라질리아에서의 강습을 마치고 싼 빠울로축구구락부로 돌아온 책임감독 자이르지뇨는 전후사연을 듣고 성이 독같이 났다.
로날도에게서 미래의 세계적인 축구명수의 모습을 발견하였던 자이르지뇨였던것이다.
《로날도를 그냥 돌려보내다니… 편지라도 뜯어보아야 할게 아닌가.》
《어떻게 책임감독앞으로 오는 편지를…도리에 어긋나게…》
후비육성조감독은 성난 자이르지뇨책임감독에게 변명조로 말하였다.
《그게 무슨 도리에 어긋난다는거야. 로날도가 가져온건 소개신인데…또 축구시험을 치겠다구 자네에게 간청하지 않았나.》
《책임감독선생님, 나에게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싼 빠울로축구구락부가 아까운 축구보배를 놓쳐버리고말았어.》
자이르지뇨책임감독은 그자리에서 리오데 쟈네이로의 리베로감독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로날도는 이미 크루제이로축구구락부에 들어가고 없었다.
리베로감독은 거액의 이적금을 받고 보냈다는 말은 감추고 로날도의 노력으로 들어간것처럼 간단히 경위를 설명하였다.
《리베로감독, 섭섭하구만. 2년전부터 부탁했는데…자네의 편지를 읽어보지 못한 이 자이르지뇨를 이렇게 골탕먹일줄 몰랐어. 그저 자네만을 믿었지.》
자이르지뇨는 축구동료인 리베로의 처사가 괘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리해하게. 그러나 플라맹고에서는 쫓겨나다싶이 푸대접을 받았고 또 싼 빠울로에서는 축구시험도 치르지 못하겠다고 했으니 로날도의 락심을 짐작할수 있지 않나.》
리베로는 자이르지뇨에게 미안한감은 있었으나 로날도의 심정에

밀어치웠다.

《리베로군, 난 지금 금고에 넣어둔 보석을 도적맞힌 심정이야. 어쨌든 섭섭해… 》

자이르지뇨의 전화내용을 들으며 후비양성조감독은 자기가 얼마나 큰 실책을 범하였는가를 느끼게 되였다. 전화를 끝내고 수화기를 놓은 자이르지뇨책임감독은 후비양성조감독에게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제 보라구. 로날도가 얼마나 훌륭한 축구명수로 자라나는가를. 아까운 축구인재를 크루제이로팀에 떼웠소. 아쉽게 되였단 말이요.》

《내 잘못은 축구시험을 치게 하지 못한겁니다. 로날도가 자기 축구를 한번 봐달라구 했는데도 내가 용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후비육성조감독은 변명하듯 자기 생각을 내비쳤다.

《자네가 다 잘못했다는건 아니야. 플라맹고에서도 쫓겨나다싶이 했고 싼 빠울로에서도 나를 만나지 못했으니 얼마나 락심했겠소.》

자이르지뇨책임감독은 로날도를 측은하게 여겼는지 동정의 마음을 터놓았다.

한편 크루제이로축구구락부에는 호박이 넝쿨채 떨어졌다.

로날도의 축구기술은 몰라보게 높아졌다. 로날도의 특기는 별처럼 빛을 뿌리기 시작했다. 브라질축구의 초점은 나어린 이 축구선수에게 모아졌다. 로날도의 인기는 날을 따라 높아갔다.

1993년 크루제이로축구구락부팀 성원으로 남아메리카슈퍼컵경기대회에 참가한 로날도는 4번 경기에 출전하여 8개의 꼴을 넣음으로써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였다.

바로 그해에 로날도는 브라질국내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14번의 경기에서 12개의 꼴을 넣었으며 한경기에서 혼자서 5개의 꼴을 넣는 기록을 세웠다.

17살난 로날도는 브라질사람들속에서 인기있는 축구선수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으며 더우기 브라질국가종합팀의 책임감독 까를로스 알베르또 빠레이라의 안중에까지 들게 되였다.

어느날 빠레이라책임감독이 로날도를 만났다.

《책임감독선생님, 저는 여러번 선생님을 보았으며 존경해왔

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로날도는 자기의 소박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했다.
《허－나는 로날도한테서 인사를 받을만한 일을 못했는데…》
《선생님은 국가종합팀을 이끌고있는것으로도 브라질사람들의 존경을 받을만 합니다.》
《로날도야, 고맙다! 그러나 책임감독인 내가 월드컵을 브라질의것으로 만들어야 자기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것으로 된단다. …》
《예, 책임감독선생님에 대한 브라질국민들의 존경에는 우승에 대한 기대가 실려있습니다.》
빠레이라책임감독은 로날도의 말마디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래, 로날도의 축구목표는 무엇이냐?》
《국가종합팀의 경기복장을 입는것이 나의 축구목표이며 최대의 영광입니다.》
《음, 그건 브라질의 모든 축구선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지. 어찌 그렇지 않겠느냐.
국가종합팀에 선발되면 브라질축구협회의 전시관에 사진이 전시되며 브라질축구력사의 갈피에 남아있게 되는데…》
《책임감독선생님, 나도 훈련을 더 많이 하여 축구기술이 높아지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로날도는 국가종합팀에 선발될 일념을 안고 축구훈련에 모든 열정을 다 바치려는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빠레이라책임감독에게 물었다.
《암, 그렇게 되구말구. 그런데 넌 아직 나이가 어리구나.》

17살에 국가종합팀선수로

브라질국내축구련맹전이 끝난 어느날 크루제이로축구구락부회장이 로날도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로날도가 회장방에 들어서니 거기에는 회장과 책임감독이 있었다.

회장이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로날도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로날도, 오늘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찾았어. 이건 브라질축구협회에서 로날도를 국가종합팀에 보내달라는 소환장이야.》
회장은 소환장을 로날도에게 넘겨주며 만족해하였다.
《예?… 소환장! 그게 정말입니까.》
소환장을 받아들고 눈여겨보는 로날도의 얼굴로는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국가종합팀에 뽑히다니. 아버지, 바라고 바라던 영광의 날이 왔어요.)
회장과 책임감독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눈물을 흘리고있

☆ 일 화 ☆

싸움판이 아니라 춤판으로 중단된 경기

축구경기장에서 다툼질로 싸움판이 벌어져 경기가 중단된 실례는 드문히 있었지만 춤판이 벌어져 중단된 일은 단 한번밖에 없다.
이 일은 벨지끄축구팀이 《축구의 왕국》 브라질에 가서 원정경기를 진행할 때에 있은 일이다.
경기는 브라질의 1부류에 속한 32개의 팀들중의 한 팀인 리오데 쁠레번끄팀과 벌어졌는데 벨지끄팀이 자체실수로 먼저 실점을 당하게 되였다. 그러자 브라질선수들은 자기 팀구역에 횡대로 늘어서서 디스코춤판을 벌렸다. 한바탕 춤을 추고난 브라질선수들은 말뚝쥐모양으로 두팔을 가슴에 얹고 두발을 모아집고 서서 콩콩 뛰며 돌아갔다. 그러자 관람객들도 제멋에 흥취가 올라 춤을 추기 시작했다.
경기장안은 삽시에 춤판으로 변하였다. 벨지끄선수들은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아니, 한꼴을 넣었다고 경기를 그만두자는거야?》
《저것들이 갑자기 실성하지 않았어?》
벨지끄선수들은 화가 나서 투덜거리며 주먹을 내흔들었지만 허사였다.

는 로날도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이렇게 국가축구종합팀에 망라된 로날도는 훈련의 나날 푸른 잔디우에 무수한 땀방울을 떨구며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부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숭배하던 로마리오와 한가마밥을 먹으며 어깨나란히 훈련한다는것이 신비하게만 느껴졌다.

점차 로날도의 담도 자랐다. 그는 로마리오, 베베또, 라이, 레오나르도와 같은 축구명수들과 축구기술을 겨루어볼 생각으로 가슴을 들먹이였다.

로날도는 종합팀의 막내로서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수걱수걱 심부름을 잘했으며 항상 뽈그물을 둘러메고 훈련대오의 맨뒤에

그들은 한동안 경기장의 춤바다를 아무말없이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벨지끄팀 주장이 이런 말을 꺼냈다.

《미쳐버린것들과 경기를 하기는 글렀다. 우리 벨지끄사람들이 결코 예술에 문외한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자!》

그의 호소에 따라 벨지끄선수들도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춤솜씨가 얼마나 우아하고 세련되였는지 어느 무용단의 급수높은 배우들 못지 않았다.

이번에는 브라질사람들이 의아해하였다.

《경기를 그만두자는거야?》

《한꼴 먹더니 기권했는가?》

《저희들도 사기를 좀 올려보자는거겠지.》

얼떨떨해졌던 브라질선수들과 관람객들은 저들나름대로 자체사기를 올리면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괴이하면서도 흥겨운 광경이였다.

관람석의 응원자들과 브라질선수들이 《이쯤하면 경기가 다시 시작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춤판을 끝냈을 때에는 벨지끄선수들이 이미 숙소로 돌아가버린 뒤였다.

서 따라다녔다. 축구선배들은 로날도의 수고를 헤아려 색다른것이 생기면 막내에게 내놓군 하였다.

브라질축구종합팀 책임감독 빠레이라는 1994년에 진행되는 제15차 월드컵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로날도를 종합팀에 선발하기는 했지만 최종선수명단에 넣을것인가를 놓고 망설이고있었다.

빠레이라책임감독은 로날도의 나이가 어리고 경기경험이 없으므로 월드컵경기에 참가시킬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부단히 요구성을 높였다.

《로날도, 국가종합팀에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다는걸 알아야 해.》

책임감독은 아직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최종선수명단을 결정하지 못하고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첫째도 둘째도 훈련이 기본이라는것을 인식시키군 하였다.

《너에게는 오늘보다 앞일이 더 중요하다는것을 명심해라.》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빠레이라책임감독은 로날도를 젖비린내나는 철부지로 보면서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이 그에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브라질축구종합팀과 이슬란드축구종합팀간의 친선경기를 본 책임감독 빠레이라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 경기에서 브라질팀이 3:0으로 이슬란드팀을 이겼는데 모든 득점이 로날도의 공적으로 이루어졌던것이다.

책임감독 빠레이라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였다.

한편 《축구왕》 뻴레도 이 월드컵경기대회를 앞두고 《만약 책임감독 빠레이라가 로날도를 크게 써준다면 그는 이번 월드컵경기대회에서 훌륭한 축구명수로 자랄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제15차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할 최종선수명단이 발표되는 날 로날도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분명 내 이름이 옳긴 옳은가? 17살인 내가 월드컵경기에 참가하게 되다니… 아버지가 살아계셔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으랴.)

로날도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려 옷자락을 적시였다.

빈궁과 굶주림을 타고난 팔자로 여기며 살아온 어린시절, 엎

친데덮친 격으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누르며 비참하게 살아온 나날들이 가슴아픈 추억으로 떠올랐다.

골목축구로부터 시작된 로날도의 축구재능이 리베로감독과 같은 고마운 스승에게 받들려 오늘은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가종합팀선수로 되였으니 어찌 그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으랴.

1994년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미국에서 진행하는 제15차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브라질축구종합팀은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국민들의 부탁을 뒤에 남기며 수도 브라질리아의 교외에 있는 국제비행장을 떠났다.

리륙하는 려객기좌석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내다보는 로날도의 마음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둥둥 떠올랐다. 난생처음 비행기를 탄 기분에 국가종합팀의 황록색 경기복을 입게 되였다는 궁지가 합쳐져 로날도의 입가엔 기쁨이 함뿍 실려있었다.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로날도가 영광을 안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본 밤하늘의 별찌가 생각나시겠지요. 그래서 나에게 운이 트이는것 같아요. 이 아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날도는 멀어져가는 고향땅을 보며 월드컵을 쟁취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리라 결심다졌다.

6월 17일 개막식에 이어 지역별예선경기를 거쳐 본선경기에 올라온 24개 팀간의 월드컵쟁탈전이 벌어졌다. 브라질종합팀은 2조에 속하여 까메룬, 로씨야, 스웨리예팀들과의 경기를 성과적으로 치르고 1등으로 준준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로날도는 월드컵쟁탈전 조별예선마당에 뛰여들고싶은 마음을 안고 선수대기석에 앉아 책임감독 빠레이라의 지시를 기다렸다.

준준결승전에서 브라질종합팀은 1970년대 중엽 《토탈축구》라는 혁신적인 축구방식을 확립하여 세계축구계를 놀래운 네데를란드팀을 3:2로 타승하고 준결승경기에서는 같은 2조에서 맞다들어 1:1로 비겼던 스웨리예팀과 다시 격전을 벌리게 되였다.

결승경기에 진출하느냐 물러서느냐 하는 긴장한 경기인것으로 하

여 책임감독 빠레이라의 안중에는 로날도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경기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다는데로부터 안심이 가지 않았던것이다.

브라질팀은 이 준결승경기에서도 스웨리예팀을 1:0으로 타승함으로써 드디여 결승경기에 올라설수 있었다.

1994년 7월 17일, 제15차 월드컵경기대회의 마감을 장식하는 결승경기의 날이 왔다. 결승경기의 대상은 준준결승경기에서 에스빠냐팀을 2:1로, 준결승경기에서 벌가리아팀을 2:1로 누르고 올라온 이딸리아팀이였다.

신통히도 지난 시기의 월드컵경기대회에서 각각 세번씩 우승한 팀들이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딸리아는 1934년, 1938년, 1982년에, 브라질은 1958년, 1962년, 1970년에 우승하였다는것과 브라질팀은 이딸리아보다 한발 앞서 우승함으로써 《쥴리어스 리멧컵》을 영원히 자기 나라의것으로 만들었다는것이였다. 결승경기에서 맞다든 팀들이 이러한 강팀들인것으로 하여 결승경기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17살나이에 국가종합팀에 망라되여 뻐스를 타고 결승경기가 진행되는 경기장으로 달리는 로날도의 심장은 높뛰였고 다른 선수들 역시 긴장되지 않을수 없었다.

로숙한 책임감독 빠레이라는 긴장된 선수들의 심리상태를 풀어주기 위하여 로날도에게 롱말을 걸었다.

《로날도,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느냐?》

《책임감독선생님, 나는 우리 브라질팀이 이딸리아팀을 꼭 이길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로날도는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내비쳤다.

《참 좋은 생각을 했구만. 어제밤 꿈나라에서 이긴게로구나.》

《어제밤에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글쎄 밤하늘에 큰 별찌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버진 긴꼬리가 달린 별찌를 보면 꼭 운이 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팀이 꼭 이긴다는것입니다.》

《하, 하, 하…》

뻐스안에 웃음바다가 펼쳐졌다.

《로날도야, 나도 너의 아버지의 말을 믿는다.》

책임감독 빠레이라의 이 말에 다시한번 웃음이 터졌다.

아직 애숭이로만 보아왔던 로날도가 결승전 출전전야에 선수들에게 웃음을 주고 진심을 털어놓는것이 하도 대견하여 빠레이라 책임감독은 그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었다.

세계적인 두 축구강국사이의 결승경기가 드디여 주심의 긴 호각소리와 함께 시작되였다. 전세계가 긴장하게 지켜보는 이 경기는 치렬한 공방전속에서 일진일퇴의 순간들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90분의 기본경기와 30분의 연장전에서도 득점없이 끝나 승부를 가르는 11m벌차기로 넘어갔다. 두 팀에서 선발된 각각 5명의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고 담력의 대결이 시작되였다.

첫번째로 나온 이딸리아선수는 성공하였으나 브라질선수는 상대방의 문지기에게 공을 주는 바람에 이딸리아팀이 1:0으로 앞섰다. 두번째로 나온 두 팀선수들이 모두 성공하여 2:1로 되였다.

세번째로 나온 이딸리아선수가 실패하고 브라질선수가 성공하여 2:2 동점을 기록했다. 네번째로 나온 이딸리아선수가 찬 공을 브라질팀의 문지기가 막아내고 브라질선수가 성공함으로써 브라질팀이 3:2로 앞서게 되였다. 이제 두 팀에서 한명씩 남아있었는데 만일 이 다섯번째 차기에서 두 팀이 성공하면 우승컵은 브라질팀에게 차례지고 이딸리아팀이 성공하고 브라질팀이 실패하면 동점으로 되여 승부가 날 때까지 11m벌차기가 계속될것이였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차기하는 이딸리아선수가 실패하면 브라질팀은 마지막선수가 차기할 필요도 없이 3:2로 승리할것이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정황속에서 다섯번째로 나온 이딸리아팀선수는 예술적인 공격수로 유명짜한 득점명수 로베르또 밧쬬였다.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밧쬬가 찬 공은 문대왼쪽으로 날아가더니 가름대를 넘어 밖으로 사라졌다. 밧쬬는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경기장, 아니 온 세상의 TV앞이 기쁨과 슬픔으로 뒤번졌다.

경기성적 3:2!

브라질팀선수들은 책임감독 빠레이라에게 달려가 서로 얼싸안으며 웃고 울었다. 브라질응원자들은 서로 껴안고 함성을 질렀으며 국기를 펼치고 쌈바춤을 추면서 4번째로 월드컵을 자기 나라의 것으로 만든 선수들을 환영하였다.

브라질리아의 국제비행장은 월드컵을 안고 귀국하는 자기 나라 선수들을 마중하기 위하여 정계, 경제계, 체육계인사들과 체육애호가들 그리고 기자들과 가족들로 붐비고있었다.

《브라질의 장한 아들들에게 영광을!》, 《민족의 영웅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브라질국민들은 당신들을 사랑한다!》, 《〈축구왕국〉브라질 만세!》라고 쓴 프랑카드들이 펼쳐지고 비행장은 꽃바다를 이루었다.

브라질은 승리의 소식과 함께 온 나라가 명절분위기로 들끓었고 7일간을 국가적휴식일로 선포하였다.

비행기승강대를 내려서는 매 선수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로날도는 월드컵경기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경기에 한번도 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과분한 환영을 받는것이 어딘가 죄송스러웠다.

하여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이러한 환대에 보답하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과연 이날에 다진 그의 결의는 실천에 옮겨져 그후에 진행된 월드컵경기대회들에는 브라질팀의 핵심공격수로 참가하였으며 특히 2002년 제17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는 브라질팀이 다섯번째 월드컵을 쟁취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세번에 걸쳐 세계최우수선수상을 쟁취하였으며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세계최고득점기록을 세웠다.

월드컵력사에서 누가 앞으로 로날도가 세운 15개의 최고득점기록을 갱신하겠는지…

이것은 축구의 세계에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도이췰란드축구의 상징》-미하엘 발라크

축구애호가들은 나를 《도이췰란드축구의 상징》이라고 부르고있다.

나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팀의 주장으로서 경기와 훈련을 동료선수들의 앞장에서 이끌어나가야 할 임무를 수행해나갈것이다. 나를 《도이췰란드축구의 상징》이라고 하는것은 축구애호가들의 믿음일뿐이다.

나는 팀에서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미하엘 발라크—

세계축구련맹이 선정한 2002년 세계10대최우수축구선수명단에 오른 선수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계10대최우수선수 미하엘 발라크!

동도이췰란드출신이 최우수축구선수로 선정된것은 처음이였다. 날은 예리하지 못하지만 강한 파괴력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뭉청뭉청 잘라버리군 하는 《도끼》로 불리운 발라크.

발라크는 10여년전부터 사회주의도이췰란드의 자그마한 청소년구락부에서 축구의 도를 닦으며 자라난 도이췰란드축구종합팀의 공격형중간방어수였다. 그는 아직까지 월드컵쟁취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고향사람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리라는 꿈을 안고

신비한 공다루기재간을 익혔다.

오른발에 의한 강한 중거리차넣기와 성공률이 높은 왼발차넣기, 위력한 머리받기에 지칠줄 모르는 육체적준비로 하여 발라크는 감독과 동료들, 축구애호가들에게 믿음을 안겨주었다. 어릴 때부터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온 발라크는 다정다감한 성격과 쾌활성, 겸손성과 동무들에 대한 사랑으로 하여 그 어데 가나 존경을 받았다.

켐니츠체육학교에서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던 이전 도이췰란드민주주의공화국의 남쪽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도시에서 1976년 9월 26일 미하엘 발라크가 태여났다. 발라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 모르며 공장에 다녔다.

유년시절 발라크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주의정신의 싹을 키우며 가정의 화목동이로 자라났다. 8살이 되여 발라크는 소학교에 입학하였다. 아버지는 최우등을 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하였다.

《아버지, 최우등을 하겠으니 축구공을 사주세요. 그것도 가죽으로 된 축구공을 말이예요.》

축구에 대한 푸른 꿈은 벌써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다.

1986년 10월, 삐오네르조직에 입단하여 나라의 훌륭한 역군이 될 맹세를 다진 발라크는 다음해 9월부터는 켐니츠체육학교에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켐니츠체육학교는 과외체육학교로서 도이췰란드민주주의공화국의 축구를 떠받들어온 체육인재양성기지의 하나였다.

켐니츠체육학교에서는 엄격한 시험을 통하여 학생들을 뽑았는데 한학급이 7～8명정도였다. 여기서는 기초적인 축구기술을 완벽하게 체득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교수훈련을 짜고들었다. 특히 량쪽발로 공을 다루도록 교육을 주었는데 이것은 이 학교의 훌륭한 교육방법이기도 했다. 자유자재로 공을 다룰수 있을 때까

지 반복훈련을 했다. 축구지도교원 유르겐 호이베아거는 후날 발라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당시 아이들속에서는 발라크가 참가하면 그 경기에서 이길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하였다. 그것은 발라크가 공을 량쪽발로 능숙하게 다루면서 자기가 의도하는대로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보통 그 나이에는 그렇게까지 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이처럼 발라크는 당시 동도이췰란드의 전통적인 축구선수후비양성체계속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높은 기술을 가진 전도유망한 선수로 자라나게 되였다.

1989년 발라크가 13살되던 해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에 동서도이췰란드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였다. 40여년간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혜택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오던 동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는 엄혹한 시련이 기다리고있었다. 13살이던 발라크는 TV를 보고 동서 두 국가의 통일이라는 말을 알게 되였다.

발라크는 어떻게 되여 그렇게 되였는지 다 리해할수 없었지만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속에 차오르는 설음을 억제할수 없었다. 발라크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하였다.

근심걱정을 모르고 자라던 발라크에게 있어서 《통일》이라는것이 가져다준 걱정거리는 그렇게도 하고싶은 축구도 못하게 되지 않을가 하는것이였다. 어느날 발라크는 중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축구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켐니츠체육학교에 찾아갔다.

《발라크, 우리 소년팀 주장이 왔구나! 그동안 왜 축구훈련하러 오지 않았어?》

유르겐 호이베아거지도교원이 반갑게 맞이하자 발라크는 목구멍안으로 잦아드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선생님, 우리가 축구훈련을 계속할수 있습니까? 이젠 돈이 없으면 축구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민이 주인인 나라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중학교에도 돈이 있어야 다닐수 있답니다.》

발라크는 여기저기에서 들은 소리들을 지도교원에게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는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에서 2등을 하도록 이끌어준 지도교원을 언제나 존경해왔었다.

《발라크, 이렇든저렇든 축구에 대한 신심을 잃어선 안돼. 지금 우리 체육학교 창고에는 이전에 국가에서 보내준 축구공과 축구화를 비롯해서 훈련기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 나라의 축구발전을 위해 얼마나 고마운 혜택을 주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니 우리는 고향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축구를 더 본때있게 해야한다. …입술을 깨물면서라도 꿈을 실현해야 해. 체육강국이던 우리 사회주의나라가 붕괴되였다고 락심해서는 절대로 안돼. …

래일부터 축구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축구도 우리 고향의 전통이거든. 자기의 축구전통으로 실망에 잠겨있는 고향사람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부어주려면 축구기술을 높여야 한다. 알겠니?》

드디여 1994년 8월, 발라크는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식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가하였다. 최우등생의 명단 맨 앞자

○ 상 식 ○

생일 100돐을 기념한 국제축구련맹

지구상에 축구를 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축구를 싫어하거나 모르는 나라는 더욱 없다. 인류가 사는 행성우에 축구공이 굴러가게 하고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을 축구선수, 축구애호가로 만들어놓은것은 100년력사를 가진 국제축구련맹(FIFA)이 긍지롭게 자부하는 커다란 성과이다.

1904년 프랑스의 빠리에서 련맹이 창립될 당시 프랑스, 벨지끄, 단마르크, 네데를란드, 에스빠냐, 스웨리예, 스위스 등 7개 나라만이 가입되였던것이 오늘은 208개의 성원국(2010년말까지)을 가진 세계체육계의 제일 큰 가문으로 되였다.

국제축구련맹은 자기의 생일 100돐기념 축전을 2004년 5월 련맹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던 프랑스의 빠리에서 성대히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국제축구련맹성원들과 세계 여러 나라 민족축구협회 대표들, 축구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한 인사들, 100년

리에 미하엘 발라크라고 쓴 아들의 이름을 보고 또 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무등 기뻤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실업의 소용돌이속에서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있던 그들이였다. 졸업식이 끝나자바람으로 성적증을 쥐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달려온 발라크는 부모들의 품에 안기며 자기의 속생각을 털어놓았다.

《난 이제부터 직업축구선수의 길을 완강하게 걷겠어요. 켐니츠축구구락부와 계약을 맺으려고 해요. 다른데서도 오라고 하는데 먼저 고향의 구락부에서 직업선수의 첫걸음을 떼겠어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볼수 있거든요.》

《음, 우리 발라크가 정말 잘 생각했다. 인생이란 고향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축구력사에 별처럼 빛난 뻴레를 비롯한 축구명수들이 명예손님으로 초청되였다.

축전에서는 여러가지 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되였는데 그중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FIFA창립 100돐기념 사진전시회》였다. 특히 이채를 띤것은 축구명수 100인명단발표식이였다. 당시 살아있는 선수들을 선택하여 《세계축구왕》 뻴레가 직접 작성한 축구명수 100인명단은 17차례의 월드컵경기대회에서 훌륭한 기술을 발휘하여 깊은 인상을 남긴 세계적인 축구명수들을 인류체육사에 다시금 세워준것으로 하여 깊은 감명과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축구명수 100인명단은 사진전시회에 내놓았던 사진들과 함께 스위스의 로잔느에 있는 올림픽박물관에 보관하였다.

국제축구련맹은 또한 세계명수팀과 브라질남자축구팀, 세계녀자명수팀과 도이췰란드녀자축구팀간의 경기를 의의있게 성황리에 조직하여 창립 100돐을 성과적으로 기념하였을뿐아니라 전세계에 축구열풍을 더욱 세차게 고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축구련맹이 자리잡고있는 스위스의 쮜리히시에 《축구의 집》—국제축구련맹청사를 새롭게 완공하였다.

아들의 마음을 대견하게 여긴 아버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걸으며 고향 칼 맑스슈타프시를 둘러싼 아름다운 산줄기들과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셋은 공원옆에서 발라크의 중학교졸업기념으로 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사진을 찍었다. …

엄혹한 경제형편은 켐니츠축구구락부를 도이췰란드의 2부류팀에서 4부류팀으로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발라크는 이 구락부에서 2년간 계약으로 선수생활을 하였다.

이 축구구락부의 책임감독은 이전 동도이췰란드축구종합팀 선수였던 요약힘 뮬러였다. 뮬러책임감독은 1974년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서도이췰란드축구종합팀을 타승한것은 유독 동도이췰란드축구종합팀 하나였다고 늘 자랑하군 하였다.

바로 그 경기대회 1차련맹전에서 한조에 망라되여있던 동서도이췰란드팀이 서로 대전했는데 동도이췰란드팀이 서도이췰란드팀을 1：0으로 타승하였던것이다.

그때 《축구거장》으로 이름을 날린 벡켄바우어가 서도이췰란드팀 주장으로 참가하여 월드컵을 쟁취하였지만 당시 동도이췰란드팀 역시 세계적인 수준에 있었다.

발라크에 대한 뮬러책임감독의 요구성이 높아지는데 따라 발라크의 축구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뮬러책임감독은 결속능력이 강한 공격형중간방어수의 위치에 발라크를 세워놓고 오른발로 강한 중장거리차넣기와 왼발차넣기에 의한 성공률을 높이도록 이끌어주었다.

《세계적인 축구명수들의 특기는 모두 한두가지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발라크를 오른발과 왼발 가림없이 강한 차넣기를 할수있게 하면서도 위력한 머리받기로 소문난 선수로 만들자는거야. …

발라크는 자기의 소중한 축구의 꿈을 키워준 품이 동도이췰란드의 사회주의제도였다는걸 잊지 말아야 하네.》

《예,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실망에 잠겨있는 고향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훈련 또 훈련으로 축구기술의 령마루에 올라서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2년동안 고향의 축구구락부에

서 도를 닦은 발라크는 드디여 《축구바다》에 뛰여들 야심을 품고 고향땅을 떠나게 되였다.

역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켐니츠체육학교시절의 지도교원 유르겐 호이베아거, 켐니츠축구구락부 책임감독 요약힘 뮬러, 축구동료들이 나와있었다. 출발을 알리는 푸른 신호등이 비치자 발라크는 그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렬차에 올랐다. 발라크는 홈에 서서 오래도록 손저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 스승들과 친지들을 바라보며 기어이 축구로 성공하리라 마음속맹세를 다졌다. …

번호 13번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때로부터 7년이 지난 1996년 5월, 동도이췰란드의 작은 도시에서 축구계에 이름을 날리려는 야심을 품고 축구기술을 련마한 미하엘 발라크는 서부지역 서남부도시 카이제르 슬라우테른에 첫 닻을 내렸다. 20살에 도이췰란드 2급축구팀에서 1급축구팀에로의 발전이기도 했다. 이것은 발라크자신의 축구인생에서 커다란 사변이였다.

발라크는 카이제르 슬라우테른축구구락부에 옮겨온 후 점차 책임감독과 팀의 동료들은 물론 축구애호가들에게 믿음을 안겨주기 시작하였다. 남보다 몇배의 훈련강도로 축구의 령마루를 향해 모든 열정을 다 바쳤다.

한해두해 나이가 들면서 발라크는 육체, 기술, 전술적으로뿐아니라 심리적으로 세련된 축구선수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카이제르 슬라우테른축구구락부팀에서 중간지대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군 했다.

발라크는 처음으로 1997－1998년 경기계절 도이췰란드련맹전에 참가하여 자기 팀이 우승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때로부터 발라크는 도이췰란드축구계의 혜성으로 빛을 뿌리기 시작했다. 성격이 쾌활하면서도 겸손하고 우애심이 두터운 발라크는 다정

다감하고 소탈한것으로 하여 수많은 축구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게 되였으며 축구동료들과도 더욱 친숙해졌다. 카이제르 슬라우테른축구구락부팀이 우승하자 체격이 크고 령리하고 용맹한 발라크를 축구애호가들은 《바다곰》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도이췰란드의 이름있는 축구구락부들에서는 발라크를 자기 팀으로 끌어가려고 저마다 욕심을 내게 되였다.

그리하여 1999년 7월, 발라크는 도이췰란드의 북서부 지방도시 바이에르 레베르쿠젠의 축구구락부로 옮겨갔다.

발라크는 이 구락부팀의 중간방어수로 번호 13번을 달고 련방련맹전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약삭바른 출판계의 기자들은 바이에르 레베르쿠젠축구구락부팀의 공격형중간방어수 발라크가 유럽의 다른 축구선수들과는 달리 번호 13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그것은 서도이췰란드 축구력사상 가장 명망높았던 《폭격기》—게르트 뮬러를 우상했기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신빙성없는 거짓보도였다.

발라크가 이 축구구락부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할 때였다. 팀의 책임감독은 팀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게 된 오엘선수에게 감사의 표시로 물었다.

《우리 팀에서 오랜 기간 13번을 달고 팀의 승리를 위해 헌신한 자네의 등번호를 누구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주게.》

《나를 언제나 존중해준 발라크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발라크는 오엘이 넘겨준 13번을 달고 공격형중간방어수로서의 실력을 발휘하였던것이다.

발라크는 련방련맹전들에서 자기의 특기를 보여주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추억도 있었다. 어느 련맹전에서 운터하잉축구구락부팀과의 마지막경기때 비기기만 해도 우승의 영예를 지닐수 있는 유리한 경기였으나 자신의 자살꼴로 관중들의 저주를 받는 울지 못할 비극도 남겼다. 이것은 발라크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가장 고통스러운 회상으로 되였다.

발라크는 바이에르 레베르쿠젠축구구락부에서 3년동안 팀을

위해 실로 많은 기여를 하였다. 발라크는 이 축구구락부팀에서 유럽축구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도 참가하여 중간지대에서 높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도이췰란드의 명문구락부로 공인된 바이에른 뮨헨축구구락부 회장이며 《축구거장》으로 세상에 알려진 벡켄바우어는 발라크를 자기 구락부로 끌어올 결심을 하게 되였다.

벡켄바우어회장은 제17차 월드컵경기대회준비를 위해 도이췰란드축구종합팀 책임감독으로 새로 임명된 폴레르를 찾아 국가종합팀 훈련소로 떠났다.

벡켄바우어회장한테서 이미 전화를 받은 신임책임감독 폴레르는 현관에까지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승용차에서 내린 벡켄바우어회장은 감회깊이 말하였다.

《종합훈련소는 언제나 나에게 깊은 추억을 안겨주누만. 나는 여기서 선수로 땀을 흘렸고 감독으로서 속을 태웠소. 그러니 내가 폴레르책임감독의 마음을 리해하는 사람가운데 한명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소?》

《물론입니다. 회장님은 이전에 도이췰란드축구를 두어깨에 걸머졌었고 월드컵을 안고 왔으니까요.》

《지금은 폴레르책임감독이 도이췰란드축구종합팀의 사령관이니 정말 책임이 무겁소. 이전 보그츠책임감독처럼 되지 말아야 할게 아니겠소.》

《프랑스월드컵경기때 로장선수들과 젊은 선수들과의 배합을 잘하지 못한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참패의 책임을 지고 보그츠책임감독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나도 신임책임감독의 견해와 같소. 나이는 속일수 없는거요.》

벡켄바우어는 프랑스월드컵경기대회때를 되새겨보는듯 창밖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돌아서며 폴레르책임감독에게 말을 이었다.

《2002년 월드컵대회에 망라시킬 선수선발사업은 끝냈소?》

《아직… 로장선수들의 선발은 끝났으나 젊은 선수들에 대한 선발문제가 골치거리입니다. 내가 선발한 선수들을 축구련맹에서

는 반대하면서 〈빼라〉, 〈넣으라〉 하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책임감독은 도이췰란드축구를 책임진 두뇌진의 한사람인데 흔들리면 안되지. 당신이 대담하게 〈신진대사〉를 해서 월드컵을 도이췰란드로 안아오도록 내 항상 든든하게 뒤받침을 하겠소.》

벡켄바우어는 폴레르책임감독이 꺼내놓은 국가종합팀 선수선발명단을 선수들의 이름밑에 밑줄을 그으며 구체적으로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발라크의 이름이 없었다.

《사실 나는 발라크가 선발된줄 알고 오늘 폴레르책임감독과 그의 위치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자고 왔댔소. …괜히 왔구만.

…도이췰란드축구종합팀은 발라크를 반드시 공격형중간방어수로 공격과 방어의 지탱점을 지키게 해야 하오. 그래야 경기주도권을 쥘수 있다고 나는 이미전에 생각하고있었소.》

《나도 회장님의 전술적의도와 같습니다. 축구애호가들은 발라크를 〈바다곰〉이라고 하면서 사랑하고있습니다.》

《도이췰란드축구를 위해 필요하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하겠는데 곁에 있는 별도 놓쳐서야 되겠소.

사실 나는 공격과 방어를 다같이 시원시원하게 하는 발라크의 큼직한 경기모습에 반했소. 그래서 발라크를 우리 바이에른 뮨헨팀에 데려올 욕심도 있었는데 선발명단에도 없으니 섭섭하구만.》

결국 벡켄바우어와 폴레르책임감독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발라크는 2002년 6월, 제17차 월드컵경기대회를 위한 국가종합팀에 선발되였다. 이 경기대회에서 그는 13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중간지대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도이췰란드팀이 2위를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후 발라크는 바이에른 뮨헨축구구락부팀의 주장으로, 2006년 제18차 도이췰란드월드컵경기대회에 국가종합팀 주장으로 참가하여 《도이췰란드축구의 상징》으로 빛을 뿌렸다.

《축구왕자》-안드레이 쉡첸꼬

난 언제한번 자신에 대해 만족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난 자신에 대한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군 합니다.

지금도 나는 나자신의 발전을 위해 늘 사색하고있습니다.

—안드레이 쉡첸꼬—

안드레이 쉡첸꼬는 2006년에 진행된 제18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크라이나팀의 주장으로서 팀을 력사상 처음으로 8강자전에까지 진출시켜 국내인민들로부터 《희망의 별》, 《민족적영웅》으로 떠받들리웠으며 세계체육계에서는 그를 두고 《저격수》, 《득점왕》, 《축구왕자》 등으로 부르고있다.

따뜻한 품

《도이췰란드축구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미하엘 발라크와 마찬가지로 안드레이 쉡첸꼬의 경우에도 역시 훌륭한 축구선수로서

의 재능은 사회주의제도의 따뜻한 품속에서 싹트고 자랐다.

쉡첸꼬는 1976년 9월 29일에 우크라이나의 수도에서 북쪽으로 30㎞ 떨어진 작은 마을 드비트키시나에서 태여났다. 그날은 도이췰란드의 축구명수 미하엘 발라크가 출생한 날로부터 3일후였다.

그의 출생당시 아버지는 이 지역주둔 붉은군대 한 구분대의 중위였고 어머니는 어느 한 회사의 회계원이였다. 평범한 붉은군대군관의 가정에서 태여난 쉡첸꼬의 첫돌 생일날이 왔다.

낮에는 군관의 안해들이 모여와 쉡첸꼬를 첫돌상앞에 앉히고 여러가지 생일선물을 놓아주고 무얼 쥐는가를 보면서 웃고 떠들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자 쉡첸꼬의 아버지와 함께 부대군관들이 쉡첸꼬의 첫돌을 축하해주려고 집으로 모여왔다. 그들은 제마끔 장난감권총, 따발총, 인형, 색연필묶음 등을 내놓았다.

끼예브에 출장갔다온 한 군관은 축구공을 생일선물로 가져왔다. 그런데 바로 그 공이 쉡첸꼬의 마음을 끌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쉡첸꼬가 축구공을 차고 굴리면서 캐득캐득 웃으며 방안을 돌아치는 바람에 모두가 따라웃었다.

《분명히 미래의 축구선수감이야. 저걸 보라구. 얼마나 좋아하나.》

한 군관이 기뻐서 뽈을 차는 쉡첸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우리 쉡첸꼬는 붉은군대감이요.》

쉡첸꼬의 아버지는 자기처럼 아들도 조국을 지키는 붉은군대로 키우고싶었다.

《아유- 축구야 젊어서 한때지요. 어서 커서 군대에 나가 군관으로 복무하는것이 제일이예요.》

남편의 생각을 다시한번 대변하듯 쉡첸꼬의 어머니까지 끼여들었다. 태여나서 첫돌이 되는 쉡첸꼬를 놓고 군관들모두는 그의 앞날에 행복만이 있기를 축복해주었다.

이 즐거운 날이 있은지 얼마 안되여 그의 집은 아버지를 따라 끼예브로 이사를 갔다.

어린 쉡첸꼬의 곁에는 언제나 장난감대신 축구공이 놓여있었다. 그는 항상 그 공으로 동네아이들과 공차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회주의제도에서 탁아소와 유치원을 마치고 소학교에 입학한 쉡첸꼬는 늘 최우등을 하였다. 삐오네르조직에 입단하여 붉은넥타이를 앞가슴에 매고 집단주의정신을 키워나갔으며 체력단련에도 열성껏 참가했다.

그의 달리기속도는 소학교적으로 따를 아이들이 없었다.

언제인가 끼예브시적으로 진행된 소학교학생들의 운동회때 쉡첸꼬는 100m달리기에서 1등을 하였다. 뒤이어 진행된 400m이어달리기에서도 1등을 쟁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400m이어달리기에서 쉡첸꼬는 마지막 네번째 선수였는데 세번째 선수는 3등으로 달려와 계주봉을 쉡첸꼬에게 넘겨주었다. 계주봉을 넘겨받은 쉡첸꼬는 힘차게 달려 1등으로 테프를 끊었다.

아들을 미래의 붉은군대군관으로 키우려는 부모들의 관심속에서 쉡첸꼬는 철봉, 평행봉, 강행군에 적응하는 체력단련과 함께 축구, 빙상호케이 등 체육종목에도 취미를 가졌다. 그러나 그가 특별히 흥미를 가진것은 축구였다. 그는 꼭 축구를 하고싶었다. 그래서 생각끝에 어느날엔가는 끝내 아버지의 승낙을 받았다.

《응, 네 생각을 아버지는 찬성한다. 군대에서도 축구를 잘하여 꼴을 많이 넣으면 떠받들린단다.》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낸 쉡첸꼬는 그때부터 축구에 온넋을 쏟아부었다. 군관으로 내세우고싶어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과는 달리 쉡첸꼬에게는 축구의 길에 들어설 기회가 마련되였다.

1986년에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가 두번째로 이전 쏘련의 국내컵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한 후 후비양성쎈터의 대문을 열어놓았던것이다. 끼예브시 교육국에서는 이 후비양성쎈터의 대문에 들어설 전도유망한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시내 소학교들간의 축구경기를 조직하였다. 준준결승경기에 올라간 쉡첸꼬는 중앙공격수의 위치에서 맹활약을 하며 머리받기로 한꼴을 넣었다. 그러나 후반전에 들어와 공격에만 열을 올리던 그가 속한 제10소학교축구팀은 역습공격을 당하여 한꼴을 먹고말았다.

경기마감시간이 가까와지자 제10소학교팀은 방어수까지 공격선으로 몰켜나와 꼴을 넣으려고 덤벼치다나니 결국 경기에서 지고말았다. 나이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주력이 좋은 쉡첸꼬는 이리뛰고 저리뛰며 이기려고 애썼다. 그러나 경기에서 패하자 땅에 풀썩주저앉아 소리내여 울었다.

하지만 이 경기가 진행된 축구운동장에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의 후비선발감독 알렉싼드로 슈바꼬브가 와있은줄은 누구도 몰랐다. 두 소학교축구팀간의 준준결승경기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서 그는 특별히 제10소학교팀 중앙공격수에게 관심을 돌렸다. 빠른 속도로 종횡무진하면서도 지칠줄 모르는 소년의 모습에서 슈바꼬브는 축구인재의 싹을 발견하였다. 슈바꼬브는 울고있는 쉡첸꼬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말했다.

《넌 축구를 잘할수 있는 보배라는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

○ 상 식 ○

세계적으로 이름난 축구박물관들

— 아테네축구박물관

박물관에는 세계적판도에서 진행되는 다종다양한 축구경기를 보여주는 사진, 도표, 그림들과 축구공, 축구기재, 설비들이 1 500여점이나 전시되여있다.

《세계축구왕》 뻴레가 차던 축구공과 선수복도 전시되여있다.

— 런던축구박물관

여기에는 각종 축구공, 축구선수복, 팀의 기발, 축구선수휘장, 기념메달, 우승컵, 축구경기장면을 찍은 사진자료들과 축구운동력사자료, 훈련계획, 각이한 축구전술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이 축구박물관은 많은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운영되고있다.

— 랭커셔축구박물관

2001년 2월 15일 영국 랭커셔지방의 프레스톤 노스엔드축구

경기에서 이기는건 기쁨이고 지는건 슬픔이란다. 그러니 네가 눈물을 흘리는거야. 일어서거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는 쉡첸꼬를 데리고 휴계실로 갔다.

《난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의 후비선발감독 슈바꼬브이다. 네 이름과 나이를 말해주겠니?》

《감독선생님, 쉡첸꼬라고 합니다. 나이는 10살입니다.》

《이름이 참 좋구나. 우크라이나의 저명한 시인의 이름과 같으니까. 하하하.》

그는 우울해진 쉡첸꼬의 마음을 돌려세우느라고 19세기 80년대에 우크라이나 문학예술인들을 대표하는 시인인 동시에 민족적영웅이였던 쉡첸꼬에 대하여 애어린 그에게 상기시켜주었다.

전도유망한 재능의 싹들을 찾아내여 우수한 축구선수들로 키

구락부의 경기장에 세워진 축구박물관이 새로 문을 열었다.

이 박물관은 축구의 종합박물관이라고 할수 있다.

영국의 축구구락부들은 다 자체의 박물관을 가지고있으나 규모가 작고 자기 구락부에 관한 전시품들만을 전시하고있다.

그러나 이 박물관에는 영국과 다른 나라들의 축구관련유물들과 우승컵, 메달, 복장 등 2만여점이 전시되여있으며 축구경기와 관련한 수많은 사진자료들도 있다.

이 박물관에는 1872년 첫 국제경기에 입고나갔던 선수들의 옷을 비롯하여 1906년에 녀자축구선수들이 착용하였던 양말, 모자, 혁띠들과 축구경기 초기에 사용하였던 축구공, 현대의 각종 축구공, 축구화와 각 경기들에서 수여하는 우승컵, 메달 등 귀중한 력사유물이 수많이 전시되여있다.

축구의 력사를 초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슬러보게 하는 이 박물관에는 해마다 10만여명의 세계각국 관람자들이 찾아오고있다.

워준 슈바꼬브감독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을 가지고있었다.

《쉡첸꼬야, 너는 축구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9살때부터입니다.》

《겨우 1년밖에 안되는데 뽈을 잘 차누나. 넌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수 있어. 이제부터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의 후비양성쎈터에 들어와 축구훈련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는 안될겁니다.》

쉡첸꼬가 당돌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슈바꼬브감독은 말을 잇지 못하고 의문을 표시했다.

《왜?…》

《내가 축구선수로 되는걸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반대합니다. 나는 꼭 붉은군대군인이 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니, 그럴수 있는가. 나와 함께 너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보자꾸나.》

이렇게 되여 쉡첸꼬는 슈바꼬브감독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였으며 슈바꼬브감독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설복하여 끝내 승낙을 받아내고야말았다.

드디여 쉡첸꼬는 축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 후비양성쎈터의 대문으로 들어서게 되였다.

재능의 나래를 한창 펼쳐가던 1986년,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낸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하여 쉡첸꼬와 그의 가족은 흑해 북쪽연안으로 이사를 하였다. 쉡첸꼬는 자기의 축구꿈을 피난민의 처지에서는 현실로 꽃피울수 없게 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흑해 북쪽연안의 그 자그마한 도시에도 사회주의국가의 혜택이 차례져 그는 그곳의 한 체육훈련쎈터에 들어가 축구훈련을 계속할수 있었다.

1990년 14살나는 쉡첸꼬는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 청소년조의 기둥선수로 이딸리아원정경기에 참가하게 되였다. 이것은 쉡첸꼬가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제축구경기였다. 그는 잔등에 2번 번호

를 달고 최전방공격수로서 빠른 속도와 우수한 공몰기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꾈을 넣어 축구전문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후날 쉡첸꼬는 청소년조에서 축구기술을 익히던 시절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때 훈련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이 실렸지만 그것을 무조건 극복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보면 그 강도높은 훈련들이 나의 축구기초를 닦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쉡첸꼬의 특기인 빠른 속도도 이 시기에 마련되였다.

그러던 1991년 우크라이나에는 독립이 선포되였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점차 돈이 사람의 가치를 저울질하기 시작하였다. 돈앞에서는 법도 비켜서고 권력도 물러섰다.

사회는 그야말로 혼란상태에 빠졌다. 여러명의 이름있는 선수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다른 나라의 축구구락부로 넘어갔다.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도 토대가 빈약한 상태에서 새롭게 발자국을 떼지 않으면 안되였다.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에서

쉡첸꼬는 17살나던 해인 1993년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에서 한때 《마술사》로 불리우던 왈레리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1부류축구련맹전에 참가하게 되였다.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은 후리후리한 키에 속도가 빠른 쉡첸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처음부터 요구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유럽의 강팀들에 대항하기 위해 높은 운동량을 목표로 내세우고 달리기훈련에 힘을 넣으면서도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은 높은 조약력에 의한 머리받기와 순간속도를 쉡첸꼬의 특기로 하기 위한 개별훈련을 어느 하루도 번지지 않았다. 쉡첸꼬에게는 육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은 그를 전술적으로, 심리적으로 키워주기 위해 중앙공격수의 위치에

서 활약하도록 하면서 매번 경기에 출전시켰다.

련맹전경기들사이 다음경기준비를 위한 집체훈련과정에 책임감독은 전번경기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쉡첸끄에게 지적해주었으며 개별훈련을 통해 많은 육체적부담을 이겨내도록 훈련수단들을 선택해주었다. 훈련때나 경기때나 가림없이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은 쉡첸끄에게 체계적으로 속도훈련을 시켰다.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은 쉡첸끄의 속도훈련을 기술, 전술, 경기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시켰다.

하루훈련이 끝난 어느날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이 쉡첸끄를 불렀다.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은 쉡첸끄에게 속도와 함께 경기의식을 높여 경기정황에 따르는 판단을 잘하도록 강조했다.

《책임감독선생님! 공격수의 활동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망설일 때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쉡첸끄는 중앙공격수의 위치에서 공격과 방어시 자기의 활동범위가 명백하지 못하여 방향없이 주춤거리던 생각을 그대로 책임감독에게 말했다.

《공격수의 기본임무는 공격을 조직하고 방어선을 돌파하여 득점하는데 있소. 공격수의 활동범위는 경기시야에 관계되며 경기시야가 넓을수록 공격수의 활동범위가 넓어진단 말이요.

축구는 11명이 하나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처럼 움직여야 승리를 안아올수 있는 집단경기요. 개인영웅주의자는 축구선수의 자격조차 없소. 그래서 옛날부터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전해져오는거요.》

사회주의사회에서 태여나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여 국가종합팀 선수로 이름을 떨쳐온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은 현실의 혼란속에서도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에서 예나 다름없이 선수들이 가깝게 지내며 서로 위해주도록 이끌어주었다.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팀의 우승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하고 신심을 안겨주려는것이 그의 단순한 소원이였고 목표였다.

1994년 책임감독 로마놉스끼가 이끄는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팀은 유럽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 참가하게 되였다.

유럽선수권보유자련맹전은 유럽에서 선수생활을 하고있는 각이한 국적의 모든 선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구무대였다.

쉡첸꼬는 나이가 18살이였지만 유럽의 큰 축구무대에 출전하여 축구전문가들에게 첫선을 보이고 여러 축구구락부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되였다.

빠른 순간속도와 공다루기기술 그리고 높은 조약력과 머리받기특기는 쉡첸꼬의 높은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팀은 도이췰란드의 바이에른 뮨헨축구구락부팀에 지기는 했지만 이 경기에서 쉡첸꼬가 유일하게 성공한 한개의 득점은 축구전문가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팀은 아직 세계적인 경기들에서 두각을 낼만큼 실력이 없었다.

척박한 땅에서 알찬 열매를 거두자면 땅을 걸구고 좋은 씨앗을 육종하여 뿌려야 한다.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은 끼예브지나모팀의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완강히 내밀었다.

유럽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다음날 끼예브지나모팀 선수들은 휴식을 하게 되였다. 그들은 시내에 나가 영화구경도 하고 식당에 들려 식사까지 하고 저녁늦게 숙소로 돌아왔다.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이 숙소의 복도에 들어섰는데 쉡첸꼬가 얼굴이 홍당무가 되여 마주왔다.

《쉡첸꼬, 술을 마신게 아니야?》

《책임감독선생님, 한잔밖에 마시지 않았습니다.》

책임감독은 온몸의 맥이 탁 풀려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말았다. 다음날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은 주장에게 훈련지시를 주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였다.

여느때는 하루훈련이 끝나면 쉡첸꼬에게 개별훈련을 주군 하던 책임감독이 한주일이 지나도록 그에게 말 한마디 없었다.

쉡첸꼬는 마음이 몹시 불안해났다. 책임감독과 한순간 마주쳐도 얼굴이 벌개지군 했고 눈길을 피하게 되였다.

한주일이 지나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이 야간훈련을 끝낸 저녁에 쉡첸꼬를 자기 방에 불렀다.

《쉡첸꼬, 내가 왜 찾았을것 같애?…》

고민으로 한주일을 보내고있던 쉡첸꼬는 책임감독을 똑바로 마주볼수 없었다.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은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에서 빛을 뿌리는 뭇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하였다.

《나는 쉡첸꼬가 세계축구계의 별이 되여 빛을 뿌리기를 바랬소. 또 그렇게 되리라 믿었구.… 그런데 이제 겨우 18살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담배도 피우니 믿는 나무 꺼꾸러진셈이지.…난 쉡첸꼬에게서 개인영웅주의의 싹이 보이는게 분하구만.》

창문에서 물러나 쉡첸꼬에게 다가와 하소연하듯 안타깝게 말하던 책임감독이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책임감독선생님,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술담배는 이번에 처음 입에 댔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쉡첸꼬! 자네의 결심을 어떻게 믿어야 하지? 앞으로 축구인생길에서 무슨 일인들 없으랴만 술과 담배는 체육선수의 운동능력을 떨구는 마약과 같은거라고 생각해야 되네.》

《저를 믿어주십시오. 책임감독선생님!》

쉡첸꼬는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의 품에 와락 안기며 흐느껴울었다. 인정이 많은 책임감독 역시 뜨거움을 삼키며 쉡첸꼬를 한가슴에 꽉 껴안았다.

1995년 우크라이나 1부류축구련맹전에서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팀은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의 전술안에 따라 경기대형을 변화시키면서 순간속도가 빠른 쉡첸꼬를 최종공격선에 세우고 경기운영을 령활하게 함으로써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첫 우승을 안아온 기쁨을 나누며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은 우승의 비결이 다름아닌 11명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팀의 전술안대로 육체적으로뿐아니라 머리로 달리고 또 달렸기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쉡첸꼬는 1996년에도 역시 끼예브지나모팀에서 그야말로 사랑을 독차지한 득점명수로 자라났다.

최종공격선에서 쉡첸꼬의 순간속도, 높은 조약력에 의한 머리받기, 뛰여난 공몰기기술은 그야말로 매력적이였다. 로마놉스끼책임

감독은 순간속도와 조약력을 더욱 높여주기 위한 훈련수단을 찾아내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참고서적들을 읽었고 기자재들을 만들어 훈련에 받아들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축구종합팀을 월드컵무대에 진출시키는것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

1997년 21살난 쉡첸꼬는 우크라이나축구종합팀의 중앙공격수로 1998년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 지역별예선경기마당에 나섰다.

키 183㎝, 몸질량 73㎏의 체격을 가진 쉡첸꼬는 4－4－2경기대형의 최종공격선에서 활약하였다.

우크라이나축구종합팀은 지역별예선경기에서 흐르바쯔까축구종합팀과 맞다들었다.

전반전 경기시간 8분경 쉡첸꼬는 놀라운 순간속도로 흐르바쯔까팀의 최종방어선을 예리한 공격으로 돌파한 다음 득점하였는데 아쉽게도 공격어김으로 선언되였다. 전반전은 무승부로 끝나고 후반전 경기시간 23분경에 실점을 당함으로써 우크라이나팀은 월드컵본선경기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였다.

독립한 후 혼란속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잃은 우크라이나는 지역별예선을 돌파할 능력이 없었던것이였다. 책임감독 로마놉스끼는 월드컵에 가까이 가려면 인내성있게 젊은 선수들을 키우며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책임감독의 꾸준한 노력속에 쉡첸꼬는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에서 득점명수로 자라나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우크라이나 1부류축구련맹전에서 련속 우승하도록 팀을 이끌었으며 1996년과 1998년, 1999년에 진행된 국내컵경기들에서 우승컵을 쟁취하였다.

특히 1998－1999년도 경기계절에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팀은 유럽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 참가하여 본선경기에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쉡첸꼬는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팀에서 117번의 경기

에 참가하여 60개의 꼴을 넣었다. 나이에 비해 놀라운 기록을 창조한 쉡첸꼬의 이름은 인차 유럽의 이름있는 축구구락부들의 주목을 끌게 되였다. 에스빠냐의 바르쎌로나, 레알 마드리드축구구락부와 이딸리아의 AC밀라노축구구락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AC밀라노축구구락부 회장인 베를루스꼬니는 쉡첸꼬를 자기네 구락부에 와서 《득점왕》으로 소문난 네데를란드 아약스축구구락부의 반 바스텐의 뒤를 이을 후임자로 인정하였다.

결국 그들은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이적금을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에 내고 23살난 우크라이나 공격수를 사갔다. 물론 쉡첸꼬의 년봉급도 적지 않은 액수로 계약되였다.

책임감독 로마놉스끼는 이딸리아의 AC밀라노축구구락부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있던 쉡첸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

☆ 일 화 ☆

두개의 수표

가나팀과의 경기를 3: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통쾌하게 장식하고 경기장을 나서는 로날도선수에게 축구애호가들이 앞을 다투어 수첩장들을 내밀었다.

《수표를 해주시오.》

《기념수표를 부탁합니다.》

로날도는 기꺼이 웃으며 수표들을 해주었다. 원래 그는 언제나 밝은 웃음을 지으며 축구애호가들의 요구를 친절히 들어주는 성품을 지니고있었는데 그런 때에는 의례히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나는 때때로 이름난 축구명수들이 기념수표를 해줄것을 요구하는 애호가들의 청을 거절하는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군 한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요구대로 기념수표를 해줄 용의가 있다.》

로날도의 기념수표를 받아든 축구애호가들은 진귀한 기념품을 받은듯 득의만면하여 기뻐들 했다. 그러다가 문득 수첩장을 들

쉡첸꼬는 반갑게 맞아주는 책임감독의 안해에게 밝은 웃음을 담고 인사를 했다. 언제나 훈련과 경기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가도 책임감독의 집에 올 때면 마치 부모님들이 계시는 자기 집으로 들어서는것 같은 쉡첸꼬였다.

쉡첸꼬를 멀리 이딸리아로 보내야 하는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의 속마음그대로 식탁에는 정성들인 음식들과 빵 그리고 광천수, 사이다, 오렌지단물이 주런이 놓여있었다.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둘러보던 쉡첸꼬가 책임감독을 바라보며 청하였다.

《감독선생님! 우크라이나포도주가 없습니까?》

《뭐, 우크라이나포도주?… 자네 술을 마시자구 그러나?》

《아닙니다. 제가 책임감독선생님에게 한잔 붓자구 그럽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여다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묻군 했다. 그것은 수첩장에 두개의 수표가 있었기때문이였다.

《나는 당신의 수표를 요구했는데 또다른 수표는 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하나의 이름은 당신의 애인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사실 수표 하나는 로날도를 키워준 첫 훈련감독 리베로의 이름이였다. 로날도의 축구재능의 싹을 발견한것도 리베로감독이였으며 세계적인 축구명수로 키워준 감독도 바로 그였다.

2년간의 훈련과정을 거쳐 그가 종합팀선수로 될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젠 내가 너에게 더 배워줄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직업팀에 보낸 첫 스승이며 감독이였다. 하여 그는 수표를 요구하는 축구애호가들의 수첩에 자기의 이름과 함께 옛 훈련감독의 이름도 덧새기게 된것이다.

로날도가 국가종합팀에 들어가 축구명수로 이름을 날리고있을 때 그를 키워준 리베로감독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스승을 그려보며 애호가들의 물음에 서슴없이 대답했다.

《그렇소! 이건 나의 아버지이름이요!》

쉡첸꼬의 웅심깊은 말이 마음을 흔들어놓았는지 책임감독은 안해에게 포도주를 들여오라고 청했다. 멀리 떠나가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주는것이 끼예브사람들의 풍습처럼 되여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안해는 이미 포도주를 준비해두었었다.

포도주병을 받아든 쉡첸꼬는 책임감독의 고뿌에 포도주를 부은 후 자기 잔에 광천수를 듬뿍 쏟았다.

《전 술담배는 체육선수들에게 백해무익하다고 한 책임감독선생님의 충고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책임감독은 기쁜김에 단번에 포도주고뿌를 비웠다.

《자네는 훌륭한 세계적인 축구명수가 될거네. 축구도 잘하고 도덕도 밝은 인간으로 되여야 하네. 끼예브지나모축구구락부가 받은 이적금은 우크라이나의 축구실력을 더 높이 쌓아줄거네.》

《책임감독선생님, 저는 그 어디에 가도 우크라이나의 축구발전을 위해 힘껏 기술을 련마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야지. 바로 내가 그것을 바라고있네. 조국—우크라이나를 잊지 말구…》

가장 아끼던 축구제자를 멀리 떠나보내는 서운한 마음이 치밀어 로마놉스끼책임감독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이렇게 되여 쉡첸꼬는 1999년 6월 유럽의 남부, 지중해연안의 아뻬닌반도에 자리잡고있는 이딸리아의 북부내륙지방도시 밀라노로 떠났다.

쉡첸꼬는 우선 이딸리아어학습을 자습으로 시작하였다. 단어카드를 만들어 체육복의 오른쪽주머니에 넣고 한장한장 암송한 다음 왼쪽주머니에 옮겨놓군 하면서…

한달후부터 AC밀라노팀에 속하여 이딸리아 A급축구련맹전 경기들에 참가하면서 오른발차기와 왼발차기는 물론 11m벌차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꼴을 넣군 하였다.

23살의 쉡첸꼬는 이딸리아 A급축구련맹전에 참가하여 1년만에 《득점왕》으로 되였다. 그는 공몰기기술이 뛰여날뿐아니라 순간속도가 빠르고 차넣기가 정확하며 위력하였다. 그의 극적인 차넣기동작앞에서는 누구든 머리가 핑 돌 정도였다.

쉡첸꼬는 이 련맹전에서 자기가 넣은 25개의 꼴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비록 AC밀라노팀이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또 나자신은 이딸리아A급축구련맹전의 최고득점수로 되였지만 우크라이나축구종합팀은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본선경기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것은 내가 제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것이다.

나는 이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쉡첸꼬는 AC밀라노축구구락부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방어가 강하다고 하는 A급축구련맹전에서 2차례나 《득점왕》이 되였으며 2004년에는 축구계의 최고상에 속하는 유럽최우수선수상을 수여받았다.

몸은 비록 이역에 있어도 그는 언제나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살았다. 나서자란 우크라이나를 잊지 못하며 그는 가능한 모든것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쉡첸꼬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끼예브고아원운영사업도 후원하고있다.

끼예브고아원은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후 부모잃은 고아들을 키우기 위하여 국가가 아담한 곳에 세운것이다.

그런데 이전 쏘련에서 혁명의 붉은기가 내려지고 독립을 선포한 우크라이나가 《개혁》, 《개방》의 동란에 휘말려들면서 나라도 《리혼》, 가정도 리혼에로 이어지고 끼예브고아원은 고아들로 차고넘치게 되였다. 정치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혼란에 빠진 우크라이나는 고아원들에 충분한 국가적혜택을 줄수 없었다.

해외생활에서의 첫 휴가기간에 고향 끼예브로 온 쉡첸꼬는 부모없는 아이들의 비참한 실태를 어머니에게서 듣고 아이들에게 줄 기념품들을 가지고 고아원에 찾아가 축구경기를 조직하군 하였다.

쉡첸꼬가 끼예브고아원으로 오는 날이면 모든 고아들이 정문까지 달려나와 마중했다. 1년에 한번씩 고향 끼예브에서의 고아들과의 상봉은 쉡첸꼬의 기쁨으로, 보람으로 되였다.

끼예브고아원에서의 운동회는 항상 축구경기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되여 우크라이나축구종합팀 주장이며 세계적인 공격수인 쉡첸꼬가 주심을 서는 축구경기가 매해 이곳에서 진행되군 하였다.

《새로운 뻴레》-로날디뇨

웃음은 나의 본성이다.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를 매일 하는것으로 하여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따라서 나는 웃기를 좋아한다.

기쁠 때 웃는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겠는가.

경기때나 훈련때나 그걸 탓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로날디뇨—

《축구의 나라》, 《축구왕국》으로 불리우는 브라질은 이름난 축구명수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제일먼저 꼽게 되는 축구명수로는 뻴레이며 다음으로는 우주인이라고 부르는 로날도이다. 그런데 또 한명의 로날도라는 축구명수가 나타났으니 그의 이름을 《작은 로날도》라는 의미에서 로날디뇨라고 고쳐 부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로날디뇨는 브라질의 남부 리오그란더두슬드주의 소재지 뽀르또알레그리시로부터 대서양기슭의 아쇄크리항을 거슬러내려가 자리잡고있는 빈민촌 와로하라에서 1980년 3월 21일 아버지 죠안 루오오와 어머니 마가리나의 둘째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부모들은 맏아들의 이름을 아시스로, 8년후에 태여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다라고 불렀다. 축구에 무척 흥미를 가지고 자라나는 두 아들이 끌끌한 소년으로 되였을 때 아버지는 두 아들의 이름을 로베르와 로날도로 고쳐지었다.

후날 둘째아들 로날도가 19살때 국가종합팀에 망라된 후 같은 팀안에 두명의 로날도가 있게 되면서부터 《우주인》 로날도와 구별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까오쵸》로날도라고 부르게 되였다.

《까오쵸》라는 말은 아르헨띠나의 력사에서 보면 토착유목민이라는 뜻이다. 로날디뇨가 태여난 고장이 《까오쵸》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천대와 멸시속에서 브라질의 동남부 유색인들이 살고있는 빈민촌을 《까오쵸》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후 《까오쵸》로날도라고 부르는것을 유색인종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면서 사람들은 두 로날도를 구별하기 위하여 큰 로날도를 로날도로, 작은 로날도를 로날디뇨라고 부르게 되였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뇨》는 작다는 뜻인데 이것이 로날디뇨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근거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어쨌든 로날디뇨가 축구를 하지 않았다면, 축구명수로 이름을 날리지 않았더라면 이름이 달라지지 않았을것이다.

아버지의 꿈

로날디뇨가 태여날 당시 아버지 루오오는 그레미오축구구락부의 주차장 관리원으로 일하고있었다. 루오오는 어려서부터 축구세계에 뛰여들어 아마츄어축구선수로, 직업팀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뻴레와 같은 축구명수로 되려는 꿈을 지녔던 사람이였다.

그러나 자기의 재간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꿈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인정하고 방향전환을 한 후 자기의 두 아들을 새로운 뻴레로 키우기 위하여 그들이 축구의 길을 걷게 하였다.

하여 맏아들 로베르는 자기가 주차장 관리원으로 일하는 그레미오축구구락부에 넣어 중간방어수로 두각을 나타내게 하였으며

작은아들 로날디뇨는 6살때에 그레미오축구구락부의 소년부에서 실내축구를 시작하게 하였다.

자기의 어린시절을 추억하면서 로날디뇨는 후날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때 나는 짬만 있으면 경기장에 나가 축구경기를 구경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일종의 행복이였다. 바로 그때 정규적인 축구가 어떤것인가를 알게 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6살에 구락부에 들어갔지만 실내축구훈련에서 로날디뇨의 재치성과 속도는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였다.

그때 벌써 로날디뇨는 여러가지 기록을 세웠는데 그 기록들중의 하나가 어느 한 실내축구경기에서 23개의 꼴을 넣은것이였다.

그후 그는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는데 이것 역시 가장 어린 나이에 기자회견을 받은 축구선수라는 기록을 남기였다.

6살 잡힌 소년축구선수가 한경기에서 23개의 꼴을 넣은 희한한 사실을 신문, 통신, 방송기자들은 그저 스쳐보내지 않았다.

이 경기를 직접 본 아버지 루오오의 기쁨은 비할바없이 컸다.

벙글벙글 웃으며 집에 돌아온 루오오는 안해에게 오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저녁에 축하연회상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 붉은 노을도 사라지고 별들만이 반짝이는 늦은저녁에 두 아들과 아버지 루오오와 어머니 마가리나가 소박한 흑인가정의 축하연회상에 마주앉았다. 이것은 이 집안에 일찌기 없었던 일이였다.

《아다, 23개의 꼴을 넣은것을 축하한다.》

아버지의 축하인사가 끝나기 바쁘게 어머니가 코카콜라를 둘째아들에게 부어주었다.

그리고는 맏아들에게도 코카콜라를 가득 채워주었다. 그러자 천성적으로 웃기를 좋아하는 로날디뇨가 웃으며 일어서더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코카콜라를 붓고 축하잔을 마주 찧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마와요.》

인종차별과 멸시가 뒤따르는 가난속에서도 순간이나마 흑인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흘렀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행복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로날디뇨가 8살이 갓 되였을 때 뜻밖에도 수영장에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그로 하여 와로하라의 빈민촌 《까오쵸》일가에는 큰 불행이 닥쳐왔다.

세계적인 축구명수육성공정의 첫 씨앗을 뿌려 이제 겨우 싹이 트기 시작하였으나 집안에 들이닥친 이 불행으로 하여 두 아들의 축구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끼게 되였다.

아버지의 령구를 발인하는 날 어머니 마가리나는 목놓아울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로날디뇨는 그날 아버지의 봉분앞에 엎드려 방울방울 눈물을 떨구며 큰소리로 맹세를 다졌다.

《아버지, 나는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여 반드시 국가팀에 들어가겠어요.》

형 로베르는 동생이 심리적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걸머졌던 책임을 자기가 지기로 결심하였다.

직업선수의 길을 걷고있던 로베르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자기의 뜻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어머니와 동생의 바래움을 받으며 고향을 떠나 유럽으로 갔다. 그는 스위스, 뽀르뚜갈, 일본, 메히꼬 등 여러 나라의 축구구락부들에서 직업축구선수생활을 하면서 받은 계약금으로 동생에게 자그마한 잔디밭이 달린 한채의 단층집을 사주었다. 이 잔디밭은 어린 로날디뇨의 축구경기장으로 되였다. 로날디뇨와 그의 꼬마축구친구들이 이곳에서 날마다 축구를 했다.

애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면 로날디뇨는 황혼이 깃든 저녁노을을 등불삼아 《지간떼》라고 부르는 동작이 날랜 개와 함께 매일 빼몰기를 했다. 《지간떼》가 공을 물기만 하면 공이 터지기때문에 로날디뇨는 개보다 날쌔게 공다루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계적인 축구명수들이 많아도 로날디뇨처럼 어린 나이에 개까지 대상으로 하여 자기의 축구기술을 련마한 선수는 없을것이다.

바로 형이 마련해준 집앞의 잔디밭에서 로날디뇨는 민첩성과 공련락, 공다루기, 빼몰기기술 등 특기동작들을 련마하고 자기의 몸에 푹 배게 하였다.

특히 《샤떼우》라고 불리우는 《모자동작》이 여기서 익혀지게 되였다.

《모자동작》은 원래 뻴레의 특기인데 상대편에게 마치 모자를 씌워주는것 같다고 하여 《샤떼우》라고 알려졌다.

어린 마음에도 《축구왕》 뻴레의 특기동작에 매혹된 로날디뇨는 자기의 축구친구로 삼은 개 《지간떼》와 함께 련마하여 끝

○ 상 식 ○

축구경기에서 이길수 있는 5대비결

• 적절한 휴식

축구경기는 오랜 시간 상대팀과의 정신, 육체, 기술 및 전술적 대결의 대항성경기종목으로서 경기과정에 선수들은 많은 에네르기를 소비한다. 축구선수가 한 경기에서 달리는 거리는 중간방어수는 13㎞, 공격수와 익측방어수는 10.9㎞, 중앙방어수는 10㎞, 문지기는 최고 5㎞이다. 선수들은 달리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돌입과 머리받기, 던지기와 조약 등 1 000여가지의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90s에 한번씩 돌입하고 2분사이에 3s간 휴식할수 있다. 달리는 과정에 2%의 시간에 한해서만 공과 접촉하게 된다.

결국 축구는 달리는 운동이라고 말할수 있다.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환경의 요구에 맞게 휴식을 적절하게 할줄 알아야 한다.

• 합리적인 대형선택

대형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공장악과 득점에 유리한것이다.

높은급선수들의 한 경기에서의 팀의 련락회수는 650회이상에 이르고있다. 경기대형가운데서 4—4—2체계가 공장악에 가장 유리한데 이 대형으로 66개의 공자리길을 만들수 있다. 4—5—1대형으로는 62개, 4—3—3은 56개, 4—2—4는 54개의 자리길을 만든다.

공을 공격마당으로 련락해보내는 비률의 순위는 4—2—4(15%), 4—3—3(13%), 4—4—2(12%), 4—5—1(8%)대형이다. 따라서 4—4—2대형이 공격과 방어에 유리하므로 가장 리상적이다.

내 《샤떼우》동작을 완성시키였다.

하여 로날디뇨는 1995년 15살에 벌써 국가소년축구팀 선수로 선발되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을뿐아니라 17살되는 1997년에는 17살미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처음으로 브라질청소년국가종합팀의 황록색경기복을 입게 되였다.

아버지가 바라던 꿈이 드디여 그에게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 적당한 흥분과 심리전

축구는 승부를 겨루는 접촉성대항경기종목이므로 높은 정신적긴장을 요구한다. 과흥분은 과긴장을 초래하게 되며 기술, 전술적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없을뿐아니라 필요이상의 에네르기를 소모하게 한다. 따라서 선수들은 경기능력을 높일수 있는 고상한 정신력과 함께 자제력과 성실성, 인내력으로 심리전에 림해야 한다.

- 중요한 득점수단으로서의 벌차기

벌차기는 중요한 득점수단으로 된다. 벌차기에서의 기본은 공의 회전이다. 프랑스의 앙리선수의 벌차기공은 수직축을 중심으로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잉글랜드의 벡캄의 벌차기공은 우로 회전한다. 이렇게 회전하는 공은 아래로 휘여들기때문에 문지기가 막아내기 힘들다. 리상적인 벌차기공의 비행속도는 100㎞/h, 회전속도는 5～10회/s, 발끝을 쳐든 각도는 16～17°이다. 벌차기공의 비행속도와 회전속도는 발이 공과 접촉하는 순간에 결정된다. 선수들이 장벽을 쌓고있기때문에 문지기는 0.4s후에야 공을 볼수 있다.

문지기의 뇌수는 빨라서 0.2s안에 판단할수 있으므로 남은 0.2s동안에 뻗는 동작을 해야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짧다.

- 11m벌차기의 묘리

경기과정에 얻어지는 11m벌차기의 득점률은 80%이며 승부를 가르기 위한 11m벌차기의 득점률은 75%이다. 그것은 문지기가 아무리 뛰여나도 항상 공을 막아내기 힘든 구역이 28% 존재하기때문이다. 11m벌차기를 할 때 공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아도 된다. 100㎞/h정도의 속도이면 0.4s후 공이 그물에 걸리게 되는데 이 시간이면 문지기가 뻗기동작을 완전히 수행할수 없기때문이다.

특별상금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긴 소원을 실현하기 시작한것으로 하여 17살의 로날디뇨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얼마 지난 뒤 로날디뇨가 속한 브라질청소년팀은 잉글랜드청소년팀과의 첫 친선경기를 하러 떠나게 되였다.

난생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을 떠나게 된 로날디뇨의 마음은 고무풍선마냥 둥둥 떠오르는것 같았다.

비행기의 창밖에 펼쳐지는 희한한 세계, 어렸을 때 물안경을 쓰고 아쇄크리항구의 푸른 바다속을 자맥질하여 헤엄쳐가던것 같이 우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온통 푸른색뿐이였다.

뭉게뭉게 구름덩어리들이 지나가고 넓고넓은 바다, 대서양이 해빛을 받아 명멸했다.

잉글랜드의 웸블리경기장에서 브라질과 잉글랜드의 청소년축구선수들은 아직은 나이로 보아 미흡한 점들이 있기는 했지만 즉흥적인 판단과 결심, 승리에 대한 확신속에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로날디뇨는 공에 대한 감각이 누구보다 세분화되여 제때에 정확히 공멈추기를 했고 몰기, 련락, 차넣기가 세계적인 명수들 못지 않은것으로 하여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경기에서 로날디뇨의 공다루기는 마치 요술사와 같았다. 상대방 방어수들은 그의 속임동작에 넘어가 곧잘 곤경에 빠지군 하였다. 결국 그의 예측불가능한 득점련락이 브라질청소년팀의 승리를 안아왔다. 잉글랜드에서 돌아온 브라질청소년축구팀은 남아메리카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선수권을 쟁취하고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아프리카의 동북단 지중해연안에 자리잡고있는 에짚트에서 진행되는 제7차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브라질청소년축구팀은 까히라의 국제비행장에 도착하였다.

로날디뇨는 이 경기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브라질팀은 조별예선경기로부터 준결승경기까지 19개의 득점과 1개의 실점으로 가나팀과의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가나청소년축구선수들은 주력이 좋고 완강하였지만 브라질팀에 1:2로 패하고말았다.

로날디뇨와 그의 어린 축구친구들은 드디여 우승의 시상대에 올랐다.

이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로날디뇨는 특별히 두각을 나타냈으며 9개의 득점을 하여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이것은 로날디뇨의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첫 섬광이였으며 새로운 소년축구명수의 탄생이였다. 세계의 출판보도물들에서는 로날디뇨를 브라질의 축구기계로 널리 소개하였다.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돌아온 후 로날디뇨는 다시 실내축구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것은 아마츄어축구선수와 직업축구선수간의 공백기간이기도 하였다. 좁은 실내축구경기장에서 로날디뇨의 축구기교는 요술사와 같아 많은 관람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1998년에 들어서면서 로날디뇨는 아버지 루오오와 인연이 깊었고 또 형 로베르가 이름을 떨쳤던 그레미오축구구락부와 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쉽게 락착되지 않았다.

이미 로날디뇨의 기교를 알고있는데다가 실내축구장에서 또다시 축구기술을 보고난 축구감독은 그의 뛰여난 공다루기에 반하여 직접 선발하였지만 책임자는 말을 듣지 않았다.

《난 로날디뇨의 체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요. 몸이 너무 여위고 약하니 직업축구선수로서는 전망이 보이지 않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받은 최우수선수상에 대해서도 그

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하는 경기와 직업선수들의 경기가 다르지 않소. 힘이 없이야 이제 곧 있게 될 1부류련맹전에 어떻게 참가시킬수 있겠소. 답답하구만. 힘을 키우자면 아직도 더 있어야 하겠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생각이나 해봤소?》

언제나 돈타산을 앞세우는 구락부책임자의 심보를 모를리 없지만 감독은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 들이댔다.

《로날디뇨를 지금 유럽의 AC밀라노, 바르쎌로나, 레알 마드리드축구구락부의 경험많은 선발감독들이 눈독을 들이고있는데 그를 놓쳤다고 후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날디뇨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한알의 금강석과 같습니다.》

결국 감독의 주장대로 구락부책임자는 로날디뇨를 1년간의 계약으로 그레미오축구구락부의 직업선수로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감독의 말대로 로날디뇨는 1998년 1부류팀경기계절에 자기의 독특한 능력과 경기의식을 뛰여나게 발휘하여 그레미오축구구락부팀의 주력선수로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로날디뇨는 아쇄크리항구도시의 그레미오축구구락부팀과 아떼르축구구락부팀의 대결이라 할수 있는 브라질1부류축구련맹전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이것은 브라질의 남부 리오그란더두슬드주련맹전 결승경기이기도 하였다.

상대편의 핵심선수는 로장선수 둥가였다. 그는 1994년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브라질국가축구종합팀의 주장이였다.

하여 이 경기는 실제적으로 한명의 유명한 로장선수와 한명의 젊은 명수의 대결로 되였는데 로날디뇨는 이 경기에서 독특한 《모자동작》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직업축구선수로서의 첫 경기계절기간 로날디뇨는 5차례의 경기에 출전하여 한개의 득점도 하지 못했지만 리득은 대단히 컸다.

우선 많은것을 배웠고 높은급경기에 적응하면서도 전심전력하기

위한 기초를 닦을수 있었다. 그는 사납게 달려드는 상대편 방어수와 맞다들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배웠고 직업축구선수로서의 심리적기질을 하나하나 갖추어나갔다. 그리고 청소년경기에서는 체험하지 못한 자기 보호법을 체득하였으며 경기담을 키우게 되였다. 참으로 이 기간은 로날디뇨에게 높은급축구경기에 도전할수 있는 육체, 기술, 전술, 심리적준비 즉 직업축구선수로서의 기초를 닦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로날디뇨보다 8살우인 그의 형 로베르는 자기의 동생에 대하여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그는 앞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선수로 될것이다.》라고 말하군 하였다.

과연 얼마후 로날디뇨는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마치도 요술사처럼 선수들을 가볍게 물리치군 하였다.

1999년 브라질국내축구련맹전에서 로날디뇨는 15개의 꼴을 넣어 직업축구선수로서 첫 우승을 안아왔다. 그의 세련된 기술 특히 속도적인 빼몰기와 기동, 차넣기는 위력하고 매력적이였다. 외국의 축구구락부들에서 또다시 로날디뇨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일이 이렇게 번져가니 그레미오축구구락부 책임자는 이번에는 서둘러 로날디뇨를 잡아가두기 위한 막후공작을 벌리지 않을수 없었다.

축구감독을 또다시 호출한 구락부책임자는 1년간 맺은 로날디뇨의 계약을 3년으로 연장시킬데 대한 막후공작과업을 주었다. 물론 적지 않은 보수를 약속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축구감독은 구락부책임자가 강조한 막후공작과업을 어떻게 수행할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로날디뇨의 집을 찾았다.

로날디뇨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의 축구일과대로 자기 집의 작은 잔디밭에서 공다루기개별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로날디뇨의 요술사와 같은 공다루기기교를 멀리에서 바라보며 감독은 자기도모르게 감탄하였다.

로날디뇨의 축구기술기교는 대단한것이였다. 그는 일반명수들의 수준을 훨씬 릉가하는 능력을 가지고있었다. 이제 근육도 늘

어나고 육체가 안받침되면 요술사처럼 정말 사람들을 놀래울것이였다.

왼발에 몸질량중심을 두고 오른쪽발등으로 공을 련속 몰다가 한발을 크게 내디디며 공으로부터의 거리를 10～15㎝ 두는데 마치 발이 공에 붙어있는것 같았다.

발뒤축련락, 가슴련락, 잔등으로 공멈추기, 머리와 눈은 반대로 향하고 공을 관할하는 훈련모습을 감독은 처음 보았다.

장애물과 1～2m거리를 두고 180° 혹은 360° 돌면서 갑자기 공을 정지시켰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동작은 쌈바춤의 조약률동에 맞추어 춤을 추는듯 하였다.

(이 작은 잔디발에서 《축구예술가》가 자라고있구나!)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면서 그레미오축구구락부의 감독은 쇠그물로 만든 울타리에 다가서며 로날디뇨를 찾았다.

로날디뇨는 유별나게 튀여나온 새하얀 두대의 앞이를 드러내며 반가와했다. 대문을 열어준 그는 머리에 동였던 검은 수건을 풀어 흘러내리는 땀줄기를 씻었다.

《로날디뇨, 오늘은 휴식일인데도 훈련을 하나?》

《감독선생님, 이건 어릴 때부터 습관된 하루일과입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간절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로날디뇨는 저 멀리 하늘가를 붉게 물들이고있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그리는듯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윽고 로날디뇨의 집안으로 들어간 감독은 장식장에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프랑스축구팀의 10번 경기복장을 보고 물었다.

《어떻게 프랑스 쌩쉐르맹팀의 경기복이 저 장식장에 자리잡게 되였나?》

《우리 형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겁니다.》

1994년에 형 로베르가 프랑스의 쌩쉐르맹팀과 친선축구경기를 하였는데 전후반경기가 끝난 후 두 팀선수들은 기념으로 경기복을 서로 교환하였다. 형은 그 경기복을 동생에게 준것이였다.

《감독님, 전 형의 권고도 있구 해서 앞으로 프랑스에서도 강팀

의 하나인 쌩줴르맹축구구락부를 목표로 삼고있습니다.》
로날디뇨의 말을 듣는 순간 감독은 온몸에 찌르르 전기가 통하는듯 하여 와뜰 놀랐다.
(로날디뇨는 이미전에 프랑스로 갈 꿈을 키워왔구나.
우리의 공작이 과연 성공할수 있을가. …)
《로날디뇨, 높은 목표는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는 지향으로 되네. 그러나 축구선수는 욕망만으로는 높은 목표에 도달할수 없는거야.
든든한 기초가 없으면 높은 집을 지을수 없는것처럼 축구선수는 기초를 잘 닦아야 세계적인 〈축구의 별〉로 빛을 뿌릴수 있는 거야.
유럽에 지나치게 일찍 가는것은 앞으로의 발전에 좋지 않아. 〈축구왕국〉으로 소문난 브라질의 련맹전에서 경기를 많이 하여 기초가 든든히 다져진 다음에 유럽으로 가도 늦지 않단 말이야.》
자기 팀 감독의 설득력있는 설복이 납득이 가는지 로날디뇨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그러자 감독은 실례를 들어 설복을 계속했다.
《자네의 형 로베르는 한때 브라질축구의 희망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유럽으로 가다보니 한번도 국가종합팀 선수로 되지 못했거든. 그래서 인차 귀국하여 플라맹고축구구락부에서 선수생활을 하지 않았나.》
감독이 마치 친아버지처럼 일깨워주는 말을 부엌에서 엿듣고있던 어머니 마가리나는 포도주를 한병 들고 들어서며 끼여들었다.
《애야, 감독선생님이 네가 잘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씀이니 명심해 들어야 한다. 언제나 성공은 말처럼 쉽지 않느니라.》
결국 감독의 막후교섭담판은 성공할수 있게 되였다.
3년동안의 계약연장약속은 이렇게 성사되였다.
식사를 끝낸 감독은 돈봉투를 꺼내서 식탁우에 내놓았다.
《이건 우리 구락부에서 이번 경기대회에서 맹활약을 한 로날디

뇨에게 주는 〈특별상금〉입니다. 이제 곧 3년분계약금도 받게 됩니다.》

며칠 지나 로날디뇨는 그레미오축구구락부의 권고대로 3년간의 새 계약을 맺었다. 구락부책임자는 앞으로 로날디뇨가 유럽으로 축구활동무대를 옮길 때 차례질 막대한 리득금을 타산하였던것이다.

훈련 또 훈련

1995년과 1997년에 소년팀과 청소년팀 국가종합팀 선수로 선발되였던 로날디뇨는 19살나던 1999년에는 브라질국가축구종합팀 선수로 선발되였다.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꿈이였던가.

생각보다 일찌기 이날이 온것 같았다.

☆ 일 화 ☆

왕이 아니라 축구선수로

나이제리아의 라고스시가까이에는 먼 옛날부터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있는 이다부족이 있다. 이 종족의 왕인 투다이는 8명의 자식을 거느리고있었는데 그중 제일 촉기가 빠르고 건강하며 똑똑해보이는 페터 투파이를 왕위계승자로 점찍어놓고있었다. 그런데 그는 왕위계승에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오직 축구에만 열중하였다. 그의 행동은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고 걱정만 더해주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페터는 벨지끄에서 류학을 마친 후 곧 직업축구세계에 뛰여들었다. 그는 1994년과 1998년 월드컵경기대회 본선경기에서 문지기로 활약하였으며 그후 뽀르뚜갈의

브라질국가종합팀에 망라된 로날디뇨가 맞다든 첫 경기는 리뜨바국가종합팀과의 경기였다.

로날디뇨는 이 경기에 전통적인 브라질국가종합팀의 황록색축구경기복을 입고 출전하였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흥분으로 설레였다.

이 친선경기에서 브라질축구종합팀은 리뜨바축구종합팀을 3:0으로 이겼다.

로날디뇨는 이 경기에서 비록 꼴을 넣지 못했지만 뛰여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보기 드문 활약형 선수였다.

당시 브라질국가종합팀에는 세계급명수들의 집단으로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명수인 《우주인》로날도가 있었고 이밖에도 리발도, 까를로스, 까투와 같은 명수들이 있었다.

며칠후 남아메리카축구선수권대회가 브라질의 남서부와 국경을 접하고있는 빠라과이에서 개막되였다.

비젠떼축구구락부와 에스빠냐의 라꼬루냐축구구락부에서 선수생활을 하였다. 유럽에서 다년간 축구선수생활을 해오고있는 그가 왕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맡을 준비도 함께 하고있는지 그의 아버지는 근심이 큰산같았다. 왕의 우려는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그는 왕자로 될 생각은 꼬물만큼도 하지 않았다.

《페하》라고 불리우는것을 좋아하지 않는 페터는 현재 에스빠냐에 정착하여 거기에 문지기학교를 세우고 에스빠냐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구락부에서 훈련할 6～20살까지의 문지기후비들을 선발하고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이 보람차고 즐겁기때문에 나의 온넋과 정력을 쏟아붓는다.》

이것이 바로 그의 리상이였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도 더 늦기 전에 왕좌에 앉힐 새 왕자를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브라질축구팀은 빠라나강의 유명한 아따이브수력발전소가까이에 있는 자기 나라 땅에서 숙박하면서 훈련하고 국경선을 넘어가 경기를 진행하였다.

6월 30일, 남아메리카축구선수권대회에서 브라질팀은 첫 경기를 베네수엘라팀과 하게 되였다.

이 경기대회에서 브라질팀은 1년전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 결승경기에서 프랑스팀에게 0:3으로 참패한 일을 씻어버리려는듯 산에서 내려온 맹호처럼 사납게 경기를 운영하여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후반전 도중에 교대해 들어간 로날디뇨의 독특한 속도와 재치성 그리고 날카로운 공격진출은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4:0으로 앞선 상태에서 로날디뇨는 두명의 베네수엘라방어수들을 빼돌리고 문지기와 1:1로 맞서 차넣기각도가 거의 없는 조건에서 여유작작하게 차넣기를 하여 득점하였다.

경기장의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 요술과 같은 이 꼴을 뻴레식 득점이라고 감탄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 경기를 TV로 시청한 축구애호가들은 한결같이 브라질에 새 축구명수가 나타났다고 인정하였다.

이 득점이 이루어지자 로날디뇨는 무릎을 꿇고 한참이나 푸른 하늘에 눈빛을 주었다.

브라질의 출판보도물들은 《아마도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찾는듯 했으며 이 득점을 아버지에게 올렸을뿐아니라 아버지 루오오의 예언이 드디여 현실로 되였음을 알린것이였으리라.》고 서술했다. 이 득점은 로날디뇨가 국가종합팀에서 넣은 첫 득점이였다.

브라질축구애호가들은 자기 나라의 유람지인 이와스폭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빠라과이의 국경을 넘어와 응원열을 올렸다.

로날디뇨가 출전하여 독특한 축구기교를 보여줄 때마다 브라질축구애호가들은 폭발적으로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2단계 조별련맹전에서 브라질팀과 메히꼬팀은 1:1로 비긴 상태에서 전반전을 끝냈다.

후반전이 시작되여 25분경에 교대하여 들어간 로날디뇨는 멋

지고 귀중한 경기승리꼴을 넣어 브라질축구애호가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이틀후 브라질축구종합팀 책임감독은 칠레축구종합팀과의 경기에서도 중간휴식시간에 로날디뇨를 들여보냈다.

안개가 짙게 낀 경기장에 빼곡이 앉아 경기를 관람하는 축구애호가들은 마치 구름속에서 꽃구경을 하는것처럼 흥분되였다.

축구공은 발아래에서만 겨우 볼수 있었으나 로날디뇨는 마술사처럼 공을 몰고 좋은 차넣기기회를 마련해주군 하였다.

그는 이제 첫싹을 보인 브라질의 애어린 선수였으나 이미 여러 경기를 하면서 경험을 쌓은 로장선수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준결승경기는 공교롭게도 또다시 메히꼬축구종합팀과 맞다들게 되였는데 로날디뇨는 처음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우주인》로날도대신에 전반전부터 출전하였다.

전반전 25분경에 로날디뇨는 멋있는 꼴을 넣었다.

이 경기는 두번째로 맞다든 경기였으므로 서로 전술적인 파악을 한 조건에서 상당히 치렬하게 벌어졌다.

경기결과는 2:1로서 브라질팀이 앞서고있었다.

이러한 경기정황에서 브라질팀은 방어를 중시하도록 전술적꾸밈을 바꾸고 로날디뇨의 임무도 변화시켰다.

하여 로날디뇨는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도 방어와 반공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다.

후반전마감을 알리는 주심의 호각소리가 길게 울렸다.

결국 경기는 2:1로 브라질팀이 앞섬으로써 비기기라도 하려던 메히꼬팀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브라질의 축구현지보도기자 씨쎄로 멜로는 《로날디뇨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유명한 브라질팀의 주도선수로 되였다.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크게 성장하고 성격도 강해졌다.

그는 경기장의 임의의 장소에 나타나 순간적으로 가장 좋은 경기활동을 한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경기활동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고 취재보도를 날렸다.

브라질축구종합팀은 남아메리카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쟁취했다. 로날디뇨의 얼굴에는 습관적인 미소가 어리였다.

큰 국제축구경기대회에서의 첫번째 우승은 그에게 승리의 미소를 짓게 하였다.

그 미소로 하여 그의 얼굴은 더욱 매력있었다.

브라질사람들은 로날디뇨가 이 대회의 첫 경기인 베네수엘라팀과의 경기에서 신묘한 득점을 한데 대하여 잊지 않았다.

그 득점은 1958년 스웨리예에서 진행된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17살나는 뻴레의 멋있는 득점과 견줄만한 훌륭한 득점인것으로 하여 브라질에 새로운 《축구의 별》이 나타났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남아메리카축구선수권대회에서 브라질축구종합팀이 선수권을 쟁취한 후 로날디뇨를 중심에 놓고 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이 기자회견에서 자기의 성장과정에 열쇠를 쥐여준것은 누구인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의 형입니다. 그의 충고가 나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은 나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형은 직업축구선수로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사태가 일어날수 있는가를 나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브라질의 거의 모든 선수가 다 그러한것처럼 나도 공과 함께 태여나 17살에 직업축구선수로 될 때까지 공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노력한 결과 이렇게 되였습니다.

브라질에는 우수한 축구선수들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직업축구선수희망자 100명이 있다면 그중에서 눈에 띄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직 훈련 또 훈련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6개의 득점을 하여 최고득점명수로 될수 있었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나는 방어수를 향하여 도전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활동은 거의 본능적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해온 덕택으로 맞다드는 정황이 거

의나 다 머리속에 있기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한것과 상상할수 있는 경기정황이 머리속에 있으므로 본능적으로 반응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태껏 한번도 해보지 못한 동작도 도전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보다 우수한 선수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어수가 달려들어도 어떻게 따돌리겠는가를 본능적으로 알수 있답니다.

바로 이런것들이 득점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청춘시절의 로날디뇨의 축구인생에는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없지 않았다.

2000년 제17차 시드니올림픽경기대회에서 축구경기에 큰 희망을 가지고 참가한 브라질축구팀은 순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경기에 참가했던 로날디뇨는 다시는 올림픽경기대회 축구경기에는 참가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시드니를 떠났다.

2001년 3월 로날디뇨는 아쇄크리항구도시를 떠나 산설고 물설은 프랑스의 빠리 쌩줴르맹축구구락부에 려장을 풀었으며 2002년 제17차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다섯번째로 브라질에 월드컵을 가져오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후 그는 에스빠냐의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에 들어가 팀의 전성기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 과정에 2004년에는 세계최우수축구선수로 련속 선정되였다.

하여 세계축구계에서는 《축구왕》이라고 하는 《축구천재》들이 20년에 한번씩 나타나는것 같다는 말까지 돌게 되였다.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뻴레는 1940년에, 마라도나는 1960년에, 로날디뇨는 1980년에 태여났던것이다.

《금강석》-끄리스띠아노 로날도

나의 진한 땀방울이 자기 명예와 보수만이 아니라 조국의 영예와 잇닿아있다는것을 나는 항상 가슴속에 안고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고향과 조국, 국민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씨앗은 나를 더 높은 목표에로 치달아오르게 하였다.

—끄리스띠아노 로날도—

책임감독 퍼가손은 로날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의 특징은 득점수로서의 높은 차넣기기술, 속도와 힘을 겸비한 빼몰기돌파능력, 창조적인 특기기술로 아기자기한 정황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공을 가지지 않았을 때보다 공을 가졌을 때에 더 빨리 달리는듯한감을 준다. 이것이 그의 최대의 무기이다.》

축구명수들가운데는 로날도라는 이름이 류달리 많아서 주의를 끈다. 앞에서 소개한 브라질의 로날디뇨는 어렸을 때에는 로날도라고 불렀지만 후에 명성이 높아지자 《작은 로날도》라는 뜻에서 이름을 《로날디뇨》로 고쳐 불리웠다. 뽀르뚜갈의 축구명수 끄리스띠아노 로날도 역시 브라질의 로날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간단히 《C. 로날도》라고 표기하고있다. 세상에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고많지만 같은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이름을 고치거나 복잡하게 표현하는 이것이야말로 축구의 매력과 인기를 평가하는 하나의 근거로 되지 않겠는가.

올리막길훈련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는 1985년 2월 5일 뽀르뚜갈 푼샬의 교외에서 4남매의 막내로 태여났다. 그의 출생지를 정확히 알려면 뽀르뚜갈의 지도를 펼쳐놓아야 한다.

뽀르뚜갈의 행정구역은 22개 도로 나누어져있는데 그중 4개의 도는 아조르군도와 마데이라군도 다시말하여 섬들로 되여있다.

본토로부터 서남쪽으로 980㎞ 떨어져 아프리카의 북서해안 대서양우에 떠있는 마데이라군도가 바로 뽀르뚜갈행정구역의 22번째 도이다. 마데이라군도의 중부에 있는 닭알모양의 마데이라섬에 인구 약 5만명이 사는 도소재지인 푼샬시가 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세상에 이름을 남긴 축구명수들중에서 섬에서 태여난 축구명수들을 꼽으라고 하면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와 이딸리아의 씨칠리아섬이 출생지인 축구명수 쌀바도레 쉴라치를 들수 있을것이다.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는 8살때 벌써 안도리냐체육구락부에 소속되여 정규적인 축구기술교육을 받았다. 그가 체육구락부에서 생활하게 된데는 흥미있는 사연이 있다.

첫걸음마를 뗀 때로부터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는 아버지가 일하는 안도리냐체육구락부에 매일 고개길을 오르면서 따라다녔다.

아버지는 당시 그 체육구락부의 체육기자재관리원이였다.

아버지의 출퇴근길을 따라 함께 다니며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의 올리막길훈련이 진행되였다. 이 훈련은 경사지의 아래에서

높은 곳으로 찬 공이 굴러내려오는것을 멈추었다가 다시 차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것이였다. 만일 굴러내려오는 공을 바로 잡지 못하면 그 공은 곧장 바다물에 떨어지군 하였다.

어느날 안도리냐체육구락부의 지도교원 페르난드 페르난데스가 언덕길을 톺아올라가는데 4～5살되는 어린애가 출렁이는 바다기슭을 바라보며 울고있었다.

《아저씨, 내 뽈이 바다에 굴러떨어졌어요. 좀 꺼내달라요.》

《아니, 죠제 다니스의 넷째로구나.》

《예, 그래요.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를 아나요?》

《암, 알구말구. 우리 구락부의 고지식한 기자재관리원을 마데이라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단다. 내 이제 뽈을 건져주지.》

○ 상 식 ○

축구경기승리의 6가지 요인

1. 매우 강한 팀

강한 팀이란 지단과 같은 1부류축구명수, 스꼴라리와 같은 우수한 감독, 피고와 같은 유익한 선수들로 꾸려진 팀을 말한다. 강한 팀에는 기술, 전술적으로 완전무결한 축구명수들이 있어야 한다. 뛰여나게 우수한 감독이 없이는 경기에서 승리할수 없다. 감독은 높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한 창조적사색과 실천적전개력, 확고한 주견, 배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강한 팀으로 되자면 전술적적응능력 그리고 명확한 축구철학이 필요하다.

2. 중간지대장악

현대축구에서는 중간지대장악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중간지대장악여부에 따라서 경기승패가 결정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간방어수들은 한 경기당 13～15㎞의 거리를 달리며 70～80회의 순간속도달리기를 하게 되는것이다.

잉글랜드의 만체스터 유나이티드팀과 에스빠냐의 레알 마드

지도교원은 바다기슭으로 내려가 옷을 벗고 헤염치면서 마치 수구공을 몰듯이 두손으로 엇바꾸어 공을 몰고나와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에게 안겨주었다.

《아저씨, 고마와요. 언덕길로 올라오는 어른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어린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의 작은 가슴에 낯모르는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차넘쳤다.

《그래, 네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라고 해요. 5살이예요. 난 축구공을 가지고 놀 때가 제일 기뻐요.》

《음, 그렇단 말이지. 뽈을 계속 차느라면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

리드팀간의 경기에서 중간방어수들이 달린 거리와 순간속도달리기 회수는 다음과 같다.

·마크메터: 14㎞, 80회 ·레몬드: 12㎞, 64회 ·킨: 15㎞, 65회

3. 득점형태

득점의 형태를 보면 조직적인 결합차넣기, 대각련락으로부터의 득점이 많으며 속공으로서의 득점, 벌차기에 의한 득점도 중요하다.

4. 경기방식

선을 압축하여 중간지대의 밀도를 높이는것과 함께 련락회수를 높여 공보유전을 우세로 하면서 불의적인 공격, 역습을 기본경기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5. 변화

경기환경에 맞게 경기방식을 자주 바꾸는 체계변화를 의미하며 적절한 선수교체를 말한다. 이딸리아, 브라질, 프랑스, 도이췰란드축구팀들이 경기체계와 그에 따르는 경기방식을 자주 변경시킨다.

6. 정신적우세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잘 싸우는 정신력을 소유해야 한다. 아무리 기술, 전술적으로 잘 준비된 선수들이라도 높은 정신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경기에서 이길수 없다.

수 있단다.》
《난 꼭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래요.》
《암, 그래야지. 그런데 왜 올리막길에서 뽈을 차느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공이 바다에까지 굴러내려가지 않니.
그러면 바다에 굴러떨어진 공을 건져달라고 또 울어야 되구.》
《아저씨, 내가 공멈추기를 잘못했기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알겠다. 네가 8살이 되면 내가 직접 축구를 배워주겠다. 난 안도리냐체육구락부의 축구지도교원 페르난드 페르난데스이다.》
이러한 약속이 인연으로 되여 끄리스띠아노 로날도가 안도리냐체육구락부에 들어가게 되였다.
지도교원 페르난데스는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의 공다루기자세를 어린시절부터 몸에 익혀온 급한 올리막길로 공을 몰고 올라갈 때의 자세로 숙련시키느라고 품을 들였다.
《로날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를 올리막길로 공을 몰면서 올라갈 때처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의 공다루기자세야. 알겠느냐?》
《선생님, 축구경기장은 평지인데 나는 왜 올리막길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지도교원의 요구가 납득되지 않아 끄리스띠아노 로날도가 반문했다.
《로날도야, 너한테는 세살때부터 올리막길훈련에서 숙달된 공다루기기술이 버릇처럼 되여버렸단다. 그 버릇은 평지훈련을 하면서 고칠 필요가 없어. 올리막길훈련은 너의 독특한 공다루기와 강인한 하반신의 기초를 마련해준거다.》
《선생님, 난 올리막길훈련은 자신있습니다.》
《네가 올리막길훈련에서 자신이 있으니 평지훈련에서는 펄펄 날아다닐게 아니냐.》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는 지도교원이 지지해주자 고수머리를 손빗으로 쓰다듬으며 억실억실한 눈을 슴벅거렸다.
지도교원 페르난데스의 세심한 지도밑에 안도리냐체육구락부에서 2년간 훈련한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의 축구기술은 보다 높

은 수준의 훈련지도를 필요로 하였다.

지도교원은 이것을 포착하고 축구선수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구락부에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를 보내려고 물색하였다.

당시 푼샬시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체육구락부가 2개 있었다.

하나는 나씨오날체육구락부이고 다른 하나는 마리피모체육구락부였다.

지도교원은 1995년 끄리스띠아노 로날도가 10살잡히던 해에 축구선수양성에 비교적 유리하다고 보는 나씨오날체육구락부에 그를 보냈다. 비록 나이는 10살이라고 하지만 이미 축구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어지간히 체득한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의 축구기술은 날을 따라 부단히 높아졌다. 점차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에 대한 소문은 마데이라군도를 벗어나 본토로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빚대신에 이전된 11살의 소년축구명수

뽀르뚜갈의 수도 리스봉에 자리잡고있는 스뽀르팅축구구락부 회장앞에 선수선발전문가 아우레리오 뻬레이라가 조용히 서있었다.

《이번에 나씨오날체육구락부의 빚돈 1만 5 000US＄를 꼭 받아와야 하겠소. 정말 그곳 회장이 질기단 말이요. … 그렇다고 그전처럼 빚돈은 못찾고 바나나, 파이내플, 마데이라포도술이나 안고 오지 말게. …

그리고 이번에 갔던 길에 뛰여난 축구기술을 가진 소년을 한번 만나보게. 청소년조감독이 자네가 푼샬에 간다니까 나한테 찾아왔더란 말이요. 선수선발에선 자네를 따를 사람이 어데 있겠소.》

다음날 리스봉을 떠난 정기려객기는 마데이라군도의 푼샬비행장에 조용히 착륙하였다.

비행장에는 나씨오날체육구락부 회장이 나와있었다.

두사람은 승용차에 몸을 싣고 월계수, 너도밤나무, 소나무가 숲을 이룬 자동차길을 따라 푼샬시내로 향하였다.

《회장님, 이 구락부에 뛰여난 축구기술을 가진 소년이 있다고 소문났던데…》

나씨오날체육구락부 회장과의 인사를 통해 빚돈을 찾기 어렵다는것을 간파한 뻬레이라는 아예 돈문제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직업적인 촉각으로 선수선발문제로 방향을 바꾸었다.

《뻬레이라선생,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앤 이제 겨우 11살이요.》

《11살짜리가 본토에까지 소문났으니 이번에 내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은 빚돈문제가 아니라 후비선수선발문제가 제기되자 승용차 뒤좌석에 맡겼던 몸을 움쭉 일으키며 찬성했다.

《뻬레이라선생, 그건 마음놓아도 되겠소. 마침 지금 소학교에서 방학이니 우리 구락부에서 집중훈련을 받고있소. 래일 그 뛰여난 축구소년을 보도록 조직해주겠소.》

뻬레이라는 아무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찬성을 표시했다.

다음날 전문가의 눈으로 11살난 로날도의 훈련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한 뻬레이라는 대단히 기뻤다.

《이 소년은 뛰여난 소질을 가지고있구만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도 공몰기가 독특합니다.》

《역시 명망높은 전문가가 다르구만. 본토의 구락부들이 점찍어두고 서로 탐내고있소.》

《그럴만도 하겠습니다. 속도가 좋고 창조성이 엿보입니다.》

《좌우 두발로 다 같이 공을 다룰줄도 알구…》

뻬레이라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섬에서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를 찾아낸것을 마치 《금강석의 원석》을 발굴한것처럼 기뻐했다.

(나씨오날체육구락부의 빚대신 이 소년을 데려가자!)

그러나 11살나는 소년을 빚대신 데려간다는것은 심중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빚돈대신 이처럼 어린 소년을 선발한 전례가 없었기때문이였다.

《회장님, 그를 본토의 다른 구락부에 보내지 말고 스뽀르팅

축구구락부에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는 없지만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겠소?》
《어리다니요. 에스빠냐의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에서는 5살짜리도 훈련받고있답니다.》
뻬레이라는 회장에게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의 후비육성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그날 오후 나씨오날체육구락부 회장방에 들어선 뻬레이라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를 스뽀르팅축구구락부에 보내주며 이적금은 별도로 계약하고 청산한다는 식으로 림시계약서에 박아넣는다는것, 이번 방학을 계기로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를 스뽀르팅축구구락부에 보내준다는것을 내용에 밝히자는것이였다.
나씨오날체육구락부 회장이 불안을 내비쳤다.
《빚돈대신에 11살소년을 스뽀르팅축구구락부에 팔았다고 사회적비난이 꼭 있을거요. 비도덕적이라고 말이요.》
《그래서 림시계약서라고 하는겁니다. 나는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를 선발하는것이고 회장님은 보내주는것이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털어놓고말하면 빚돈도 서로 물어주고 받는 격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여 11살나는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의 이적문제는 나씨오날체육구락부에서 뽀르뚜갈축구구락부의 하나인 스뽀르팅축구구락부로 추천하는 형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해결되였다.
림시계약서대로 다음해 방학기간에 12살인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는 그리운 부모들과 마을의 축구친구들, 소학교친구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리스봉의 스뽀르팅축구구락부로 떠나갔다.
12살에 구락부에 온 끄리스띠아노 로날도가 첫 훈련에 참가하게 되였을 때 회장은 서로 다른 나이의 청소년들을 지도하고있던 2명의 감독들에게 그가 축구선수로서의 전도가 있는지 잘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첫 훈련이 끝난 다음 회장에게서 과업을 받은 두명의 감독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이 소년은 뛰여난 소질을 가지고있다는것이 인차 알립니다.》

《앞으로 유럽의 이름있는 구락부들에서 이 소년에 대한 관심이 대단할것으로 확신합니다.》

며칠후부터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를 웃나이의 팀에 넣어 훈련시켰는데 그는 훌륭한 기질과 공다루기능력을 보여주었다.

회장은 뻬레이라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다.

《뻬레이라! 난 자네를 기술담당 부회장으로 내신하려고 생각했소. 당신은 실력있는 전문가요. 난 탄복했소.》

○ 상 식 ○

축구공의 어제와 오늘

현대축구가 발생하여 보급되던 초기에는 축구공의 규격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 둥글게 생겨 굴러가고 땅에 맞아 튀여오르며 발로 찰수 있고 머리로 받을수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였다.

재질, 생김새, 질량, 색갈 같은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았다.

1872년에 공의 둘레를 68～71㎝로 규정하였으며 1889년에 공의 질량을 340～396g으로 정하였다가 1937년에 396～453g으로 다시 정하였다. 축구공은 처음에 12개의 길죽한 가죽쪼각으로 외피를 만들고 그안에 고무내피를 넣고 공기를 채웠으며 가죽쪼각은 18 혹은 26개로 되였다가 최근에는 5각형과 6각형의 작은 가죽쪼각 32개로 만들었다. 공의 색갈은 1950년대까지는 주로 밤색이였다면 그후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바뀌여졌다. 외피의 재질로는 1960년대까지 가죽 또는 합성가죽, 합성가죽과 폴리우레탄가죽을 섞어쓰다가 점차 가볍고 다루기 쉬운 폴리우레탄가죽만을 쓰고있다.

국제축구련맹이 공인한 축구공의 사용은 1970년 제9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때부터였다. 이때 축구공의 외피는 32개의 바른5각형 및 바른6각형의 소가죽쪼각으로 만들어졌는데 TV화면으로 공의 이동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검은색 5각형을 배합하여 흑백대조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비가 오면 몹시 무겁고 속도가 빠르지 못하였다. 《세계축구왕》 뻴레는 이런 공으로 자기의

나어린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는 훈련을 통하여 축구시험을 치르고 검토와 평가의 나날을 거쳐 한계단한계단 톺아오르기 시작했다. 더우기 스뽀르팅축구구락부에 와서 웃나이팀에서 훈련하는 과정에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는 그 어떤 경기에서도 뛰여난 기술을 발휘하는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게 되였고 공다루기는 물론 경기시야가 넓어지고 창조성도 풍부해졌다.

스뽀르팅축구구락부에 와서도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는 집에 있을

기묘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1970년대 후반기부터 축구공은 급속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4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사용된 축구공들에 이름이 붙여졌으며 재질과 성능이 계속 개선되였다.

1978년 제11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는 《11탕고》라는 이름으로, 그후 제12차로부터 제15차에 이르는 대회들에서 《탕고 에스빠냐》, 《아스데까》, 《에트루스코 유니크》, 《퀘스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축구공들이 사용되였다.

1998년 제16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는 현대과학기술의 도입으로 유리기포강화수지를 쓰고 흰색, 푸른색, 붉은색을 배합한 축구공 《3색》이 사용되였으며 2002년 제17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는 특수폴리우레탄과 천연고무 등으로 12층 구조로 된 합성가죽으로 만든 《날아다니는 류성》이 선수의 의도대로 정확한 탄도곡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2006년 월드컵경기대회 역시 축구공발전의 중요한 계기였다. 이 대회에서 사용된 축구공 《팀의 령혼》은 32개의 쪼각으로 무어졌던 종전의 모양을 14개의 프로펠라모양의 합성가죽쪼각으로 만듦으로써 구형에 보다 가까와졌다.

반면에 2010년 제19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사용된 축구공 《쟈블라니》는 비행자리길이 불안정하다는 비난속에 사용되였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온 축구발전력사와 함께 오늘 축구공은 둘레 68～70㎝, 경기를 시작할 때의 질량 410～450g, 공기압력은 바다물면높이상태에서 0.6～1.1㎪로 표준화되였다.

때처럼 언제나 공을 달고다니는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경기시작전에 옷벗는 칸에 가서 다리안마를 받고있을 때에도 공을 머리나 얼굴에 올려 멈추거나 공튕기기를 하였다. 마당에 나갈 때에도 공을 떨구지 않고 튕기면서 나갔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공을 자기 몸에서 잠시도 떼여놓지 않고 잘 때에도 공과 함께 꿈나라로 갔다. 공이 몸의 한 부분으로 익숙되여버린 감각, 이것이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의 뛰여난 공다루기기술의 바탕으로 되고있는것이 틀림없었다. 2001－2002년도 경기계절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는 스뽀르띵축구구락부팀의 기본선수로 선발되여 16살부터 직업축구선수의 인생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희망과 포부를 안고 얼마나 기다리고 그려온 그날이였던가.

그러나 옹근 한 경기계절동안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는 후보선수대기석에 앉아 책임감독의 눈치를 살피며 경기출전명령이 언제 내려질가를 기다리기만 하였다. 이것은 로날도에게 축구기술의 높은 봉우리로 빨리 날아올라야 한다는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루의 귀중한 시간을 훈련, 훈련 또 훈련에 쏟아붓자!)

로날도의 하루일과는 달라졌다.

려명을 안고 조기훈련장에서 육체훈련으로 땀방울을 뿌렸고 집체훈련이 끝나면 련속넘겨짚기, 발바닥으로 공다루기, 속도와 률동조절훈련, 웃몸을 곧추 세운 자세에서 재빠른 다리움직이기, 자기에게 필요한 거리간격조절훈련을 어김없이 하군 했다.

달밝은 어느날 속도훈련에 여념이 없는 끄리스띠아노 로날도한테 책임감독이 다가왔다.

《누가 자기 감독도 모르게 매일 부담을 높이라고 했는가. 그러니 〈제 마음대로 한다.〉는 뒤소리를 듣지. 넌 확실히 교만하고 독판치기에 푹 절었구나.》

책임감독은 성이 독같이 나서 로날도를 다불러댔다. 로날도는 흘러내리는 땀을 팔뚝으로 훔치며 머리를 숙였다.

《책임감독선생님, 나는 책임감독선생님의 슬하에 와서 속도와 함께 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집체훈련에서는 높은 차넣기기술과 공몰기기술을 련습하고 개별훈련에서는 밀

집지역에서의 속도빼몰기능력을 높이고 어지간한 몸싸움에도 넘어지지 않는 육체를 가지려고 했을뿐입니다.》

로날도는 자기식특기기술에 정통하려는 마음을 책임감독에게 내비치면서 너무도 억울하여 눈물을 떨구며 말을 이었다.

《책임감독선생님, 인간됨됨에 대한 욕은 앞으로 수양을 쌓아 고치겠지만 개별훈련에 대해서는 욕을 해도 고치지 못할것 같습니다.

개별훈련이야 량심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감독은 로날도가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하면서 인격모욕을 했다는 가책이 들면서 무엇이라 말할수 없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마디마디가 항변이 아니라 진심으로 안겨왔던것이다.

(이 감독을 얼마나 원망했겠는가. 지난 경기계절에도 어리다는 생각만 앞세우며 이끌어주지 못했거든. 《제 마음대로 한다.》, 《효률이 나쁘다.》, 《독판치기다.》, 《교만하다.》 등 부족점에 대한 뒤소리에 맞장구를 쳤으니… 확실히 지도능력부족이야.)

책임감독은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와 나란히 이야기를 나누며 전등불이 밝게 비치는 숙소로 향했다.

이름난 축구구락부에서

끄리스띠아노 로날도가 18살나던 2003년 여름, 스뽀르띵축구구락부의 본거지 죠제 아르바리지경기장이 5만 2 411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축구경기장으로 개건확장된것을 기념하여 진행하는 친선축구경기를 위해 잉글랜드의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팀이 초청되여 뽀르뚜갈의 수도 리스봉에 왔다.

이 기념축구경기때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팀 책임감독인 세계적인 명감독 퍼가손은 경기장에서 종횡무진으로 고속빼몰기돌파를 하는 스뽀르띵축구구락부팀의 28번의 등번호를 단 젊은 선수에게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그를 자기 구락부로 옮겨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스뽀르팅축구구락부팀 책임감독은 퍼가손의 요구를 제꺽 받아들였다. 그것은 로날도가 자기네 구락부에 파묻혀있어가지고는 빛을 뿌리기 어렵다는 타산과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부유하다는 타산을 했기때문이였다.

《퍼가손책임감독님, 내가 오늘 저녁에 로날도를 만나 발동을 걸어놓겠으니 그다음엔 소원대로 하면 될겁니다.》

다음날 오전에 퍼가손은 스뽀르팅축구구락부팀 책임감독의 방에서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와 처음으로 상봉하였다. 퍼가손은 《은사》의 심정으로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의 가정래력을 알아본 다음 1986년부터 잉글랜드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팀의 책임감독을 하기까지의 자기의 간단한 래력까지 설명해주었다.

잉글랜드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팀의 책임감독 알렉쓰 퍼가손은 경기장과 훈련장뿐아니라 팀전반의 관리운영까지 맡고있는 책임감독이였다.

그는 로날도가 새겨듣도록 조용하나 위엄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가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다. 로날도의 결심은 어떠냐?》

로날도는 혹시 불합격되지 않을가 하는 불안을 감추지 못했으나 데려가주었으면 하는 의향을 내비치였다. 그리하여 뽀르뚜갈의 마데이라군도에서 발굴된 《금강석원석》은 스뽀르팅축구구락부에서 다듬어지다가 처음 사올 때보다 수백배나 되는 이적금으로 세계최강의 축구구락부의 하나인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에 팔려가게 되였다. 10대의 축구선수로서는 보기 드문 몸값이였다.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에 옮겨온 로날도는 퍼가손책임감독의 안내를 받으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개건확장한 올드트래포드경기장과 새 박물관을 돌아보았다.

퍼가손은 로날도의 심리적특성을 참작해서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의 력사를 간단히 이야기해주는것도 잊지 않았다.

《책임감독선생님, 나에게 채찍질도 가리지 말고 요구성을 높여주십시오.》

《허, 내가 무슨 말몰이군이라고 채찍질을 하겠나. 경기승리

를 위해서 자기를 따라세우는것이 제일 중요해. 말하자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정신을 체득해야 한다는거야.》

《선생님, 나는 언제나 이겨야 한다는것을 의무로 삼겠습니다.》

《로날도, 〈독불장군〉이라는 뜻은 혼자서는 용빼는 재간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있네. 그러니 팀성원모두가 합심해야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하네.

나는 로날도에게 채찍질이 아니라 축구목표를 정해주려고 하네.

그것은 첫째로, 뛰여난 속도에 공몰기기술을 결합시키는것, 둘째로, 높은 조약에 의한 머리받기와 다양한 벌차기기술을 완성하는것이다. 측면중간방어수에게 있어서 뛰여난 다리힘에 바탕을 둔 속도가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상반신의 근육과 강한 몸통힘을 살린 몸균형능력은 몸싸움에서뿐아니라 높은 속도빼몰기의 지탱력이 되기때문이야.》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에게는 퍼가손감독이 정해준 목표가 낯설은 고장에서 앞으로 톺아올라 넘어야 할 굽이굽이 령길처럼 눈앞에 안겨왔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내 공다루기자세는 고쳐야 합니까?》

끄리스띠아노 로날도의 물음에 퍼가손책임감독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대답했다.

《마음놓거라. 바로 그것이 너의 독특한 공다루기자세라는거다.

올리막길을 공을 몰면서 올라갈 때 어떤 자세를 취하겠는가를 상상해보면 사람들이 아마 납득될거다.》

퍼가손책임감독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공다루기는 독특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생각해보거라. 축구선수들의 공다루기자세가 다 같다면 상대방이 속지 않는단다. 미리 어떻게 공몰기를 할것인가 알고있으니까. 그러나 경기장에서 네가 취하는 자세는 누구에게나 낯설단 말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공다루기자세는 독특하다고 인정하고있단 말이다. 알겠니?》

로날도는 너무 좋아 높이 조약까지 하며 책임감독의 지지를 기쁘게 생각했다.

《다음주부터 훈련에 참가하여 2003－2004년도 경기계절 잉글랜드최상급련맹전에 좌측중간방어수로 참가할 준비를 해야겠다.

책임감독의 작전안이니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는걸 알아야 해.》

한주일이 지나 로날도는 만체스터 유나이티드팀 선수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훈련의 진한 땀방울을 푸른 잔디우에 뿌렸다.

집체훈련이 끝나자 퍼가손책임감독은 로날도곁으로 다가와서 개별훈련시간을 20분으로 정해주고 수행할 훈련동작들을 꼭꼭 찍어주었다.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 보람과 기쁨을 터놓으며 퍼가손책임감독은 로날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었다.

훈련의 나날은 목표와 맞물려 하루하루 흘렀다. 그러던 2003년 8월초 퍼가손책임감독은 로날도를 자기 방으로 조용히 불렀다.

《로날도야, 조국에서 국가종합팀에 네가 망라되였기때문에

○ 상 식 ○

축구경기의 첫 국제심판원

심판이라는 말은 고대프랑스어에서 유래되였는데 《혼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현대축구가 발생한 초기에는 심판이 없어 경기에 참가한 량팀의 주장들에 의해 경기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처리되다가 1871년부터 3명의 심판원이 제정되여 2명은 경기장안에서 경기장 절반구역씩 맡아 반칙이 생기면 긴 막대기로 쳐들어 경기를 중단시키고 벌을 적용하였으며 1명은 경기장밖에 있으면서 경기장안에 있는 2명의 심판원들사이에 의견상이가 있을 때 판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891년에는 이 규정이 수정보충되여 밖에 있던 심판원이 주심이 되여 호각과 수첩을 가지고 경기장안에 들어가 경기규칙대로 진행되도록 심판활동을 하고 경기장안에 있던 2명의 심판원은 선심이 되여 기발을 가지고 경기장밖에 공이 나가는것을 판정하였다.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은 한 경기에 한명의 주심과 두명의 보조주심 그리고 또 한명의 대기부심으로 4명이 담당수행하고있다.

첫 경기에 참가시키도록 보내달라는 기쁜 소식이 왔다. 뽀르뚜갈축구종합팀에 선발된것을 축하한다. 그것도 18살에 말이다.》

퍼가손책임감독은 뽀르뚜갈축구협회에서 잉글랜드 만체스터유나이티드축구협회 회장앞으로 보내온 소환장을 보여주었다.

《조국에서 부르는데 무조건 떠나야지.》

《그러면 전 잉글랜드최상급련맹전에 참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걱정안해두 돼. 국제축구련맹이 공식경기에는 5일간, 친선경기에는 3일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것을 정식 발표했으니까. 까자흐스딴축구종합팀과의 공식경기를 5일간 치르고 만체스터로 돌아와 올해 9월부터 래년 5월까지 잉글랜드최상급련맹전에 참가하면 된다.》

《선생님, 뽀르뚜갈축구종합팀 책임감독으로 브라질의 이전

오늘 축구의 세계에는 4 000여명의 국제심판원이 있다.

첫 국제심판원은 1886년 영국에서 출생한 정열적인 축구선수, 축구애호가였던 스텐리 로우스이다.

제1차 세계대전당시 지원병으로 에짚트에 파견되였던 그는 다리를 부상당하고 돌아와서 축구를 할수 없게 되자 곧 축구심판원이 되였다. 그는 1927년에 벨지끄에서 진행된 벨지끄팀과 네데를란드팀간의 축구경기에서 첫 국제심판원의 자격을 행사하였다.

1933년 력사상 처음으로 라지오로 축구경기를 중계방송한 부다뻬슈뜨에서 진행된 마쟈르팀과 이딸리아팀간의 국제축구경기심판을 맡은 사람도 스텐리 로우스였다. 스텐리 로우스는 자기의 심판활동기간에 선심들이 측선전부를 관찰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경기장 절반씩 맡아보도록 하였으며 축구경기규칙위반에 대한 법칙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다. 스텐리 로우스는 잉글랜드축구협회 위원장으로 사업하다가 1961년부터 1970년까지 약 10년간 국제축구련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축구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책임감독이였던 스꼴라리선생이 임명되였다고 합니다.》

《완강한 령감이야. 유능한 감독이지. 그래서 뽀르뚜갈축구련맹에서는 욕심을 부려 2006년 월드컵경기대회까지 앞을 내다보면서 스꼴라리책임감독을 찬성했거든.》

퍼가손책임감독은 2002년 월드컵경기대회를 우승에로 이끌어 다섯번째로 월드컵을 브라질의것으로 만든 스꼴라리의 실력을 잘 알고있었으며 뽀르뚜갈축구종합팀의 앞일이 잘되기를 바랐다.

2003－2004년도 경기계절에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는 유럽선수권대회 예선경기에서 자기의 특기기술을 잘 발휘하여 뽀르뚜갈축구종합팀의 본선경기참가자격을 획득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잉글랜드최상급련맹전의 29차의 경기에 참가하여 4개의꼴을 득점하였다. 2003년 한해를 축구와 함께 걸어온 끄리스띠아노 로날도는 한 경기 또 한 경기를 치르면서 조국의 영예가 자기의 두어깨에 지워져있다는것을 청춘의 심장으로 느끼게 되였다.

돈만 아는 자본주의사회에 태줄을 묻고 자라난 청년들이 자기 나라 국가팀의 영예를 깨닫는것은 말처럼 결코 쉽지 않다.

조국을 떠나 잉글랜드에 가서 직업축구선수의 인생길을 걷고있지만 국가종합팀에 망라되여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 그는 진한 땀방울이 자기 명예와 보수만이 아니라 조국의 영예와 잇닿아있다는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던것이다. 이렇듯 로날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고향과 조국, 국민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씨앗이 움터나기 시작했다. 이 씨앗이 자라나 로날도는 2004년 6월 자기 조국 뽀르뚜갈땅에서 개최된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맹활동을 벌려 2등의 영예를 쟁취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으며 그후 2006년 제18차 월드컵경기대회에서 뽀르뚜갈팀의 4강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6－2007년도 경기계절의 잉글랜드최상급련맹전에서는 만체스터 유나이티드팀이 우승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여 그는 2008년 발론도상과 국제축구련맹최우수축구선수상을 수여받고 축구선수로서의 영광의 절정에 올랐다.

그때 그의 나이는 23살이였다.

《축구마술사-마라도나2세》-리오넬 메씨

나는 언제나 조국이 이기기를 바란다.

비록 조국을 멀리 떠나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뽈을 차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조국과 함께 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자라나고 나의 부모형제가 있기때문이다.

—리오넬 메씨—

디에고 마라도나는 메씨를 이렇게 평가하였다.

《메씨는 진짜 나의 후계자이다. 실력은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 꼴수도 나와 견줄것이다.》

2008년 11월 《세계축구왕》 뻴레는 스웨리예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현시기 세계최고의 축구선수는 3명이라고 하면서 《까까와 끄리스띠아노 로날도 그리고 메씨, 이 3명이 특별히 뛰여난 선수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작은 마라도나》

리오넬 메씨는 아르헨띠나의 북동부 상따페주의 남동쪽에 있는 도시 로싸리오에서 1987년 6월 24일 이딸리아계백인가정의 막내아들로 태여났다.

로싸리오는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 떨어진 아르헨띠나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로서 내륙지방의 도소재지들을 이어주는 철길과 자동차길의 중심지로 되여있다.

메씨의 아버지는 이 도시에 있는 유색야금공장에서 제련공으로 일하였다. 메씨는 축구를 즐겨하는 두 형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축구의 첫걸음마를 뗐다. 그는 집마당이나 길거리, 공지를 가리지 않고 그 어디서나 뽈을 차며 놀았고 형의 친구들과 어울려 뽈을 차면서 여러가지 재주를 배웠다. 그가 5살되는 생일날에는 메씨의 아버지가 축구공을 선물로 사가지고 왔다.

《메씨야, 생일을 축하한다. 네가 부러워하는 축구공이다. 이제부턴 남의 공을 빌려 차지 말고 네 공으로 아무때나 축구를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는 좋아 돌아가는 메씨를 보며 벌써 공을 사주지 못한 서글픈 마음에 눈굽이 젖어들었다.

《아버지, 메씨를 파란다리체육구락부의 아동축구팀에 보내자요.》

맏아들 로드리고가 아버지한테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했다.

《이제 겨우 5살인데…》

《아버지, 메씨는 내 친구들과도 뽈을 함께 차는 수준이예요. 얼마나 날랜지 따라잡기 힘들어요.》

자식들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면서도 가난한 집살림에 쪼들려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던 아버지는 맏이의 말을 듣고 메씨를 축구의 길에 내세울 결심을 했다.

《로드리고야, 아동축구팀에 들어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아버지, 시험을 쳐서 합격되여야 들어갈수 있어요.》

《넌 메씨가 합격될것 같으냐?》

《합격될수 있어요. 그리고 파란다리체육구락부의 축구지도교원이 내 축구친구의 아버지예요.》

《그럼 래일 당장 메씨를 데리고가자꾸나.》

맏아들 로드리고는 아버지가 쉽게 결심을 내리자 오히려 의아스러워하였다.

《메씨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하고싶어 하는건 꼭 성공할수 있단다. 아버지처럼 일생 제련공을 하겠니. 마라도나처럼 축구를 잘하면 떠받들리우지 않겠니.》

다음날 로드리고와 메씨를 앞세우고 아버지는 파란다리체육구락부를 찾아갔다. 지도교원이 메씨에게 공몰기와 공다루기를 시켰다. 메씨는 공을 땅에 떨구지 않고 재치있게 다루었다.

《허, 이녀석이 공다루기를 괜찮게 하누만. 발전성이 있어. 그런데 나이가 몇살이야?》

《5살입니다.》

《뭘?! 너무 어리구만. 공다루기가 능하니 받고 봅시다.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집에서 부모들이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여 메씨는 5살부터 파란다리체육구락부의 아동축구팀에서 축구를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이름날리는 축구명수들이 많지만 메씨처럼 일찌기 다섯살에 전문적인 체육양성기지에서 축구교육을 시작한 전례는 없다.

그후 메씨는 형 로드리고가 소속되여 훈련하는 뉴에르스소년팀에 들어갔다. 축구기질을 천성적으로 타고난 메씨는 어릴 때부터 작은 마라도나로 불리웠다. 형과 함께 소년팀에서 축구를 하며 메씨의 축구재능은 점차 꽃펴나기 시작하였다. 메씨는 축구신동으로 소문나면서 13살때 리베르 뻘라떼축구구락부에 초청되여 아버지와 함께 갔다.

공다루기시험을 쳤는데 메씨는 공멈춰세우기와 공돌리기, 밀기, 방향바꾸어꺾기, 뒤로 끌어오기 등 모든 동작들을 높은 공감각능력으로 잘 수행했다.

리베르 뻘라떼축구구락부 감독들은 메씨의 공다루기기술수준

이 높다고 칭찬까지 했다. 오후에 형태학적조건과 기능적상태에 대한 측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의학검진이 끝나자 축구구락부의 연구사가 손에 종이장을 들고 메씨의 보호자를 찾았다.

《이건 진단서입니다. 메씨는 성장호르몬결핍으로 왜소증에 걸려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성장이 멎을수 있습니다. 메씨의 키가 111㎝밖에 안되는것도 왜소증때문입니다.》

구락부의 연구사는 검진결과가 씌여진 한장의 진단서를 메씨의 아버지손에 쥐여주더니 가버렸다.

애오라지 자식들의 앞일이 잘되기를 바라며 메씨를 축구의 길에 내세우려고 했건만 청천벽력같은 불행이 막아나섰다.

눈앞의 성과만을 바라는 리베르 쁠라떼축구구락부에서는 메씨를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뉴에르스소년팀에서도 메씨를 제명시켰다.

아버지는 메씨를 데리고 한다하는 병원들을 다 찾아다녔다.

○ 상 식 ○

브라질축구선수들의 기술기교와 전술적특징

축구의 나라 브라질선수들의 기술동작은 특별히 신속하고 정확하다. 이러한 동작은 목적의식적이며 즉흥적인것이 특징이다.

풍부한 상상력과 시기적절한 동작들은 경기와 부단한 훈련을 통하여 형성되고 완성된다.

아이들은 해변가나 골목에서 기술을 련마하고 다음은 정규적인 구락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는다.

그들은 공간을 충분하게 리용하며 엄밀한 방어로부터 치밀한 공격을 전술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잘 준비된 기술기교에 기초하여 돌발적으로 공격구역으로 진출한다. 경기속도의 불의성과 률동적조화가 바로 《브라질예

하지만 달마다 내야 할 엄청한 치료비로 하여 치료할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계약조건으로 치료비를 물어줄수 있는 축구구락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축구구락부들에서도 왜소증진단을 받은 메씨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한편 메씨는 성장호르몬이 결핍되든 키가 작든 관계치 않고 맏형 로드리고의 뒤를 따라다니며 뽈을 차는데만 정신을 팔았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공장에서 퇴근한 메씨의 아버지가 안해를 조용히 찾았다.

《여보, 메씨를 에스빠냐의 축구구락부에 보내면 어떨가? 축구신동이들을 받아 키워준다는데…》

《아니, 이제 겨우 13살 난것을 외국에 보내자는건가요.》

아버지는 온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 공장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궁리한 내용을 안해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게 정말인지 누가 알아요. 소문이겠지…》

술축구》의 특징이다. 그들은 항상 합리적인 체력의 리용, 기술기교와 경기운영의 폭발성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준다.

브라질축구선수들의 전문적인 경기에서 기술기교와 전술적특징을 집약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 세련된 개인기술로 상대편에게 커다란 위협을 준다.
- 집체적인 결합과 모든 전술적과제들을 세련된 기술에 기초하여 해결한다. 세련되고 창조적인 모든 기술, 전술활동은 동작수행속도가 빠르고 폭발적이며 상대편의 동작과 의도에 대한 반응에 기초한 적응력이 강한것이 특징이다.
-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경기활동과 즉흥적인 활동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한 높은 재능을 소유하고있다.
- 우월한 선천적인 육체적조건과 이에 기초한 우아한 기술동작으로 하여 신심과 분발력이 높다.
- 강한 민족적자부심과 의지를 소유하고있다.

《아, 에스빠냐의 따라고나에 먼 친척이 있지 않소. 거기다 편지를 쓰기요.》

《그렇게 해서 되겠나요. 뉴에르스소년팀에서 훈련하고 경기를 하던 록화물도 함께 보내면 어떨가요?》

메씨의 아버지는 집안에서 당한 불행을 구체적으로 쓴 편지와 함께 록화물도 에스빠냐의 먼 친척집에 함께 보내고 회답을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답이 왔다.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와 의논이 있었으니 메씨를 빨리 데리고오라는 내용이였다.

《기쁜 소식이 왔으니 당신이 메씨와 함께 당장 떠나세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메씨를 혼자 떠나보내야겠소.》

《아니, 13살짜리를 낯선 외국에 혼자 보내다니.》

《거기에 가면 에스빠냐어로 통하기때문에 다른 일은 없을거요.

비행기로 가야겠는데 두사람의 려비를 감당할수 없어서 그러오. 내가 메씨를 데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가서 인편을 찾아 비행기로 떠나보내도록 하기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으나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메씨의 병도 치료할게 아니요.》

이렇게 되여 메씨는 13살에 비행기를 타고 에스빠냐로 갔다.

2001년 여름, 메씨는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 본거지 《캠프 노우》경기장에 들어섰다. 따라고나에 사는 친척집 삼촌이 메씨를 데리고 축구시험을 받으러 왔다.

시험치기 위하여 메씨가 푸른 잔디우에 나섰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공다루기기교를 보았다. 모든 기술동작들이 나이에 비하여 놀라울 정도였다. 당시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팀을 이끌고있던 에스빠냐의 유명한 감독 라이크삿치가 몇차례의 공다루기와 기동을 시켜보고는 메씨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축구신동》이 왔다고 하면서 대단히 만족해하였다.

이것은 아르헨띠나의 한 체소한 소년이 앞으로 세계축구계의 빛나는 《별》로 되게 하는 기회였다.

후비육성의 《보금자리》에서

에스빠냐의 북동쪽 지중해연안에 자리잡고있는 바르쎌로나는 이 나라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이다.

끼딸루니아인들의 본거지인 이 도시에 바로 그들이 기발로 내세우고있는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가 있다.

1899년 10월 29일에 창립된 이 구락부는 지난 100여년동안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의 언덕을 넘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 구락부는 애칭으로 바르싸라고도 부르는데 세계축구강국인 에스빠냐의 최상급련맹전에서 패권을 여러번 잡았을뿐아니라 2005－2006년도 경기계절에는 유럽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서 우승의 영예를 쟁취한 세계적인 강팀이였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능있는 젊은 선수들의 선발육성을 잘한데 있었다. 이 구락부에서는 5살때부터 전도가 촉망되는 어린 선수들을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키워 최우수선수로 육성하고있었다.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는 자본주의세계에서 명수 한명을 사들이는데 드는 천문학적인 돈보다 축구선수양성을 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보고 후비선수양성체계를 세우는데 관심을 돌려왔다. 어느날 감독 라이크삿치가 메씨를 찾아 부회장의 방에 데리고갔다.

《이애가 아르헨띠나에서 온 〈축구신동〉 메씨요?》

메씨는 감독의 대답이 끝나기 바쁘게 부회장에게 인사했다.

《키가 작구만.》

《이제 치료를 받으면 크리라 생각합니다. 속도가 경이적입니다.》

《라이크삿치감독, 라뽀르따회장님의 수표를 받았으니 구락부의 사들한테서 진단을 받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도록 합시다.》

부회장 싼드로 루쎄이는 메씨의 치료를 위해 회장의 수표를 받아 자금문제가 풀렸다는것을 암시했다.

《메씨, 이제부터 넌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치료도 잘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거라.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고생도 많겠지만 선택한 축구의 길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부회장 싼드로 루쎄이는 실무책임자답게 메씨가 자기의 힘과 지혜로 개척해나가야 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말해주었다.

《부회장선생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메씨는 존경과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힘을 주어 대답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라이크샷치감독은 메씨와 함께 승용차에 올라 바르쎌로나체육구락부소속 체육인병원을 향해 떠났다.

바르쎌로나시내 교통의 중심인 까딸루냐광장을 지난 승용차는 까딸루냐시장을 에돌아 고적유물들이 많은 거리를 미끄러지며 달렸다. 바르쎌로나시내를 벗어나자 승용차는 속도를 내여 지중해기슭의 도로를 따라 쏜살같이 달렸다.

체육인병원 의사들은 라이크샷치감독과 아주 가까운 친구들처럼 메씨를 상냥하게 맞아주었다.

바로 이때부터 메씨는 3년 6개월의 긴긴 나날 주사를 맞으며 축구도 하고 공부도 했다. 마지막주사를 맞는 날이 왔다.

《메씨, 인제는 나한테 오지 않아도 돼. 이것이 마지막주사야. 42개월동안 아픔을 참느라 고생을 많이 했구나.》

담당의사는 마지막주사약병을 메씨에게 꺼내보이며 말했다.

병이 완쾌되였다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메씨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엉엉 울었다.

《의사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를 치료해주고 키워준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가 더 많은 우승컵을 쟁취하도록 노력하여 꼭 보답하겠습니다.》

메씨의 이 맹세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메씨는 구락부가 정해놓은 후비육성조의 7단계를 5년동안 뛰여넘어 최상급련맹전 참가선수로 구성된 사다리정점에 올라선 축구인재였다.

13살때 키가 겨우 111㎝였던 메씨가 17살에 잡히면서 마라도나보다 1㎝ 더 큰 167㎝, 몸질량 67㎏으로 성장하였다.

네데를란드축구종합팀 삼두마차의 한사람이였던 바르쎌로나축구종합팀 책임감독 라이칼드는 메씨의 경기활동을 주시하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2003년말에 진행된 어느 한 친선경기에서 16살의 메씨를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의 대표선수로 첫 출전을 시켰다.
비록 친선경기였지만 메씨의 마음은 고무풍선처럼 둥둥 떴다.
《책임감독선생님, 나를 써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못했으나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메씨는 친선경기가 끝나자 책임감독 라이칼드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메씨, 득점을 바라서 친선경기에 출전시킨건 아니야. 중요한것은 경험을 쌓도록 하자는것이였어.》
책임감독은 메씨를 출전시킨것이 과녁을 맞혔다고 생각하며 만족해하였다.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팀을 대표하여 메씨가 처음으로 공식경기에 출전한것은 그로부터 1년후였다.
2004년 10월 16일, 에스빠냐최상급련맹전에서 에스빠냐축구구락부팀과 경기할 때 메씨는 후반전경기시간 32분경에 등번호 20번인 데꼬와 교대하여 출전했는데 이때가 그가 17살 3개월 22일이 되는 날이였다. 아르헨띠나의 청소년이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팀을 대표하여 에스빠냐련맹전에 출전한 선수로는 메씨가 두번째로 어린 선수였다.
2005년 5월 1일,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팀과 아르바쎄테축구구락부팀간의 경기에 출전한 메씨는 마라도나식어깨넘겨차기로 득점했는데 이것은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력사상 가장 나어린 득점선수로 되는 기록이였다.
2005년 죠안 감뻬드컵경기에서 메씨가 경기를 마친 후 이딸리아 유벤뚜스축구구락부팀 책임감독이였던 파비오 까뻬로는 《나는 그처럼 다양한 경기활동방안을 가진 17살의 축구선수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라는 감탄의 목소리를 남겼다.
이 경기후부터 메씨는 차츰 프랑스축구종합팀 선수인 쥴리를 대신하여 주공격수로서 에또우, 로날디뇨와 짝을 무어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팀의 무서운 삼지창으로 되기 시작했다.

조국의 명예를 지켜

메씨가 18살잡힌 2005년 어느날, 책임감독 라이칼드가 메씨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책임감독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응, 메씨가 왔구나. 기쁜 소식이 왔다. 이건 소환장이다.》

라이칼드책임감독은 메씨에게 다음의 소환장을 넘겨주었다.

소 환 장

에스빠냐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 회장앞.

귀 구락부에서 선수생활을 하고있는 리오넬 메씨가 네데를란드에서 진행하는 세계청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아르헨띠나청년축구종합팀의 선수로 망라되였음을 알리면서 국제축구련맹(FIFA)의 결정대로 소환하여주기를 바라는바입니다.

아르헨띠나축구련맹
부에노스 아이레스

《어때 메씨, 아르헨띠나축구련맹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것 같지 않니. 너의 오늘이 어떻게 마련되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너를 소환하니 말이다.》

메씨가 소환장을 다 보자 라이칼드책임감독이 자기 속마음을 얼핏 내비쳤다.

《책임감독님,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

메씨는 어린시절 아르헨띠나의 여러 축구구락부들로부터 버림을 받던 일을 생각하며 라이칼드책임감독의 말에 동감이라는듯 조

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서슴없이 말하였다.
그러자 책임감독 라이칼드는 메씨의 대답에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으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더니 창문밖으로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와서 메씨한테 다가섰다.
《메씨, 너는 행운아다. 조국이 있으니까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조국을 모르고 살아왔다.》
《책임감독님은 네데를란드가 조국이 아닙니까? 국적도…》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조국이라 부를수 없지. 난 흑인으로서 보금자리도 없이 팔려다니다가 축구의 덕으로 네데를란드국적을 획득했단다. 내 운명은 가련하다고밖에 볼수 없다.》
라이칼드책임감독은 메씨를 부럽게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래두 책임감독님은 네데를란드의 삼두마차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메씨, 그건 조국에 헌신하는 축구가 아니라 나의 명예와 보수만을 위한 개인주의축구였다고 할수 있지.》
라이칼드책임감독의 솔직한 축구철학은 메씨의 마음에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기였다.
(개인주의와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축구! 얼마나 대조적인 축구리념인가.)
《메씨, 조국이 없으면 부평초나 같단 말이다. 그런데 조국이 너를 부르고있지 않느냐. 이 소환장은 종이장이 아니라 조국의 믿음과 기대라는걸 잊지 말아야 한다. 알겠니?》
《예.》
메씨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도 짧았다는것을 깨달으며 머리를 숙였다.
《메씨, 너의 보금자리는 여기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가 아니라 아르헨띠나야. 3일후에 떠나거라. 회장, 부회장과 의논이 있었다.》
2005년 네데를란드에서 진행된 제10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메씨는 아르헨띠나청년축구종합팀이 금메달을 쟁취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메씨는 이 대회에서 《득점왕》으로 되였으며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이것은 한장의 진단서에 운명을 걸고 방황하던 메씨가 조국 아르헨띠나에 드리는 첫 헌신이였고 열매였다.

이 경기대회를 지켜본 잉글랜드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팀의 전설적인물로 되고있는 34살난 웨일즈태생의 축구명수 라이언 기그스는 메씨의 속도를 부러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메씨는 속도적인 경기동작을 한다. 나는 이전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므로 나의 경기활동도 그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의 나는 이전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 이전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

그후 2006년 여름,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제18차 월드컵경기대회때에도 메씨는 아르헨띠나국가종합팀에 선발되였다.

바르쎌로나시내로부터 7㎞ 떨어진 국제비행장에서 리륙한 비행기는 고도를 높이며 아르헨띠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향해 기수를 돌렸다.

메씨는 푹신푹신한 비행기좌석에 몸을 맡기고 생각에 잠겼다.

전날 저녁 라이칼드책임감독이 메씨의 침실로 찾아왔다.

《메씨, 떠날 준비는 다되였나?》

☆ 일 화 ☆

축구가 주는 웃음

세계최우수축구선수로 두해째 련속 선정되여 《축구천재》로 불리우는 브라질축구명수 로날디뇨는 평시에 언제나 히죽거리군 하여 사람들에게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경기장안에서의 그의 두드러진 활약과 멋진 공차기, 머리받기 등 요술사와도 같은 그의 축구재간은 사람들의 의혹을 한순간에 뒤집어놓게 한다. 중간지대에서 공을 몰고 빠른 속도로 돌

《예.》

《국가종합팀에 망라되여 조국으로 떠나는 메씨를 축하해주려고 왔다.》

《책임감독님, 감사합니다.》

《이건 아버지, 어머니께 책임감독이 드리는 기념품이다.

에스빠냐방직공업의 중심지인 바르쎌로나의 특산물이다.》

라이칼드는 깨끗하게 포장한 지함을 꺼내놓으며 설명까지 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참가하는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조국 아르헨띠나의 영예를 빛내이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도이췰란드의 뮨헨에서 만나자.》

라이칼드책임감독은 메씨와 악수를 나누고 조용히 방에서 나갔다.

(조국 아르헨띠나!)

되새겨볼수록 메씨의 가슴은 부풀어올랐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운 형님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

2006년 6월 9일, 도이췰란드 남부지방도시 뮨헨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수용능력이 6만 6 000명인 알리안쯔-아레나경기장에서 제18차 월드컵경기대회의 막이 올랐다.

파해 들어가는 재치있는 기술, 결정적인 차넣기기회를 조성하고 정확한 득점장면을 펼치군 하는 그는 언제나 팀의 동료들과 축구애호가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득점기계로,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로날디뇨의 류다른 인상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가 한 다음의 말을 참고할수 있을것이다.

《웃음은 나의 본성이다.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를 매일 하는것으로 하여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따라서 나는 웃기를 좋아한다.》

주석단에는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국제축구련맹위원장, 월드컵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 수많은 인사들이 나와있었다.

입장식이 시작되자 력대 월드컵을 보유한 나라들의 생존자축구명수들이 경기장으로 들어서고 그뒤를 이어 월드컵본선경기에 참가할 32개 나라 축구종합팀들이 입장하였다.

아르헨띠나팀은 제3조에 속하여 꼬뜨디봐르, 쓰르비아 및 쯔르나고라, 네데를란드종합팀과 조별련맹전을 벌리게 되였다.

6월 10일, 아르헨띠나팀은 아프리카의 사자로 불리우는 꼬뜨디봐르팀과 첫 조별련맹전을 벌려 2:1로 이겼다.

6월 16일, 쓰르비아 및 쯔르나고라팀과 두번째 련맹전에서 맞다든 아르헨띠나팀은 6:0이라는 압도적우세를 보였다.

6월 21일, 유럽의 강팀인 네데를란드팀과 조별련맹전 마지막경기를 치르었다. 서로 득점이 없어 0:0으로 비겼는데 득실점차이로 아르헨띠나팀이 3조에서 1등을 하고 2단계 경기에 올라서게 되였다.

6월 24일, 2단계 16강자전에서 아르헨띠나팀은 4조에서 2등으로 올라온 메히꼬팀과 치렬한 공방전을 벌려 2:1로 이김으로써 준준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6월 30일, 준준결승경기인 8강자전에서 아르헨띠나팀은 1조에서 1등을 하고 2단계 경기에서 스웨리예팀을 2:0으로 이기고 올라온 도이췰란드팀과 날카로운 격전을 벌렸다. 전후반과 연장전 120분동안에 치렬한 공방전을 벌렸으나 득점이 나지 않아 11m승부차기를 하게 되였다.

아르헨띠나팀은 심리적대결인 11m승부차기에서 주최국인 도이췰란드팀한테 5:3으로 패하고 푸른 잔디우에 땀방울과 함께 눈물을 쏟았다.

메씨는 월드컵축구경기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아르헨띠나팀이 8강에 올라서는데 크게 기여한것으로 하여 국제축구련맹에서 선정하는 신진최우수선수 10명가운데 한사람으로 선출되였다.

메씨는 왼손잡이, 왼발잽이인데 경기장에서는 그것을 알아보

기 힘들 정도로 두발을 다 자유자재로 쓰며 마술을 부리듯 오른쪽 측면에서 경기를 하였다. 민첩성, 순간속도, 잦은발놀림에 의한 속임동작, 단독몰기와 짝패와의 주고받기, 묘한 련락으로 팀을 공격에로 전진시키군 했다.

뛰여난 속도와 화려한 공다루기기술, 그에 기초한 협동으로 경기주도권을 쥐려는 정신은 지금까지도 계승해오고있는 아르헨띠나 축구문화의 깊이와 풍만성을 보여주는 전통임을 또다시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메씨는 축구가 여러 구락부들사이의 단순한 놀음이 아니라 나라들사이의 국력과 영예를 떨치는 심각한 승부겨루기라는것을 체험하게 되였다. 8강까지 올라섰다가 패전의 쓴맛을 본 메씨는 자기의 조국 아르헨띠나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축구명수로 키워준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였다.

그 과정에 2008년에는 제29차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서 아르헨띠나올림픽축구팀을 이끌고 결승경기에서 나이제리아올림픽축구팀을 이겨 금메달을 쟁취하게 하였으며 2009년 5월 유럽선수권보유자련맹전 결승경기에서는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팀이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축구구락부팀을 2:0으로 타승하게 하여 관람석에서 《메씨, 너는 〈귀신〉의 아들이다.》라는 함성이 터져나오게 하였다.

20세기의 축구거장들이 장담하는 《귀신》의 아들—리오넬 메씨가 이제 21세기를 어떻게 장식할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세계축구계와 애호가들이 주목하고있다.

세계축구계의 이러한 관심과 기대속에서 리오넬 메씨는 바르쎌로나축구구락부에 소속되여있던 브라질축구명수 로날디뇨와 마찬가지로 2009년과 2010년 두번에 걸쳐 련이어 세계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로날디뇨는 2004년과 2005년에 련이어 두번 세계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는것뿐이다.

그리고 로날디뇨를 메씨가 몹시 따른다는것이였다.

축구공에 어린 푸른 꿈

집 필 장철유, 신정락, 최영숙
심 사 교수, 박사 리동규
편 집 리봉정 장 정 박철남
편 성 정향애 교 정 전경숙

냈 곳 금성청년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2
인 쇄 주체101(2012)년 1월 1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1월 15일

ㄱ—16645ㄴ 값 140원